악녀는 퇴장하고 동화는 완성되지.

“...태자비 시해 미수범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 그를 사랑했던 걸까. 무엇을 바라며 그를 사랑했던 걸까. 어차피 받지도 못하고 그저 나만 상처받을 뿐인데.

“... 데네아 공녀를 처형한다...”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다. 자신했던 난데, 비참하다. 묶여 있는 손의 고통도 이젠 느끼지도 못하겠다. 하늘을 바라보니, 오늘도 어제처럼 화창하다. 그래, 이런 날씨에 죽는 것도 나쁘지 않지.

턱

단단한 무언가가 날아와 머리에 맞았다. 아릿하며 뜨끈한 것이 흐르는 것을 보니 누군가 돌이라도 던진 것 같았다. 그와 동시에 나는 달걀이며, 돌멩이며,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등등 세례를 받으며 사람들의 야유와 분노를 한 몸에 받았다.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힘겨웠다.

길의 작은 흙이나 돌 알갱이들에 의해 발이 긁혔지만 그런 걸 느낄 새도 없이 억압스럽게 잡는 힘에 끌려가 처형대에 꼴사납게도 철퍼덕 쓰러졌다.

고개를 드니 바닥에 박힌 거대한 도끼가 보였다. 그 도끼가 비춘 내 모습은, 며칠 전의 나라고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이었다.

항상 보는 사람의 눈을 사로잡으며 찬란했던 은발은 감옥에 갇힌 동안 감지 않아 떡이 졌고, 생기 있게 반짝이던 바다 빛 눈동자는 어두컴컴해져, 멍하니 비친 내 모습을 쳐다볼 뿐이었다.

또다시 근위병에게 끌려간 나는 처형대에 목을 올려놓게 되었다. 고통스럽지 않게 한 번에 죽여줬으면 하는데

‘이럴 거면 왜 그를 사랑한 건가...’

위를 바라보니 그와 그의 연인이 보였다. 그들은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찰나의 침묵이 감돌고, 그가 손을 들어 엄지만을 펼쳐 보이더니, 이내 아래로 향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은 나의 업보일 뿐, 그 누구를 탓하리.

‘당신들, 알아요? 내가 보기에도 당신들 잘 어울려요.’

그러니 행복하길. 악녀는 퇴장하고, 이젠 동화의 끝을 맺을 시간이었다. 그러고 보면 퍽 우습지 않은가. 그들은 나를 처형시키는데, 나는 그들의 행복을 바란다니. 그를 향한 내 마음은 여전한 건가...

자, 나는 이만 가네요. 후에 하늘에서 만난다면 이야기 좀 들려줄래요? 혼자서는 쓸쓸할 것 같거든요.

퍽

‘좋은... 사랑하길..’

제국력 285년, 데네아 공작가의 오만함으로 잘 알려진 세리스틴 데네아 공녀는 그렇게 첫 생을 마감했다.

하늘이 파랗다.

마치 나의 죽음을 맞이해주던 그 날의 하늘처럼. 나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을 보고 있자니 자꾸 전생과 함께 그 날 또한 생각난다. 핏빛으로 물든 어둠을 마지막으로 첫 번째 생을 끝낸 날. 모든 걸 포기하고 후회하며 눈을 감고 떴을 땐 낯선 곳이었다. 그곳이 바로 지금 내가 두 번째 삶을 사는 대한민국이기도 하고.

처음에 눈을 뜨고, 보이는 풍경이 낯설어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나온 것은 아기의 울음소리. 너무나 당황하여 크게 울어버리고 까무룩 기절 해버렸었던 기억이 난다. 나중에 알아보니, 그 당시 내가 있었던 곳은 보육원 문 앞 계단이었다고 한다.

그저 하얀 천에 칭칭 감긴 채 울다 지쳐 쓰러진 나를 발견하고 키워준 것이라며 원장 선생님이 20살의 내가 그곳에서 나갈 때 누덕누덕해져 버린 하얀 천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해주셨다.

“...아야!”

“지아야!”

“아아, 미안. 잠시 생각 좀 하느라.”

“괜찮아? 너 오늘 좀 이상해.”

잘만 걷고 있던 얘가 멈춰 서서 하늘을 바라보니 이상하다고 느껴질 만했다.

“미안해~ 이만 가자.”

나는 멋쩍게 웃은 뒤 시현의 팔에 팔짱을 끼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거 알아? 너 아까부터 툭하면 하늘 보고 있었어. 무슨 하늘에 애인이라도 있는 거야?”

끝말은 농담이었는지, 시현은 혼자 킥킥 대며 웃었다. 그러다가 곧 말이 없는 나를 보고 웃음을 그쳤다.

“지아야, 우리 카페라도 갈까? 기분 전환할 겸!”

“카페? 그거 좋지.”

워낙 활발하고 수다 떨길 좋아하는 시현이는 금세 자기의 다른 친구들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야 뭐, 제국에서 어릴 적의 나도 수다 떨길 좋아하는 소녀였지만 점점 악독스럽고 고집 센 오만한 공녀가 되어버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흑역사다. 지워버리고 싶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다. 그나마 한국에 와서 많은 걸 배우고, 알아채지 못한 걸 깨달으면서 성격이 좀 바뀌었다.

정정한다. 많이 바뀌었다. 덕분에 시현이 같은 친구도 만나며 제국의 아부와 가식이나 떠는 그저 그런 영애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친구들을 만났다. 이곳은 제국과 딴판인 세상이었다. 황제도, 귀족도 없고, 신분의 격차 없이 모두가 평등하다. 특이한 점은 거의 모두가 흑발이라는 점이었다.

“맞다 맞다, 너 요즘 취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 다들 취업 때문에 힘든 것 같더라.”

“나? 어... 그냥 언제나처럼 바이올린 켜고, 돈도 벌고, 하지. 이번에 유튜브 개설했는데 사람들이 꽤 들어주시는 것 같아. 콘서트 요청도 좀 더 자주 들어오고.”

“이야~ 부럽다, 야. 넌 그래도 좋아하는 거 하면서 돈이나 벌지, 난 지금 회사 몇 군데에 입사지원 하긴 했는데 붙을지나 걱정이다. 후...”

시현은 한숨을 쉬었다. 나와 다른 친구의 사정에 난 작게나마 위로를 해주었다.

“그럼, 우리 시현이의 입사를 기원하며 오늘은 내가 쏠까?”

“어, 진짜?! 너 내가 비싼 거 시켰다고 나중에 쩨쩨하기 굴기 없기다?”

“날 뭐로 보는 거야, 알잖아, 나 뒤끝 없는 거.”

“헤에? 뭐래, 우리 대학 다닐 때 김용수 그 자식이 너 다리 걸었다고 네가 한 일주일 내내 실수인 척 발 밟았잖아. 나랑 예은이랑 그거 알고 엄청 웃어댔는데.”

“어머, 내가 언제?”

“와, 이 기지배 발뺌하는 거 보소.”

“아, 벌써 다 왔네. 저 앞이지?”

“응? 아 거기 맞아. 평일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사람이 없네.”

“그러게.”

딸랑

경쾌한 벨 소리가 한적한 카페 안을 울렸다.

우리는 계산대로 가서 각자 케이크와 음료를 주문했다. 그리고 막 계산을 하려는데,

“어떡해, 나 카드가 없어...”

“뭐? 현금은?”

“현금도 없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카페 창문으로 횡단보도 너머의 은행이 하나 보였다.

“아, 저기 앞에 은행 가서 뽑아올게. 금방이면 되니깐 먼저 먹고 있어. 내 몫 남겨두고!”

“차 조심!”

나는 얼른 문을 열고 급히 나갔다. 때마침 신호등도 초록 불이라 후다닥 뛰어갔다. 은행의 현금 인출기 앞으로 간 나는 돈을 적당히 뽑고 다시 나갔다.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며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대충 욱여넣었다. 저 앞 카페의 창가에 시현이가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마침 시선을 느낀 건지 시현이도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턱을 괴고 음료를 빨아 마시는 시현이 손을 들어, 내게 흔들어 주었다. 나도 같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신호등의 불이 다시 초록색으로 반짝이자 나는 황급히 뛰쳐나갔다.

너무 빨리 나갔나.

시현이만 보고 뛰는 바람에 나는 나에게 달려드는 트럭 하나를 미처 보지 못했다.

시현의 깜짝 놀란 표정이 눈에 들어왔다.

쿵-

손에 들린 지갑 속의 돈이 흩날렸다. 나의 첫 번째 죽음의 그 날처럼 하늘은 파랬다.

하, 이럴 줄 알았으면 못해본 거 다 해보는 거였는데... 연애라는 것도 못 해보고... 이렇게...

화창한 어느 여름날, 신지아 이자 세리스틴 데네아는 24세의 나이에 두 번째 생을 마감했다.

첫 번째 생에서의 나는 철이 없었다. 항상 무관심하기만 한 가족들, 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한 사랑, 비뚤어져 버린 마음. 그 탓에 난 황족 시해 미수로 처형당했다.

두 번째 생에서의 나는 제국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걸 보았고, 미처 느끼지 못했던 걸 느끼며, 미처 깨닫지 못한 중요한 사실들을 그제야 깨달았다. 그리고 후회했다.

잠들기 전에 항상 생각했었다.

다시 제국으로 돌아간다면, 달라질 것이라고.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어긋나고 비틀어진 내 과거를 바로잡고 싶다고...

나는 낯설지만 익숙하기도 한 천장에 눈을 깜박였다. 침대-라고 추정되는 곳-에 누운 상태에서 고개만을 돌려 주위를 살펴보았다. 이 낯설지 않은 풍경.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방인데.

달칵

“어머, 아가씨. 일어나셨어요?”

아

“얼른 씻으시고 식당으로 가셔야죠. 주방장님이 오늘은 오랜만에 힘 좀 쓰셨다면서 아가씨의 미각을 믿어보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마샤...”

“네, 아가씨. 부르셨어요?”

“나, 나 왜 여기에..”

“아가씨? 왜 그러세요?”

“나 분명히 차에 치여서 죽었는데..?”

“아가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악몽이라도 꾸셨나요?”

“악몽..?”

마샤의 부축을 받으며 몸을 일으켜 좀 더 자세히 주위를 살펴보았다.

이제 생각났다. 왜 낯설지 않나 했더니, 제국에서의 내 방이었다. 크고 화려한, 한국에서 살았을 때의 원룸보다 4배는 더 큰 내 방.

“하...”

조금은 머리가 맑아졌다. 그래, 다시 돌아온 거구나. 내가 원래 있던 곳으로.

그런데 무언가 이상하다. 마샤의 키가 원래 이렇게 컸었나? 이불 속에서 손을 꺼내자 이상한 점이 또 한 가지 있었다. 내 손이 이렇게나 작았던가? 무언가 예상되는 바가 있어,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았다.

거울에는 은발의 작은 소녀가 나를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아가씨? 거울은 왜...”

내 몸이 작아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어려진 것 같다. 오목조목한 얼굴에 순하게 생긴 동글동글한 눈매, 새하얀 우유 같은 피부. 딱 어릴 때의 나다.

“마샤...”

“네, 아가씨. 말씀하세요.”

“올해가... 제국력 몇이지?”

“올해요? 올해는 제국력 270년이죠.”

25살의 내가 죽은 연도는 285년, 그리고 올해는 270년. 그 말인즉슨, 나는 한국에서 24살에 죽은 뒤 제국에서 10살로 회귀한 것이었다.

나는 식당 문 앞에서 숨을 크게 들 마시고, 내뱉었다.

이 안에 부모님이 계신다. 오라버니와 남동생도. 그들은 날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전생의 가족들이 떠올랐다. 평소 내게 무관심했던 부모님과 오라버니, 날 싫어하다 못해 경멸한 남동생. 그때는 그토록 애정이 받고 싶어, 별짓을 다 했었다. 그러고 보니 오라버니와 동생은 내가 열 살이니 각자 열다섯에 아홉이겠구나.

난 열 살 적의 기억은 별로 없다. 십 대를 살 적 유난히 기억에 남는 건 사교계에 나가게 된 17살부터 그들이 날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한국에 와서 기억이 나며 깨달았다. 어릴 적 내게 무관심했어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애정을 주고 있었다는걸.

“아가씨, 이제 들어가셔야죠."

“아, 그래. 문 열어.”

24년이란 세월 동안 민주주의적인 나라에 살다 보니 시녀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익숙지않았다. 나는 마음의 준비를 다 끝낸 상태에서 식당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엔, 그들이 보였다.

“세리스틴, 간밤엔 잘 잤느냐?”

무뚝뚝하지만 쑥스러운 애정이 눈에 띄는 아버지.

“어머, 세리. 좋은 아침이구나.”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네시는 어머니.

“..... 잘 잤냐.”

어머니의 눈초리에 겨우 인사를 하는 오라버니와.

“누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항상 날 차갑게 대했지만, 지금은 나를 누나라 부르며 귀엽게 인사하는 남동생.

왜 25살의 난 이 모습을 기억하지 못했을까. 왜 난 죽어서야 깨달았을까. 첫 삶을 살 때, 어렸을 적의 기억은 대부분 잊고서는 가족들의 애정, 관심을 그렇게나 받기 위해 노력했던 나날들이 허무했다.

한국에서 머리로만 깨달았던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니 실감이 났다. 그들은 나를 사랑했다. 다만 멍청하게도 내가 그 사실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했던 게 문제였다.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다들, 좋은, 아침, 이예요.”

아침 인사 한마디를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다. 억지로 나오려는 눈물을 삼키며 나는 입가에 ‘신지아’ 가 자주 짓던 미소를 띠고 웃었다.

“웬일이니? 우리 세리가 이렇게 웃는 건 오랜만에 보는 것 같구나. 그렇죠, 여보?”

‘여..보?’

내가 기억하기론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여보라고 하신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 세리스틴. 웃으니 아름답구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헤르베디.”

“뭐... 조금은요.”

“아... 아, 가, 감사합니다..”

“저도 누님이 웃으시니 조, 좋아요!”

“그래, 고맙다, 로... 테인.”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애정을 주고 있었을 줄은 몰랐다.

과거의 내가 너무나 미웠다. 주위를 잘 살펴보지 못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내가 한심하게 보인다.

나는 자리에 앉아 시종들이 날라주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어쩐지 밥이 그리웠다. 한국에 오기 전 실컷 먹었던 익숙한 음식들인데, 지금은 밥과 김치찌개가 당겼다.

탁

입맛이 들지 않아 약간의 빵과 스프, 물로 배를 채운 뒤 숟가락을 내려놓자, 어머니께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날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세리, 음식이 입에 안 맞니? 주방장에게 얘기해서 다른 거로 바꾸라고 할까?"

"아니에요, 어머니. 좀 배불러서 그래요. 전 먼저 올라가서 쉬고 있을게요. 잘 먹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선 문을 열고 나갔다. 배부르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저 입맛이 없었을 뿐이다. 물론 쉬고 싶긴 하다. 뒤따라오는 마샤의 인기척을 느끼며 나는 내 방으로 올라갔다.

"여보, 우리 세리가 어제와는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세리스틴이 열고 나간 식당 문을 바라보며 데네아 공작부인은 걱정 어린 말투로 말했다.

"그런 것 같기도 하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까 보니 안색이 안 좋던데, 어디 아픈 게 아닌가 싶은데.."

"어머니, 제가 나중에 시녀에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 염려 마세요."

헤르베디는 조용히 식사하며 말을 꺼내었다.

"누, 누님께서 어디 아프세요...?"

"세리스틴은 아프지 않아, 로테인. 입가에 묻은 것 좀 닦지그래."

로테인은 형의 말에 얼굴이 빨개져, 냅킨으로 입가를 벅벅 닦아내었다.

"헤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네가 동생들을 아낀다는 건 알지만, 나는 네가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해줬으면 한단다."

"예."

어느새 식사를 마친 데네아 공작 부부는 일어서며 말했다.

"그럼 우리도 이만 가보마. 참, 헤디. 세리의 상태 좀 봐주렴."

"예,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머니, 아버지!"

나는 침대에 엎어졌다.

"하아..."

10살로 회귀하긴 했는데, 머리가 혼란스럽다. 일단 현재와 미래에 대비하여서 할 일을 정리해야했다. 나는 침대에 엎어진 게 무색하게도 침대에서 일어나 종이와 펜을 들고 책상에 앉아, 앞으로의 일에 대해 정리를 시작했다.

1. 절대로 황태자의 약혼녀가 되지 않을 것.

황태자를 사랑한 것도 과거의 비극 발단 중 하나이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된다.

2. 가족들의 애정 표현을 오해하지 말 것. 그들이 언제나 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 것.

최소한 12살까지의 나는 꽤 온순한 성격이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점차 커가면서 악독하고 오만하기로 유명한 공녀가 돼 버렸다. 물론 그 덕분에 대부분의 귀족이 내 비위를 상하게 하는 짓은 하지 않았지만 그 때문에 나는 사형장의 핏물이 되어버렸다.

3. 황태자의 연을 이어줄 것.

항상 그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었다. 너무 잘 어울린다고. 형식상인 약혼녀에게 보여주는 대외적인 미소 말고, 진심이 우러져 나오는 그런 미소를 짓는 그와 짓게 만드는 그녀는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다.

그런 생각에 과거의 난 점점 더 질투에 눈이 멀어져갔지.

그래, 솔직히 말하자면 난 황태자가 사랑하는 그녀가 부러웠다.

아르체아 멜튀스.

그녀는 나와 달리 조용하고 침착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 한국에서 살고 있었을 때, 시현의 추천을 받아 로맨스판타지 소설들을 몇 개 읽어 본 적이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설은 여주인공이 남주인공과 사랑에 빠지지만, 남주인공을 사랑하는 악녀에 의해 항상 위험에 처하면서 그걸 또 남주인공이 구해주고 끝내 악녀는 죽거나 파멸하게 되며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되는 형식의 소설들이었다.

말을 좀 빌리자면, 아르체아. 그녀는 여주인공이었다. 나는 악녀에 불과했을 뿐이고.

아, 물론 이번 생에서는 결코 내가 악녀가 되는 일은 없다. 나도 살고 싶고, 그저 내가 황태자와 그녀의 사이를 방해하지만 않으면 되는 일이니깐.

그러니 조용히 지켜보면서 방해물은 조금씩 제거해 줄 생각이다. 그들이 이어지는 데에 나는 찬성이다. 황태자는 나 같은 여자와 이어지기엔 아까운 인물이다. 참고로 이 이유에는 재미도 조금 포함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4. 이번 생에서는 꼭 연애해볼 것.

절대 이번 생에서도 솔로로 끝내지 않으리.

젊은 20대를 2번이나 모솔로 보내다니,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나는 결연한 표정으로 '연애'라는 단어에 밑줄을 쫙쫙 그었다.

똑똑똑

이런 이른 점심에 누구지?

나는 의아해하며 방문을 열었다.

달칵

"어... 오라버니?"

"..."

"여긴 어쩐 일로..."

"어머니께서 네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고 하셔서 온 것이다."

"아, 네.. 하지만 저는 멀쩡한 데... 엑?"

오라버니는 멀쩡하다는 나의 말은 무시한 채 자신의 손으로 내 이마를 짚어 보았다.

"그래, 멀쩡하구나. 간다."

"예... 안녕히 가세요."

오라버니는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가버리셨다.

나는 방문을 닫고 의자에 앉아, 읽던 책을 마저 읽었다. 그리고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며 다시 한가로운 점심을 보내려는데.

똑똑똑똑

'뭐지...'

오라버니께서 다시 돌아오신 건가 싶어 나는 방문을 열어보았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오라버니가 아닌 동생이었다.

"누님, 누님, 어디 아프신 건가요? 몸이 안 조흐세요?"

"... 나는, 멀쩡하단다, 로테인. 건강해. 아프지도 않고."

오라버니에 이어 로테인 마저 방으로 찾아왔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일이다.

"하, 하지만 어머니께서.."

"로테인, 난 진짜 괜찮아. 열도 안 나는 걸. 그러니 걱정하지 말렴."

나는 나오려는 한숨을 삼키며 걱정스레 바라보는 로테인을 적당히 달래 자기 방으로 보내고, 방문을 닫고 기댔다.

왠지 얼떨떨했다. 그리고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날 걱정해주었다. 그 무뚝뚝한 오라버니가. 그 차가운 남동생이. 회귀를 한 날부터 기분이 좋았다. 앞으로도 이런 기분을 느끼는 일이 많기를, 나는 마음속으로 빌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했다. 오전에는 무엇을 했느냐, 요즘에는 무엇을 배우냐, 등등 소소한 이야깃거리들이 식탁을 오갔다.

이번에는 나도 식욕이 돌아, 좀 배부르게 먹었다. 아, 이러면 살찌는데.

"그러고 보니, 세리. 몸은 괜찮니?"

"어머니, 저 아프지 않아요. 멀쩡하고 건강하다고요."

나는 웃으며 어머니를 안심시켜드렸다. 정말로 다들 날 걱정해주는구나.

"아침부터 안색이 좋지 않길래, 네 어머니가 걱정하시더구나."

"아침에 배부르게 먹어서 그랬어요, 아버지.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일상 얘기들이 오가는 점심이 끝나고, 나는 오후를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다, 도서관에 가기로 했다.

"도서관이요? 황궁 도서관으로 가시는 건가요?"

"뭐? 아, 뭐. 그렇겠지?"

"아가씨께서 웬일로 도서관에..."

"안 돼?"

"아뇨. 어머, 그럼 혹시 몰라요. 우연히 황궁에서 황태자 전하를 뵐지도 모르잖아요!"

꺅꺅대는 마샤를 짜게 식은 눈으로 바라보며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냥 책만 빌리고 올 꺼야. 게다가 평소에도 바쁘신 전하께서 황궁 도서관에 오실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 치장은 간단하게 해 줘."

풀이 죽은 마샤를 내버려 두고,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직 황태자를 만날 준비가 덜 되어 있지만, 내가 가려는 곳은 도서관이다.

과거, 황태자의 약혼녀였던 나지만, 그가 도서관에 가는 것은 나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 마주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

그래, 0%다. 물론 0.1%라도 있겠지만, 설마 오겠는가.

미친.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나는 오늘 깨달았다.

"...고귀하신 제국의 레르칸트 샤 지크레핀 황태자 전하를 뵙습니다."

"데네아 영애? 영애가 여긴 어쩐 일이지?"

'난 아직 그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고!'

마음속으로 절망적으로 외치며 나는 눈을 내리깔고 대답했다.

"황궁 도서관에 책을 좀 빌리러 왔습니다."

"그런가. 영애가 책을 읽어서 뭘 하겠느냐마는."

어디서 무슨 소리 안 들리시나요? 제 이성에 금 가는 소리. 나는 일단 이 자리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그럼 전 이만..."

"아, 잠깐."

'왜, 또!'

"음... 아니다. 갈 길 가봐."

흑발의 소년이 시종을 여럿 데리고 사라지는 모습을 눈에 담고선 난 몸을 돌렸다.

나와 황태자는 나이 차가 2살밖에 안 되니깐, 지금 나이가 아마... 12살이구나.

'한국에서 살았으면 넌 나한테 진짜... 하..'

생각보다 이르게 그를 만난 건 좀 당황스럽지만, 이것으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내 심장은 더 이상 그를 향해 뛰지 않는다. 만약 이 생에서도 마음이 황태자를 향했었다면 과거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지.

도서관에 도착한 나는 내가 원하는 책을 금방 찾을 수 있었다.

'역시 황궁 도서관. 그 이름에 걸맞게 책을 어마어마하게 소장하고 있어.'

나야 좋지만.

"어머, 영애님. 이 책을 모두 읽으시게요?"

푸근한 인상의 사서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내게 물었다.

"네. 첫 대여는 최대 10권이 맞죠?"

"네, 네. 무거우실 텐데, 시종을 불러다 드릴게요. 잠시만요."

사서의 배려에 감사하며 나는 그녀가 시종을 데려오기를 기다렸다가, 밖으로 나와 원칙상 도서관 밖에서 대기해야 하는 마샤에게 다가갔다. 마샤는 내 옆의 시종이 들고 있는 책의 권수를 보고 놀라서 말했다.

"아가씨, 무슨 책을 이렇게 많이도 빌리셨어요."

"후후. 앞으로의 내 미래에 대한 아주 심오한 책이랄까?"

나는 그저 웃었다. 내 잠겨있는 서랍 속의 종이에 적혀있는 4번을 시행하기 위해선, 먼저 간접 체험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가씨, 설마 이 많은 책을 다 읽으시게요?”

마샤는 탁자 위에 쌓인 열 권 남짓한 책들을 보며 말했다.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맨 위에 놓인 책 한 권을 집어 들고선 펼쳤다.

“응.”

“하지만 아가씨..”

“왜?”

건성건성 대답하며 책의 목차부터 읽어보려는데 마샤가 울상이 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 책들 제목이...”

“제목이 왜?”

‘연애의 비법’, ‘한 권으로 읽는 연애 고수가 되는 법’, ‘사랑의 시작’ 등 이런 책들이 왜?

내 미래를 위해서 읽는 건데.

“아가씨는 아직 10살이신데... 이런 걸 읽으시기엔..”

“10살이면 충분한데? 차차 사랑에 대해 알아가기 딱 좋은 나이네.”

“하지만-”

“괜찮아, 괜찮아. 이거 읽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나는 손을 저으며 아가씨가 달라지셨다며 축 쳐진 마샤에게 간식거리를 가져와 달라는 핑계로 방에서 내보냈다.

‘사랑은 아름다운 거야. 그런데 난 그걸 아직 느껴보지 못했지.’

첫 번째 생에서는 어긋난 마음 탓에 제대로 된 사랑을 못 해봤다면, 두 번째 생에선 안 했다. 안 한 거다. 못한 게 아니라. 비록 한국에서의 외모가 제국에서의 외모보다 조금, 아주 조금 딸리고, 성격도 소극적으로 변해버렸다고 하지만, 안 한 거다.

시현이는 못 한 것이라 했지만 그녀가 오해 한 거다. 나는 정말로 연애를 안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책을 읽어 내리기 시작했다.

“아가씨,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녜요?”

“그래? 딱히.”

“벌써 해가 지고 있는데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산과 산 사이로 해가 저물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네.”

벌써 책을 3권이나 읽어 버렸다. 어쩐지 허리가 뻐근한 느낌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조금 했다. 아직 7권 남았지만, 읽던 책은 저녁부터 들고 나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허기도 지고, 눈도 좀 침침하기 때문이다.

금세 익숙해진 치장을 받으며 천천히 식당으로 내려가던 중, 누군가 반대편에서 걸어왔다.

“아, 오라버니. 안녕하세요.”

나는 드레스 자락을 살짝 쥐고선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오라버니는 좀 당황하신 것 같았다. 그럴 만도 하지. 전 전생의 나는 황족이 아니고선 절대 허리를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부모님이라 하였더라도,

‘그때 내가 미쳤지, 미쳤지.’

오늘 하루를 보낼수록 한국에 있었을 때보다 유독 과거 생각이 더 많이 난 듯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과거에 얽매여있으면 곤란한데...

“... 그래.”

오라버니의 뒤늦은 대답이 들려왔다. 나는 숙였던 허리를 펴다, 머리가 핑- 돌아 잠시 시야가 흐트러져 발이 꼬여버렸다.

탁

“어...”

“칠칠맞지 못하긴.”

오라버니는 한 손으론 내 허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론 손을 잡아, 내가 제 자리에 서는 것을 도와주셨다. 갑자기 웃음이 나오려 했다.

“캄, 사합니다.”

“뭐?”

아, 실수. 웃음과 함께 말을 꺼내, 감사합니다가 캄사합니다가 되어버렸다.

“그, 감사합니다...”

“별 거 아닌 거로, 뭐.”

말은 그렇게 해도, 오라버니의 붉어진 얼굴은 감출 수가 없었다.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짓고, 괜한 장난기가 발동해 식당으로 향하려는 오라버니의 팔에 팔짱을 꼈다.

“뭣-”

“저는 이렇게 오라버니랑 식당에 가는 게 좋은데, 오라버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아까와는 달리 방긋방긋 웃으며 오라버니의 팔에 팔짱이 아니라 거의 안겨들었다.

“아, 아니. 난..”

“네~?”

“후우... 마음대로 해라.”

어머, 우리 오라버니. 수줍음도 많으셔라.

물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시종, 시녀들이 많았지만, 신경 쓰지 말도록 하자.

먼저 식당에 와 계시는 부모님은 우리를 보고 당황하셨지만 그것도 잠시. 부모님은 이내 미소를 지으셨다. 뭐, 로테인이야 왜 형님이 누님의 팔짱을 끼고 오신다며 불평했지만.

제국으로 다시 회귀한 날, 나는 세 번의 생을 통틀어서 제일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어느덧 회귀한지도 7년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나도, 부모님도, 오라버니와 동생들도, 심지어 저택의 고용인들도 많이 바뀌었다.

7년 전, 갓 회귀한 내 태도에 대해 다들 당황했지만, 하루하루가 지나가며 내게 익숙해져 갔다. 오히려 더 반겼었다.

로테인과의 사이는 괜찮은 편이다. 로테인이 생각보다 나를 많이 따르고 좋아해서 조금 부담스럽지만 나쁘지 않은 부담이었다.

오라버니와는 어색하지만, 많이 나아졌다. 가끔 정원을 돌아다니거나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로 인사하는, 뭐 그럭저럭한 사이지만 그래도 이젠 머리까지 쓰다듬어 주시는 정도까지 왔다.

황태자는 그렇게 날 신경 쓰는 것 같진 않다. 요즈음에는 잠행을 많이 나가시는 것 같다. 무슨 일 인진 모르겠지만 덕분에 황궁 도서관에 갈 때마다 마주치는 일은 없어서 좋다. 황태자와 아르체아가 만나게 되는 곳은 그의 성년을 맞이하는 무도회에서였다.

앞으로 겨우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참고로 나는 회귀했던 그 날 이후로부터 황궁 도서관의 단골이 되었다. 이제 도서관 사서인 제리 부인도 나를 보고 긴장하며 격식을 차리지 않는다. 그녀와 나는 간단한 안부정도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주로 말을 거는 쪽은 내 쪽이지만. 황궁 도서관에 오는 사람 중에 생각보다 내 또래의 영애들이나 영식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보다 편하게 도서관에 드나들 수 있었다.

오늘도 나는 어김없이 도서관으로 발길을 향한다.

언제나 생각하는 거지만 황궁 도서관은 참으로 대단한 곳이다. 한국에 있는 도서관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대한 규모와 어마어마한 책장에 꽂혀있는 수많은 책. 그리고 그 수많은 책에는 금서도 대량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영애들의 입맛에 맞게 엄선하여 가져온 소설 중, 내가 원하는 책은 몇십 권 밖에 되지 않았다.

뒤따라오는 마샤를 밖에 대기시킨 채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제리 부인,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어머, 데네아 영애.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에요? 아직 신작 소설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아, 괜찮아요. 오늘은 지난번에 못 본 책들을 빌리러 온 거니깐. 참, 이건 반납할 책들이에요.”

나는 데스크에 가져온 책들을 올려놓으며 반납 인명록에 사인했다.

“데네아 영애는 평소 속독이 되는 편이신가 봐요. 보통은 한 5일은 대출하시던데. 그럼 오늘도 즐거운 독서하세요.”

“네, 감사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형식적인 답례 인사를 건넨 뒤, 발걸음을 옮겼다.

황궁 도서관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는 편이다. 매일 오는 것은 힘들지만 신작 소설들이 종종 새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또 황궁 도서관은 책을 단 5권밖에 빌릴 수 없기 때문에 다 읽은 책을 반납하고 다시 빌리러 들러야 했다.

나는 보통의 영애들이 자주 즐겨 찾는 로맨스 코너를 지나쳐 그늘에 가려진 금서의 공간으로 갔다.

“어디 보자...”

[소꿉친구], [마성의 그녀], [고르나 자작부인의 비밀]... 아, 찾았다.

나는 잠시 주위를 살피곤 책 한 권을 꺼내 들며 마음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이거 아직 못 본 건데!

[황태자의 호위무사에겐 말 못 할 비밀이 있다]

이런 부류의 책은 요즘 내가 보는 소설 장르이자 정말 아름다운 생활 이야기가 담긴 책이다. 이런 책들에도 연애의 비법은 쓰여 있다. 어떤 사랑이라는 것이 다를 뿐이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기에 나는 이 책에 푹 빠져버렸다. 물론 초심은 연애를 해보기 위해 도서관에 드나들었지만 지금은... 큼큼.

언제나 생각하지만, 황궁 도서관에는 다양한 장르의 소설이 참 많다. 이를테면 금서라든가, 금서라던가, 아름다운 생활이라던가, 아니면... 비모르 라던가...

나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책을 꺼냈다. 그리고 2권의 책을 더 고른 뒤에 금서를 책들 사이에 끼워놓았다. 누군가 보더라도 잘 보이지 않게. 만약 다른 사람이 이 모습을 보았더라면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제국의 하나뿐인 공녀가 이런 책을 보다니.

나는 여유롭게 다음에 올 때 빌릴 책을 선정해 놓을 겸, 시간을 때울 겸 해서 도서관 안을 돌아다녔다. 로맨스 코너는 거의 영애들밖에 찾지 않으므로 한적했다. 황궁 도서관이란 이름에 걸맞게 인테리어도, 창밖의 풍경도, 섬세하게 조각된 책장들도 모두 고급스럽다.

내가 원래 있어야 하는 곳으로 돌아왔지만 그래도 가끔, 아주 가끔은 한국이 그리웠다. 나는 창문에 기대어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시현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눈앞에서 친구가 차에 치여 죽었으니 얼마나 참담할까...’

괜스레 시현이가 생각나며 눈물이 핑 돌았다. 흐릿해진 풍경에 눈을 깜박이다 갑자기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저... 데네아 영애..?”

황급히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치고는 나를 부른 누군가를 쳐다보았다.

“실베스 영애. 무슨 일이죠?”

“아, 그게... 의도한 건 아닌데.. 영애께 무슨 일이라도 있는지.. 해서요... 그, 절대로 고의로 본 건 아니에요! 우, 우연찮게...!”

“네, 하고 싶은 말은 잘 알겠어요. 걱정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별일 아니랍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아, 네, 네...”

이벨리아 실베스, 던가.

과거에도 소심한 성격 덕에 백작 영애임에도 불구하고 그리 눈에 띄지 않는 편이었지.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어디서 본 것 같았는데...

“그런데, 데, 데네아 영애께선 여긴 어쩐 일로...”

“당연히 책을 빌리러 왔죠. 도서관에 오는 주요 목적은 책이잖아요?”

“아, 그, 그렇죠...! 저도 책을 빌리러 왔어요! 평소 책을 좋아하거든요... 특히나 마법 이론 쪽으로요! 이론을 배울 때마다 막, 막 새로운 마법을... 합!”

아, 생각났다. 이 여자, 아르체아와 가까이 지내던 사람 중 하나였다. 그리고, 마법? 방금 이 여자가 마법을 배운다고 했나? 그건 둘째치고, 아까부터 신경 쓰이던 게 하나 있다.

나는 찌푸려지는 인상을 억지로 피며 말했다.

“실베스 영애.”

“네, 네!”

하이톤으로 올라가는 끝말에 한 번 더 인상을 피고 난 말을 이었다.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실베스 영애는 어째서 주눅이 든 거죠? 영애는 백작 영애예요. 백작영애 란 자신의 지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나요?”

“아... 그, 그건...”

“백작 영애인 영애가 그렇게 주눅 들면 영애보다 아래인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영애를.”

“그, 네...”

우물쭈물 거리며 고개를 숙이는 실베스 영애를 보며 나는 한숨을 쉬었다.

“전 영애가 좀 더 자신 있고 당당해졌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가 처음 만난 사이더라도 너무

“네...”

나는 말을 마친 뒤, 실베스 영애를 지나쳐 가려다,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아까 마법... 이라고 하셨는데. 실베스 영애, 마법을 할 줄 아나요?”

마법이란 단어를 듣고 한 번 실베스 영애를 떠보았다.

사실, 과거에 아르체아가 황태자와 만날 때 조금 이상한 점을 느꼈었다. 그때엔 별 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조금 미묘한 점이 있었다.

그저 내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보는 것이다.

“아! 저, 저.. 그, 그게...”

“비밀은 꼭 지키도록 할게요. 정말 쓸 수 있어요?”

“네에...”

오, 월척인가?

손을 꼼지락 거리는 실베스 영애를 잠시 말없이 쳐다보다가, 나는 몸을 돌려 로맨스 코너에서 벗어났다.

‘마법.. 마법이라...’

마법을 쓰는 실베스 영애에겐 그닥 관심이 없다. 다만 내 관심은 지금 그녀가 전생에서 아르체아의 편에 섰다는 것이다.

정말 내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그 차분한 아르체아가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그렇지만...

나는 방금 떠오른 충격적인 추측을 내 머릿속에서 지워냈다. 설마, 그럴 리는 없었겠지.

설마...

“아가씨, 오늘따라 왜 그러세요?”

이젠 결혼하여 애를 갖게 된 마샤를 대신하여 새로 온 2년차 시녀인 미르티가 물었다.

“응? 내가 뭐?”

“오전에 도서관 다녀오신 뒤로 멍하니 있으시길래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아아. 딱히.”

나는 책장을 넘기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다. 실베스 영애를 만난 것 빼고는 딱히 없었는데, 뭐.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전 또 아가씨께 누가 뭐라 한 줄 알고...”

뭐라 했긴 했지. 내가.

탁

나는 읽던 책을 그대로 소리 나게 덮으며 말했다.

“미르티, 아버지를 뵈러 가야겠어. 준비해줘.”

“아, 네!”

후다닥 준비를 마친 미르티와 다른 시녀들 덕분에 나는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아버지를 뵈러 갈 수 있었다. 그전에 시녀들의 감탄사를 들어줘야 했지만.

“아, 어떡해! 아가씨는 뭘 걸쳐도 아름다우셔!”

“하아... 얼른 황태자 전하의 성년 무도회가 열려야 하는데...”

“맞아, 맞아. 요번에 새로 나온 드레스들 입혀드려야 하는데...”

“... 거기까지.”

얼굴을 발그레 붉히고 꺅꺅대며 상상 속의 내게 입혀진 드레스들을 상상하는 시녀들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 누구냐?”

“아버지, 저 세리스틴 입니다.”

“세리스틴? 들어오너라.”

기름칠을 잘 해놓았는지 한국에서의 그 흔한 끼익-하는 문 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역시 이런 면에선 제국이 더 월등하다.

“어쩐 일로 왔느냐? 요새 통 보이질 않더니... 어렸을 적엔 잘도 찾아왔으면서, 이 아비는 좀 섭섭해지려 한다.”

철혈의 대재상이란 말이 우습게도 아버지는 서운하단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죄송해요, 요즘 도서관에 자주 출입해서... 참, 아버지. 혹시 실베스 백작 가문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까요? 특히 실베스 영애에 대해서도요.”

나는 아버지 곁에 앉아 본론부터 얘기했다. 아버지는 내 말을 들으시곤 한 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당연하지. 아비가 누구더냐. 말만 하여라,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선 뭐든 들어줄 터이니.”

“감사드려요, 아버지. 가능하다면 조금 빨리 보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비를 못 믿는 거냐? 걱정 말아라. 이른 시일 내에 가져다주마.”

“네, 아버지. 아버지만 믿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런데 갑자기 왜 실베스 가문에 관심을 두는 것이냐? 실베스 가라면, 거의 영지에만 머문다는 백작가 아니더냐.”

“아, 오늘 오전에 황궁 도서관에 갔을 때 실베스 영애와 우연히 마주쳤거든요. 그런데 영애가 내뱉은 말 중에, ‘마법’ 이라는 단어가 나와서요. 조금 미심쩍다고 해야 하나...”

“그렇군... 실베스 정도면 한 이삼일은 걸릴지도 모르겠구나.”

“그럼 전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려요, 아버지.”

요새 만나는 시간이 너무 짧다며 섭섭해하시는 아버지에게 점심에 뵙자는 말을 올리고 나는 집무실을 나왔다.

“세리스틴?”

“누님, 좋은 아침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로테인도 좋은 아침이구나.”

“정확히 말하자면 점심이겠지. 안 그러니, 로테인?”

현관 홀 앞에서 뵌 어머니는 어디 외출 하러 가시는 모양이신지, 우아하게 차려입으신 드레스와 어울리는 부채를 살랑거리며 말씀하셨다.

“아니에요! 아직 12시가... 아, 넘었구나...”

“후훗...”

어머니와 나는 입을 가리며 웃었다. 올해 들어 벌써 15살이 된 로테인은 아직까지도 마냥 어리게만 보였다.

가끔 귀엽게 애교도 부려주니,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로테인 더러 얼음 공자라 부르겠는가.

이런 모습은 가족인 우리와 저택의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특권이니 마음껏 누리자.

“그런데 어머니, 누구 만나러 가시는 건가요?”

“오늘은 하벳 후작부인이 귀부인들끼리 모여 점심이나 같이 들자 하시더구나. 그래서 오늘은 같이 점심 식사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다. 너무 서운해 하지는 말고. 2시쯤이면 돌아올 테니 쉬고 있으렴.”

“다녀오세요, 어머니.”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멀어져가는 마차를 잠시 바라보다 나는 다 읽지 못한 책을 마저 읽기 위해 내 방으로 올라갔다.

“후우...”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털썩 누워버린 나는 긴 한숨을 내뱉었다. 회귀한 뒤, 매우 평화롭고 단조로운 삶을 살고 있건만, 이렇게 답답한 느낌은 왜 생기는 거지?

무언가, 나를 옥죄고 있는 느낌이다. 나는 그동안의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거의 날마다 방 안에 틀어박혀 내내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고 나올 때는 고작 오전이나 오후에 도서관 갈 때, 또 식사 시간 할 때나 기타 등등 볼 일이 있을 때 정도... 인가.

“그동안 나 생각보다 너무 방콕 했는데...?”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 본능적으로 한국에 있을 때 쓰던 말이 튀어나왔다.

나는 침대에 누운 상태로 팔을 들어 침대에 아무렇게나 널려져 있는 책들 중 한 권을 가져왔다. 보통 로맨스판타지 같은 소설에 보면, 여주들의 공통점이 하나씩 있다.

모험.

소설 속에는 곱게만 자란 영애들이 자기 남편은 자기 스스로 찾겠다며 아무 생각 없이 밖으로 나가지만 봉변을 당해, 남주가 구해주는 경우가 허다했다. 아니면 너무 심심한 나머지 가출을 했는데 위험에 처한 여주를 남주가 구해주던가.

“...나갈까.”

답은 정해져 있었다. 허무맹랑한 핑계로 자기합리화를 시킨 나는 평소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점심을 해치우고 답답한 이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저택 밖으로 나가려 했다.

“수도로요?”

“응. 그동안 너무 저택이랑 도서관에만 있던 것 같아.”

“아가씨, 다른 영애들처럼 티파티나 파티 같은 그런 곳에는...”

“번거로워. 치장하기도 귀찮고.”

“아가씨를 아름답게 치장해드리는 것이 저희의 소소한 낙 중 하나인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미르티에게 나는 정말 간단한 외출복을 입혀 달라고 부탁했다. 간단하고 단순한 디자인으로.

그런데...

“미르티?”

“네?”

“지금 내가 이걸 입고 나가면 수도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할까?”

“아름다우신 공녀님이요!”

...랄

잠시 좋지 않은 용어가 나왔지만 잊자. 나는 헤헤거리는 미르티에게 과거의 내가 자주 썼던 그 미소를 지어줬다.

“바꿔.”

“네...”

추욱 쳐진 미르티가 다른 옷을 가지러 간 사이, 시녀들이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겨 주었다. 아니, 단순한 디자인의 외출복을 가져다 달랬더니 지금 당장 무도회에 나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드레스를 입혀주면 어떡하냐고.

좀 시간이 흐른 뒤 미르티가 가져온 두 번째 외출복은 썩 나쁘지 않은 편이었다.

보통 드레스의 두세 겹이 아닌, 치맛단이 천 하나로 겹침 없는 긴팔 드레스로 쌀쌀한 날씨에 어울리는 간편한 드레스였다. 얼핏 보면 그저 평범한 귀족 영애로 보이겠지만 드레스 끝자락에 수놓아진 화려하고 섬세한 장식이나 팔꿈치부터 하늘하늘하게 퍼지는 소맷자락, 목 부분에 박힌 작은 보석 알갱이 몇 알은 그리 평범한 집안은 아닌 듯하게 보였다.

“좋아. 이제 나가면 되겠다.”

“흐엉... 우리 아가씨가... 이딴 천 자락을...”

“미르티, 나한텐 이런 드레스도 괜찮아."

“크흡..”

울먹임을 멈추지 않는 미르티를 저택에 내버려 두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나는 호위 몇 명만을 데리고 나섰다.

“되도록 골목길은 가지 말고, 호위 옆에 붙어 있어라. 그리고 가능하다면 마차 안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아버지, 그냥 집에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걱정하시는 건 잘 알지만 나도 이제 어엿한 17살이다. 전생의 나이들을 합치면... 그냥 생각하지 말자.

수도는 생각보다 시끄럽거나 냄새나지 않았다. 과거에는 의상실이나 티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나왔지, 수도 거리에 신경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고작해야 마차 안에서 푹신한 쿠션에 앉아 머리를 정돈하거나 손톱을 다듬으며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게 전부였지.

뭐, 지금은 마차 말고 두 발을 이용하지만.

내 옆에서 위장 호위 중인 웨티스 경 말고 다른 호위 들은 눈에 띄지 않게 기척을 감추고 잘 따라오는 중이다.

“웨티스 경, 경은 수도에 나와서 해보고 싶은 일 같은 건 없나요?”

“글쎄요, 제가 워낙 수도에 잘 나오질 않으니...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경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종종 이렇게 나올 예정이니 잘 봐두는 게 좋을 거예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가씨.”

“자, 그럼 저쪽 거리부터 둘러볼까요?”

웨티스 경과 나는 함께 거리를 돌며 수도 사람들의 생활을 관찰해보았다. 이곳도 한국과 비슷하게 다들 부지런히 자기 일에 충실한 것 같다. 다른 점을 꼽자면 이곳 사람들이 더 여유로워 보인다는 것? 한동안 말없이 걷다가, 나는 허기짐을 느꼈다. 문득 한국에 있을 때의 길거리 음식이 생각났다. 참 맛있었는데.

‘여기에도 그런 게 있으려나.’

다행히도 멀지 않은 곳에 음식점들이 보였다. 그것도 꼬치나 간단한 샌드위치 같은 것들을 파는.

“경, 호위하느라 배고프지 않아요?”

내내 나를 호위하느라 배가 고플 텐데.

“예? 아, 저는 딱히... 아가씨께선 혹시 출출하십니까?”

“음. 그런 것도 같긴 하네요. 마침 저 앞에 간식 파는 곳이 있으니, 우리 저기에서 뭐 좀 사 먹어 보죠.”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평민들이 먹는 것을...”

“경, 전 신분으로 음식을 가려 먹는 걸 정말 싫어해요. 멀쩡하게 먹을 수 있다면 그게 음식인 거죠."

“...예...”

음식 앞에선 누구나 평등해진다.

이것 또한 내가 한국에서 배운 교훈이었다. 배고프면 다 장땡이야.

“다른 경들에겐 어떻게 할까요?”

“그 자들은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들 체력이 좋으니깐요. 안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건 아는데, 좀 미안해서.

나와 웨티스 경이 일명 군것질 이란 것을 시행해보기 위해 음식점 앞으로 가려던 순간이었다.

“끼아아악! 살려주세요!”

“조용히 해!”

내 왼편에 있는 골목길에서 다급한 비명과 함께 퍽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왠지... 피해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살려주세요, 꺄아악!!”

그런데 저거... 분명히 남자 목소리 맞지...?

남자의 비명소리에 나는 검을 꺼낸 웨티스 경을 앞세워 소리가 들린 골목으로 들어갔다. 어차피 숨어있는 호위들도 따라올 것이다.

소리가 난 곳으로 다가갈수록 넓은 공터가 나타나며 우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새키가! 어딜 감히 사기를 쳐!!”

“잡히면 넌 뒈졌어!”

“끄아악!! 자, 잠만 우리 얘기로.. 꺄아악!!”

비명도 참 이상하게 내는, 모자 쓴 남자 한 명, 그리고 그를 쫓는 우람한 남자 3명.

쫓기는 것으로 보이는 남자는 공터 안을 요리조리 돌아다니며 쫓는 남자 3명에게서 도망 다니고 있었다.

“아, 진짜 형씨들.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쿠당탕

한쪽에 쌓여 있는 나무통들 위에 올라탄 남자는 통 위에서 겨우 균형을 잡으며 얼굴을 가릴 만큼의 모자를 손을 짚어 벗기지 않게 하였지만, 곧 다시 빠르게 발을 놀려야 했다. 이리저리 날렵하게 도망 다니는 것이 참 흥미로웠지만, 굳이 내가 끼어들어 중재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웨티스 경과 함께 가던 길을 다시 가기 위해 몸을 돌린 순간, 절박하게 외치는 남자의 목소리가 우리를 멈춰 세웠다.

“어, 어 잠시만, 거기 아가씨! 가지 말고 나 좀 도와 줘요으꺅!!

“뭔 헛소리야! 거기 서!!”

“아니, 그렇게 말하면 서는 사람이 어딨냐고!!”

남자는 이내 닥치는 대로 손에 잡히는 것을 던졌다. 공터는 넓고, 쌓여진 물건은 많으니 던지기에도 최적이었다. 난 남자를 잠시 흥미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다,다시 몸을 돌렸다.

그러나 남자는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어, 아가씨! 조심해!!”

“무슨-!”

“아가씨!!”

챙-

“워우, 아가씨, 호위 하나 잘 뒀는 끄어어럭!!!”

실수인지 고의인지 확신은 못 하겠지만, 내게 날라온 사과는 웨티스 경의 검에 의해 가로 막혔다. 사과는 검에 박혀 즙을 흘리고 있었다.

남자는 같은 수단을 쓰는, 쫓는 남자 3명에게 무차별 돌세례를 받고 있었다.

“...후우.. 웨티스 경.”

나는 잠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다음, 웨티스 경을 불렀다.

“예, 아가씨.”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 사람들, 꿇려요.”

“예.”

안 되겠어.

웨티스 경의 검이 소란의 원인 제공자들을 가리키자, 숨어있던 몇몇 호위들이 나와 그들을 제압했다.

상황종료는 순식간이었다. 쫓는 자와 쫓기던 자는 사이좋게 결박되어 내 앞에 무릎을 꿇렸다.

“자, 그래서. 소란의 원인이 뭐죠?”

나는 무심코 팔짱을 끼려다 이곳은 제국이란 사실을 깨닫고 손을 거뒀다.

“거기, 귀족 아가씨 같은데. 그쪽이 상관할 일이 아니니깐 이것 좀 풀어주고 갈 길이나 가슈.”

건달같이 보이는 자 한 명이 침을 바닥에 뱉으며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이 매우, 몹시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같았다.

“미안한데, 난 그쪽한테 물은 게 아니랍니다. 거기 당신.”

큰 모자를 쓴 남자가 움찔하며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하... 네?”

“어쩌다가 쫓기게 된 거죠?”

“어, 음... 그러니깐, 아주 사소한 문제라...”

“사소한 문제는 개뿔! 네 놈이 한 짓을 그새 잊은 거냐!!”

“잠시 입 다물어 줄래요? 발언권은 이따 드릴 테니. 당신, 계속 해봐요.”

난 고개를 까딱여 계속 말해보라는 제스쳐를 취했다.

“큼큼. 그게, 제가 상인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떠돌면서 각종 물건을 파는 그런 사람이라, 이 사람들에게 반짝이는 돌 하나를 팔았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찾아 와서는 돌이 집을 홀라당 태워먹었다며 제게 책임을 지라고...”

“그냥 반짝이는 돌이 래매! 위험하지 않다고 네놈이 말했잖혀!!”

“맞아! 귀족 아씨, 이 자식이 우릴 속인 거요!!”

아, 시끄러워. 괜히 나섰나.

“그 돌 좀 보여줄 수 있나요?”

“그럼유! 근데 조심하슈. 이게 내 집을 아주 그냥 홀라당 태워먹어 불랑께!”

우람한 덩치의 남자 한 명이 줄에 묶인 손을 낑낑 움직여, 자신의 주머니에서 천에 쌓인 무언가를 하나 꺼냈다.

“이거유. 이게 바로 그 문제의 반짝이는 돌이라우.”

남자는 천에서 돌 하나를 조심히 펼쳐보았다. 반짝이는 돌이라 한 것이 거짓은 아니었다. 돌에 문양이 하나 새겨져 있었는데, 그 문양에서 빨간빛이 반짝거리며 빛났으니깐.

하지만 이건...

“...이건, 마법석이 아닙니까?”

“맞아요. 이건 마법석 중에서 ‘불’ 의 성질을 가진 마법석이죠. 뭐, 이건 마법석 치곤 약한 편이지만요.”

그런데 어째서 저자가 이 돌을 얻은 거지?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 돌을 볼 수조차 없었을 터인데.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호위들에게 눈짓하여 결박을 풀어주도록 하였다.

“우, 우리를 풀어주는 겁니까?”

“당연하죠. 당신들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다만 집이 불태워졌다고 하니, 그 피해 보상은 일단 제가 내드리도록 하죠. 이 사람은 저희 측에서 벌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쁜 아가씨! 왜 나만!!”

“감사합니다, 귀족 아씨!”

“그 녀석 아주 혼쭐을 내 주십쇼!”

“참,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말씀만 하슈!”

걸걸한 사투리를 쓰는 남자가 말했다.

“혹시 이 돌이 집을 불태웠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떻게 불태운 거죠?”

“아, 그게 말입니데, 한창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황급히 일어나보니 집이 불타고 있었죠! 근데 좀 이상한 게, 딱 그 돌 주위에는 신기하게도 불이 붙지 않더래요. 마치 동그라미처럼 말이쥬. 동그라미 아시쥬? 동글~동글~ 한 거.”

덩치 큰 남자 셋이 자리를 뜬 뒤, 남은 자는 이 자밖에 없었다.

“음..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가씨. 그놈들에게 걸렸으면... 어우! 역시 연약한 절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어요.”

“딱히 신경 써서 구해 준 건 아니고, 내가 위험할 뻔해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요."

사실 벌을 내린다는 것은 핑계고, 이 이상한 남자에게서 무언가를 캐기 위해서다. 어느새 다시 숨어버린 호위들은 기척을 숨기고 있었다. 웨티스 경과 나는 자리를 옮겨 모자를 쓴 수상한 남자와 얘기를 좀 더 나누기로 했다.

사람이 별로 없는 아무 식당으로 간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가, 음식을 주문했다. 다른 호위들도 그냥 같이 먹기로 했다. 물론 변장을 한 채로 말이다.

“그래서, 이 돌은 어떻게 얻은 거죠?”

식사가 끝나고, 나는 차를 마시며 식당에서 마저 모자를 벗지 않는 수상한 남자에게 본론을 물었다.

“아, 그거야 뭐. 제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도 해서 뭐 어찌저찌해서 얻은...”

그의 어물쩍거리는 말투에 내가 눈짓하자 웨티스 경의 검이 다시 남자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번에는 사과가 아닌, 탁자를 박은 채.

“그쪽, 이름이 뭐예요?”

“...로, 로빈입니다.”

아까보단 한결 더 고분고분해진 로빈에게 나는 재차 말했다.

“난 진실을 원해요, 로빈. 사실만 얘기해준다면 당신은 여기서 무사히 나갈 수 있겠죠.”

“만약 거짓이면...?”

“뭐, 최소한 살아서 나갈 수는 있을 테고.”

“어우, 귀하게 자란 아가씨가 뭐 이리 잔혹해요?!”

“됐고, 내 질문에 대답만 해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로빈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그냥 아는 사람이 줬습니다...”

“내가 말했죠, 진실만 말-”

“아, 정말 아는 사람이 줬다니깐요! 정확히는 빌린 거지만.”

로빈은 어깨를 으쓱이곤 턱을 괴었다.

“후우... 로빈 씨.”

“또 뭡니까?”

“이 돌이 뭔 진 알고는 있었나요?”

“그냥 반짝이는 돌 아니예요?”

“이건 마법석이예요. 화염의 기운을 가진.”

“마법석...이요?”

“네. 비록 그 힘을 다른 마법석과 비교했을 땐 약할 진 몰라도, 마법석이란 것 자체가 평범한 사람들에겐 충분히 위협적이에요. 게다가 마법석은 마탑 측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조차 없는 물건이죠. 누군가에게 그렇게 쉽게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란 말이죠. 아시겠어요?”

“아, 음. 네.”

“더 큰 피해가 가기 전에 발견해서 다행이지, 만약 아까 그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누군가 마법석을 이용해서 제국에 피해를 주는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상인이라고 하셨는데. 상인 등록은 제대로 하셨나요? 제국 상인이 마법석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래 뵈도 정식 상인입니다만?”

“그래요? 제국인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제국인은 아니고요, 그냥 떠돌이랍니다. 이것저것 다 팔아요.”

아까부터 느낀 건데, 이 사람 참 잘 웃는다. 계속 싱글싱글 웃는 게 재수가 없어보이기도 하지만 그 나름의 매력을 갖고 있다.

“그럼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번엔 볼일이 좀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국엔 좀 오래 있다 다시 떠날 거랍니다, 아가씨.”

“그렇군요.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물건 처리는 잘하도록 하세요. 오랜만에 밖에 나왔더니, 이런 사단에 휘말렸네요. 제가 자초한 거지만.”

나는 미소를 지으며 웃었다. 로빈 또한 같이 웃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전 이만 가보도록 하죠, 예쁜 아가씨.”

“다음엔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로빈은 대화 내내 벗지 않던 모자를 살짝 들어 올려 눈을 맞춰 인사를 했다. 살짝 드러난 그의 눈동자는 모자의 그늘 아래 빛나는, 아름다운 금색과 녹색이 섞인 신비로운 색이었다.

로빈이 자리를 뜨고 나는 잠시 동안 자리에 앉아있었다.

“아가씨, 이제 가시죠. 각하께서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죠.”

웨티스 경의 말에 그제야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마차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가만히 앉아 수상쩍은 모자 쓴 남자를 떠올려보았다.

‘참 예뻤지, 눈동자가. 모든 생을 통틀어서 그렇게 신비한 눈동자를 가진 사람은 본 적이 없었어.’

잠깐 사이 보일 듯 말듯 보였다가 사라져버린 눈동자도 떠올렸다.

말은 보지 말자 했지만 사실 한 번 더 보고 싶었다. 그 눈동자를.

난 그 눈동자가 보고 싶다고 했지.

“실베스 영애?”

“데, 데네아 영애... 또, 또 뵙네요.. 하하..”

널 보고 싶다고 한 적은 없는데.

“그렇네요.”

나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자리를 뜨려고 했다. 하지만 실베스 영애는 내 뒤를 조심스레 따라왔다.

“데네아... 영애는 오늘도 책을 빌리러 오신 건가요..?”

“그렇답니다. 부인, 안녕하세요.”

나는 제리 부인에게 책을 건네주며 말했다.

“어머, 데네아 영애와 실베스 영애 아니신가요? 참, 데네아 영애. 신작 소설이 나왔답니다, 후훗.”

제리 부인은 코에 걸쳐진 작은 안경을 올리며 웃었다.

“그리고 실베스 영애, 영애가 그토록 고대하던 마법 이론서가 마탑에서 도착했답니다. 2층 서재에 배치해 두었으니 찾아 가세요.”

“아, 가, 감사합니다, 제리..튼 부인.”

소심한 성격은 아직 그대로구나. 하긴 한 번에 사람이 바뀌지는 않지. 아직 4일밖에 지나지 않았다. 실베스 영애를 바라보자니 어제 저녁, 아버지께서 전해주신 실베스 가의 정보가 생각났다.

이벨리아 실베스

16세.

나이는 나보다 한 살 어리고, 어렸을 적부터 마법 골동품에 관심이 많은 실베스 백작에 의해 마찬가지로 마법에 관심을 가짐.

딱히 크게 특별한 것은 없는 그저 평범한 인적 사항 정도의 정보였다.

향 간에 들리는 실베스 가에 대한 소문 따위도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뛰어난 정보력 덕분에 은밀한 비밀 몇 가지는 알아냈다.

첫 번째로, 실베스 영애는 마법 이론에 관심이 많고, 마탑에서 새로운 이론서가 나올 때마다 그것을 즐겨 읽는 것.

두 번째, 실베스 영애가 종종 마탑에 들린다는 것. 마탑 측에서 입증한 사실이니, 의심의 여지는 없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실베스 영애가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것.

이 사실들로 실베스 영애는 그동안 자신이 마법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숨겨왔었다는 걸 깨달았다. 전생에선 전혀 모르던 그녀의 비밀이었다. 아르체아는 알고 있었을까?

만일 평범한 백작가의 여식인 줄 알았던 실베스 영애가, 사실 마법사였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혼란스럽겠지. 마탑의 마법사들은 오로지 마탑 에서만 지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마법이란 낯선 존재였다. 마탑에서 만들어 낸 비싼 마법품은 부유한 귀족들만 쓸 수 있었다는 것도 마법이 낯선 것에 한몫 했다.

“데, 데네아 영애?”

“아, 네.”

“영... 애는 주로 어떤 장르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영애라면 보통 영애들과는 다른 장르를 선호할 것 같아서요...”

장르라... 내가 제일 선호하는 장르라면,

“우정과 사랑?”

“네?”

“뜨거운 우정이 뜨거운 사랑으로 탈바꿈하는... 그냥 못 들은 척 해주세요...”

“아...네..”

우리는 잠시 말 없이 도서관을 걸었다.

‘웨티스 경과 함께 다닐 때도 이 정도의 어색함은 아니었는데...’

“그러고 보니 실베스 영애.”

“네, 네?”

“영애는, 왜 마법에 관심이 많은 건가요?”

어색함을 전환시킬 겸 그녀에게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다.

“재, 재밌잖아요.”

“재미요?”

“네! 마법은 배울수록, 익힐수록 새로운 것이에요. 외로운 저에겐 친구 같은 존재죠. 아, 그래도 친구는 한 명 있어요. 아르체아라고, 정말 착하고 조신한 영애인데요, 전에 지내던 영지의 근처에 있던 영지의 여식이라 수도로 올라오기 전에 치, 친하게 지내던 영애예요. 데네아 영애도 아르체아 영애를 보시면...”

하긴 넌 과거에 아르체아의 뒤편에서 따르던 영애 중 하나였지.

그런데 그 조용히 그녀의 뒤를 따르던 실베스 영애가 이렇게 더듬거리고 소심한 성격일 줄은 몰랐다. 그래서 그저 입을 다물고 있었나?

“...참, 이제 곧 있으면 아르체아도 수도로 올라온다고 했어요. 데네아 영애는 좋은 분이시니깐, 아르체아 영애가 마음에 드실 거에요!”

뭐? 아르체아가 수도로 온다고?

“언제쯤, 온다고 했나요? 그... 아르체아란 영애요.”

“아마.. 2 주 뒤일 것 같아요. 워낙 영지와 수도가 멀기도 하니깐요..”

2 주 뒤? 과거보단 조금 이른 시긴데?

아르체아는 황태자의 무도회가 열렸을 때 처음으로 사교계에 출현했다. 수도로 올라온 날짜도 무도회가 열리기 3일 전이었고. 하지만 지금은 무도회가 열리기 3개월 전이다.

“아르체아는 제 비밀을 알고도 눈감아주고, 감싸준 영애예요. 분명 마음에 드실 거에요!”

아르체아도 그녀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아마... 과거에도 그랬겠지.

일단 실베스 영애의 비밀은 아직까진 밝히지 않을 생각이다. 만일이라는 것이 있으니, 비밀 하나쯤은 만약을 대비하여 가지고 있어야 했다.

“저... 데네아 영애...”

“왜 그러시죠?”

“화, 황태자 전하의 성년 무도회에.. 저랑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실베스 영애는 전처럼 우물쭈물 물었다. 고개를 푹 숙인 그녀의 아이보리에 가까운 금발이 흘러 내렸다.

“여, 역시 안 되겠죠..”

“실베스 영애.”

“네...”

“제가 지난번 만나 뵀을 때도 말씀드렸죠. 영애는 백작 영애니 조금 당당해지라고.”

“네...”

연신 네, 만 반복하는 실베스 영애가 조금 딱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챙겨주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마법을 쓸 줄 안다. 후에 도움이 될 때도 있을 것이다.

“이번 무도회에선 실베스 영애가 달라진 모습을 봤으면 해요. 같이 가죠, 무도회.”

“저, 정말요? 고마워요, 데네아 영애!”

실베스 영애는 눈을 반짝이며 덥석 내 손을 잡았다.

그, 그게 이렇게도 좋나...

“여, 염치없지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저를, 이벨리아라고.. 불러주셨으면 해요.. 실베스 영애라고 하면 좀 딱딱하..”

“그러죠, 이벨리아.”

안 될 것도 없지. 화색이 된 실베스, 아니 이벨리아는 얼굴을 붉혔다.

“세리스틴이에요. 앞으로 종종 뵀으면 좋겠어요.”

나는 마주 웃으며 말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볕 아래 웃는 두 여자, 참으로 훈훈한 광경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보기에만.

“그런데 데네.. 세리스틴은 왜 사교계에 많이 안 나오시는 건가요? 그래도 데네아 공작가 이신데...”

“음... 머리가 아파서라고 해야 할까요? 복잡한 건 딱 질색이라 서요.”

“그런 점은 아르체아와 비슷하시네요. 아르체아도 사교계는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이벨리아와 같이 대화하다 보면 좋은 점이, 내가 모르는 아르체아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조용하고 침착한 아르체아가 가끔 당당히 소리칠 때도 있다거나 박력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 약간의 고집이 세다는 것도.

설마하니 아르체아가 이런 면도 있을 줄은 몰랐다.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단호해질 때는 단호박이 되는 그녀에게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

“이벨리아, 나중에 제가 티파티를 열게 된다면 오시겠어요?”

“다, 당연히 가야죠! 세리스틴의 티파티라니..!”

“고작해야 3명 정도겠지만요. 나중에 그 아르체아란 영애도 같이 가질 생각 이예요.”

“정말 기대 돼요!”

이런 게 소녀의 순수함일까. 어쩐지 이벨리아의 그 순수함이 조금은 부러워졌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우중충했던 이벨리아는 대화를 하다 보니 갈수록 밝아졌다.

“다음에 또 봬요, 세리스틴!”

“조심해서 가요, 이벨리아.”

우리는 도서관에서 각자의 목적을 달성 한 후, 도서관 입구에서 인사를 나누며 헤어졌다.

마중 나온 미르티와 함께 황궁을 나서려는 그 순간이었다.

“데네아 영애?”

'하, 진짜...'

등 뒤에서 들려오는 듣기 싫은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고 몸을 돌려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다.

“고귀하신 제국의 황태자 전하를 뵙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오늘도 황궁 도서관에 온 건가?”

어느새 건장한 19살의 청년이 된 그는 내가 그에게 반했던 매력을 풍기며 시종들을 거느리고 서 있었다.

“예, 전하.”

“영애가 올해로 17살이 되던가? 그대 나이 때쯤 이면 사교계를 활발하게 돌아다닐 때일 터인데, 참 신기해, 그대는.

삐딱하게 누가 봐도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짓는 그의 얼굴을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쳐보고 싶었다.

“제가 워낙 책을 좀 가까이하는 편이라서 말이죠.”

나 또한 마주 웃으며 비꼬듯 말해 버렸다.

“...그래. 그런데... 그대가 그런 책을 좋아할 줄은 전혀 몰랐군.”

황태자의 시선이 내 책으로 옮겨갔다. 로맨스 소설이 왜! 뭐!

그의 시선을 따라 나도 시선을 옮겼다.

‘망했다..’

[우리 오빠가 게이라고?!]

‘진짜 망했어...’

요즘 들어 상스러운 언어가 꽤 나오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

맨 앞에 끼고 있는 책 이름이 하필 이거라니...

정상적인 로맨스 소설 사이에 금서를 끼워두는 것을 깜박했다. 설마 이벨리아도 봤을까..?

“어, 음.. 태자 전하, 이건...”

“됐다. 사람의 취향은 다양한 법이니깐. 이해하지.”

그렇게 말하는 그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었다. 나는 지금 정말 쪽팔려서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기분이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금서를 소설 사이에 끼워두는 것뿐 이었다.

“저.. 그런데 전하께선 여긴 어인 일로...”

“음? 아, 데네아 영애. 2개월 뒤 나의 성년 무도회가 열린다는 건 알고 있겠지?”

“예, 전하.”

“그렇다면 그 무도회에 나의 파트너로서 참석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겠군.”

“...예.”

당연히 알고 있지. 원래대로라면 당신의 파트너로 가야 했지만, 당신이 아르체아를 데리고 와서 나를 망신시킨 일 또한 알고 있지.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 수모를. 첫 번째 삶에서도, 두 번째 삶에서도, 그리고 이번 삶도. 지금으로선 조금 흐릿해진 기억이지만, 그때 그 일은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수모다.

“전하. 송구하지만, 전 전하의 파트너로 참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지?”

“저는 이미 실베스 백작 영애와 함께 가기로 약속-”

“언제부터 데네아 공작가가 황실의 명에 불복하게 된 거지?”

소름이 끼쳤다. 그렇게 차가운 얼굴로, 마치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을 내뱉은 그에게 소름이 돋았다. 나는 작게 떨었다.

‘세리스틴 데네아, 너 이런 여자 아니잖아!’

속으로 외치며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꽉 쥐며 재차 말했다.

“불복이 아닙니다, 전하. 황태자 전하의 파트너가 굳이 저여야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말이군.”

그렇게 말한 그는 몸을 획 돌려 걸음을 옮기려 했다.그러나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전하!”

이번 생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그를 불렀다.

“또 뭐지?”

짜증이 가득 섞인 말투로 그가 되물었다.

“한 달, 단 한 달만 주세요. 한 달 후엔 전하께서 누구를 파트너로 데려가셔도 따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저라 요.”

“... 좋지.”

잠시 고민을 하는 듯했던 그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내게서 멀어져갔다.

이것으로 시간은 벌었다. 남은 건 그와 아르체아가 만나는 것 뿐. 과거의 수모를 다시 반복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이벨리아, 아르체아 영애에게 온 소식 없나요?”

“아르체아요? 최근에 온 편지는 없었는데...”

“그렇군요. 혹시라도 수도에 온다는 연락이 오면 알려주세요. 아르체아 영애를 꼭 한번 뵙고 싶거든요.”

나는 웃으며 시녀가 방금 내온 따뜻한 차를 마셨다.

현재 이벨리아와 나는 데네아 공작가의 저택의 정원에서 작은 티파티를 열어, 담소와 함께 즐기는 중이었다.

최근 들어 이벨리아는 나와 함께 있을 때마다 더듬거리는 버릇이 사라지는 중이다. 예전의 그 소심한 성격도 차차 나아지고 있고.

“참, 세리스틴. 이번에 비미르 작가님의 새로 나온 신작 소설 보셨나요?”

“아, 혹시 그...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연히 봤죠.”

나는 시녀를 물리고 목소리를 살짝 낮춰 대답했다.

“어머 어머, 벌써요? 전 나오자마자 사려고 했는데, 사는 것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역시 비미르 작가님의 소설은 정말 대단해요!”

“맞아요, 후훗.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그 비미르 작가님이시잖아요?”

“비밀에 둘러싸인 채 수많은 금서를 집필하신 비미르 작가님..! 저도 작가님처럼 되고 싶어요... 사실, 작가는 제 소박한 꿈이거든요.”

“언젠간 비미르 작가님처럼 훌륭한 비모르를 쓰시길 바랄게요.”

나와 이벨리아는 마주 웃으며 예쁜 트레이에 담긴 쿠키를 집어먹었다.

“아아, 그날 세리스틴이 제게 마성의 장르를 알려주시지 않았더라면 전 평생 마법 이론서에만 박혀있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에요, 비모르는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돼야 할 위대한 장르죠. 요즘엔 영애들도 비미르 작가님의 명작들을 자주 본다고 하더군요. 비미르 작가님의 애독자로선 뿌듯한 일이죠.”

“그것참 잘 된 일이네요! 다만 조금 걱정되는 것은 요새 작가님의 안티 팬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부디 안전하셔야 할 텐데 말이죠...”

“흠, 작가님을 건들 인다면 비미르 작가님의 모든 팬들의 분노를 한 몸에 받아야 할 텐데요.”

“‘비.사.모’ 회원님들도 벼르고 계셔요. 출판사로 동물의 사체나 끔찍한 협박 편지들이 많이 온다며 잡히면 가만두지 않으시겠다고..”

“참, 요즘 ‘비.사.모’ 에 나가지 않았군요. 명색이 회장인데, 나중에라도 가봐야겠어요.”

“어머, 회장님께서 오신다면야 환영이죠. 부회장께서 세리스틴의 회장 자리를 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긴장하셔야겠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게 말하는 이벨리아에게 나는 훗 하고 웃어주며 입을 열었다.

“‘아무리 네가 나를 피해도 소용없어. 넌 처음부터 내 것이었으니깐...’”

"아... 이건 비미르 작가님의 명작 중 하나인 [주인님, 나의 주인님]에 나오는 그...!"

"맞아요. 그 소설에 나오는 펠릭스가 타인즈에게 했던 명대사죠. 회장 자리를 얻기 위해선, 그 결투를 해야 해요. 그리고 저는, 결투라면 자신 있죠.”

“하긴, 세리스틴은 비미르 작가님의 첫 작부터 보아오신 열렬한 애독자이시니까요. 참, 전 솔직히 펠릭스보단 가네온 파였는데... 조금 아쉬워요. 다정다감한 가네온이 펠릭스보다 타인즈에게 더 어울리죠.”

“어머, 이벨리아가 펠릭스의 매력을 모르시는 군요. 펠릭스의 박력이 순진한 타인즈와 어울린답니다.”

“그래도 저는 가네온 이예요. 가네온과 타인즈라 하면, 분명 아름다운 연인일 거예요.”

“펠릭스와 타인즈가 더 멋진 그림이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가네온 이예요!”

“펠릭스 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동안 누가 더 타인즈에게 어울리나 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눴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조금씩 해가 지기 시작하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이벨리아를 배웅했다.

“오늘 차 잘 마셨어요, 세리스틴. 다음에는 제가 초대할게요. 내일 봬요, 세리스틴!”

“덕분에 즐거웠어요. 조심해서 돌아가요, 이벨리아.”

나는 이벨리아가 탄 마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현관에 서 있다가, 다시 정원으로 돌아갔다. 잠시만 나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다. 뒤따라오려는 시녀들을 손짓으로 물린 나는 이벨리아와 함께 차를 마셨던 곳으로 돌아가,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후우...”

황태자와 만난 지 벌써 10일이나 흘렀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아르체아가 와야 할 텐데, 날이 갈수록 살짝 초조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 쪽에서 편지를 보내야 하나..’

겨우 10일밖에 지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내겐 중요한 일이었다. 황태자와 만날 때마다, 그가 내게 조금씩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다. 과거와 다른 전개가 이어질지도 모른다. 더 늦기 전에 아르체아와 황태자를 만나게 해야 한다.

‘오랜만에 수도에나 나가볼까?’

그러나 나는 금세 그 생각을 접었다. 이미 해도 졌고, 슬슬 저녁을 들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내일이나 내일모레 가면 되겠지, 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아가씨, 이번에는 부디 각하의 말씀을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저번처럼 뒷골목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 말인가요? 잘 알고 있답니다, 웨티스 경.”

오늘도 웨티스 경이 밀착 호위를 맡아주었다. 다른 호위들은 전과 같이 은신 중이었다.

“그리고, 그 로빈 이란 자와는 엮이지 마십시오. 수상쩍어 보입니다. 정식 상인이란 것도 거짓말 같습니다.”

“경, 세상은 넓다는 말 못 들어보셨어요? 거기다가 로빈은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요. 수도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알겠습니다.”

웨티스 경은 무언가를 더 말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지만, 이내 말을 거뒀다.

“자, 그럼 오늘은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일을 하러 가볼까요?”

갑시다, 군것질하러.

한국에서의 군것질은 생소했다. 제국에서 언제나 고급스러운 음식들만 먹던 내게 과자라는 것은 정말 낯설고, 신기한 간식이었다.

‘과자 하니깐 과자 먹고 싶다..’

예를 들면 뭐, 배배로 라던가, 간초 라던가, 고래밤 이라던가 하는 것들. 참고로 아이스크림도 끌렸다. 아이스크림은 역시 세계콘이지.

나는 헐렁한 소맷자락을 펄럭이며 앞으로 나섰다.

오늘의 복장은 내가 미르티에게 간곡히 부탁하다가 결국에는 명령으로 인해 가져오게 된 평범한 수도 소녀의 복장이었다. 웨티스 경 또한 간단한 남자 의상을 입고 있었다. 다만 웨티스 경의 외모가 그 약간 허름해 보이는 옷을 단숨에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지.

덕분에 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몇몇 여인들의 눈총을 내가 다 받아야 했다.

“경, 우리 한 번 저기서 뭘 좀 먹어 볼까요?”

나는 꼬치를 파는 가판대를 가리키며 물었다.

“아가씨께서 하고 싶으신-”

“참, 오늘은 아가씨 말고 그냥 세리라고 불러요. 오늘 전 그저 평범한 수도 소녀랍니다.”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한국에서야 평범한 일상이지만 여기서는 색다르고 재밌잖아?

“아저씨, 이거 하나에 얼마에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열심히 꼬치를 만드는 주인장에게 절로 한국에서 쓰던 말투가 튀어나왔다. 옆에서 웨티스 경의 표정이 기겁하는 표정이지만 신경 쓰지 말도록 하자.

“어이구, 예쁜 아가씨. 꼬치 사러 오셨나? 이게 고작 하나에 1 실버밖에 안 한다우.”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제일 인기 있는 게, 요 닭꼬치 지!”

“그럼 그걸로 2개만 주세요.”

나는 2 실버를 내고 기분 좋게 웃으며 주인장에게서 꼬치를 받아들었다. 얼떨결에 처음 먹어보는 꼬치의 맛에 웨티스 경은 꽤 마음에 들어 하는 듯했다.

“맛있죠?”

“예, 예...”

하긴, 너도 생소하겠지. 내가 한국의 과자를 처음 먹어 볼 때도 그런 느낌이었단다.

그 후로도 우리는 몇몇 가판대를 들리며 군것질을 계속했다. 슬슬 배가 차는 느낌이 들자, 나와 웨티스 경은 잠시 중앙 분수대에서 쉬었다 가기로 했다. 시원한 대리석에 앉자, 햇빛 아래 내내 돌아다닌 몸의 열기가 식혀졌다.

“아가, 아니 세리님은 힘들지 않으십니까?”

“음... 그다지요?”

내가 한국에서 얼마나 돌아다녔는데. 시현이와 같이 맛집을 찾으러 가는 일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른다. 지금도 맛집을 찾으며 돌아다니지만, 시현이 대신 웨티스 경이란 것이 다르다.

“그러는 웨티스 경이야말로 힘들지 않아요?”

“기사의 체력을 무시하지 말아주십시오, 세리님...”

어쩐지 조금 서운한 목소리로 웨티스 경이 대답했다.

“경은 이런 분위기, 어때요?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거리의 분위기요.”

분수대에 앉아 시끌시끌한 수도의 분위기에 나는 웨티스 경에게 물었다.

“조금... 좋아합니다.”

“그래요? 의외네요. 웨티스 경이라면 과묵해서 조용한 걸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 거리가 제 동생들과 닮아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동생들이 있었나요?”

“예. 3명인데, 그중 2명이 여자아이고, 나머지 한 명은 남자입니다. 휴가 나오면 늘 맨 먼저 보러 가곤 합니다.”

“그렇군요...”

그 말을 끝으로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분수대의 시원함을 느끼며 앉아 있었다. 그러던 중, 목이 말라왔다.

‘아까 주스를 마셨는데도 마르네...’

주위를 둘러보니 생과일주스를 파는 가판대가 보였다.

“웨티스 경, 제가 목이 좀 말라서 그러는데, 저기서 주스 한 잔만 사와 주실 수 있나요? 아, 웨티스 경도 마시고 싶으시면 사셔도 돼요.”

“저는 괜찮습니다만, 세리님께서 여기 혼자 계시면...”

“다리가 아파서 그래요. 오늘 좀 많이 돌아다녔나 봐요. 잠깐 혼자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도 아닌데요, 뭘."

“... 그럼 금방 오겠습니다, 세리님. 여기 잠시 계셔주세요.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급히 뛰어가는 웨티스 경에게 걸어가도 된다며 외쳤다. 물론 당사자에겐 들리지 않았지만.

기다리는 동안 나는 분수대의 물속에 손을 넣어보았다. 절로 탄성이 내뱉어졌다.

“시원하다...”

“여어~ 아가씨!”

어쩐지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얼굴을 가리는 큰 모자를 쓰고 작은 가방을 메고 있는 한 남자가 보였다.

“.....로빈?”

“오랜만이네요? 지난번에 본 뒤로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동안.”

“전 다시 보지 말자고 했었는데 말이죠.”

로빈은 내게 다가오며 섭섭한 투로 말했다.

“아가씨는 나 안 보고 싶었어요? 이거 참 서운하네.”

“그거 참 잘 됐군요. 더 서운해하세요.”

로빈은 내 옆에 털썩 앉았다. 나는 그를 보며 말했다.

“안 더워요? 그런 모자 쓰고 다니면.”

“어, 지금 내 걱정해준 거예요?”

“.....”

싸늘한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자, 로빈은 머쓱한지 얼굴을 긁적이며 다시 말했다.

“농담이에요. 딱히 덥지는 않은데, 햇빛이 따가워서 쓰는 겁니다, 아가씨.”

“미안한데, 아가씨 말고 다른 호칭은 없나요? 제가 오늘은 아가씨가 아니라서요.”

“그럼... 예쁜 누님?”

이 분이 처맞고 싶으신가.

“아, 진짜 그런 눈으로 보지 마요. 그럼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 세리. 세리라고 불러요.”

“예쁜 이름이네요, 세리. 주인을 닮아서 그런가. 오늘은 어쩐 일이예요? 지난번의 그 호위 아저씨는 또 어디 가고.”

모자에 얼굴을 가린 채 입가에 미소를 짓는 그를 보며 나는 대답했다.

“그냥요. 심심하기도 하고,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웨티스 경은 지금 저기 계세요.”

나는 손을 들어 줄을 서서 주스가 나오길 기다리는 웨티스 경을 가리켰다.

“아하. 그럼 호위 아저씨가 없는 틈을 타서, 내가 심심한 세리에게 재밌는 걸 보여줄까요? 따라와 봐요.”

그가 내게 손을 내밀자 나는 무심코 그 손을 잡으려다, 멈칫했다.

“왜요? 가기 싫어요?”

“로빈은 이런 말 못 들어 봤나요?”

“에?”

“낯선 이가 따라오라 한다면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요.”

“무슨... 하하-”

그는 뭐가 그리도 웃긴 건지 소리를 내며 웃어댔다. 길 가던 몇몇 사람들이 그런 그를 이상하단 눈으로 쳐다보았다.

“흐하핫... 아, 진짜. 성숙한 여인처럼 보이다가도, 순진한 소녀티도 있네요, 세리는.”

“칭찬으로 받아들이죠.”

“칭찬이라 상관없어요.”

로빈은 잠시 진정을 하더니, 이어 말했다.

“나 안 위험해요. 전에도 봤잖아요, 누군가를 위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참고로 아버지가 그러셨죠. 위험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아, 그럼 저 진짜 위험해요.”

“자신이 위험하다고 인정하셨네요.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설득하여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 로빈에게 난 웃으며 여유롭게 대꾸했다.

“음, 이렇게 되면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방법이요?”

“원래 이런 일도 한번 해보면 재밌는 거랍니다, 세리.”

그러면서 그는 내가 어찌할 틈을 주지 않고 내 손을 잡고서 다른 한 손으론 있는지도 몰랐던 목걸이를 잡고 나만 들릴 만큼 속삭이며 무언가를 외쳤다.

“텔레포트!”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풍경은 조금 전과 다르게 바뀌어 있었다.

사람이 북적거리던 거리 대신, 한눈에 봐도 허름해 보이는 가게 하나가 내 눈앞에 있었다.

“이게, 대체...”

“놀랐죠?”

“방금, 그거... 텔레포트였나요?”

“정확히는 아티팩트를 사용한 거지만요. 처음 경험해보는 아티팩트 텔레포트의 느낌은?”

“매우...”

“매우?”

“당신 같군요.”

“우와, 그거 칭찬이죠?”

“아뇨.”

멍멍이 같다는 거야. 남은 이성으로 뒷말을 삼키며 나는 물었다.

“여긴 어디죠?”

“제 가게랍니다!”

“허름한 이 오두막이요?”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높이 자란 나무들이 보였다.

설마 여기...

“산 속에, 가게를 차렸어요?”

“빙고~”

“이런 곳에도 사람이 와요?”

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로빈에게 물었다. 로빈은 잠시 고민하더니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음, 오긴 온답니다.”

나는 웃으며 로빈이 내미는 손을 맞잡았다.

“자, 그럼 들어가실까요, 마이 레이디?”

“마이를 뺐다면 참 좋은 멘트였어요, 로빈. 10점 만점에 4점을 주도록 하죠.”

“분발해야겠네요, 4점이라니.”

문이 열린 가게-라고 쓰고 오두막이라고 읽는다- 안으로 들어간 나는 생각보다 아늑한 인테리어에 좀 의외라고 생각했다.

“가게.. 보다는 사람 사는 집처럼 생겼네요.”

“이래 봬도 가게인데 말이죠.”

“뭘 팔긴 해요?”

나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파니깐 가게죠, 아가씨.”

로빈은 가게 제일 안쪽의, 여기선 잘 보이지 않는 방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뒤적이며 말했다. 그가 없는 사이, 나는 안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더 안쪽으로 들어갔다.

가게 안에는 탁자 하나, 의자 2개, 선반, 책장 등이 있었고, 바닥에는 커다란 카펫 하나가 깔려있었다. 문 근처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있었다.

아무리 봐도 평범한 집 같은데, 대체 뭘 판다는 건지..

“로빈, 보여준다는 게 뭐예요?”

“잠시만요, 여기 어디에다가 뒀었... 아, 찾았네요!”

잠시 후, 로빈이 손에 새장을 든 채 내게 다가왔다. 새장 안에는 당연하게도, 새가 한 마리 들어 있었다.

“이 새는...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일반 새가 아니니깐 요. ‘폴라테스트’ 라고, 혹시 들어는 보셨나요?”

“‘폴라테스트’ 라고 하신다면, 멸종 위기로 잘 알려진 새가 아닌가요? 빛나는 화려한 깃털과 주위에 떠다니는 작은 빛, 이펙트로 귀족들의 전시를 위해 수없이 잡혀버려 이젠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새가 아닌데... 설마 이 새가, ‘폴라테스트’ 인가요?”

“‘폴라테스트’ 긴 한데, 혼혈이랍니다. 한 마법사가 폴라테스트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한 마리의 폴라테스트를 일반 새와 끊임없이 교배를 시키고, 피를 뽑아 인공적으로 폴라테스트를 만들다가 탄생한 아이죠. 대부분이 실패로 죽거나 기형이 되었지만 이 아이는 살아남았죠. 뭐, 운 좋게 어쩌다 얻은 거지만, 얘는 거의 마지막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 딱한 아이죠.”

“저런.”

절로 눈살이 찌푸려졌다.

폴라테스트를 실험체로 삼아 대량 생산을 하려고 했다고? 폴라테스트는 국가가 지정한 보호 동물인데 감히 마법사가 실험체 따위로 삼다니.

“로빈은 참도 운이 좋네요. 마법석이나, 폴라테스트 같은 희귀한 것들을 참 운 좋게, 구하셨네요.”

“그런 셈이죠, 하하.”

알면 알수록 더 수상한 남자다, 이 남자는. 나는 그를 한 번 흘겨봐주고 새장 속의 작은 새끼 새에게 시선을 돌렸다.

“혼혈이라 그런지, 폴라테스트의 특징은 잘 보이지 않는군요. 폴라테스트 라기 보단, 참새 같아요”

“참..네?

“...아니에요.”

맞아, 여긴 참새가 없지. 잠시 깜박했다.

“어쨌든, 지금으로선 폴라테스트의 특징이 도드라지게 보이진 않지만, 좀 더 커서 각성을 하게 되면 점차 드러나겠죠.”

“폴라테스트라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인데 이렇게 보게 되니 뭔가 좀 그렇네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아름답고 신비롭다는 이유로 죄 없이 잡혀, 강제로 전시품이 돼야 했던 폴라테스트. 나는 진심으로 이 새가 잘 자랐으면 하고 바랐다.

이기적인 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잘 자라서 마지막 폴라테스트의 그 아름다운 날개가 활짝 펼쳐지는 모습이 보고 싶었다. 그 만큼 건강하게 자라달라는 바람을 담았다.

“... 언제부터 키우고 있었어요?”

“제국에 발을 들이게 된 후, 아는 마법사와의 부탁으로 제가 맡아 키우게 되었죠. 덕분에 심심하지도 않고 좋지만, 키우기가 어찌나 까다롭던지, 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를 보니 어쩐지 웃음이 나왔다.

“새장, 열어봐도 돼요?”

“걔 어제도 날아가 버려서 잡느라 엄청 힘들었는데...”

“알았어요, 여기서 구경할게요.”

로빈은 새장을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가까이서 본 푸른색의 작은 새는 몸을 작게 부르르 떨었다.

“쉬이-”

나는 로빈이 자신의 손가락을 새장 안으로 넣으며 속삭이듯 푸른 새를 부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푸른 새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지만 로빈의 손가락으로 날아와 가볍게 착지했다.

“말을 잘 듣는 것 같은데요..?”

“평소에는 더럽... 잘 안 듣는데, 옆에 예쁜 아가씨가 있어서 그래요.”

“예쁜 건 참 잘 아는 새네요.”

“그렇죠?”

로빈은 모자를 벗지 않은 채 웃어보였다. 저거 아직도 쓰고 있네. 이젠 실내니깐 벗어도 되지 않나.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니깐, 밖으로 꺼내도 될 것 같아요.”

로빈은 그렇게 말하며 새장 문을 열고 조심스레 새를 새장 밖으로 꺼냈다.

“한 번 들어 볼래요?”

“제가요?”

“네. 자, 이렇게 손가락을 내밀고...”

로빈은 내 손을 잡고 내 손가락에 새가 자리 잡아 설 수 있도록 해주었다.

‘손이 은근히 따듯하네..’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 나도 잘 모르겠다.

“에에-”

“아..! 들었어요? 울음소리!”

“저도 들었어요, 아가씨. 그렇게 신기해요?”

완전히 내 집게손가락으로 넘어온 작은 새가 울자, 신기했다. 정작 로빈은 그런 내가 더 신기해 보인 것 같지만.

“삐이이-”

“어머, 또 울어요!”

“... 동물을 그렇게나 좋아할 줄은 몰랐는데, 의외네요.”

내가 작고 귀여운 푸른 새를 신기하게 관찰하고 있자, 로빈은 내 앞에 앉아 턱을 괴고 같이 새를 관찰... 하는 줄 알았더니, 날 보고 있었다. 모자에 가려져서 눈이 보이지 않지만, 왠지 모르게 모자 사이로 관찰당하는 느낌이 들었다.

“씨이-”

작은 새는 그저 울었다. 그가 뭘 하든, 내가 뭘 느끼든.

“왜요, 왜 그렇게 봐요.”

“그냥요. 심심해서?”

잘도 내 대사를 따라 하는 구나.

“로빈이 왜 심심해요, 심심해 보인다고 무작정 데려온 사람이 누군데.”

“그러게요, 왜 심심할까요?”

로빈은 천천히 내게 얼굴을 들이밀었다. 나와 그의 얼굴이 점차 가까워지고, 침묵이 감도는 그때, 나는 로빈의 얼굴에 작은 새를 앞으로 내밀며 다른 화제를 꺼냈다.

“그러고 보니 이 아이는 이름이 뭐죠? 이름을 안 물어봤네요.”

“... 몰라요, 안 지어줬어요.”

조금 전까지 입에 달던 미소가 사라진 로빈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럼 제가 지어줘도 돼요?”

“그러세요.”

뭔가 불만이 있는 듯한 그의 말투가 거슬렸지만 난 무시하고 내 눈앞에 있는 작고 푸른 새의 이름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폴리? 테스? 라테? 으음...”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요. 예를 들면 콩알이라던가, 털북숭이라던가...”

“무슨 이렇게 귀여운 새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나는 그를 이상하단 눈빛으로 쳐다보곤, 다시 새에게 집중했다.

“예쁜 이름이 없을까...”

“틴.”

“네?”

예쁜 이름을 생각하던 중, 그가 말을 툭 내뱉었다.

“틴으로 해요. 간단하고, 귀엽잖아요, 뭔가. 기억하기도 쉽고.”

“틴, 틴... 좋네요. 콩알이나 털북숭이보단 훨씬 나아요. 아가, 네 이름은 이제 틴이란다.”

나는 틴이 된 작은 새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틴은 기분 좋은 듯이 내 손가락에 자기 몸을 비벼왔다.

“띠이...”

“가끔 보면 아가씨는 아가씨 나잇대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로빈의 말에 움찔했다.

“그거, 지금. 늙었다는 소리죠?”

“그게 아니라, 가끔 보면 소녀가 아니라 뭐랄까, 말투나 막 그런 게 좀 성숙하달까요? 어찌 보면 늙었다고 할 수...”

“틴, 물어.”

“이-!”

계속 달라지는 틴의 울음소리와 함께 로빈의 짧고 이상한 비명이 들렸다.

“꺅! 아가씨, 잘못했어으꺄악!”

“그 이상한 비명부터 고치세요. 더 아프게 물어버려, 틴.”

“에프흐으-”

작은 몸으로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로빈의 어깨, 손가락, 등 등 여기저기를 부리로 물어버리는 틴을 보며 나는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틴을 보여주려고 납치한 거예요?”

반짝이는 안 쪽 날개 펼치며 지지 거리는 울음소리를 내는 틴을 자세히 보느라 살짝 숙인 허리를 펴며 나는 로빈에게 물었다.

그는 정색하며 대답했다.

“납치라뇨! 초대죠, 초대.”

“당사자의 의견은 묻지 않은 채 강제로 데려오는 것이 초대였군요. 잘 알아들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심지어 호위도 따돌리고 온 거네요. 초대라는 게 그런 거 였구나...”

뒷말을 길게 끌며 흘끗 그를 보았다. 쩔쩔매는 그의 모습은 또 생소했다.

“아, 진짜 이 아가씨가... 나도 잘못한 건 안다고요. 아가씨가 무료해 보여서 기운 나게 해 줄라고 그런 거지. 다른 귀족 아가씨들은 예쁘거나 귀여운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다른 귀족 영애들도 만나 본 적이 있어요?”

“제국에 오기 전엔 수도 없이 만나 봤지요. 상대하기 참 까다로운 아가씨들이더라고요. 물론 아가씨는 특이하지만.”

그렇구나. 하긴, 상인이니깐 귀족 영애들을 상대로 한 장식품이나 패물들을 팔았겠지.

“예쁘고 귀여운 것들에 기분 좋아진다는 건 잘 아네요.”

“워낙 많은 아가씨을 상대해 봐서요. 그래도 아가씨가 동물을 이렇게나 좋아 할 줄은 몰랐어요.”

“폴라테스트잖아요. 아무리 혼혈이라도 폴라테스트라고 하면 흥미가 생길 수밖에 없죠.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영애들도 관심이 많을 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먹여도 되는 거예요?”

나는 로빈이 가져온 막대 과자들을 틴에게 먹여주며 물었다.

“네, 전에도 많이 먹여 봤는데 멀쩡했었어요. 그러니깐 많이 먹여줘도 괜찮아요.”

“그렇구나. 그 모자 아직도 안 벗을 거예요?”

여태까지도 벗지 않는 그의 모자가 눈에 띄었다. 이쯤 되면 더워서 벗을 만한데.

“왜요? 벗은 모습이 보고 싶어요? 벗으라면 모자 말고 다른 곳도 벗을 수 있는데.”

싱글싱글 웃는 모습이 오늘따라 더 얄밉게 느껴진다.

“아, 벗어보게요?”

그런데, 나도 만만치가 않거든.

“... 농담인 거 알죠?”

“농담이었어요? 난 진담이었는데.”

“이 아가씨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소녀의 미소를 짓는 나를 보며 로빈은 한숨을 쉬었다.

“모자는 나중에요. 지금은 곤란하답니다, 레이디.”

“아쉽네요, 로빈에게 뱃살이라도 있었으면 두고두고 놀렸, 읍-”

“아가씨, 아까 말했듯이 내가 좀 위험한 남자라서요. 여기서 더하면 아가씨가 진짜로 위험해질 수 있는데...”

“....”

순식간에 얼굴 가까이 다가와 내 입을 손바닥으로 틀어막은 그의 눈동자가 모자 속에서 위험하게 빛났다. 처음 봤을 때의 그 신비함이 어두움으로 바뀐 그 눈동자는 언제 봐도 신기했다.

"후.. 오늘은 이만 돌아가죠. 호위 아저씨가 기다리겠어요.”

그는 입을 막은 손을 치우며 틴을 새장 속에 다시 넣었다. 다행히 작은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새장 안에 들어간 틴은 새장 한구석에 몸을 웅크렸다.

“기분 나빴어요?”

“아뇨, 그건 아니고...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갈 준비 다 했죠?”

“네. 아, 그런데요. 다시는 입 막지 마요."

"그건 미안하게 생각해요."

로빈은 내 손을 잡고, 아티팩트 목걸이를 들며 시동어를 외쳤다.

“텔레포트!”

잠시 눈앞이 흐릿해지더니 눈을 깜박임과 동시에 풍경이 또 다시 새롭게 바뀌었다.

“아가씨!! 어디 가셨습니까?!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십- 또 네놈이냐! 우리 아가씨를 데려간 놈이!"

“아가씨-! 흐엉헝... 아가씨가 돌아오지 않으시길래 어디 납치라도 당하신 줄 알았잖아요. 흐엉엉-”

“다, 다들 여기서 뭐하는...”

텔레포트한 우리 앞에는 호위 기사들과 미르티, 시녀들이 보였다. 저택으로 텔레포트 한 거구나. 다들 갑자기 나타난 우리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다. 미르티나 웨티스 경은 금세 정신을 차리고 날 불러댔지만.

“오오, 아가씨, 인기 많은데요?”

옆에서 모자를 고쳐 쓰며 주위를 둘러보는 로빈에게 웨티스 경이 소리쳤다.

“감히 네놈이 아가씨를 납치해!”

“납치라니! 초대였을 뿐이라고!”

“저.. 아가씨. 저분은 누구..?”

크게 소리쳐대는 웨티스 경과 로빈을 바라보며 미르티가 조심스레 내게 다가와 그의 정체를 물었다.

“아, 그냥 우연히 만난 이상한 사람.”

“네?”

“별 거 아니야. 로빈, 웨티스 경. 이제 그만 해요.”

“아가씨! 이 자가 아가씨에게 무슨 짓을-!”

“이 아저씨가 누굴 의심해? 아가씨, 나 아가씨한테 해코지 안 했지? 그치?”

“저기, 이제 좀 그만하고...”

“이게 지금 무슨 소란이지?”

미치겠네, 진짜...

고개를 돌려 목소리의 주인공을 바라보니, 오라버니가 서 계셨다. 아무래도 저택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와 무슨 일인지 와 보신 듯했다. 그게 그럴 것이,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저택의 현관 앞이었기 때문이다.

“오라버니, 오셨어요?”

“세리스틴, 멋대로 호위를 내버려 두고 가버린 잘못을 나중에 묻도록 하지. 웨티스 경.”

“예, 공자님.”

“이게 지금 무슨 소란인지 물었다.”

“그것이, 이 남자가 세리스틴 아가씨를 납치하여, 아가씨께서 사라지셨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 남자와 아가씨께서 갑자기 저희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군. 그럼 이 납치범을 잡아 들여.”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는 오라버니에게 나는 반박 할 수가 없었다. 로빈이 날 납치했다는 것은 사실이었으니깐. 하지만 그건...!

“에? 뭣- 아, 아 잠시만!”

“오라버니!”

큰 소리로 오라버니를 불러보았지만 헛수고였다. 과거의 그 냉혈한 표정 그대로의 모습이 재현된 오라버니는 차갑게 돌아서며 시녀들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시녀들은 뭣들 하는가. 지금 당장 세리스틴을 방으로 보내지 않고.”

“아, 예. 아가씨, 이만 올라가시죠.”

“...그래..”

“아, 진짜 오라버니란 사람이 동생에게 그렇게 대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예? 아가씨 상처받잖아요.”

“닥쳐라. 저 놈을 지하에 가두어라.”

“예!”

“아가씨! 나 걱정하지 말고, 쉬고 있어요! 나중에 또 만나러 갈껙! 아프잖아!”

“아프라고 때린 거다. 감히 아가씨를...!”

“아우, 진짜. 아가씨! 잘 지내고 있어!”

시녀들에게 이끌려가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로빈은 모자를 살짝 들어 올려, 신비한 그 금녹빛의 눈으로 나와 눈을 맞췄다.

“텔레포트!”

“저놈 잡아!”

우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밝은 빛이 뿜어져 나왔고, 빛이 사라지자 로빈이 서 있던 자리에는 밧줄이 둥그렇게 떨어져 있었다.

무거운 침묵을 깨며 오라버니에게 말을 거는 순간, 오라버니는 빠르게 뒤돌았다. 나는 움찔하며 말을 꺼내다 말아버렸다.

“세리스틴, 오늘은 네게 크게 실망했다.”

“....”

워낙 분위기가 차가우신 오라버니가 더 차가워지시니 오한이 들 정도였다.

“너도 네 잘못을 알고 있겠지.”

“... 네...”

“너를 납치하고 도망간 그 남자도 큰 죄를 지었지만, 호위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잠시 혼자 있었다고 하던데. 그 잠시가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군. 제국 공작가의 하나뿐인 공녀라는 여인이 이렇게 위기의식이 없어서야, 원.”

오라버니의 작은 중얼거림을 들으며 나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고 앉아있었다. 오라버니의 말씀을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납치를 당했다고 했지만, 곁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호위를 보낸 건 사실이니까. 게다가 혹시 몰라 착용한 보호 아티팩트도 사용하지 않았고.

“당분간은 근신이다. 그렇게 알도록. 네 방에서 네 잘못을 되돌아보거라.”

“네...”

한동안은 도서관에 못 가겠네.

나는 순순히 대답하고 오라버니가 나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방으로 돌아갔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방으로 돌아가 의자에 앉은 내게 미르티가 말했다.

“아무리 그래도 근신은 너무하셨어요, 아가씨는 그저 납치를 당하신 건데...”

“아니, 내게도 책임은 있지. 오라버니가 옳으신 거야.”

난 태연하게 책을 펼치며 말했다.

“제국의 하나뿐인 공녀가 낯선 남자와 같이 있었다고 해봐. 그러면 납치도 납치지만 그때 제대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 나한테도 책임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

“괜찮아, 미르티. 그냥 며칠 집에만 있다고 생각해. 그나저나, 차 한 잔만 가져와 줄래?”

“네, 아가씨.”

미르티는 공손히 허리를 숙이고 방을 나갔다. 혼자 남게 된 나는 다시 책에 집중했다. 이참에 잘된 거지, 뭐. 아쉽다면 2번 밖에 나가보지 못해서 아쉽긴 했다.

집에서 근신하게 된 덕분에 이벨리아와는 만나지 못했다. 다만 근신한 지 6일이 되는 날, 그녀에게서 편지가 왔다.

똑똑

“들어와.”

방에만 있기 무료하여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저택의 서재에서 책을 고르는 사이, 누군가 문을 두들겼다. 들어온 사람은 집사였다.

“아가씨, 실베스 가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만. 방에 가져다 둘까요?”

“실베스 가? 아아, 그러도록 해. 나중에 올라가서 보지.”

“예, 아가씨.”

서재에서 볼만한 책을 많지 않았지만, 난 그나마 흥미 있어 보이는 책을 몇 권 골랐다.

방에 돌아가 보니 책상 위에 하얗고 반듯한 편지봉투 하나가 놓여있었다.

‘이벨리아 에게서 온 거겠지.’

편지 내용엔 안부를 묻는 형식적인 인사와 함께 최근 내가 제일 관심 있는 사실 하나가 들어있었다.

“아르체아가... 이틀 뒤에 오는구나.”

예상보다 이른 시기지만 딱히 신경쓰지는 않았다. 그녀가 빨리 오든, 늦게 오든, 그저 무도회에 그녀가 와서 황태자와 만나기만 하면 되니까.

아르체아가 온다는 사실 말고는 별다른 건 없었지만 비미르 작가의 신작 소설이 황궁 도서관에 들어왔다는 건 좋은 정보였다.

난 편지지를 다시 한번 훑어보곤 미련 없이 미르티에게 건넸다. 편지지는 그녀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딱히 중요한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깐.

아버지의 말씀으론, 요새 오라버니는 2년 전 아카데미를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나서 이젠 국외로 유학을 준비하신다며 나의 모국인 지크레핀 제국을 넘어, 남쪽의 라네아 제국으로 가신다고 하셨다. 오라버니의 유학과 함께 내 근신을 끝날 것이다.

앞으로 내 근신은 9일 남았다.

오라버니는 유학 준비, 로테인은 아카데미, 아버지께선 황궁에 가셨고, 어머니는 귀부인들과 함께 주로 티파티나 무도회에 들르신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나날은 저택 사람들을 제외하면 나 홀로 있어야 한다.

‘심심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만 보다 보니 머리도 아파졌다.

‘이게 무슨 나 홀로 집에도 아니고.’

난 창틀에 기대어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여러 종류의 꽃들이 모여 화려한 정원을 장식한다.

“틴 보고 싶다...”

한숨을 쉬며 폴라테스트의 마지막 후손인 틴을 그리워했지만 근신인 이상 로빈과 틴을 만날 수는 없었다.

틴을 생각하니 저절로 로빈이 연상되었다. 수상쩍고 이상한 남자. 그런데 내 감은 그가 위험하진 않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감은 감일 뿐. 그가 위험한 건 사실이었다. 정체를 밝히지도 않고 얼굴은 모자로 가린 그 남자는 그저 공작가의 외동딸을 납치한 범죄자였다.

“후우...”

“아가씨, 뭐 생각해요? 내 생각해?”

“아, 십, 깜짝이야!”

고운 말 바른말. 후...

난 순간적으로 툭 튀어나온 단어에 내 입을 두들겼다.

“뭐야, 무슨 생각 하고 있었길래 그렇게 놀래요.”

“당신이, 여긴 왜... 아니,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다.

조금 전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사람. 모자를 쓴 로빈은 어깨에 틴을 올려놓은 채 정원의 나무에 앉아있었다.

“뭐, 내 재량껏 들어왔지요~”

“언제부터 와 있었어요? 공작가 저택의 호위가 삼엄할 텐데, 잘도 들어왔네요. 이것도 범죄인 거 아시죠?”

“모를 리 가요. 다만 아가씨가 보고 싶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온 건데, 걱정해주지도 않아요?”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온 범죄자를 걱정해 줄 만큼 자비롭진 않답니다. 경비 부르기 전에 돌아가세요.”

난 창문을 닫으며 그에게 충고해줬다.

“에? 아, 잠시만 아가씨. 나, 나 아가씨 보려고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아가씨?”

“누가 와 달래요?”

“난 아가씨가 근신이라 길래 틴이라도 데리고 놀라고 생각해 주면서까지 왔는데..”

난 창문 밖으로 그를 잠시 바라보았다.

“후... 틴만 주고 빨리 돌아가요. 마지막 기회예요.”

심심했던 건 사실이기에 난 틴만 받으려고 했다.

정말이다.

로빈은 익숙한 발놀림으로 나무 위에서 내가 있는 창틀까지 훌쩍 뛰었다. 로빈이 앉아있던 나무와 창틀 사이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 망정이지, 자칫하면 떨어질 뻔한 순간이었다.

갑자기 훅 하고 다가온 그 때문에 난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는 어깨 위의 틴을 손가락 위에 올려놓고 내게 틴을 보내주려나 했더니 얼굴을 들이밀었다.

“... 뭐예요.”

“아가씨는 나 안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갑자기 또 무슨 소리예요.”

“아, 빨리 말해봐요. 나 얼른 보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경비병을 불러야 정신 차리겠어요?”

“내 생각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로빈은 내 물음에도 개의치 않고 되물었다.

내가 순순히 말해 줄 것 같니?

“경비- 읍!”

이게 진짜.

다시는 입 막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면서. 난 약간의 살기를 담아 그를 노려보았다. 그는 곤란하단 말투로 내게 말했다.

“이번엔 그냥 물러가는데, 다음엔 솔직히 말해주기예요, 알았죠?”

‘다음에 만나면 보자마자 경비 부를 건데, 뭘.’

로빈은 틴을 내 방에 날려 보내고, 미소를 지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 보고 싶은데.

마지막 말은 그가 내 귓가에 거의 속삭이듯 말해서, 기분이 좀 꺼림칙했다.

어지간하게도 정말 제멋대로인 남자다. 로빈은 소리 없이 올 때와 같이 소리 없이 가버렸다.

“찌이이..”

오늘도 울음소리가 희한한 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난 창문을 닫았다.

“흐아암...”

나는 한국에 있었을 때처럼 가볍게 기지개를 피며 일어났다. 미르티가 벌써 창문이라도 열어놨는지, 창밖에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아직 덜 깬 잠 때문에 졸린 눈을 비빈 나는 다시 털썩 누워버렸다.

‘아.. 푹신해..’

기분 좋은 만족감을 느끼며 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누군가의 시끄러운 방해 때문에 인상을 찡그렸다.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

“으음... 틴... 나 좀만 더...”

“쩨쩨쩨-!”

“티인...”

어느새 일어난 건지 아침부터 기운차게 울고 있는 틴은 날갯짓을 하면서 내 주위를 날아다니고 있었다.

‘알람 소리보다 더 시끄러워...’

나는 이불 속에서 베개로 귀를 막으며 생각했다. 정말, 알람 소리보다 훨씬 시끄럽다. 게다가 끌 수도 없다. 알람은 그저 알람을 끄거나 시계를 던져버리면 꺼지는데, 틴은 귀여워서 던질 수도 없고, 지치지도 않는지 계속 울어댔다.

어제는 또 에취 에취 해대서 감기라도 걸린 건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다.

‘팔팔하기만 하네.’

“아이아이, 쩨쩨- 아이아이 쩨쩨에-!”

“그래.. 나 일어났어...”

겨우 다시 누우려는 이성을 붙잡고 부스스 일어나자 거짓말처럼 틴은 우는 것을 멈추고 내 품 안으로 날아들었다.

“좋은 아침, 틴...”

나는 틴을 쓰다듬어주며 자꾸 감기려는 눈을 억지로 떴다. 혼자 무료하게 보낸 시간이 틴 덕분에 하루하루가 즐겁긴 했지만 이런 이른 아침부터 원치 않은 알람은 절대 사양이다.

틴, 이런 날에는 늦잠 자도 돼. 어차피 근신이라 할 것도 없어...

“아가씨, 이제 일어.. 어머, 일어나셨네요? 어제는 그렇게도 늦잠을 자시더니. 웬 새예요?”

“미르티. 좋은 아침. 그냥 아는 사람이 보내줬어. 이름은 틴.”

“어머, 너무 귀여워요!”

“그래...”

귀여운 건 나도 아는데, 나 좀만 더 자면 안 될까...?

“아가씨, 졸리세요?”

“으응... 어제 좀 늦게 잤더니 피곤하네.”

“그래도 이제 일어나셔야죠! 벌써 11시가 넘는다고요!”

“미르티, 나 어차피 근신이라 할 것도 없잖아.”

“그건 그렇... 그래도! 다른 귀족 아가씨들은 지금쯤이면 일어나서 교양을 배우고 있을 거라고요!”

“난 그런 거 안 배워도 돼.. 왜냐? 난 완벽하니까.”

나름 자기합리화를 앞세워 주장하곤 다시 이불 속에서 꿈틀거렸다. 따스하고 편안해서 나가고 싶지 않았다. 미르티도 내 말에 넘어가는 듯했지만 쉽사리 넘어가진 않았다.

“그것도 그렇.. 아, 아가씨이-!”

“쩨에에-!”

틴과 미르티가 시끄러울수록 나는 이불 속으로 더 파고들었다.

‘신이시여, 부디 제가 딱 2시간만 귀머거리가 되게 해주세요.’

만일 정말로 신이 있다면, 부디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간절한 소원을 들어줬으면 했다.

“이벨리아?”

“하하.. 세리스틴, 안녕하세요.. 연락도 없이 찾아뵈서 죄송해요...”

집사가 점심부터 누군가가 날 찾아왔다기에 가봤더니, 또 너니?

왜 우리 집에는 막 찾아오는 사람이 많을까? 이게 바로 갑툭튀 라 하는 것인가? 언제부터 공작저가 막 찾아오는 곳이 되었나.

“아니에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이라도 주었으면 해요. 그런데, 어쩐 일이예요?”

“아, 저기 그... 근신이라고 하시기에, 혹여 무료하실까 봐 비미르 작가님의 신작 소설을 들고 찾아뵙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우물거리는 이벨리아 보다는 그녀 뒤에 있는 마차에 시선이 집중되어있었다. 이벨리아 혼자만 왔다면 분명 마차는 한 대일 터, 그러나 공작저에 찾아온 마차는 총 두 대였다.

“혹시 누구랑 같이 오셨나요?”

“그, 그걸 어떻게..!”

“마차가 두 대네요. 제가 모르는 낯선 이와 함께 미리 기별도 주시지 않은 채 제국의 공작저에 찾아오시다니. 이벨리아, 아무리 그대가 제 친우라 할 지어도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것이랍니다.”

나는 얼굴을 굳히고 이벨리아에게 말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려 제국의 공작가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저 마차에 그려진 문양은 수도에선 못 보던 가문의 문양인데, 신변이 알려지지 않은 자를 데리고 오는 것은 위험하며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세리스틴이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

벌컥

그때 낯선 귀족 문양의 마차 문이 열리고 풍성하게 퍼진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검은 머리의 여성이 마차에서 내렸다.

“...아르체아..?”

“안녕하세요, 데네아 공작 영애. 멜튀스 백작가의 아르체아 멜튀스 라 합니다.”

“데네아 공작가의 세리스틴 데네아 입니다.”

그녀다.

검은 머리에 그 차가운 황태자의 마음을 녹인, 유혹적인 보랏빛 눈동자.

항상 수수하지만 소박한 아름다움이 있던 그녀는 희한하게도 그녀답지 않게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평소 수수한 드레스를 입어서 그런지, 그녀와 어울리지 않는 듯 보였다.

“아, 아르체아.. 그냥 마차에 들어가 계시지..”

“괜찮아요, 이벨리아. 저 또한 이벨리아가 항상 말해주신 그, 유명한 데네아 공녀를 뵙고 싶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나 뵙게 될 줄은 전혀 상상도 못 했지만요.”

어쩐지 말투가 좀 거슬리는데, 예전의 아르체아가 맞는 건가 싶다.

아르체아는 말을 끝마치며 나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심상치가 않았다. 마치... 노려보는 듯 한 눈빛이랄까.

난 그 눈빛을 기분 탓으로 치부하고 그녀에게 말했다.

“저도 이렇게 멜튀스 영애를 뵙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갑작스럽게 연락도 없이 제국의 공작저에 찾아와서, 단 한 번도 뵙지 못한 초면인 분과의 만남이라니.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당황했어도 전혀 당황스러워 보이지 않게. 웃음은 여유롭게.

내가 25년 동안 귀족으로서 사용한 그 말투와 화법은 녹슬지 않았다. 귀족으로서의 삶은 합해서 총 42년이나 된다. 42년이란 긴 세월이 어디 간 것도 아니고.

“... 그러게나 말이에요.”

과거의 아르체아가 아닌 듯한 기분이라, 참 찝찝하다. 도대체 이 위화감은 무엇일까.

“그나저나 데네아 공작가는 이런 식으로 찾아온 손님을 대하나 보죠? 손님을 문 앞에 두고서는 들어오라 말 한마디도 안 하시다니... 서운해지려 하는데요?"

이 여자가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죄송해요, 이벨리아... 아무래도 제 기대치가 너무 컸나 봐요.”

'하?'

이벨리아에게 속삭이듯 말했다지만, 아르체아의 말소리가 그냥 컸던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이었는지 그 속삭임은 바로 내 귀에 들려왔다.

뭐, 기대치? 대체 어떤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사고방식이 그따위로 흘러가는 거지?

어이가 없어서 잠시 말문이 막혔다. 얼굴 근육이 미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이내 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한번 으쓱해 보였다.

“아, 저희 데네아 공작가는 평범한 손님을 맡는 일이 별로 없어서요. 손님이 얼마나 예의를 갖추시느냐 에 따라 저희 측에서도 대우가 달라지죠. 공작가가 다른 가문들과는 다르게 좀 특별하잖아요? 말도 없이 불쑥 들이닥친 분에게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겠네요."

"아, 네..."

아르체아는 좀 떨떠름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일단 들어오시죠. 집사, 차 세 잔, 응접실로 준비해줘요.”

“예, 아가씨.”

집사는 허리를 숙이며 대답한 뒤, 저택 안으로 들어가 차를 준비했다.

“감사합니다, 데네아 영애.”

“고마워요, 세리스틴.”

아, 내 팔자야...

“어쩐 일로 오신 건가요.”

“아, 그. 아르체아를 소개.. 시켜드리려고..”

말을 마칠수록 목소리가 작아지는 이벨리아를 보고 속으로 작게 한숨을 쉰 난 아르체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제가 오자고 했어요, 데네아 영애. 그러니 그리 이벨리아를 핍박하지 않으셔도..”

탁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다. 당연하지, 내가 일부러 소리 낸 건데.

나는 아르체아의 말에 잠시 고민하는 척하다 말했다.

“핍박이라.. 멜튀스 영애의 눈에는 그리 보이는 건가요?”

“예. 데네아 영애께선 아니라 하시겠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인답니다.”

그녀에게 실망이었다. 심지어 이젠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 과거엔 성녀라는 소리를 듣던 아르체아인데, 그녀가 이렇게나 기본 예의가 없을 줄이야.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온다.

‘여주인공, 인줄 알았더니. 이토록 발암이었나?’

“멜튀스 영애가 조금 예민하신 듯 해요. 전 이벨리아에게 찾아온 용건을 물었지, 다른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니랍니다. 핍박이라 하심은 좀 과장된 표현 같군요.”

“... 예, 주의하도록 하죠.”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찻잔을 들었다. 소심한 이벨리아는 이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안절부절못하며 눈동자를 굴리고 있었다.

‘이벨리아나 아르체아나.’

둘 다 사교계에 나가보면 어떤 꼴을 당할지 예상이 된다. 귀족의 예의를 중요시하는 다른 영애들에게 암암리에 밟히겠지. 무도회에서 뱀 같은 교활한 화법을 구사하는 그들에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거기에 둘 다 이번 황태자의 성년 무도회가 첫 데뷔이니, 볼 만 하겠다.

“그럼 이것으로 용건은 끝난 거네요, 이벨리아?”

“예? 아, 네.. 그렇, 죠..”

“그렇다면 두 분 다 이만 돌아가 주셨으면 해요. 아시다시피, 제가 아무나 만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요.”

“에, 예. 다음에 봬요, 세리스틴.”

“... 다음에 또 뵙겠어요, 데네아 영애.”

나는 굳이 그들을 배웅조차 해주지 않은 채 집사에게 안내를 맡겼다. 물론 그 명을 받은 집사의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어떠하리.

“케에- 케에-”

방으로 돌아가니, 반강제로 새장 안에 들어가야 했던 틴이 눈에 띄었다.

“미안해, 틴. 고작 연락도 없이 멋대로 찾아온 놈들을 위해 널 가둬놔야 했다니... 그런 사람들보다 네 가치가 더 큰데. 날 용서해.”

틴은 삐진 듯했지만, 계속 쓰다듬어주며 말을 걸어주니 다시 울었다.

“케케- 케케-”

“오늘따라 울음소리가 이상하다, 틴.”

난 한숨을 쉬며 틴이 자유로이 날아다닐 수 있도록 날려 보냈다.

“그자보다 내가 더 잘해주지, 틴? 알아.”

모자 쓴 이상한 남자를 떠올리며 난 틴에게 중얼거렸다. 솔직히 내가 그보다 더 틴에게 정성을 쏟는 건 확실했다. 안 봐도 뻔했다.

제국력 292년

“아르체아, 이제 시간이 됐어.”

“... 나도 알아요. 그렇게 재촉할 필요는-”

“내가 여태까지 미뤄준 시간이 얼만지 알기는 해? 장장 2년이야, 2년.”

“...”

아르체아는 초조하게 입술을 깨물며 말없이 있었다.

“조, 조금만 더 시간을...”

“시간? 내게서 2년의 세월을 가져가 놓고선, 지금 뭐라는 거지?”

“제, 제발요... 이렇게 빌게요... 부디..”

“큭... 웃기네, 이거.”

한껏 비웃음을 담은 목소리에 아르체아는 바닥에 엎드린 그대로 바들바들 떨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 그 사람과 더 함께하고 싶다. 만일 그 사람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때는...!

“아가씨, 원래 우리 계약은 5년이 끝이었잖아, 응?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 쪽에서 곤란하지. 내가 왜 너 때문에 변장했고, 왜 그동안 약한 척 해야 했는데? 변명 좀 해봐.”

“1년.. 딱 1년만 더 주시면...!”

콰앙-!

“내가, 마이라... 출신인 걸 네가 모를 리는 없고. 어디 한 번 더 지껄여 볼래?”

“용서.. 용서를...”

“이럴 거면 차라리 그 년을 도와줄 걸 그랬어. 걔는 최소한 너처럼 답답하진 않거든.”

“....”

“미안한데, 난 이제 더 못 기다리겠어.”

“제발.. 제발 부탁이에요...”

눈물 흘리며 비는 아르체아를 내려다보며 목소리는 웃었다. 그러나 결코 호의가 담기지 않은, 명백한 비웃음이었다.

“이제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야, 아르체아.”

“아악-!! 아아악!!!”

‘너는, 누구지?’

‘어이가 없군. 그렇게도 관심이 받고 싶었나?’

아니야..

‘더 이상 그녀에게 손대지 마라. 마지막 경고다.’

‘넌... 절대 내 옆에 있을 수 없다.’

시끄러워...

‘아르체아-!!’

“악-!!”

“에르르?”

“헉.. 헉..”

“에르에르”

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콜록, 콜록...”

작은 기침을 하며 주위를 둘러보자 내 방인 것을 금세 깨달았다. 창문을 보니 아직 해가 뜨지 않은 모양이다.

“후우...”

한숨을 쉰 나는 다시 털썩 쓰러지듯 누웠지만, 눈은 감지 않았다.

잠을 자면 다시 악몽을 꿀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본능을 이기지 못한 나는 다시 꿈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응...”

미르티가 걱정스럽게 물어오는 소리에 나는 눈덩이를 비비며 대답했다.

밤에 몇 번이나 악몽을 더 꾸었기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해 좀 피곤했다. 오늘은 아무데도 가지 않고 집에만 있고 싶은 하루지만 어쩔 수 없다.

오늘이 바로 황태자의 성년식 무도회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르체아도 만나게 된다. 짜증을 유발했던 회귀 후의 첫 만남 이후 처음으로 만나기에 그녀를 보기 꺼려졌다.

‘어차피 둘이 이루어질 거, 그냥 내버려 둘까...’

가만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굳이 내가 끼어들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저 방해만 하지 않고 내 길만 걷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았다.. 나중에 목록을 수정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나는 미르티의 빗질을 가만히 느꼈다.

“우리 아가씨, 오늘 최고로 빛나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만 믿으세요!”

“아가씨를 무도회의 별로!”

“최고는 말고 적당히.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스타일로 부탁하면-”

“거절은 거절합니다!”

“하아.. 우리 아가씨께 신상 드레스를 입힐 생각만 하니 너무 좋아요...”

언제부터 저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는지, 오늘따라 파이팅 넘쳐 보이는 시녀들을 보며 나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아야 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안일했나...’

무도회에 다녀와서 해야 할 일이 또 늘었다. 아무래도 시녀장에게 단단히 일러둬야 할 것 같다.

“자, 자 아가씨 어서 이쪽으로! 시간이 얼마 없다고요!”

“하하, 나 그냥 안 가면 안 되겠지?”

"호호, 아가씨도 참. 재밌는 농담이에요!"

'제기랄...'

시녀들에게 끌려가다시피 한 나는 내 앞에 놓인 수많은 드레스를 보며 물었고, 시녀는 진담이었던 내 말을 농담으로 치부했다.

“황태자 전하께 가장 아름답게 보이셔야 하니... 어떤 드레스를 입으시는 것이 좋을까요?”

어느새 합세한 미르티도 다른 시녀들과 함께 드레스를 고르고 있었다.

“아니, 여러분. 무슨 고민이 필요해요?”

내 옆에서 시녀장이 모두에게 말했다. 순간 불안한 감이 엄습해왔다.

“역시 그렇죠? 자, 하나하나 다 입어봅시다!”

"....."

시녀장, 그대마저...

아무리 과거의 내가 드레스를 그렇게 좋아했어도 이제는 아니기에 이런 식은 절대 사양이다. 아니, 이걸 어떻게 다 입어?

“저기, 있잖아. 솔직히 우리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만.”

“어머, 아가씨. 뭘 새삼스레. 아가씨는 어렸을 적부터 드레스를 좋아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드레스는 하나하나 입어보며 눈을 호강시켜주는 것이... 황홀하죠.."

한 시녀가 나를 보며 볼을 붉게 물들였다.

사실 내가 이번 생에서는 파티에 자주 가지 않았다. 그래서 꼭 필요한 무도회만 종종 갔던 것이고, 또 그 탓에 이렇게나 많은 드레스를 입어보는 건 정말로 오랜만이었다.

“난 아침까지 걸러놓고 이 많은 드레스를 입을 자신이 없네...”

"보통 영애들은 점심까지 거른다고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단호하게 나가기로 했다. 무도회에 가기 전까지 5시간이나 남아있었지만 길게 끄는 것을 싫어하는 나에겐 이건 중노동이다. 방안 한가득 늘여놓은 드레스라니. 과거엔 대체 어떻게 가능했었는지 모르겠다.

"이거랑 이거, 여기부터 저기까지 제외하고 다 치워."

솔직히 난 무난한 드레스도 잘 소화하는 스타일이라 아무 드레스나 입어도 상관없었다.

“힝... 하지만..”

“아가씨이...”

예쁜 드레스면 뭐든 내게 입힐 생각에 가득 찼던 시녀들은 내 한마디에 울상을 지었다.

“치우라는 소리 못 들었니? 내 시녀들이 이것밖에 안 돼?"

“죄송합니다, 아가씨. 다들 뭐 해, 어서들 안 치우고!”

“예, 예!”

시녀장의 호통이 있고 나서 그제야 시녀들은 제 본분을 되찾고 드레스 무더기를 치우기 시작했다. 이제 속이 좀 후련했다. 그 많던 드레스로 가득찬 방은 답답할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이걸 다 입어야 하나, 하는 마음에 막막하기도 했고.

방이 얼추 정리되자 나는 내가 직접 선택한 스무 벌의 드레스를 보았다. 시녀들은 각자 눈물을 삼켰지만, 그녀들의 눈 호강을 위해 내 몸을 희생하는 건 별로였다.

전체적인 드레스의 모습을 보기 위해 드레스를 들어 올리려는데 미르티가 눈치를 채고 내게서 드레스를 받아, 옷걸이에 걸었다.

"여기서 괜찮은 거 하나씩 말해 봐."

나는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시녀장이 친절히 가져와 준 차를 앞에 두고 시녀들을 모아 의견을 물어보았다. 내 나름대로 아름답다고 생각한 스무 벌의 드레스지만, 그녀들의 눈은 조금 전문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헛, 전 이 드레스요! 붉은 계열이라 아가씨의 푸르른 눈동자와 대조되서 빛날 거에요! 어깨 한쪽으로 쏠린 디자인이라 여기에 꽃을 달아도 예쁠 것 같아요. 등이 파여 있는 게 아가씨를 무도회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아니에요, 아가씨는 이게 어울려요. 오프 숄더는 진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한두 명을 시작으로 물꼬가 트이자 이내 모두 자신의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아래로 퍼져나가는 디자인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목 부분이 감싸져 있는 것도..."

"남색은 어떨까요?"

열띤 토론을 펼치는 내 시녀들을 보며 나는 차라리 잘 되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작 스무 벌의 드레스를 가지고도 이렇게나 열정적인데 만약 그 셀 수 없는 드레스를 물리지 않았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지... 어우.

“이거 괜찮네. 이걸로 하지.”

“예, 아가씨.”

결국 드레스는 시녀들의 주장에 흔들린 나로 인해 결정되었다. 난 시녀들의 도움을 받아 드레스를 입어보았다. 머리부터 화장, 마지막 장신구까지 모두 끝내자 시녀들이 꺅꺅대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물의 여신 같아요!”

“아아, 저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황태자 전하께서 보시면 한 눈에 뿅 가시겠죠?”

“어머, 어머, 첫눈에..!”

“정말이지, 물의 여신 그 자체시네요.”

아래로 갈수록 하늘하늘하게 퍼지며 짙은 그라데이션을 선보이는 하늘색 드레스는 얼핏 보면 화려한 장식이 없어 수수한 듯 하지만 자세히 보면 드레스 밑자락과 목덜미 부근에 작은 물방울 모양의 하얀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있었다.

거기에 반투명한 흰 얇은 천으로 되어 있는 소맷자락. 넓게 나팔꽃처럼 퍼져있어서 하늘하늘한 것을 선호하는 내게 만족감을 주었다.

반짝이는 은발과 바다 빛 눈에 어울리는 하늘색과 푸른색의 드레스는 물의 여신보다는 정령 같다는 느낌을 더 주었다.

“다들 수고했어.”

시계를 보니 어느새 3시간이나 훌쩍 지나있었다. 드레스 하나 입고 치장하기에 이 정도 시간이 걸리다니, 새삼 신기했다.

'그때 보낸 드레스를 정말 하나하나 입어봤다면...'

끔찍한 생각에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으로 떨쳐버렸다.

“어머, 세리스틴. 오늘 아주 예쁘구나.”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도 오늘 아름다우신걸요. 워낙 그렇지만요.”

“호호, 역시 너는 나를 많이 닮았어.”

갈색의 드레스를 입으신 어머니는 우아한 중년의 미모를 풍기고 계셨다. 어머니께서 아름답게 꾸미시는 날이면 내 유전자의 출처를 자연스레 알 수 있었다.

“아름답구나, 세리스틴.”

“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뭐... 봐 줄 만하구나.”

“얘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고마워요, 오라버니. 오라버니도 오늘 멋지세요.”

말은 그래도 뜻은 좋은 뜻이라 기분이 좋았다. 아직 오라버니께서는 칭찬에 익숙하지 않으시기에 딱딱하게 말씀하셔도 그저 오라버니가 귀엽게 보였다.

“누님, 오늘도 아름다우시네요. 헤헤, 역시 누님이세요.”

16 살답게 미소년의 분위기를 풍기는 로테인은 웃으며 말했다. 로테인이 입은 하얀 정장은 그의 분홍 머리와 묘하게 잘 어우러지는 모습을 비쳤다.

“그럼, 이제 출발 할까요?”

“데네아 공작 일가 입장하십니다!”

제국의 단 두 가문뿐인 공작가 중에서도 막강한 재력과 권력을 자랑하는 데네아 공작가. 또 다른 가문인 라베나 공작가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사와 무관을 배출하며 데네아와는 정반대인 무력을 자랑했다. 세간에서 두 가문이 힘을 합친다면 제국을 정복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두 가문의 힘은 대단했다.

그 중 하나인 데네아 공작가가 입장하니 사람들의 관심을 한 곳에 모인 것은 당연지사였다. 아직 아르체아와 황태자는 입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저 구석에서 움츠리고 있는 이벨리아를 발견했다.

“어머니,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잠시 자리를 비워도 될까요?”

“응? 실례는 무슨. 네가 원하는 대로 하려무나.”

인자하게 웃으시는 어머니께 마주 웃어드리며 나는 이벨리아 쪽을 돌아보았다.

간간히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에게 형식적으로나마 대강 인사하며 이벨리아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이런 무도회가 낯선지 사람들 사이에 끼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서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실베스 영애.”

“세, 세리스.. 아니, 데네아 영애... 안녕하세요..”

이벨리아는 내게 어색하게 인사를 했다.

“예쁘게 차려입었는데 왜 이리 기운이 없어요?”

“그냥.. 이런 파티는 제 적성이 아니라서요. 이런 곳에만 오면 항상 기가 빨리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그, 저... 데네아 영애..”

“네?”

이벨리아는 처음 만난 그대로 우물쭈물하며 조심스레 말했다.

“그때 그 일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 돌아가고 난 뒤 제가 크나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동안 사과를 드리지 못했네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라도 아셨으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제가 영애를 처음 만난 날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예?”

“당당해지세요. 영애는 백작 영애라는 직위를 누릴 권리가 있답니다.”

그렇게 말하며 나는 웃어 보였다. 이벨리아는 감격에 찬 눈빛을 보내더니 이내 웃음으로 맞받았다.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공통점을 가진 나와 이벨리아는 시끌시끌한 파티장을 나와, 한적한 테라스에서 소소한 담소를 나누었다.

“가끔 보면 세리스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왜요?”

“음... 잘 모르겠지만, 느낌상으론 그래요. 뭐랄까... 정확히 말하자면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가요?”

“기분 탓인 것 같기도 해요.”

그 후 우리는 무도회장에서 가지고 온 달콤한 쿠키들을 집어 먹으며 오랜만에 만난 김에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래서, 존이 말하길...”

“테일은 그를 벽을 밀치고...

“가슴을 통해 그의 쿵쾅대는 심장소리가 들리며...”

“작은 포옹이었지만 지젠의 얼굴은 새빨개졌다. 맞죠?”

“와, 역시 대단해요! 그 대사의 원작은 거의 갓 나온 신작 아닌가요? 벌써 이렇게 외우시다니..”

“이게 바로 덕심이라는 것이랍니다.”

“덕심.. 이요?”

아, 나도 모르게 단어 선택을 잘못했네.

“그... 작가님에 대한 애정이요.”

“아하.”

그렇게 몇 분간 대화를 나누다가 나는 커튼 뒤 무도회장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에 깜짝 놀랐다.

“밖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나팔 소리면... 황실에 관련된...”

“고귀하신 제국의 황태자 전하께서 입장하십니다-!!”

이제 오네?

“저희 다시 들어가죠.”

“네.”

나는 테라스에서 나와 황태자의 모습을 찾았다. 무도회장에는 수많은 사람이 나와 있었지만 워낙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미모의 그여서 나는 어렵지 않게 그를 찾을 수 있었다. 그의 옆에 서 있는 검은 머리의 여인 또한 내 시선에 잡혔다.

그녀는 하얗고 프릴이 많은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녀의 검은 머리와 대조되어 유난히 돋보이는 효과를 일으켰다.

나를 따라 무도회장으로 들어온 이벨리아가 놀란 표정으로 내 옆에 다가왔다.

“아, 아르체아??”

이벨리아의 특유 하이톤의 목소리에 나는 손가락을 세우며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쉿-”

“합! 죄송해요...”

이벨리아는 자신의 목소리가 순간 시끄러웠다는 것을 깨달은 듯 입을 손으로 막았다. 그녀의 표정에서 아르체아가 저기에 왜 있냐는 의문과 함께 얼떨떨함을 볼 수 있었다.

“역시 전하께서는 오늘도 빛을 발하시네요.”

“황태자 전하의 미모는 어디 가지 않는군요..!”

“그나저나 저 여자는 누구죠?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느 가문의 여식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까 들어올 때 얼핏 듣기론 멜튀스 백작가라던데...”

“멜튀스 백작가는 또 어디죠?”

주변에서 소곤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긴 아르체아가 누군지 궁금하겠지.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무도회가 아르체아에게는 첫 사교계 데뷔 무도회이고, 그 차가운 얼음 황태자와 함께 들어온 것이니까. 다들 내가 황태자의 파트너로 들어올 것이라 예상했겠지만 틀렸다.

이벨리아마저도 몰랐던 눈치였다. 아마도 아르체아가 알려주지 않은 것이겠지.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동화책이 펼쳐지고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러나 그 끝은 이전과는 다른 결말일 것이라고, 나는 확신했다.

황가의 사람들과 타국에서 초청되어 온 고위층들 모두 입장하자, 황제의 황태자의 성인식 축사가 있었다. 요약하여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한다는 내용이었고 마치 교장 선생님의 훈화를 듣는 듯 한 묘한 느낌을 주었다.

“그럼, 나의 황태자여. 성년식의 첫 춤을 출 여성을 고르라.”

지루했던 시간이 지나가고, 드디어 황태자가 자신의 파트너를 고를 시간이 되었다. 대부분은 함께 온 파트너와 무도회의 첫 춤을 장식하지만, 여기 있는 환상 속에 빠진 영애들은 그저 황태자가 자신을 고르러 와주길 바라고 있다.

“아아.. 전하, 어서 저를..!”

“무슨 소리예요. 전하는 당연히 저를 고르실 거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역시 첫 춤은 데네아 영애겠죠?”

“하지만 같이 온 영애는...”

근처에 있는 자들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대놓고 보지는 않았지만 힐끔 힐끔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세리스틴, 과연 전하께서 누구를 고르실까요?”

“전 제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이벨리아가 속삭이며 묻는 소리에 답해주며 나는 아르체아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인파의 원 안에서 당당히 서 있으며, 황태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어서 날 선택하라는 듯해 보였다.

그러나 한 치의 고민도 없이 아르체아를 택할 것이라 생각했던 내 예상은 조금 틀렸다. 황태자는 단상을 내려오며 나를 힐끔 쳐다보았다.

‘왜 그러지? 그냥 빨리 선택해버려.’

오늘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잖아.

구석에서 그저 구경꾼이 되겠다는 태도의 나와 무도회 중앙에서 당당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는 아르체아. 그 누가 봐도 지금 이 구도는 전혀 황태자가 나를 선택할 것 같은 구도는 아니었다.

역시나 나를 잠시 돌아봤을 뿐, 설마설마하는 귀족들의 예상을 깨뜨리고 그는 검은 머리의 아르체아에게 다가가 춤을 청했다.

“멜튀스 영애, 그대에게 나의 성년식의 첫 춤을 청하는 바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놀란 표정과 의외라는 표정이 대부분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뒷편에 자리하는 여기까지 다 들렸다,

“와... 세리스틴, 봤어요? 아르체아가 황태자 전하께 춤 신청을 받았어요!..”

“후훗. 이렇게 보니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어머나, 그러네요? 꼭 신께서 정해주신 연인 같아요.”

흑발의 미남과 흑발의 미녀. 흑발 조합이네, 흑발 조합. 이 흑발 조합 커플은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에 맞춰 빙글빙글 춤을 추고 있었다.

‘그러고 보면 둘 다 꼭 한국인 같이 생겼다니까.’

왠지 저들을 보고 있자니 배가 아파졌다. 인상을 살짝 찡그리자 이벨리아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세리스틴, 무슨 일 있나요?”

“아니에요...”

절대 부럽지 않다. 전혀 부러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연애 까짓것 나도 하면 되지,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연애에 관한 생각에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오르자 나는 퍼뜩 정신 차리며 고개를 저었다.

‘하, 진짜 그 남자...’

허구한 날 모자만 쓰고, 납치까지 한 주제에 공작저까진 또 어떻게 찾아왔는지 무단 침입하던 남자.

“세리스틴, 정말 괜찮아요? 아까부터 어디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저는 괜찮아요. 그냥, 자꾸 이상한 생각이 꼬여서 조금 복잡한 것 뿐이에요.”

“네?”

“걱정해 주신 건 고맙지만, 정말 별 거 아니에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오늘따라 왜 이러는 건지 나도 모르겠다. 그냥 파티든 뭐든 다 때려치우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미르티가 틴 먹이는 줬을까? 제때 안 주면 쪼던데...’

어느새 춤이 끝난 것인지 박수 소리가 들리며 황태자와 아르체아의 주위로 넓게 둘러싼 원이 흐트러지며 하나 둘씩 짝지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세리스틴은 춤 추실 건가요?”

“아뇨, 저는 조금 피곤해서. 이벨리아는요?”

“전 춤이랑은 맞지 않아요... 고향에 있을 때도 춤 연습을 한다 하면 아버지 발을 밟기 일쑤였거든요.”

“그럼 전 잠시 가족들에게 돌아가 있을 테니 이벨리아는 쉬고 계실래요?”

“아, 그럴게요. 마침 심심할까 봐 책을 하나 들고 왔거든요. 전 아까 그 테라스에 있을게요.”

“알았어요.”

웃으며 헤어진 나는 바쁘신 아버지와 담소를 나누고 계시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오라버니와 로테인이 보이지 않자, 나는 할 것도 없었기에 그들을 찾으러 걸음을 옮겼다.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도 찾지 못하자 나는 단념하고 무료하게 춤추는 커플들을 구경했다. 간간히 춤 신청이 들어왔지만 모두 거절했다.

시종에게서 영애들을 위한 아이스티 비스무리 한 음료 한 잔을 받아 들고 2층 난간으로 올라가니 넓디넓은 무도회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음료를 홀짝이며 무도회장을 훑어 보다, 아르체아와 황태자가 보였다.

‘저기서 뭐하는 거지?’

멀리 있기에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특이한 옷차림으로 서쪽의 밴덤 왕국에서 온 왕자와 왕녀로 유추했다.

아무리 봐도 밴덤 왕자가 황태자를 왕녀로 꼬시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황태자는 아르체아의 팔짱을 끼고 다정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거절의 의사를 보이고 있었다.

‘우습기도 하지.’

나는 한껏 비웃음을 입가에 매달며 잔에 든 음료를 모두 들이켰다.

내가 아닌 아르체아를 선택한 것 때문에 개판을 쳐서 무도회를 망치기 직전까지 몰았던 과거와 달리 오늘 무도회는 그때와 같은 수순을 밟는 일만 없다면 완벽하게 큰일 없이 마치게 될 것이다.

‘그때 유리잔이 깨지고, 비명도 지르고, 아주 난리가 났지...’

머릿속에서 두둥실 하며 떠오른 흑역사에 나는 베개라도 패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으, 진짜 왜 그랬지?’

“흐아...”

한숨을 쉬며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눈을 떠보니 얼떨결에 황태자와 눈이 마주쳤다.

‘왜, 왜 날 쳐다봐?’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시선이 느껴지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그는 내게서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결국 내가 자리를 비우고 나서야 그의 시선은 떨어졌다.

“..태자 전하.”

“황태자 전하?”

“아, 아.. 미안하군. 방금 무슨 말을 했었지?”

제국의 황태자 레르칸트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다. 그는 다시 한번 그녀 쪽을 보았지만 이미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 제국과 왕국간의 교류에 관해...”

“아아. 그 문제는 내가 폐하께 건의하도록 하지.”

“감사합니다, 전하. 참, 그리고...”

밴덤 왕자가 말을 길게 끌며 자신의 누이를 곁에 데려오자 레칸은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것이라 예상했다. 그리고 밴덤 왕자가 입을 열며 그 예상이 맞아 떨어 졌다.

“이쪽은 제 누이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긴 그렇지만, 그 어떤 여인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의 학식과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죠. 하하하.”

“샤이르바 리케인 밴덤이라 합니다. 샤르라고 불러주세요. 고귀하신 용안을 뵙게 되어 참으로 영광입니다, 전하.”

“반갑소, 밴덤 왕녀.”

대강 형식적으로 인사를 맞받은 레칸은 자신의 옆에 있는 연인을 바라보았다. 아르체아는 아까부터 무엇이 불안한 건지, 안절부절못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끼쳐 죄송해요.”

밴덤 남매에게는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속삭임을 나누며, 레칸은 그녀가 안쓰러웠다.

그는 아르체아가 이번 무도회가 첫 데뷔 무도회이기에 이런 파티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보다, 라고 치부했다.

“제 누이는 춤에도 굉장한 실력을 갖추고 있죠.”

“어머, 오라버니. 굉장하다뇨. 그저 보잘 것 없는 실력인데...”

“하하, 무슨 소리냐. 내가 네 실력을 모를 리가 없지 않겠느냐.”

“아이, 오라버니도 참...”

호탕하게 웃는 밴덤 왕자에게 왕녀는 입가를 손으로 가리며 주먹으로 슬쩍 그를 쳤다. 자신의 오라비를 바라보는 눈으로 보아, 싫지는 않은가 보다. 그럼 그렇지.

“아, 그리고 전하. 샤르는 미모를 비롯해 몸매도 보통 여성들과는 다르답니다. 뭐, 평범한 여자들은 감히 넘지 못할 여성의 벽이랄까요?"

그리 말하며 밴덤 왕자는 노골적으로 아르체아를 훑어 보며 비웃음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레칸은 그런 음흉한 눈으로 아르체아를 보는 그가 매우 마음에 들지 않았다. 게다가 밴덤 왕녀는 아르체아의 미모에 비교조차 되지 않았다.

‘대체 어딜 감히 비교하려 드는지.’

“해서, 제 누이와 춤 한 번 춰주실 수는 없으신지..?”

밴덤 황자가 소심하게 용기 내어 요청한 그 청을 레칸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미안하지만, 내 파트너가 몸이 안 좋아서 말이지. 이만 실례 하지.”

“저, 전하!”

“전하!”

레칸은 아르체아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 더는 저 남매의 헛소리를 들어줄 인내심이 남아 있지 않았다.

‘역시 황실 정원이라 그런지 퀄리티가 장난 아니구나.’

나는 시끄러운 파티장을 나와 정원을 잠시 산책했다. 창문 틈새로 사람들의 목소리와 음악소리가 들려왔다.

그동안 사교계에 신경 쓰지 않았더니 이런 분위기는 내게 너무나도 시끄럽고, 그 속에 담긴 위선들이 껄끄러웠다.

황실 정원은 생각보다 거대했다. 장미 정원, 미로 정원, 봄꽃 정원 등 갖가지 종류의 화려한 꽃과 호수들이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해냈다. 그리고 정원 사이사이에 어둠을 밝혀주는 마법등.

이 마법등은 이름만 겉멋 나게 붙인 것이고, 그냥 평범하게 빛나는 공이었다. 공중에서 무드등과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며 떠 있었다.

하지만 신기하긴 신기했다. 시차를 두며 점점 색을 바꾸는 것도 특이하고.

하나같이 아름다운 꽃들을 구경하며 나는 점점 정원 깊숙이 들어왔다. 너무 멀리 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이미 늦은 후였다.

“음... 여기가 어딜까요?”

아무도 듣지 못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나는 거대한 호숫가 앞에 섰다. 황실 정원에 이런 곳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렇게나 거대한 호수가 정원 안에 있다는 사실이 참 희한하기도 했고, 역시 황실이 구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했다. 이곳엔 마법등을 설치하지 않았는지, 호숫가는 달빛을 받으며 검은 물만 출렁거렸다. 주위에는 나무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예쁘긴 진짜 예쁘네...”

보는 사람도 없어, 나는 호숫가 앞에 쪼그려 앉아 호수에 비친 달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드레스 밑자락에 흙이 묻어 버렸지만 상관없었다. 뭣하면 나중에 시녀라도 불러 여분으로 챙겨온 드레스를 가져다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잠시 눈을 감고 서늘한 바람결을 느껴보았다. 이런 평화, 나쁘지 않다.

“뭐해요?”

“꺅!”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에 깜짝 놀라 어울리지 않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그 때문에 나는 호수 쪽으로 꼴사납게 넘어질 뻔했지만 누군가 나를 부드럽게 받혀주어 그런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로, 로빈?”

“안녕, 아가씨? 좋은 밤~”

“아니, 당신이... 여긴 또 어떻게..”

방랑 상인인 그가 이런 황실에 있을 리가 없었다. 나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말을 잇지 못했다.

“나야 당연히 아가씨 보러 왔죠.”

“그게 무슨... 잠시만요, 설마 텔레포트로 무단 침입한 거예요?”

로빈의 부축 덕에 제대로 서게 된 나는 로빈에게 물었다.

“무단 침입이라니, 그거 참 좋지 않은 단어 선택이네요. 정확히 말하면, 무단 침입이 아니라 순간 이동해서 온 거거든요?”

“그거나 그거나. 하여튼, 왜 온 거예요?”

“말했잖아요, 아가씨 보러 왔다고. 오늘 치장해서 그런지 더 예쁘네요.”

“그거 참 신박한 이유네요. 그나저나 로빈도 오늘 황궁 온다고 꾸민 거예요?”

“후후, 아가씨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왔지요. 나 어때요?”

로빈은 양 팔을 벌리더니 한 바퀴를 빙 돌았다.

“당신한텐 안 어울려요.”

“그렇게 웃으면서 딱 잘라 말하다니, 너무 단호한 거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했어도, 검은 가죽바지 위로 남색 셔츠에 허리띠를 두른 뒤 군청색의 얇은 로브를 대충 걸친 그는 의외로 잘 어울렸다.

그는 오늘 모자 대신으로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의 작은 보석을 촘촘히 박은 가면을 쓰고 있었다.

대충 꾸민 티가 났지만 오히려 그게 더 그에게 어울린 달까?

“당신, 평범한 상인은 아니죠?”

“글쎄요오?”

가면은 그의 눈만 가린 채로 있었기에 나는 그의 생글생글 웃는 입가를 볼 수 있었다.

“머리가... 은발이었네요?”

“네. 괜찮나요? 오늘 모자 쓰고 오기엔 그래서, 확 벗어버렸죠.”

“나쁘지 않네요. 그런데 저랑 머리색이 같다는 점에서 감점 드릴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여깄답니다. 그러게 누가 저랑 머리색 같으래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으로 눈 가리고 있으면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보여요?”

“아가씨 쪽에선 보이지 않겠지만 저는 아주 잘 보이네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음.. 저희 뭐할까요? 다 하지 못한 산책이라도 할까요?”

“경치도 좋고, 바람도 적당하고, 호숫가 옆이라니 정말 딱 좋지 않나요?”

“뭐가요?”

로빈은 입가에 미소를 띠고 한 손으론 내 손을, 다른 한 손으로 허리를 잡고 자신 쪽으로 이끌며 물었다.

“춤 한 곡 추시겠어요, 레이디?”

그의 등 뒤론 은빛 달빛이 그의 은발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미리 말하는데, 저 춤 못 춰요.”

“괜찮아요.”

“밟을지도 모르는데?”

“밟을 수 있다면 밟아도 좋아요.”

그의 도발에 나는 순간 욱하며 그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좋아요, 당신 발 간수 잘해요.”

씩 웃는 나와 로빈 사이에선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다.

‘아주 탭댄스를 춰 주지’

“그런데, 여기서 추기엔 조금 좁지 않아요?”

내 손을 잡은 상태로 로빈은 물었다.

“여기도 넓잖아요.”

“에이~ 이런 데서 추면 재미가 없죠. 읏챠-”

“지금 뭐 하는- 꺄악!”

그는 내 손을 잡고 호수로 이끌었고, 나는 물에 젖는다는 생각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내 예상과는 달리 나는 물에 젖지 않았다.

그래, 오히려... 물 위에 서 있었다.

“하하...”

“깜짝 놀랐어요?”

“다시는... 이런 장난, 치지 마요...”

순간 놀라서 나도 모르게 로빈의 품속으로 뛰어든 것이 무려 조금 전이라, 나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내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나는 후회했다. 바로 발밑에서 호숫물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고개를 드는 수밖에 없었다.

“왜요, 아가씨가 나한테 안겨주니까 난 좋- 악! 와, 진짜 무슨 여자가 손이 왜 이렇게 매서워요?”

“그러게 누가 그런 장난치랬어요? 난 진짜 놀랐단 말이에요!”

나는 거칠게 손으로 흘러내린 은발을 쓸어 올리며 그에게 쏘아 붙였다.

“그래서 춤출 거예요, 말 거예요?”

“여기서요? 미쳤어요?”

나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고, 그는 그저 쿡쿡 웃기만 했다.

“걱정 하지 마요, 내가 이미 마법 다 걸어놔서 절대 안 빠져요. 그리고 언제 또 호수 위에서 춤춰 보겠어요?”

“... 진짜죠?”

“나 못 믿어요?”

“당신은 원체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돼서.”

“그거 좀 상천데요?”

“뭐라는 거에요. 그럼 이 분위기에서 춤추는 거예요? 음악도, 불빛도 없이?”

“춤추는 데 음악이 꼭 필요한가요, 자연의 소리를 음악 삼아 하면 되죠. 그런데 달빛만으론 빛이 좀 부족한 것 같긴 하네요.”

“어두운 곳에서 추는 것도 나쁘지 않은 추억이라 생각해요. 물론 안 좋은 기억으로 남겠지만.”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로빈은 잠시 고민하더니 내 손을 놓았다.

“자, 잠시-!”

탁

“에?”

“어... 이, 이건 제 의지가 아니라..”

“뭐가요? 아가씨가 내 손 붙잡은 거요?”

“붙잡기보다는 살고 싶다는 생존 의지랄까요...?”

나는 얼버무리며 그의 손을 놓으려 했다. 그러나 로빈은 다시 내 손을 잡고 깍지를 꼈다.

“뭘 놓으려고 해요. 괜찮아요, 어차피 한 손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한 손으로 뭘 해요?”

“이런 거요.”

딱

그가 손가락을 튕기자 호수 주변에서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 어두웠던 호수가 떠오르는 반딧불이들로 반짝이며 아름답게 흘렀다. 아니, 반딧불이인지 아니면 마법으로 인한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빛의 그것들은 우리 주위에서부터 호수 전체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이게, 가능해요..?”

나는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사기잖아.

“마법은 아름다운 거죠. 이런 것도 가능해요.”

로빈이 손짓 몇 번을 하자 잔잔했던 호숫물이 중력을 거스르며 군데군데 마다 분수처럼 물을 뿜어내었다. 거꾸로 올라가 다시 추락하는 물을 멍하니 바라보다 로빈에게 중얼거리듯 물었다.

“혹시 이거 꿈인가요?”

“꿈이 아니랍니다, 아가씨? 이제 나한테 집중해야죠. 이렇게 분위기도 예쁘게 만들고 있는데 그 노고를 봐주질 않으니 섭섭해요.”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뭔가 찜찜한데.”

역시 수상쩍은 남자다. 정체도 모르고 무작정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경계하는 것이 좋다고 아버지께서 그러셨다.

“글쎄요..? 그냥 내가 아가씨에게 반한 걸로 치죠.”

그러나 로빈은 또 다시 애매모호하게 대답하며 내 손을 잡고 호수 중앙으로 이끌었다. 제대로 된 대답을 회피하려는 그 때문에 불만이다. 하지만 이렇게나 아름다운 퍼포먼스를 보여줬으니, 오늘 하루쯤은 넘어가도 좋겠지.

로빈의 말 대로 악단의 곡 연주는 없었지만, 자연이 내는 소리로도 충분했다. 형형색색의 작은 빛들은 우리를 중심으로 돌며 훌륭한 조명 역할을 해주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날리는 소리, 밤새가 조용히 찌르르 대는 소리, 풀잎이 서로 사르륵거리며 부딪히는 소리 등 굳이 멜로디가 필요치 않은 잔잔한 음악이었다.

“꽤 추네요? 의왼데요?”

“내가 좀 다재다능하거든요.”

“풋-”

“어, 뭡니까, 그 웃음은? 나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음.. 그건 아니고요.“

“그럼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간간히 대화를 나누며 호숫가 위에서 춤을 췄다.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이런 물 위에서의 춤이라니, 솔직히 아직까지도 꿈만 같은 느낌이다.

그 뒤로 우리는 말 없이 서로를 마주 보며 춤만 추었다. 무언가가 빠진 느낌이지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다만, 가면 속에 감춰진 그의 눈이 보고 싶었다.

춤이 거의 다 끝날 때쯤, 로빈이 만들어낸 작은 분수들이 다시 가라앉고, 반딧불이들은 모습을 감췄다. 마치 꿈에서 깬 듯하게, 몽환적인 분위기가 사라지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췄다. 그러나 우리 둘 다 시선은 서로를 향한 채였다.

“... 다 사라졌네요, 마법들이.”

“마법일 뿐이니까요. 마법은, 현실이 될 수 없으니까.”

“.. 그렇죠, 마법은 마법일 뿐이죠.”

‘그런데 왜 이리 미련이 남는 걸까요?’

차마 뒷말을 뱉지 못한 채, 나는 로빈의 에스코트를 받아 무사히 호숫가에 안착했다.

“오늘, 고마웠어요.”

나는 그에게 미소를 지어주며 말했고, 로빈 또한 내게 웃어주었다. 그는 잡은 내 손을 들어 올리더니 그대로 손등에 입을 맞췄다.

“그럼 좋은 시간 보내시길, 아가씨.”

“...역시 우리는 다음에 다시 안 보는 것이 좋겠어요.”

“다음에도 내 가 찾아갈 건데요, 뭘. 그때를 기약하며, 얍.”

그는 올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순간이동으로 사라졌다. 나는 홀로 호숫가에 서서 가만히 그가 키스한 손등을 바라보았다.

‘입술... 부드럽네.’

꿈에서 깨어났지만, 아직도 꿈에서 깬 것 같지 않았다.

“데네아 영애?”

“네?”

로빈과 헤어진 후 무도회장으로 돌아와 쉬고 있는데 한 무리의 영애들이 내게 다가왔다.

“무슨 일이시죠?”

“데네아 영애, 듣기로는 영애가 황태자 전하의 파트너로 정해졌다고 다들 그러시던데, 이게 어찌 된 일이죠?”

맨 앞에 서 있던 우두머리격의 라탄 후작 영애가 물었다. 그녀를 필두로 다른 영애들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동참했다.

“그런 소문이 퍼졌다고요?”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아, 하긴 공녀는 나 하나뿐이니까. 그 누가 제국의 공녀를 두고 그의 파트너가 될지 상상이나 했을까. 황태자가 직접 선택하지 않는 한, 그 대상은 나였겠지.’

이건 자만심이나 오만함이 아니었다. 황실도 황실이지만 황족과 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여성 중에서 1순위는 나였다. 웬만한 일이 아니라면 그의 파트너는 나였어야 했지만, 오늘은 황태자가 아르체아를 선택했다.

‘나도 파트너가 되길 원한 게 아니니까 상관은 없지만.’

“사실상 꼭 제가 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지요. 비록 제가 공녀일지라도, 선택권은 전하께 있다는 점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영애가 데네아 영애의 자리를..."

"전 정말 괜찮아요. 오랜만에 이런 큰 무도회에 참석했더니 무리 하고 싶지 않아

서, 그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라탄 영애는 아무래도 내가 있어야 할 황태자의 옆자리에 누군가 개입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모양이었다. 날 생각해준 건 고맙지만, 난 황태자가 아르체아와 함께 참석해도 태연할 정도로 괜찮다. 그렇게 말하며 나는 이들에게 한번 웃어줬다. 내가 이상하리만큼 멀쩡하다는 의미로.

“하... 영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행이지만 영애는 너무 마음이 넓으셔요.”

내 말에 라탄 영애는 미묘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약간의 호의가 담긴 그 눈빛을 나는 가만히 받아냈다.

"멜튀스란 영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만일 그 영애가 데네아 영애께 해를 입히는 순간, 멜튀스 영애는 저희의 적이 될 것이니까요."

라탄 영애를 포함한 다른 영애들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내게 인사를 하고 떠났다. 남겨진 건 얼떨떨한 얼굴의 나뿐. 나와 딱히 인연이 없었던 라탄 영애가 이런 호의 아닌 호의를 보여준 건 의외였다. 내가 뭔 짓을 했었나..?

벽에 기대 뻑뻑한 눈을 손바닥으로 문지르려다 내가 화장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손을 내렸다.

‘피곤해...’

나는 아까부터 피로가 쌓여 감기려는 눈을 억지로 떴다. 아직 파티의 절반도 채 오지 않았다. 그동안 파티를 가지 않았더니 체력이 약해진 모양이다.

‘운동, 해야 하나..’

한국에서 다이어트의 귀찮음을 가슴 깊이 느껴보았기에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다.

“후우...”

“피곤한가?”

“아, 제, 제국의 고귀하신 황태자 전하를 뵙습니다.”

눈을 감고 벽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쉬던 중, 앞에서 누군가 내게 말을 걸었다.

흑발의 황태자, 그였다. 아르체아는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저는 괜찮습니다, 전하.”

“그럼 한 곡 추겠나?”

“...예?”

나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그를 바라보다가 예가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눈치챘다.

“예, 전하.”

그가 내민 손을 잡으며 나는 홀의 중앙으로 이끌려 갔다. 솔직히 춤을 추기엔 조금 피곤했지만 황실의 청을 거절하기엔 내 배짱은 그리 좋지 않았다. 그래도 고작 한 곡만 추는 것인데 뭐 어떠한가. 다만 춤출 상대가 문제지.

로빈과의 춤은 편안하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 속에서 췄더라면 지금은 어색하고 딱딱한 분위기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가 입을 열었다.

“그때, 어떻게 내가 널 고르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지?”

응? 저게 무슨... 아, 내가 했던 제안 말하는 건가.

“그저 여인의 감이랄까요.”

“감이라고 하기엔 뭔가 이상한데 말이지.”

“....”

뭐라 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문 나를 내려다보던 황태자가 나를 한 바퀴 돌린 뒤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오며 말했다.

“하지만 감사는 표하지. 그대 덕분에 그녀를 만났으니까.”

아, 네,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는 내버려 두고 둘이 꽁냥꽁냥 잘하세요.

“저는 이제.”

“?”

잠깐의 뜸을 들인 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한 사람의 관객이 되어 볼까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지?”

그가 이해하지 못한 듯 인상을 살짝 찡그리며 묻자 나는 잔잔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7년 전부터 저는 이미 전하께 대한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전하께서 선택하신 여인에게 마음을 주십시오.”

‘당신을 날 좋아하지 않지. 나 또한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

황태자가 다시 입을 여는 순간 타이밍도 좋게 춤이 끝났다. 나는 그가 또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선수를 쳤다.

“영광이었습니다, 전하.”

황태자는 무언가 말을 하고 싶은 눈치였지만 나는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자리를 떴다. 이제 과거의 연은 깨끗이 정리했다. 속이 좀 후련해졌다.

‘확실하게 내 의사를 전달했으니 그도 더 뭐라 하진 않겠지.’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 현실만을 바라볼 차례다.

“.....”

레칸은 말없이 그녀가 가버린 쪽을 바라보았다.

‘대체 무슨 소린지...’

그는 그저 그녀의 제안에 대해 고맙다고 하고 싶었는데, 그녀는 오히려 그에게 이상한 말만 늘어놓은 채 가 버리고 말았다.

“마음을 접었다, 라...”

그렇다면 이전에는 나를 마음에 두고 있었단 말인가?

그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다른 여자들의 간접적인 고백-과도한 스킨십이나 볼을 밝히는 일 등-과는 달리 이런 식으로 전해오기는 처음이었다.

‘세리스틴 데네아였나?’

그는 가물가물한 기억을 되살려 그녀의 이름을 기억해냈다. 방금 전의 상황을 곱씹어보던 그는 그녀가 한 말에 다시 인상을 찡그렸다.

‘자신은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라니, 나랑 장난하자는 건가?’

대부분 여자들은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자신을 좋아해달라고 고백하지 않나? 어째서 그녀는 내게 다른 여자를 좋아하라 말하는 것인가. 그는 그녀가 그저 내숭을 떠는 것뿐이라고 결정지어버렸다.

‘이런 말재주 따위로 날 혼란시키려 하다니...’

아무튼 예전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다.

“전하, 괜찮으신가요?”

어느새 아르체아가 그에게 가까이 오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 내게 어울리는 여자는 아르체아 같은 여자다. 고작 공녀라는 이유로 모든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여자와는 다른 순수한 여자.

“응? 아, 난 괜찮다. 오히려 네게 묻고 싶은 말인데, 몸은 어떤가?”

“저도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전하.”

아르체아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레칸의 머릿속에는 그녀의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르체아의 순진한 미소에 비하면 그런 가식적인 웃음 따위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전하? 아까부터 계속 인상을 찡그리시던데... 무슨 일 있으셨나요?”

“아무 일 아니다. 걱정 끼쳐 미안하군.”

그들은 사람 많고 복잡한 무도회장을 벗어나, 테라스로 들어갔다.

“참, 오늘 무도회에 데리러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하가 아니었으면 전 이 무도회에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난 그 사고만 아니었다면 그대를 만나지 못했겠지.”

레칸은 한 손으론 그녀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르체아의 뒷머리를 쓸어내렸다.

머리에 꽂았던 장식 핀이 그의 손에 걸리자, 그는 거침없이 그것들을 빼내었다.

둘의 얼굴이 서로 가까워지며 그는 아르체아를 조금 더 꽉 껴안았다.

“아...”

그의 이마가 아르체아의 이마에 닿을락 말락 할 즈음에 아르체아가 급히 두 손으로 그를 밀쳤다.

“...?”

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르체아는 빨갛게 물들은 볼을 잡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 저, 저는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르체아는 외치며 허둥지둥 테라스 밖으로 나갔다.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황태자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었다.

“큭... 큭큭...”

그의 황당한 웃음이 손바닥 틈 사이에서 흘러나왔다. 아르체아는 생각보다 귀엽고, 순진했다. 가식적인 웃음을 짓고 도도한 그녀와는 달리.

“아, 데네아 영애!”

“... 무슨 일이신가요, 멜튀스 영애.”

나는 속으로 짜증을 삼키며 대답했다. 뒤를 돌아보니 아르체아가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그날 일을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너무 경솔한 짓을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영애가 한 짓은 귀족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군요.”

“예. 감사해요, 데네아 영애.”

형식적으로 사과를 받아 준 후 나는 몸을 돌려 다시 갈 길을 가려고 했다. 그러나 아르체아는 내게 또 할 말이 있던 건지 나를 붙잡았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죠?”

“저는 영애께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렇다고 무작정 사람을 붙잡는 행동이 영애의 특성인가요?”

“제겐 중요해요!”

“들을 가치가 없군요. 이만 돌아가세요, 영애.”

아르체아의 손을 내치고 그녀가 붙잡아서 구겨진 드레스 옷자락을 정리하며 나는 말했다.

“영애는, 황태자 전하를 사랑하시나요?!”

이건 또 무슨 개소린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그렇게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저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아르체아는 입가에 웃음을 달고 말했다.

“어머나, 그건 어디서 나오신 자신감이죠? 멜튀스 영애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보는 능력이라도 가지고 계신가요?”

그 웃음이 하도 거슬려서 과거 특유 웃음으로 여러 영애를 부들거리게 만든 비웃음을 지어 보였다. 아, 이럴 때 부채 하나라도 있어서 딱 펼치고 눈웃음만 지으며 클라이맥슨데.

“그건 아니지만... 전 분명 보았어요.”

아르체아가 도전적인 눈빛으로 말했다. 네가 무엇을 봤길래 이런 눈빛을 짓는 걸까?

“무엇을 말이죠?”

“데네아 영애가 전하를... 황태자 전하를...”

나는 나답지 않게 꽤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었다. 그녀의 개소리의 끝판을.

“... 아련한 시선으로 쳐다보았다는 것을요.”

... 얘가 방금 뭐라고 한 거지? 아련이요? 내가 황태자를? 아려언?

“저기, 영애.”

“네.”

‘눈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차마 말할 수 없어, 속으로만 삼키고 난 되물었다.

“제가 아련한 시선으로 전하를 바라보았다고요?”

“네.”

“사랑하는 사람을 쳐다보듯 이요?”

“네.”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는 아르체아를 보며 나는 고구마 열 개 아니, 한 몇 십 개 정도는 먹은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영애,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전 전하를 그런 눈빛으로 보지도 않고, 전하를 사랑하지도 않아요.”

“거짓말 말아요! 제가 모를 줄 아시나요? 데네아 영애는 전하를 아직 마음에 품고 계시다는 것을요.”

“하...”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나왔다.

이거 말이 안 통하네. 아르체아, 당신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그렇게 속이 꽉 막히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그런 여자였어? 그럼 그 옛날 내가 봤던 너는 누구였지?

“멜튀스 영애, 멋대로 상대의 마음을 판단하지 마세요. 듣자 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군요. 그리고 잊으신 것이 있는데, 저는 제국의 대공녀입니다. 그대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거짓말만 하시네요.”

“그러는 영애는 끝까지 우기기만 하시네요.”

선을 넘으면서까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대체 뭘까, 하고 의문이 들었다. 일단 확실한 것은 이 여자는 내가 아는 아르체아가 아니었다. 성녀 아르체아는 절대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실베스 영애에게 전해 들은 멜튀스 영애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유감이네요.”

“저 또한 실망입니다, 데네아 영애. 제국의 대공녀 되시는 분이 이렇게 자신의 마음에 대해 무지하다뇨.”

“풋-”

“..?”

계속되는 그녀의 헛소리에 더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들어줄 가치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았다.

“멜튀스 영애, 그대가 뭐라 하든 제 마음은 제 것입니다. 영애가 그렇게 제가 전하를 마음에 담았다고 단정 지어도 제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발뺌하셔도 저는 다 알 수 있...”

“아아, 제가 보기엔 영애가 전하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보니 잘 어울리시던데, 상관없는 저는 엮지 마시고, 전하께 돌아가셔서 파트너의 본분이나 다하세요. 무려 황.태.자 전하의 파트너씩이나 되시는 분이 여기서 이러시면 되겠어요? 그럼 전 이만.”

한껏 비웃음을 담아 웃어준 뒤, 나는 후련하게 내 할 말 다 하고 돌아섰다. 아르체아는 내게 할 말이 더 남아있는 것 같았지만 나는 깔끔하게 무시했다.

정말, 이렇게까지 말해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정신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니, 기껏 빠져준다니까 왜 자꾸 엮는 건데.’

짜증을 삼키며 나는 복도를 걸어갔다. 이제 가족들에게 돌아가 볼 시간이다. 이런 여자 따위에게 잡혀 있을 시간이 아니다.

“어머니, 이제 가시게요?”

“그럼. 네 아버지나 나나 이런 시끄러운 파티는 그리 선호하는 편도 아니고, 아들 하나는 몰려오는 영애들에게 질려선 명색이 기사에도 도망이나 쳤고, 다른 하나는 체력이 받쳐주질 않잖니. 이제 그만 돌아가야지.”

“저야 좋죠.”

“그나저나, 헤르베디는 대체 어디 간 건지...”

“제가 찾아올 까요?”

“뭘 번거롭게 그러니. 거기, 헤르베디 데네아 공자 좀 불러와 주겠나?”

“예, 부인.”

어머니는 간단히 지나가던 시종 하나를 불러 세워 오라버니를 소환했다. 민주적이던 한국에 살다보니 이런 귀족사회가 얼마나 편리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조금 잔인하다는 것도.

집으로 돌아오니 벌써 한밤중이었다. 저택 사람들은 피곤함에 물든 얼굴로 우리를 맞았다.

“흐아... 졸려..”

나는 내 방에 들어선 즉시 푹신하고 따듯한 침대로 뛰어 들었다. 그러나 미르티에 의해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아가씨, 아무리 그러셔도 옷은 갈아 입으셔야죠!”

“나 진짜 귀찮은데...”

7년 전 제국으로 돌아온 이래 내가 무도회에 참석한 횟수는 조금 과장하여 손에 꼽을 정도다. 나는 과거의 나에게 묻고 싶다. 대체 어디서 나온 체력으로 그 수많은 파티들을 참석했을까?

“오아아-”

오늘도 희한한 울음소리를 자랑하는 파랗고 작은 새가 내게 날아왔다. 어느새 자란 것인지, 틴의 꼬리가 더 길어졌고 끝부분이 금빛으로 반짝거렸다. 물론 자세히 봐야지만 알 수 있었지만.

이제 보니 눈가도에 은빛이 감돌았다.

“너는 진짜 네 주인을 닮으면 안 돼. 아, 지금 주인은 나구나. 그 사람 닮아 가지 말렴.”

‘왜 하필 은발인건데.’

속으로 투덜거리며 나는 내 손길에 몸을 맡기는 틴을 쓰다듬었다. 미르티는 등 뒤에서 내 드레스를 벗기는 중이었다. 미르티가 내게 물었다.

“아가씨, 오늘 무도회는 어떠셨어요? 황태자 전하는 소문대로 잘생기셨나요?”

“뭐, 그럭저럭. 좀 시끄러웠는데, 황실이라 그런지 먹을 건 많더라.”

‘다만 그것들을 다 먹지 못한다는 게 한일 뿐.’

그나마 코르셋이 약한 드레스로 골랐는데, 미르티가 얼마나 조였으면 미니 타르트 세 개가 넘어가지 못했다. 아, 진짜 못 먹어 본 디저트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하는요? 어떠셨어요?”

“황태자 전하야 오늘도 미모를 발하셨지. 그런데 역시 내 취향은 아니야.”

“그래요? 의외네요. 아가씨 어릴 적엔 그렇게도 황태자 전하를 좋아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건 철없던 어릴 적 이야기지, 지금은 아니란다.”

“피이이- 피이이-”

내 방의 천장은 꽤 높고 넓은 편에 속했으므로 틴이 날아다니기에는 전혀 무리가 가지 않았다.

“틴은 오늘도 활발하네요. 피곤하지도 않나 봐요.”

“내가 더 피곤해. 그러니까 나 좀 자면 안 될까?”

“절대 안 돼요! 화장 지우시고 옷도 마저 갈아입으셔야죠!”

제발, 잠 좀 자자...

“...”

홀로 남겨진 아르체아는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방금 지나간 상황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황태자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 가당치도 않은 소리.’

세리스틴 데네아는 무조건 그를 사랑해야 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녀가 아는 데네아는 절대 이런 식으로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가지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야 했다.

악녀가 악녀답게 행동할수록 상처받는 주인공은, 그 가련함으로 모든 이들을 사로잡았다. 그렇기에 결국엔 주인공이 해피엔딩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 봤자, 그가 널 봐줄 것 같아?’

아르체아는 그리 생각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전에 세리스틴을 직접 찾아가 봤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무언가 잘못 틀어졌다.’

그녀는 두려웠다. 자신이 아는 시간들과는 조금 다르게 현재가 흘러갔다. 이렇게 되면 그때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안 돼, 그것만큼은 절대 안 돼!’

이런 현재를 위해 ‘마녀’에게 그렇게 빈 것이 아니었다.

고작 대가 하나 치르지 못해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낳았다. 자신이 생생하게 기억하는 모든 시간들이 대가 하나 때문에 모두 없었던 일처럼 사라져버렸다.

‘괜찮아, 그런 마법 하나 없어도 황태자는 날 선택했어. 그러니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되새기며 아르체아는 마음을 진정시켰다. 오늘 일만 봐도 그렇다. 황태자는 그녀보단 자신에게 더 관심을 가지며 끝내 파트너가 되고, 첫 춤도 췄다. 모든 것은 과거와 똑같이 흘러갈 것이다. 걱정할 일은 전혀 없다.

다만 한 가지, 세리스틴 그녀가 신경 쓰였다.

“후훗.. 후후훗..”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는 복도 가운데, 아르체아는 입술 사이로 기분 좋은 웃음을 내뱉었다.

‘아무리 마녀가 장난을 쳐놔도, 과거만 되풀이 될 뿐이야.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은 잘 흘러갈 거야. 너는 절대 황태자를 가질 수 없어, 세리스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황태자의 성년 무도회가 열렸던 날로부터 벌써 일주일 가까이 지나갔다. 그사이에 오라버니는 유학을, 로테인은 학술원으로 돌아갔다.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황궁으로 일하러 가셨고, 어머니 또한 친분 있는 귀부인들과 모임을 나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가족은 나 혼자였다. 나는 이 자유를 잠시 누리며 미르티에게 차와 쿠키를 부탁했다.

맑은 하늘에 적당히 선선한 바람과 구름에 가려진 쨍쨍한 햇볕의 날씨. 정말이지 정원에 있는 그네 의자에 앉아 책 읽기 딱 좋은 날씨다.

솔직히 한국에서는 이런 경험을 해보지도 못했다. 내 모든 생을 통틀어도 이런 소소한 평화의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화려한 파티나 사교계보다는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좋았다.

끼익 끼익

발장난으로 그네를 움직이며 등 받침에 기대어 책을 읽기 시작했다.

[연애, 알고 하면 더 쉽다]

최근 내 최대 관심사는 역시나 연애였다. 솔직히 17살쯤 되면 누구나 연애해보고 싶진 않을까? 첫 번째 생에서의 연애는 장렬히 실패, 두 번째 생에서는 그냥 모솔.

신이 주신 나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 기회를 나는 놓칠 생각이 없다. 물론 신은 연애를 하라고 기회를 준 게 아니겠지만 말이다.

‘그러고 보니, 난 도대체 어떻게 세 번 살 수 있는 거지?’

예전부터 궁금해 왔던 의문이었다.

어째서 난 삶을 세 번이나 사는 걸까? 그것도 기억을 간직한 상태로.

‘신전... 이라도 가볼까...’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곳에서 작은 단서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나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서 오세요, 형제님. 비아나 신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흰 두건을 뒤집어 쓴 여사제가 내게 두 손을 모아 인사했다. 나 또한 손을 모으며 고개를 숙였다.

“저희 신전은 크게 태초 비아나 여신의 일대기가 그려져 있는 벽화전시관, 사제들이 기도하는 공간인 별관, 성녀님께서 여신을 접하시는 본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나요?”

“음...”

어디로 가면 내 의문을 풀 수 있을까? 솔직히 이곳에 온 것도 반신반의하며 온 것이기에 딱히 어디로 갈지는 떠오르지 않았다.

“정하기 애매하시다면 벽화전시관에 가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보통 많은 분들이 그곳에 먼저 들리시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신전 관람 시간은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럼 비아나 여신과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네. 가죠, 웨티스 경.”

“예, 아가씨.”

신전의 보안상 무기를 맡기고 돌아온 웨티스 경과 함께 나는 새하얀 대리석 위에 발을 내디뎠다.

비아나 신전은 온통 하얀색투성이었다. 요리보고, 조리봐도, 음음, 하얀색.

‘나 뭐라는 거니, 진짜’

어렸을 적 보육원에서 틀어준 애니메이션 주제곡이 떠오르자 나 자신이 유치해져서 웃음이 나왔다. 웨티스 경은 그런 내가 의아한 듯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음? 아, 그냥 옛날 생각 좀 했어요.”

“... 아가씨 어릴 적, 말씀이십니까?”

“제 어릴 적이... 아.”

10살로 회귀 전이면 뭐, 기억해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었다. 특히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웨티스 경의 모습을 보면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개판이라고.

‘쪽팔린다, 진짜...’

잠시 동안의 침묵이 이어지고, 웨티스 경이 입을 열었다.

“큼... 요새 그자는 보이지 않는 군요.”

“로빈이요?”

“납치범입니다, 아가씨. 그것도 감히 제국의 공녀를 납치한 파렴치한 범죄자죠.”

“푸흡...”

납치 사건 이후 웨티스 경은 로빈에 대한 이야기면 항상 날을 세웠다. 저택에 있을 때도 경비를 늘리라고 지시한 것도 웨티스 경이었다. 물론 난 그의 뒤에는 오라버니가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고 보니, 오라버니는 잘 지내실까요? 꽤 먼 곳에 가셨다고 들었는데.”

“도련님은 어디에 가셔도 최선을 다하실 분이십니다.”

로빈을 언급할 때와는 딴판인 표정이다.

“오라버니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검술의 천재지 않습니까. 기사로서 본받고 싶은 분입니다.”

둘이 나이도 많이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신보다 어린 사람을 본받고 싶다니, 보통은 질투하지 않나? 과거의 나처럼 말이지. 새삼 웨티스 경을 다시 보게 됐다.

웨티스 경과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어느새 새하얀 길이 끝나고, 거대한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벽화 전시관이라 그런지 꽤 크네요.”

“어떻게 이런 크나큰 신전을 지었는지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큰 신전의 모습에 감탄하며 우리는 안으로 들어섰다.

입구에서 여사제가 일러준 대로, 크고 하얀 신전 벽에 벽화로 비아나 신의 일생이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리 눈에 띄는 무언가를 발견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가 본 별관 또한 그저 사제들이 모여 앉아 눈을 감고 손을 모아 중얼중얼 대는 장면밖에 보지 못했다. 그것도 잘 보이지도 않게 멀리서.

‘소득이 없네, 소득이...’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책 읽으며 맛있게 후식을 접하려던 내 계획을 잠시 접어두고 온 건데...

‘괜히 왔나.’

짧은 한숨이 나왔다. 그러자 웨티스 경이 그런 날 보며 말했다.

“아가씨, 힘드시다면 잠시 쉬어가시죠.”

“아아, 괜찮아요. 저기까지만..”

“각하께서 걱정하실 겁니다. 시간도 늦었고요.”

“알았어요...”

올 때까지만 해도 환하게 신전을 비추고 있던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 되었다지만, 아직 본관을 보지 못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우리는 입구로 다시 돌아갔다.

무기 회수를 위해 잠시 자리를 뜬 웨티스 경을 기다리며, 나는 내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거대하고 하얀 여인의 석상을 바라보았다.

여인은 검을 아래로 향한 채 두 손으로 모아 검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모습이었다.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당신이 나를 이곳에 다시 데려와 준 건가요?’

되돌아오지 않는 답의 질문을 속으로 삼키며 나는 웨티스 경이 나를 부를 때까지 여인을 바라보았다.

“아가씨, 신전은 어떠셨어요?”

“응?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크더라.”

나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미르티와 대화를 나누었다. 조금 전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들고 오는 길이었다.

“와... 정말 사제들을 만나 보셨어요?”

“어, 대부분 여사제더라고. 여신을 모셔서 그렇나 봐. 틴, 이리 와.”

나는 품이 허전한 것을 느끼고 틴을 불렀다. 희한하게도 틴은 내가 이름을 부르면 알아서 내게 날아왔다.

“큐큐-”

“어머나~ 틴 꼬리가 더 자랐네요?”

“언제 봐도 아름다운 꼬리지. 온통 파랗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색이 다양해졌어.”

“아, 아가씨, 저도 만져 봐도 될까요?”

“뭐.. 얘가 허락하면?”

“큐우-!”

미르티의 손길을 피해 내 품속으로 파고드는 틴의 모습은 결코 미르티를 허락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너무해, 틴...”

울상을 짓는 미르티와 새침하게 고개를 팩 돌리는 틴을 보며 나는 웃픈 미소를 지었다.

“그럼 전 아가씨 머리 정돈해드릴래요. 이건 틴도 못하는 것이잖아요!”

의기양양하게 틴을 바라보는 미르티는 빗을 들고 와서 소파 뒤로 오더니 머리를 빗겨주기 시작했다.

“난 신기하게 누가 머리 빗겨주면 기분이 좋더라...”

배도 불렀겠다, 나른한 기분으로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으며 나는 중얼거렸다.

“헤헤, 저도 아가씨 머리 빗겨드리는 거 좋아요.”

“그래...”

“참, 아가씨 앞으로 편지가 몇 개 와 있던데, 이따 확인하시겠어요?”

“그래, 그래...”

그 후로 우린 소소한 얘기를 더 나누었다. 미르티가 주로 얘기를 해주면 내가 가끔 맞장구쳐주는 식이었다. 미르티가 가져와 주는 이야깃거리는 심심할 때 듣기 좋았다.

“아, 미르티. 차 한 잔만 가져다주겠니? 목이 좀 마르네.”

“네, 아가씨.”

길고 길던 빗질이 멈추고 방문이 닫히자 나는 어느새 잠들어버린 틴을 쓰다듬으며 한 손으로 눈을 가렸다.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자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몰려들었다.

‘아르체아...’

그리고 그 생각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자.

‘너는 대체 누구지?’

처음 저택에 그녀가 왔을 때, 두 번째로 무도회에서 만났을 때 모두 내 기억 속의 아르체아와는 달랐다. 겉으로만 봤을 때는 아르체아가 맞지만, 그 속은 전혀 아니었다.

충실히 과거의 루트를 따라가고 있지만 끝이 다를 현재와 과거와는 다른 나와 너.

그래도 그녀가 뭘 하든 난 최악의 결말만 맞지 않으면 되었다.

‘다시 한번 더 너와 그가 보는 앞에서 목이 잘리긴 싫어서 말이야.’

그동안 몇 가지 변수가 있었지만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었다. 그 답답한 연인 사이에 끼어들지만 않는다면 내가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기분 나쁜 찝찝함은 뭘까?’

무언가를, 중요한 무언가를 놓친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

그때, 똑똑 하며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에서. 나는 그 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는 누군가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전하, 또 어딜 다녀오신 겁니까? 예? 설마 또 거기에 다녀오신 건 아니시겠죠?"

검붉은 머리의 남자가 자신의 앞에 태연히 앉아 있는 남자를 향해 말했다. 아무리 그가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모자를 쓰고 있어도, 분명히 자신이 몇 분 전 볼일을 보러 나갔을 때만 해도 아무도 없던 자신의 방에 이렇게 당당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었다.

"하하, 데니, 이건 일종의 암행이라고 암행."

"뭔 암행 같은 소리 하십니다, 진짜. 아니, 솔직히 무단 침입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음.. 무단 침입인가..?"

모자를 쓴 남자는 손가락으로 머리를 짚으며 되물었다. 그에 데니는 슬슬 열이 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외쳤다.

"당연히 무단 침입이죠! 후.. 전하의 정체를 그들이 알게 된다면 어떤 파란을 불러일으킬지는 전하께서 당.연.히 잘 아시겠죠?"

"뭐, 그 정도야 나도 알고 있지. 하지만 데니, 암행은 중요한 거라고. 들키지만 않으면 되잖아?"

"아, 제발 좀 전하..."

"아, 참 데니. 전에 그 네가 줬던 그 약 다 써버렸어. 하나만 더 부탁할게."

"아예 그냥 대놓고 다니시지 그래요? 그리고, 그 여인은 또 왜 만나는 겁니까?"

"응? 누구?"

"그 여자 있잖아요, 그 무도회에서 만난 그 여자."

"아아, 그 여자. 왜? 난 좋은데, 뭘."

의자에 앉아 있던 남자는 몸을 빙글 돌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요, 처음 본 여자에게 뿅 가서 춤이나 추시는 분에게 제가 뭘 바라겠습니까.."

깊은 한숨을 쉬어대는 데니의 등을 모자 쓴 남자는 위로랍시고 툭툭 쳐주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 만난 건 아니라서-"

"처음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언제 또 만나신 겁니까?"

데니가 날카롭게 눈빛을 빛내며 물어오자 모자 쓴 남자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애써 머리를 굴렸다.

"어, 음.. 그게 말이지, 데니..."

"한 나라의 황족이란 분이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황제 폐하께서 전하가 여자를 만나러 싸돌아다니는 것을 아시기라도 하시면 어쩔 겁니까?"

"목소리 좀 죽여라, 누가 들을라."

"들어봤자 누가 믿겠습니까? 하.. 이딴 게 황족이라니.."

"... 아까부터 느낀 건데, 너 말투가 이상하다?"

"제 말투가 어디가 어때서요. 이중인격인 전하보다 더할까요."

"내 연기가 뭐, 뭐."

"전하의 연기는 언제봐도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죠?"

"이것도 다~ 연습이야, 연습. 하여튼 난 볼일 끝났으니 가본다."

"어딜 또 가시려고요! 전하 덕분에 저만 힘들다고요!"

"수고."

윙크와 함께 유유히 텔레포트로 사라진 남자가 있던 자리를 노려보며 데니는 한 번 더 한숨을 쉬어야 했다.

"제발 일 좀 하시라고요, 망할 전하야..."

“진짜, 무슨 생각인 거에요?”

“아가씨 보고 싶다는 생각?”

로빈은 싱글싱글 웃으며 대답했다. 창문엔 또 어떻게 앉아 있던 건지, 그는 날렵하게 빙글 돌아 방 안에 착지했다.

“눈에 웬 붕대에요? 다쳤어요?”

눈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싶어 조마조마하고 불안했다. 그렇지만 오늘따라 모자 대신 눈에 붕대를 감고 온 로빈은 다쳤다고 보기엔 멀쩡했다.

“아니요, 모자는 이제 더워서요.”

“그런데 눈은 왜 가리고 다녀요?”

'사람 놀라게...'

처음 만났을 때, 텔레포트로 저택에 돌아왔을 때를 제외하면 그는 자신의 눈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 솔직히 봤을 때도 살짝 엿본 수준이었지, 제대로 마주한 적은 없었다.

‘눈동자가 예뻤는데.’

“음... 그냥?”

“그게 뭐예요.”

로빈은 그저 웃으며 두루뭉수리하게 대답했다.

“비밀은 제 매력이니까 넘어가요.”

“매력은 무슨...”

나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고, 그는 오늘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실상 이 낯설고 수상한 남자를 방 안에 들여보내는 것부터 보통 영애들의 반응과 멀찍이 벗어났지만 내 직감은 그가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해주고 있었다. 그래도 경계는 하는 것이 좋겠지.

“그나저나 또 어쩐 일이에요? 한동안 보이지도 않더니.”

“아아, 곧 어디 멀리 좀 다녀와야 해서요. 연락 없이 헤어지고 있으면 아가씨 섭섭해 할까 봐.”

“은근슬쩍 반말하지 마요, 모욕죄로 잡혀가고 싶어요?”

“얼래? 신고하게요?”

“일단 귀족 자택에 무단 침입을 세 번이나 했고, 전에는 절 납치한 전적도 있으시고, 이제는 귀족에게 반말까지. 아, 황궁에도 멋대로 들어오셨네요, 상인인데. 죄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손가락을 하나하나 꼽아보며 그의 죄를 늘어놓았다. 이렇게 세어보니 그가 저지른 범행 중 중범이 얼마나 많은지 새삼 느꼈다. 만일 그가 잡혀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일단 황궁 무단침입부터 사형이겠지.

“아가씨는 나 신고 못 하잖아요.”

싱글싱글 웃는 그 면상, 참 얄밉기도 해라.

“어머, 그건 또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래요?”

나는 가시 박힌 웃음으로 상대해주었다. 난 정말 신고할 마음은 있는데 말이지.

“내가 아가씨한테 반한 것처럼, 아가씨도 나한테 반했- 꺅! 지금 나 때리려고 한 거예요?”

“하하, 그 이상한 비명소리부터 고쳐줄까요?”

나는 웃으며 허공을 친 주먹을 다시 쥐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자 하니 말보다 몸이 먼저 반사적으로 나가버렸다. 내가 괜히 호신술을 배운 줄 아는가?

지난번 그 납치 사건 이후 오라버니는 내게 몇 가지의 호신술을 알려주시며 당부하셨다.

누군가 꼬시려 들거나 위험한 놈이 있으면 그냥 패버리라고.

대부분의 영애들은 자신의 호위기사만 믿겠지만, 오라버니께서는 그것은 아주 멍청한 짓이라고 하셨다. 뭣하면 체면이나 자존심 다 버려버리고 발로 까버리라고도 하셨지...

“와아... 아가씨가 나한테 이럴 줄을 몰랐는데, 너무하네요.”

“지금부터 그 생각을 고치는 건 어때요?”

“하여튼! 시간 없으니까 용건만 말해 줄게요.”

“아까 말했잖아요, 어디 멀리 간다고.”

“멀리 가긴 가는데, 그게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어요.”

“잘됐네요, 이 면상 보기 싫었는데.”

“그런 말 하면 나 상처받아요...”

로빈은 자신의 가슴을 두 손으로 가렸고, 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큼, 뭐, 나 없는 동안 잘 지내고, 다른 남자 만나지 말고, 너무 보고 싶어 하지 말- 아, 알았어요, 안 할게요!”

“누가 보고 싶어 한대요? 절대 안 보고 싶을 거거든요?”

나는 팔짱을 끼고 그를 흘깃 노려보았다. 로빈은 허탈하게 웃더니, 내게 다가왔다.

로빈의 얼굴이 갑자기 가까워지자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그러나 나는 미처 몇 걸음 가지도 못한 채 벽에 가로막히고 말았다.

“저기, 잠시만-”

“난 아가씨 진짜 보고 싶을 텐데, 이러기 있어요?”

“네, 있어요.”

“흠...”

그는 약간 갸웃하는 듯하더니 이내 장난꾸러기 같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나는 이마에 무언가가 미처 막을 새도 없이 닿고 잽싸게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무, 무슨-”

황당해서 눈을 뜨고 그를 보자, 그는 창틀에 발을 걸치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봐요, 아가씨!”

휙-

붕대를 휘날리며 로빈이 창문 밖으로 떨어지고 난 창문 앞에 달려가 밑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분명히 있어야 할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하얀 붕대만이 잔디에 천천히 펄럭이며 떨어지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정말이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하.. 진짜...”

나는 그가 이마에 남기고 간 흔적을 손을 댔다. 이마에는 아직도 촉촉한 그 느낌이 남아있었다. 무언가 확 열이 올라오는 것에 나는 두 손으로 뺨을 감쌌다.

그러다 누군가 문을 두드려, 뒤로 돌아섰다.

“아가씨, 여기 차랑 다과 좀 가져왔어요.”

“응? 어, 응. 고마워.”

나는 다시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음? 아가씨, 더우세요?”

“아니? 덥지는 않은데, 왜?”

“아가씨 얼굴이 붉으세요. 저 없는 동안 무슨 일 있으셨어요?”

미르티는 탁자에 차와 다과를 내려놓았고, 나는 접시에 예쁘게 담긴 쿠키 하나를 집어 먹으며 말했다.

“딱히...”

“아, 바람 좀 쐬신 거예요?”

미르티는 활짝 열린 창문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라서 나는 긍정의 답을 내놓았다.

“뭐, 그렇지. 참, 편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니?”

“편지도 오는 길에 같이 가지고 왔죠~”

“잘했어, 미르티. 고마워.”

“헤헷.”

미르티는 나와 마주 보는 자리에 앉아 같이 차와 다과를 나누었다. 친근한 시녀와 함께 다과를 나누는 일은 귀족 영애들 사이에서 그리 특별한 일도 아니기에 미르티는 부담 없이 이를 누릴 수 있었다.

“말씀하신 대로 집사님께서 아가씨께 온 편지지들 중에서 잡다한 것들은 다 빼버리셨대요.”

“응, 집사한테 수고했다고 전해줘. 어디 보자..”

나는 탁자에 기대 턱을 괴고 쿠키를 오물거리며 편지를 하나씩 읽기 시작했다.

‘일단 이건 이벨리아에게서 온 거고...’

오랜만에 오는 그녀의 편지에는 언제 한번 만나서 다과회를 즐기자는 얘기와 함께 비미르 작가님의 팬미팅이 있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다.

‘패, 팬미팅..!’

나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미르티가 없었더라면 발을 동동 굴렀을지도 모른다. 비미르 작가님이 팬미팅을 진행하시는 건 이번이 처음이기에, 나는 더욱더 기대가 찼다.

“아가씨, 무슨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응, 응. 조만간 어딜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나는 기분 좋게 실실 웃으며 편지지를 다시 잘 접어 마무리했다.

“아하~ 언젠데요?”

“글쎄... 여기엔 날짜가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

이벨리아의 편지를 제외하면 남은 편지는 총 두 개였다.

‘하나는 비사모에서 왔고, 나머지 하나는...’

“어? 이거 황가 문장 아닌가요?”

미르티가 내가 든 편지 봉투 중 하나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에 내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맞아, 이건 황가에서 온 편지지. 그런데 어째서 아버지를 거치지 않고 내게 바로 온 걸까...”

그러나 문장을 자세히 보자 나는 내 의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었다.

흰 백합과 흰 백조.

‘황녀..?’

황녀는 내가 알기론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은 동맹국으로 시집갔다고 했고, 그럼 이 황녀는, 그 사람인가.

[세리스틴 데네아 영애께.

내가 누구인지는 영애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본론만 말하자면, 최근에 조금 골치 아픈 일이 생겼는데 아무래도 영애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봐야 풀릴 것 같군요. 시간 될 때 연락 한 번 줘요.

그럼 만나게 되는 날만 고대하고 있겠어요.]

‘페르세지아 샤 지크레핀 메르첸, 제 2 황녀.’

나는 편지를 읽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전생에서도, 이생에서도 그녀와 나의 접점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 특유의 조용함과 차분함이 아르체아를 닮은 듯한 느낌을 주었지만 아주 잠시라도 그녀와 대화를 해 본다면 그 속 안에 숨어 있던 독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날뛰었어도 페르세지아 황녀는 내 쪽에서 피했다. 그녀 또한 나와 정면으로 부딪치면 피곤해질 것을 알고 있었기에 우리 둘 사이는 조금, 아니 많이 어색했다.

‘그런 그녀가 웬일로 나를 초대한 거지?’

조금 의문스러움이 남아있었지만 나는 황녀의 편지도 잘 갈무리 한 다음 탁자에 내려놓았다.

마지막 편지는 비사모에서 보낸 것으로, 이벨리아가 자신의 편지와 함께 보내온 것이었다.

이벨리아가 편지에 쓴 내용처럼 비미르 작가님의 팬미팅이 있으니 언제, 어디로 오라는 공지가 쓰여 있었다.

‘이제 곧 바빠질 것 같네.’

나는 뻐근한 눈을 문지르며 생각했다.

-제 2황녀 페르세지아 샤 지크레핀 메르첸-

황녀에게 답신을 보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황궁으로 오라는 허락이 떨어졌다.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손바닥으로 누르며 마차에 올랐다.

페르세지아 황녀와 가진 만남은 그다지 많지도 않았고, 어쩌다 한 번 만나도 그저 고개만 까닥했던 사이라 이렇게 제대로 만담을 가지는 일은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었다.

마차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으니, 미르티가 뒤따라 올라탔다. 마부가 말을 채찍질함과 동시에 마차는 덜컹거리며 출발했다.

‘그러고 보니, 가는 김에 황궁도서관이라도 들릴까?’

달리는 마차 안에서 나는 생각했다. 한동안 가지 않은 것도 있고 해서 황녀와 만난 후 시간은 충분할 터이니 나쁘지 않다.

“미르티, 도착하면 깨워주렴.”

“네, 아가씨.”

어제 늦은 밤까지 틴과 놀다 잠에 들었기에 조금 피곤함을 느꼈다.

황궁으로 가는 동안 잠시 눈을 붙이던 중 어느새 마차가 멈춰서고, 나는 황궁에 도착했음을 깨달았다.

“아가씨, 저는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다녀오세요.”

“그래.”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황녀가 머무는 백합궁을 향해 걸어갔다. 과거에 어리석게도 황태자를 보겠답시고 어떤 핑계로든 찾아갔던 나이기에 다행히 이 넓디넓은 황궁에서 길을 잃지는 않았다.

“황녀 전하, 데네아 영애께서 방문하셨습니다.”

백합궁의 시녀가 안내해준 대로 응접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황녀를 기다리고 있자, 그녀가 나타났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드레스를 붙잡으며 허리를 숙였다.

“고결하신 페르세지아 샤 지크레핀 메르첸 제 2 황녀 전하를 뵙습니다. 데네아 공작가의 세리스틴 데네아입니다.”

조금 긴장하여 황녀의 풀 네임을 헷갈릴 뻔했지만 불상사는 없었다.

“반가워요, 데네아 공녀. 일단 앉아요.”

꽤 오랜만에 보는 황녀는 내 기억과는 조금 다른 인상을 지니고 있었다.

우아하게 물결치듯 내린 풍성한 짙은 금발과 순해 보이지만 도도하게 위로 올라간 눈꼬리.

마지막으로 강렬한 태양을 머금은 듯한 붉은 눈동자까지.

“다들 나가 있어.”

황녀가 시녀들을 모두 물리자, 방 안에 있는 것은 단둘 뿐이었다.

나는 황녀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렸다. 기다림이 오래 지나지 않아, 황녀가 입을 열었다.

“오늘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사실, 터놓고 얘기할 마땅한 사람이 공녀밖에 없어서 연락을 준 거였어요.”

“저야 영광입니다, 전하.”

“아아, 말은 편히 해요. 솔직히 예 같은 거 차리기 귀찮잖아요?”

황녀는 소파에 기대며 다시 말을 이었다.

“지난번 오라버니의 성년 무도회에서도 봤을 거예요.”

“누구를 말씀하시는지요?”

짐작 가는 사람은 한 명 있지만 나는 모르는 척 말했다.

“검은 머리의 영애 말이에요. 이름이... 아르체아 멜치스였나요?”

“멜튀스 영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그 영애. 멜튀스라는 성을 생전 처음 들어봐서 조금 헷갈렸네요.”

이쯤 되자 나는 예측할 수 있었다. 황녀는, 아르체아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황족이라면 대부분의 귀족들의 성을 숙지하고 있다. 웬만한 가문이라면 항시 외워야 하고, 멀리 지방의 귀족이라 해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아, 그래도 아르체아의 멜튀스 가라면 잘 들어보지 못했을 터이니 헷갈릴만 하다.

“그날 보니 참 흥미롭더라고요, 그 영애.”

“흥미롭다뇨?”

“오라버니께 살랑살랑 꼬리 치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어요. 특히나 그 내숭 떠는 모습은 아직도 잊혀 지지 않네요.”

“멜튀스 영애가요?”

아르체아가 꼬리를 쳐? 황태자에게? 오히려 황태자가 아르체아를 유혹한다면 모를까, 이게 무슨 소리지?

나는 의아함에 고개를 갸웃했다. 황녀는 그날 아르체아를 떠올리기라도 하는 듯 그녀의 붉은 눈에서는 살벌한 눈빛이 넘실거렸다.

“네, 순진한 척, 아무것도 모른다는 척 오라버니를 속이고 단둘이 테라스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얼굴을 붉힌 채 뛰쳐나왔죠. 대체 그 안에서는 또 어떤 여우 같은 짓을..!”

눈에 띄게 부들거리는 황녀의 손에 잡힌 것은 불쌍한 찻잔이었다. 찻잔이 부들거릴만큼 세게 잔을 잡은 그녀는 차를 마시고 잠시 화를 삭였다.

“전하께선 황태자 전하를 많이 아끼시나 봐요.”

진정이 된 그녀에게 나는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그야 당연하죠, 단둘 뿐인 남매인데. 오라버니께 꼬리 치는 녀.. 여인은 제가 용납할 수 없어요.”

찻잔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황녀가 새침하게 말했다.

“하여튼, 나는 그 영애가 마음에 안 들어요.”

“요새도 오라버니께서 그 영애와 같이 다니는 모습을 내 간자가 목격했어요. 나는 오라버니의 여동생으로서, 그리고 이 제국의 황녀로서 그런 여우 같은 영애가 오라버니에게 유혹 따위를 하는 것을 바라볼 수만 없어요.”

자칫 경건하게 말하는 황녀는 세상 심각한 얼굴이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멜튀스 영애를 어찌할 생각이신가요?”

“내가 직접 사교계에 나가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역시 사교계는 시끄럽기만 해서 포기했어요. 물론 다른 방도도 생각해놨죠.”

“다른 방도라 하심은...?”

“알아보니 멜튀스 영애와 데네아 공녀가 조금 안면이 있는 사이더라고요? 맞나요?”

“음.. 그때 그 무도회 전에 한 번 만났던 적이 있었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만나지 않아서 그리 안면이 있는 사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네요.”

“그럼 잘됐네요.”

“예?”

황녀는 눈을 빛내며 말했다.

“예전부터 생각해 왔던 것인데, 공녀가 오라버니의 짝이 되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당혹스러움에 나도 모르게 말을 더듬었다. 나도 그를 싫어하고, 그도 나를 싫어하는 데 어째서?

“일단 영애는 제국의 단 하나뿐인 공녀죠. 그것만으로도 신분은 충분하고, 외모도 나에 비해선 조금 덜하지만 맞먹을 정도고요. 제국의 예절이나 기본 상식 정도야 어릴 적 다 배웠잖아요. 내 말이 틀리나요?”

‘칭찬은 칭찬인 것 같은데...’

나는 복잡한 심경으로 차를 마셨다. 나로서는 황녀가 이런 생각을 할 줄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 게다가 황녀와 나는 만난 적도 별로 없었고.

그런 황녀가 나에 대해 호의적인 것은 나야 좋지만,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오는 것은 사양이다.

“내가 봤을 땐 현재 제국에서 오라버니께 어울리는 영애는 공녀뿐이에요. 타국의 여인들은 꺼림칙하기도 하고.”

“과찬이세요, 전하. 허나, 황녀 전하. 전하께서도 아시다시피, 황태자 전하는 저를 꺼려하세요.”

“그건 걱정 마요. 차차 서로를 알아 가면 되니까. 공녀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잖아요? 제국의 두 공작가 중 하나인 데네아 공작가와 황족의 결합은 서로에게 이득이 될 거에요.”

‘그건 맞는 말이야... 하지만..’

그 누가 좋아할까,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과 이어진다는 것이.

황녀는 굳어있는 내 표정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뭐, 이건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지. 솔직히 말하자면 난 공녀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오라버니와 이어지게 해주고 싶은 거고.”

“제가요?”

의외였다. 이 생에서는 처음 보는 것일 터인데, 어떻게 나에 대해 알고, 또 마음에 든다고 말하는 것일까.

“공녀는 모르겠지만, 난 공녀가 황궁에 왔을 때 공녀를 봤어요.”

“참, 오해는 하지 마요. 난 그저 황궁 도서관에 들른 길에 우연히 만난 거니까.”

‘아, 도서관. 그런데 난 왜 못 봤지?’

황녀는 차로 목을 축이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그때 알았죠. 공녀와 나는 같은 동지라고. 그때부터 흥미가 생기기 시작해서 뒷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녀는 호기심을 유발하듯 말을 길게 끌었다.

“나랑 취향이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끌린 것도 있죠. 사교계에도 많이 나가지 않는 다면서요?”

“예, 저와 맞지 않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시끄럽고, 피곤하니까요.”

누가 뭐래도 집이 최고야. 사교계를 위한 파티나 무도회는 한 번 갔다 와도 피곤하다.

“독서도 자주 하시는 것 같던데, 그 점에서도 비슷하네요. 내가 본 영애들 중에서 나 같은 취향을 가진 영애는 공녀 하나밖에 없어요.”

“영광이에요, 전하.”

황녀가 그 도도한 눈꼬리를 접으며 웃으니 역시 황족들은 미모가 장난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쁘긴 진짜 예뻤다.

“이렇게 되면... 공녀와 오라버니를 이어주는 건 보류해둬야겠네요. 아, 그러고 보니 공녀의 생각을 묻지 않았네요. 오라버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새빨갛게 붉은 눈이 초롱초롱한 모습으로 나를 향했다. 나는 잠시 고민하고 말했다.

“음... 황태자 전하께서는 일단 잘생기셨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건요? 성격 같은 거요.”

“성격은...”

나는 황태자의 성격에 대해 생각하다, 찌푸려지는 인상을 간신히 폈다.

그는 성격이 좋다고 할 만한 위인은 안 됐다. 그러나 황녀가 이리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면 나는 솔직한 심정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잘 포장해서 말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했다.

“성격은 그리-”

“오라버니 성격이 많이 안 좋다는 건 나도 알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해 봐요.”

그러면서 황녀가 팔짱을 끼는데, 나는 정말로 솔직하게 말할까, 하는 충동적인 생각이 들었다.

“차가우신 분이죠. 그러면서 아끼는 것에는 다정한 면모도 보여주시고요.”

“흐음... 또? 오라버니와 얘기할 때 조금 짜증나는 거 없어요? 몇몇 영애들이 오라버니에게 말을 걸려다가 그냥 퇴짜 맞고 상처 받고 돌아가던데.”

나는 그 말에 어색하게 웃어야 했다. 짜증난 건 맞긴 한데, 그걸 그대로 얘기하기엔 내 배짱이 감당할 수 없다.

“뭐, 그래도 의외네요. 공녀가 오라버니에 대해 그렇게 생각할 줄을 몰랐어요. 오라버니가 워낙 다정하지는 않아서 그런 모습은 나도 한 두세 번은 볼까 말까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버니를 사랑하나요?”

‘전혀.’

나는 튀어나오려는 내 진심을 속으로 내리눌렀다. 오늘 제대로 황녀와 대면하여 이야기하면서 안 사실인데, 황녀는 은근 직격타을 날리는 경향이 있었다.

“제가 어찌 감히 황태자 전하를 마음에 품겠어요.”

“내가 얘기를 안 해줬나요? 난 거짓말을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 봐요.”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황녀가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찰나의 침묵이 흐르고, 나는 입을 열었다.

“저는.. 황태자 전하를 사랑하지 않아요.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황태자 전하께서 이미 마음속 염두에 둔 연인이 계세요.”

“멜튀스 영애를 말하는 것이라면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오라버니의 짝이 될 수 없을 거예요.”

황녀는 단호하게 내 말에 부정했다. 그렇게도 아르체아를 싫어하다니, 내가 기억하기론 과거 황녀는 아르체아에게 호의적이지도, 그렇다고 악의적이지도 않았었는데 말이지.

‘아, 혹시..?’

나는 기억 속 과거를 거슬러보다가, 무언가를 알아챘다.

‘만약 황녀가 그 당시 잠잠하게 있었던 것이, 설마 나 때문인가?’

그때 나는 아르체아에게 엄청난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악질 짓은 뭐든 해보았다. 그럴 때마다 아르체아는 신의 축복이라도 받은 듯, 누군가가 구해주거나 우연히 피했다. 어설픈 공격에는 되레 내가 당한 적도 있었다.

만일 이 때문에 황녀가 나설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라면?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고 잡다한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쫓아내었다. 이 추측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이미 지나간 과거는 다시 되돌려 볼 수 없었기에 나는 그저 혹시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

“공녀? 무슨 생각을 하길래 그런 심각한 표정을 지어요?”

차와 함께 준비된 삼단 트레이에 올려진 타르트를 먹으며 황녀가 물었다.

“이것 좀 먹어봐요. 우리 백합궁 요리사가 디저트 하나는 정말 잘 만들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한두 개쯤은 괜찮겠지.’

나는 손을 뻗어 새하얀 크림 위에 작게 갈린 초콜릿이 뿌려진 머핀을 집었다.

조심스레 한 입을 먹어보는 순간, 나는 환상적인 맛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황녀는 그런 내가 재밌다는 듯이 흐뭇한 미소로 내 모습을 지켜보았다.

머핀은 내가 아는 부드러움과 다르게 겉에 얇은 설탕이 둘러쌓아 바삭했고, 속은 말 그대로 촉촉했다. 거기에 머핀 속에는 약간의 잼이 들어 있었고 희한하게도 달디 단 것의 집합체인 이 머핀은 생각보다 많이 달지 않았다.

여기에 같이 나온 홍차를 마시니 환상적인 조합이 아닐 수가 없었다.

“맛있죠?”

“전하...”

“왜요?”

“혹시라도 말동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전하.”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만큼 이 머핀은 달콤하고 맛있었다. 차를 한 번 더 마시고 나자 내 입가에 새하얀 초콜릿이 불쑥 튀어나왔다.

“저, 전하?”

“자, 빨리 먹어봐요. 아~”

“아... !”

본능적으로 입을 벌린 나는 또 새로운 맛을 경험했다. 화이트 초콜릿인 줄만 알았던 이 초콜릿은 초콜릿이 아니라 요거트 초콜릿을 입힌 바삭한 쿠키였다.

쿠키는 거의 몇 겹의 과자 같은 식감을 주었는데, 여기에 하얀 요거트 초콜릿을 두껍지도, 얇지도 않게 적당히 둘러, 과한 단맛이 나지 않도록 조절했다.

마찬가지로 입가심을 홍차로 마무리하며 나는 감탄사를 내뱉었다.

“정말이지, 요리사에게 상을 내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

“후훗, 나중에 또 백합궁에 온다면 디저트를 종류별로 만들어두라고 전할게요.”

그 후로도 황녀는 내게 색다른 맛을 알려주며 내게서 여러 감탄사를 들었다.

트레이에 올려진 모든 디저트가 동이 나고 내 입안이 얼얼해질 무렵, 황녀가 이별을 고했다.

“오늘 공녀를 부른 이유가 멜튀스 영애를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 얘기를 나누려 했었었는데, 어느새 작은 티파티가 되어버렸네요.”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황녀 전하.”

“즐거운 건 내가 더 즐거웠죠. 역시 사람 하나는 잘 봤어요, 내가.”

“과찬이세요, 전하.”

황녀가 두 손으로 손뼉을 치자 문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시녀들이 조용히 들어와 탁자를 치우기 시작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다시 전하를 뵐 날을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잘 가요. 나가는 길은 시녀들이 안내해 줄 거예요.”

예로 허리를 숙여 황녀에게 인사를 한 뒤, 나는 시녀의 안내를 받아 백합궁 안에서 벗어났다.

‘벌써 시간이..’

하늘을 올려다보니, 올 때에는 구름에 가려 잘 보이지 않던 해가 이제는 내 머리 위에 안착해 있었다. 대략 한 시간 쯤 지난 것 같았다.

나는 쏟아지는 햇살에 눈이 부셔 손바닥으로 가렸다.

‘미르티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을 미르티를 떠올리며 나는 발걸음을 조금 빨리했다. 그러다가 모퉁이를 돌 즈음, 순간 누군가와 부딪힐 뻔했다.

“제국의 고귀하신 황태자 전하를 뵙습니다.”

나는 상대가 누구인지 빠르게 파악하고 드레스 자락을 잡으며 인사했다.

“데네아 공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저는-”

“황궁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는 멍청한 착각이 아니었으면 한다, 공녀.”

‘아니, 진짜 뭔 소리래...’

어쩐지 아르체아나, 황태자나 둘 다 대화하기 정말 꺼려지는 상대였다. 어떻게 무슨 말만 하면 자기가 꼬아서 해석을 해버리지? 그것도 재주라면 재주였다.

황태자는 차갑고 냉담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지만 이미 그것에는 익숙해져 있어, 그닥 신경 쓰이지도 않았다.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키며 나는 대답했다.

“페르세지아 2황녀님을 뵈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전하.”

“페르세지아를?”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픽하고 삐뚤어진 비웃음을 지었다.

“아아, 그런 거였군. 지난번 무도회의 가식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페르세지아를 이용하겠다는 건가? 참으로 우스운 짓이야, 공녀.”

“전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르체아와 쌍둥이라도 되는 듯이 황태자는 정말 답답하게 굴었다. 그가 약이라도 먹었나, 하는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무도회라면 그의 성년 무도회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때 내가 가식적으로 굴었다고?

난 그저 진심을 말하기만 했었는데. 황녀를 이용하겠다는 건 또 무슨 말인지...

“그건 본인이 더 잘 알 것 같군. 그럼 이만.”

자기 할 말만 하고 돌아서는 황태자의 뒷모습을 나는 한심하게 쳐다보았다.

‘미르티가 더 기다리게 생겼잖아. 안 그래도 여린 아이인데.’

솟구치는 짜증을 누르고 걸음을 더 빨리했다. 어차피 거의 다 와서 또 누구와 부딪힐 일은 없었다.

“어, 아가씨! 돌아오셨어요?”

“후우.. 그래. 아직 시간 괜찮으니까 도서관에 들를 수 있겠어.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지는 않았니?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네.”

“에이, 저는 괜찮아요! 오랜만에 친구도 만나기도 했고요.”

“친구?”

우리는 도서관으로 걸음을 옮기며 대화를 나눴다.

“네. 공작님께 시녀직을 제안받기 전에 같이 지냈던 친구예요. 그동안 헤어지고 연락도 없어서 섭섭했는데, 황궁 시녀가 될 줄은 몰랐어요..!”

음? 황궁의 시녀라면 최소한 귀족 방계라도 될 텐데?

“미르티, 네가 말한 그 친구가 어느 귀족 출신이니?”

“동쪽 지방 할레나 자작가의 차녀에요.”

‘할레나 자작가의 차녀와 친구사이라면...’

그때 나는 마샤가 결혼으로 내 전속 시녀를 그만뒀던 무렵,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떠올렸다.

‘너무 걱정하지 말렴, 세리. 다음 시녀는 네 친구 같은 사이가 될 만한 아이로 골랐단다. 신분도, 성격도 나쁘지 않은 아이란다.’

미르티에게 말을 걸려던 찰나, 나는 미르티가 먼저 말을 걸어와서 질문의 타이밍을 놓쳤다

‘나중에라도 물어보면 되니까, 뭐.’

언제나처럼 미르티는 밖에서 대기하고, 나만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제리 부인.”

“어머나~ 데네아 영애,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보이지 않으셔서 섭섭할 뻔했잖아요.”

제리 부인은 갈색의 작은 뿔테 안경을 들어 올리며 포근한 미소를 지었다.

황궁 도서관 사서라는 직책에 걸맞게 그녀는 도서 목록을 작성 중이었다.

“참, 신작 소설이 많이 밀려있어요. 요새 무슨 열풍이라도 부는지, 로맨스 장르가 대폭 늘었지 뭐에요?”

제리 부인의 말에 나는 호기심이 일어 곧장 신작 소설 코너로 가보았다.

그리고 나는 대폭 늘어난 소설의 양에 깜짝 놀랐다. 이 책들의 수를 헤아려 보며 눈에 띄는 책을 아무거나 집었다.

[나는 너를 데리고 술집에 가고 싶어]

[왕자님이 왕자님에게 고백했을 때]

‘...’

대충 제목만 훑어보는 내 표정에는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독자들이 내 생각보다 꽤 많다는 것에 대한 대단함이 드러나 있었다.

말이 로맨스 소설이지, 이건 진짜...

만일 황궁도서관 대여 제한 횟수가 5권이 아니었다면 최소한 10권 이상은 빌렸을 것이다.

‘와... 이 많은 걸 다 읽으려면 몇 번 정도 오가면 되는 거지?’

나는 만면에 행복한 웃음을 띠고 제리 부인에게 다가갔다.

“어머, 데네아 영애. 무슨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네, 이번에 나온 신작 소설들 양이 많아서 좋네요.”

“그거 다행이네요. 참, 요새는 영애들도 자주 오시더라고요. 이 넓고 한적한 도서관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저는 좋아요. 아, 기간은 오늘도 2주 후에요.”

“고마워요, 제리 부인. 다음에 또 봬요.”

“조심해서 돌아가요, 데네아 영애.”

밖으로 나가니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미르티가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 누군지 보려 했지만 그는 미르티와 얘기를 끝내고 가버리고 말았다.

“아가씨, 책은 잘 빌리셨어요?”

“응. 방금 그 사람은 누구야?”

“아,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에요. 황궁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기사인데, 실력이 괜찮아요. 베리든 남작가의 차남이에요. ”

“그렇구나. 의외로 황궁에 아는 사람이 많네?”

“헤헤, 어릴 적에 친구들이랑 많이 놀러 다니거나 모임에 다녔거든요. 그 덕에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었어요.”

“아하~”

우리는 마차를 향해 걸어갔다.

‘그러고 보니..’

내가 미르티에게 뭘 물어보려고 했었던가?

드디어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날이 왔다.

공지가 뜬 이후로 장장 10일을 기다린 끝에 다가온...

‘팬미팅! 팬미팅!’

아침부터 들뜬 기분으로 나는 미르티의 도움을 받아 꽃단장하며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다.

“날짜는 오늘. 시간이야, 20분 뒤에 출발하면 맞을 거고. 장소는...”

‘작가의 별장.’

나는 장소를 다시금 확인하며 의아해했다.

이 작가님에게 별장이 있었다니, 이것만 보자면 비미르 작가는 최소한 평민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평민이 자신의 개인 소유의 별장을 가지고 있을 리가 만무했으니까.

‘그럼 귀족인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비미르 작가의 정체는 비사모 회원 모두가 궁금해하는 일이었다. 그렇기에 오늘 팬미팅이 더 기대되기도 하고.

“아가씨, 꼭 가셔야해요..? 정체를 모르는 분과 만나시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라도 생기시면 어떡해요...”

미르티는 울상을 지으며 내 반짝이는 은발을 다듬어주었다. 하지만 미르티의 그 요청은 묵살되었다.

“괜찮아, 그곳에 나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호위도 같이 가잖아? 이 정도면 충분해. 거기 오는 영애들도 호위 하나 정도는 데리고 오겠지.”

비사모의 회장인 덕에 나는 최소한 대부분의 회원들 중 누가 어디 가문인지는 대략 파악하고 있었다. 아, 부회장은 제외. 희한하게도 부회장에 대한 정보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정보 차단을 철저히 하는지, 내게 전달되는 편지의 루트도 추적해 봤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다.

그래도 일은 착실하게 해서 상관없었다. 지금 내가 읽고 있던 이 편지도 부회장이 보낸 것이 뻔하다. 회장이 없으면 부회장이 대리로 일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니.

실상, 회장이나 부회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어도 크게 할 일이 많은 것은 아니었다. 그저 비미르 작가님의 책에 대해 건전한 토론 정도를 나누는 모임에 참석하여 중재나 진행자 역할을 하는 것이 다였다.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해 단장을 마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섰다. 미르티는 자신도 데려가 달라며 칭얼거렸지만 아직 열여섯의 순수하고 꽃다운 나이의 그녀를 나는 차마 어둠의 길로 이끌 수 없었다.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결국 미르티는 저택에 남아있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후우.. 경, 오늘 잘 부탁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리 아가씨~ 오늘 하루 아가씨의 안전은 제가 책임집니다!”

휴가를 떠난 웨티스 경을 대신하여 그 자리를 채워준 것은 바스 경이다. 사실 바스 경과는 가끔가다 마주치는 사이기 때문에 바스 경의 실력은 나도 장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추천이니 믿을 만 했다.

스물 중반으로 보이는 바스 경은 의외로 젊었다. 저 얼굴에 스물 초반이라니...

이때, 마차가 덜컹거리며 출발하고 나는 기대감에 차며 푹신한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별장 안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저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온다.

최근에 나온 신작과 더불어 새로운 장르로 선행중인 비미르 작가님의 팬들은 내 생각보다 많았다. 외형만 다르고 얼굴에 쓴 가면은 같은 사람들이 넓고 기다란, 하얀 천이 깔린 탁자에 옹기종기 앉아있었다. 작가님의 자리는 당연지사하게도 가운데 자리였고 회장인 나의 자리는 작가님의 바로 오른편이었다.

‘오,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다.’

가면 속에서 환희에 찬 표정을 지으며 나는 내 지정석에 앉았다. 바로 맞은편의 부회장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방 안을 둘러보며 이벨리아를 찾으려 했지만 다음 순간 들려오는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돌렸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내 오른편의 나와 똑같은 가면을 쓴 여인이 고운 목소리로 내게 인사를 건넸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한동안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셔서 회원 분들이 많이 섭섭해하셨어요.”

조곤조곤 내가 없는 사이 일어난 일들을 얘기해주는 여인은 미성이 고왔다. 고와도 너무 고와서 듣는 나는 순간 그 목소리에 홀릴 뻔했다.

“그나저나, 부회장님께서 늦으시네요. 평소에도 칼같이 모임시간을 지키시더니...”

“그러게요. 작가님도 오실 때가 됐는데 말이에요.”

아직 약속 시각까지는 3분을 남겨두고 있었지만 이쯤 되면 슬슬 도착하셔야했다. 허기짐을 느낀 나는 탁자에 차려진 소소한 다과에 손을 뻗었다.

“부회장님!”

누군가 외치는 소리에는 나는 재빨리 손을 거두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가면을 써도 ‘내가 제일 잘나가.’ 를 주장하는 듯한 의상과 강렬한 붉은빛의 머릿결.

그녀는 도도하게 또각또각 구둣 소리를 내며 방 안을 걸었다. 마침내 그녀가 내 맞은편 자리에 앉자, 나는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오랜만이네요, 회장님. 그동안 보이지 않으시길래 여행이라도 다녀오신 줄 알았어요.”

“참 오랜만에요, 부회장님. 저 없는 동안 잘 지내셨죠?”

“저야, 당연히 잘 지냈죠. 회장님이 바쁘신 동안 제가 대리로 다 해드렸죠.”

“어머, 그거참 감사한 일이네요.”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내 오른편의 여인은 말리고 싶은 기색이었지만 기가 약한 그녀는 몸을 사렸다.

“참, 곧 있으면 회장님의 임기가 다 되어 가는데, 그 ‘대결’은 준비되셨나요?”

“후훗.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환영이랍니다.

표면상 말투는 부드럽고 선했지만 그 가면 속에 감추어진 표정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자세히 보면 누구나 그녀의 입가의 미세하게 떨리는 미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나와 부회장의 주변에 앉아 있던 몇몇 사람들은 우리의 대치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진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 그 시선은 금방 거두어졌다. 우리 둘 다 서로의 얼굴에서 고개를 돌렸기 때문이다.

“작가님이 오실 때가 다 되셨는데..”

무심코 눈에 띈 벽에 걸린 거대한 시계를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부회장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나와 같이 시계 침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뎅-

분침과 시침이 동시에 12시를 가리키고 시계의 종이 울리는 순간, 뒤편의 문이 덜컥하고 열리며 누군가 걸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늦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인은 날갯짓하는 파랗고 반짝이는 나비의 형상을 한,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가면을 쓰고 등장했다. 가면 밑에 드러난 입매는 매혹적이게 위로 올라갔다. 그녀는 자신의 굽이치는 풍성한 금발을 한번 손으로 가볍게 치듯 털고 제 앞의 긴 탁자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슬쩍 훑어보았다.

“먼저,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를 보러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와주시다니, 생각지도 못한걸요?”

이쯤 들으면 등장한 여인이 누구인지 대부분이 짐작이 갔을 것이다. 눈동자를 굴려 맞은편에 앉은 부회장을 보아하니 그녀 또한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다.

“정식으로 소개드립니다. 비미르 작가에요.”

짝짝짝-

금발의 여인이 우아하게 드레스 자락을 잡으며 인사하자 곳곳에서 탄성과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나도 마찬가지로 손뼉을 마주쳤다.

환영의 박수를 받으며 상석에 앉는 비미르 작가는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예, 예뻐..?’

아무리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고 하지만 부회장의 경우처럼 그 뛰어난 미모가 미처 가려지지 않은 사람도 있다. 순수하게 감탄하며 가면 속 얼굴에서 눈을 돌려 비미르 작가를 관찰했다. 도도하게 차를 마시는 모습이나 입가의 호선이 어디선가 본 듯 했다.

‘어디서 봤더라..?’

무언가 기시감이 느껴졌다. 그러나 내 기억 속에서 비미르 작가와 닮은 사람은 아무도...

‘어?’

그때 누군가 머릿속에 떠오르려는 듯했지만, 내 옆에서 속삭이는 비미르 작가 때문에 그 진상은 금세 흐트러졌다.

“회장님, 시작해주세요.”

“아, 네.”

회장인 내가 이 모임의 시작을 알리며, 본격적으로 팬미팅이 시작되었다. 작가에게 질문을 하는 시간부터 먼저 가졌는데, 주로 질문들은 작가의 사생활이나 정체에 대해 묻고 있었다. 허나 비미르 작가는 대답하기 모호한 질문들도 유연하게 대처했다. 정말이지 여러모로 대단한 사람이다.

“자,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멋진 글을 쓰실 수가 있나요..?!”

몇 가지의 질문이 더 오가던 중, 멀지 않은 자리의 누군가가 손을 들며 외쳤다.

고개를 돌려 당사자를 바라본 순간, 나는 아이보리색의 머리칼로 그녀가 이벨리아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긴장하면 나오는 저 더듬는 말투까지 그녀와 닮았다. 속으로 작은 한숨을 쉬며 나는 비미르 작가의 대답을 기다렸다.

비미르 작가는 고운 선이 돋보이는 턱에 손을 괴고 생각에 잠겼다. 이내 그녀는 해답을 찾은 듯 작은 탄성과 함께 말을 뱉었다.

“저는 그냥 제 상상대로 쓸 뿐이에요. 이 아이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얘는 또 저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쓰는 거죠. 참,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두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다음 질문 받겠어요.”

이벨리아는 끝말을 흐리며 대답했다. 무슨 생각에 잠긴 건지, 그녀는 그 이후로 내내 말이 없어지고 잠자코 다른 이들의 질문과 그 답에 귀를 기울였다.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든 모습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 지난 뒤에야 미팅은 끝이 났다. 팬미팅 도중에 있었던 토론 시간에 다들 진이 빠지도록 외쳐대어 나와 부회장 또한 중재를 시키느라 기가 빨린 상태였다.

“모두들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작품을 애정해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오늘 이 미팅은 제 기억 속에 길이길이 남을 것 같네요. 후훗.”

손으로 살짝 입가를 가리며 웃는 비미르 작가는 진심으로 기뻐 보였다. 하기야 이 넓디넓은 세상에 자신을 좋아해 주는 사람이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된다면 기분이 어떠할까.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해하는 저 모습을 보니 조금 부럽기도 하고, 질투심이 들기도 하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꼬여버렸다.

‘내 미래는 어떨까..?’

그동안 그저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기만을 위해서 황태자를 피하고, 아르체아와 최대한 접촉이 없게끔 했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피하기만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

물론 죽지는 않겠지. 내가 미치지 않는 이상 황태자비가 될 아르체아의 차에 독을 넣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두려웠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려워하다니, 이런 기분 좋은 날에 무슨 어리석은 짓인가.’

나는 머리를 털며 잡생각들을 떨쳐내었다. 요즘에 자꾸만 과거 생각이 나서 문제다. 7년이나 지났는데, 과거를 떨쳐내기는커녕 후회나 고민이 많아지니 걱정이었다.

무탈 없이 팬미팅을 마치고 뒤풀이가 마무리될 즈음, 누군가 내게 나가와 말을 걸었다. 누군지 돌아봤더니 이벨리아였다.

“세리스틴, 오랜만에 보네요?”

“그러게요, 이벨리아. 잘 지냈어요?”

이미 내가 회장인 것을 알고 있는 이벨리아는 어렵지 않게 나를 찾아냈다. 내 주변에는 사람도 많지 않아서 우린 편히 이름으로 말할 수 있었다.

“저야 공지가 왔던 날부터 오늘만을 기다리며 지냈죠. 아아,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 비미르 작가님을 실제로 보게 되다니..!”

초록빛이 도는 눈을 반짝이며 이벨리아는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두 손을 맞잡았다.

“이벨리아는 비미르 작가님을 저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세리스틴보다 더 할까요. 저는 비미르 작가님처럼 글을 잘 쓰고 싶어요. 왠지 모르게 그 분의 글을 보고 있자면 수많은 커플이 떠오른 달까..”

몽롱한 표정으로 말하는 그녀의 모습은 의외였다. 그 소심한 이벨리아가 저런 표정도 지을 수 있구나, 싶었다.

“정말이지, 작가님은 신이 내리신 천재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처럼 세세하게, 마치 소설에 직접 들어간 듯한 묘사와 방심하는 순간 터지는 반전의 내용을 쓸 수 없어요..!”

“하긴 작가님이 대단하신 것 맞는 말이에요. 전 여태까지 읽어본 소설들 중에서 그런 묘사력을 가지신 분을 처음 뵀어요.”

혼자 일어나있기엔 뭣 했는지 이벨리아는 내 옆자리의 의자를 꺼내고 앉았다. 조금 흥분했는지 그녀는 평소 볼 수 없던 환한 표정이었다.

“비미르 작가님은 그 드러나지 않은 신비로움이 더 작가님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런 작가는 없었잖아요.”

“제가 어떤 책에서 들은 말인데요, 비밀이 여자를 더 아름답게 만든다고 해요.”

“어머, 신기하네요. 저도 신비하고 알 수 없는 미지의 무언가를 보면 자꾸 궁금해서 파헤쳐보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더 매력인 것도 있고 말이에요.”

상기된 볼을 양손으로 감싸는 이벨리아의 말에 나는 그녀가 말하는 것이 비미르 작가인 줄 알았지만 순간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아챘다.

“맞아요, 이벨리아는 그걸 좋아했죠?”

“네! 정말 좋아해요. 파헤칠수록 더 미지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 같잖아요. 요즘 잠시 손을 놨지만, 집에 돌아가면 다시 빠져볼 생각이에요.”

‘내가 어째서 이걸 잊고 있었지?’

이벨리아, 그녀가 마법사라는 것을.

뭐, 확실하게 마법사라고 장담할 수는 없었지만 마법을 쓴다는 사실은 변함없었다. 왜냐하면 이벨리아는 내게 마법을 보여준 적이 있었으니까. 물론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지만 말이다.

언젠가 도서관에 모든 불이 꺼졌을 때가 있었는데...

‘이벨리아, 괜찮아요?’

‘네, 네..!’

‘어두워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네요. 일단 내 옆으로 와요.’

‘아, 잠시만요...’

그리고 그 뒤로 이벨리아의 목소리가 들리던 곳에서 빛나는 물체가 하나 생겨났었다. 갑자기 생긴 불빛이기에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뜬 나는 이벨리아가 그 물체를 공중에 띄우고 있다는 모습을 보았다.

‘와... 이게 마법이에요?’

‘네...’

보랏빛과 금색이 섞인 듯한, 공과 비스무리한 그 물체는 영롱하게 우리 주위를 잔잔히 밝혀주었다. 그것을 보고 있자니 어쩐지 누구와 비슷해서 멍하니 쳐다보게 만드는 것도 있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벨리아가 마법을 쓸 줄 안다는 사실에 차차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게 처음으로 마법을 선보였던 그 날, 나는 생각을 바꿨다.

‘데네아 영애? 실베스 영애? 거기 계신가요? 괜찮으세요?’

불을 밝힌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리 부인이 촛불을 밝힌 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바람에 이벨리아는 재빨리 마법을 푸는 수밖에 없었다.

“참, 세리스틴. 전에 하다 만 실험이 있었는데요, 그게 끝나면 세리스틴에게도 꼭 보여줄게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어머, 그거 기대되네요. 저번에 도서관에서 아주 잠깐 봤던 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 예쁘게 빛나던 모습이 정말 영롱했었어요.”

“저, 정말요?”

그녀는 살짝 감격에 겨운 표정을 지었다. 왠지 오늘따라 이벨리아의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면모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다.

“그럼요.”

“와아...”

순수하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자니 자연스레 엄마 미소가 지어졌다. 그때 이벨리아가 우물쭈물하다가 입을 여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급격한 표정 변화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지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 이건 세리스틴에게만 말해주는 건데요. 제가 비미르 작가님처럼 글을 써봤다가...”

그녀는 내게 몸을 가까이 하더니 주변의 눈치를 보고 조그마한 목소리로 소곤거렸다.

“글이 막혀버렸어요...”

“네?”

이벨리아는 쑥스러운 건지, 부끄러운 건지 얼굴이 마치 잘 익은 복숭아처럼 불그스름해졌다.

“전 처음에 글을 쓰는 것이 쉬울 줄 알았는데 막상 쓰다 보니 비미르 작가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셨는지 점차 알게 됐어요... 그런 문장력과 필력이 대체 어디서 오시는 걸까요?”

방금 전까지 환하던 표정은 어디 가고 다시 평소처럼 약간 기운 없어 보이는 인상으로 돌아온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누가 보면 근심 많은 사람의 표정으로 보일 것이다.

“음.. 다른 분들은 모두 가신 것 같네요. 저희도 이만 갈까요?”

“어, 언제 다들 가셨죠?”

어느새 우리를 제외한 마지막 비사모 회원이 홀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나와 이벨리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두 분 아직 가시지 않으셨네요.”

의자가 바닥에 밀리는 소리에 뒤를 돌아본 비미르 작가는 붉은 테이블의 끝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매혹적인 미성이 담긴 목소리로 우리를 불렀다.

“회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큰 충돌은 없었네요. 그 옆에 계신 분도 감사했어요.”

“제일 수고하신 건 작가님이시죠. 오늘 모임 즐거웠어요.”

“오, 오늘 작가님을 뵈어서 영광이었어요!”

이벨리아는 긴장감 때문인지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올라갔다. 그런 그녀를 보며 비미르 작가는 작게 손으로 입을 가리며 쿡쿡 웃었다.

“모임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제 작품 많이 애정해주시길 바래요.”

“저희가 오히려 작가님께 더 감사하죠. 작가님의 작품처럼 대작인 소설이 요새 많이 보이지 않아요.”

“어머나~ 그런가요? 왠지 기분이 좋아지네요.”

비미르 작가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우리는 어느샌가 홀을 벗어나, 별장 입구에 도달해 있었다. 입구 근처에서 대기하는 마차는 총 3대였다. 데네아 공작가와 실베스 백작가의 위장용 마차와 나머지 하나는...

‘작가님의 마차인가?’

“그럼 안녕히 돌아가시길.”

비미르 작가는 직접 나와 이벨리아가 마차에 타기 전까지 배웅했다.

“작가님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에도 또 뵀으면 좋겠어요, 작가님!”

마부석 옆에 앉아 대기하고 있던 바스 경이 내려와 문을 열어주고, 나는 그대로 마차에 올라탔다.

“하아... ”

푹신한 소파에 앉자마자 절로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뭔가 기력이 다 빨린 느낌이다.

하기야, 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여성들의 열띤 토론을 중재하고 분란을 막고 있었으니 그럴 만도 하지.

그래서 나는 저택에 돌아오자마자 침대로 뛰어들었다. 폭신하고 기분 좋은 느낌의 침대에 누워있자니 이대로 눈을 감고 자고 싶다는 욕구가 일었다.

“아가씨! 옷은 갈아입으셔야죠!”

그러나 그 욕구는 미르티의 외침으로 인해 포기해야 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이대로 자면 안 될까?”

“무슨 그런 진심 어린 농담을 하세요, 하하. 자, 얼른 일어나세요! 곧 저녁 드실 시간이라구요!”

“미르티, 사람은 한 끼 굶었다고 해서 죽지 않아.”

“그럼 마님께서 걱정하실 거예요!”

결국 나는 미르티의 말에 따라 드레스를 갈아입고 저녁 먹을 준비를 했다. 몇 분 전까지는 그리 고프지도 않았던 배가 식탁에 앉으니 허기진다고 요동을 쳤다.

“세리스틴, 오늘 영애들과의 모임에 나갔다고 하던데 재밌었니?”

로테인과 헤르베디 오라버니가 없는 저녁 자리에서 어머니께서 내게 물으셨다.

“네, 어머니. 정말 유익한 모임이었어요.”

“그렇구나.”

어머니는 무언가 할 말이 남아있는 듯이 말을 길게 끄셨다. 뭘 잘못 말한 건지 어머니의 얼굴을 살피던 도중 아버지께서 입을 여셨다.

“큼... 이제 너도 열일곱이 되었으니,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사교계를 준비해야 하지 않나 싶구나. 여태까지는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르잖니.”

‘아... 사교계...’

과거라면 모를까, 지금은 내게 사교계란 크게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자리였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이리 말씀하실 정도면 한두 번 정도는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네가 네 또래 영애들과 많이 지내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구나. 많이는 바라지 않겠지만, 몇 번은 나가면 좋겠구나.”

“네, 어머니. 앞으로 주의할게요.”

“그래. 참, 헤르베디에게서 편지가 왔더구나. 기특하게도, 타국에서도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인다.”

“오라버니에게서요?”

어머니의 말대로 저녁 식사가 끝나고 방에 올라가보니 미르티가 두고 갔을 게 뻔한, 돌돌 말린 고급스러운 편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의자에 앉아서 조심스레 편지를 둘러싼 빨간 리본을 풀고 펼쳐보았다. 오라버니답게 글씨체도 바르고 정결하게 쓰여 있었다,

[ 그동안 잘 지내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곳은 생각보다 지낼 만하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도록. 아버지, 어머니 말씀도 잘 듣고 너무 밖에 돌아다니지 말도록 해라.

지난번처럼 그 범인을 마주치는 일은 없도록 하고. 뭣 하면 내가 알려준 호신술을 써도 좋다. 아니, 그냥 차라리 신고가 빠르겠구나.

하여튼 말썽부리지 마라. ]

짧지만 오라버니의 걱정이 담긴 편지를 읽고 있자니 웃음이 절로 나왔다. 편지지를 한번 손가락으로 훑고 난 뒤, 나는 정성스레 다시 편지를 말아 리본으로 장식했다.

펼쳐지기 전의 형태와 그나마 흡사한 형태를 갖춘 편지를 어딘가에 보관해 둬야겠다고 생각한 나는 탁자의 서랍을 열었다.

편지가 구겨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넣고 서랍을 닫으려는 순간, 내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이게 뭐지?’

후줄근한 갈색 가죽 주머니였다. 이런 게 왜 내 서랍장에 들어있는 거지?

주머니를 열어 그 속의 물체를 확인하니, 이 의문에 대해 나는 곧 해답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로빈을 처음 만난 날의 계기를 만들어 준 마법석이었다.

"어머~ 웬일로 우리 아가가 연락을 했을 까아? 이거 참, 너무 감격스러운걸?"

자줏빛 수정구 안에서는 비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 목소리에 나는 인상이 절로 찌푸려졌다.

"... 내가 아가라고 부르지 말랬지."

"흐음~ 그럼 아가를 아가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겠니, 아가야~"

자신이 찾을 수 없는 머나먼 곳에서 여유 부리며 자신의 생을 만끽하는 상대방은 살살 자신을 골렸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지금 상대방이 자신을 부르는 호칭이 맞긴 하지만 나는 그 호칭이 너무 싫었다. 장장 몇십 년간 그리 불려왔기에 더더욱.

"후... 진짜, 하지 말라고!"

결국 참지 못해 수정구를 향해 짜증을 내뱉었다. 방금 전까지도 짜증 날 정도로 답답한 년 한 명 만나고 왔는데, 괜히 연락했다.

"큭큭.. 그래, 그래. 여튼, 거긴 잘 지내고 있니?"

"잘 지내긴, 감추고 연기하느라 답답해서 미칠 지경인데. 솔직히 지금만 해도 싹 다 갈아엎고 싶어. 내가 왜 그딴 년 때문에 이딴 걸 해야 하는지도 의문이고."

"계약이 원래 그런 거잖니~ 어쩔 수 없어. 한번 계약한 이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며 운명이니까."

"날 왜 이런 몸으로 태어나게 한 거야?"

그저 평범한 인간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도대체 신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내려주는 건가. 이런 종족으로, 이런 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는 빌지도 않았고 원치도 않았다. 그저 남들처럼 평범한 가족과 살고 싶었다.

"글쎄... 그건 네 아버지 탓을 하렴."

수정구 속에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조금 서글펐다. 하기야, 이건 모두 자신의 아버지 잘못이지만.

"... 당신 책임도 있어. 차라리 날 낳지 말았어야지."

"어머머, 목숨은 귀중한 거야. 내가 늘 말하지 않았어?"

"아, 몰라. 불사면 뭐해, 다 쓸데없는 건데."

그냥 죽고 싶다. 이 귀찮고 지긋지긋하며 답답한 생을 끝마치고 싶다. 계약,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책임도 지고 싶지 않고, 이런 연기 따위 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때 내 머릿속에 신의 은총을 받은 한 아이가 떠올랐다.

"기회지, 그건. 은총이 아니라."

마치 내 머릿속을 엿보기라도 한 듯, 속으로만 생각했던 말에 수정구의 목소리가 반박했다.

"뭐, 뭐야. 언제 또 내 머릿속 훔쳐봤어.!"

"훔쳐본 게 아니라 저절로 들리는 거란다, 아가. 나더러 어쩌겠니?"

"들리긴 무슨, 매번 같은 변명이야. 됐고, 당신의 그 셀 수 없는 미친 도구들 중에 그거 있지?"

"미친 도구라니! 어떻게 내 회심의 발명품을 그런 비속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

수정구 속 목소리는 내 말에 발끈했다. 한 방 먹였다는 생각에 내 입가에 비소가 지어졌다.

"아, 뭐 그런 거 있잖아, 전에 신전에서 만든 것들 중 하나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거."

"아아~ 그거? 어디에 쓰게? 너한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의아한 듯 묻는 그 물음에 나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짜증나는 년 좀 엿 먹이게."

"뭐? 푸하하핫- 꺄하하학-"

미친 듯이 웃는 날카롭게 찢어진 목소리 때문에 황급히 귀를 막고 수정구에서 물러나야 했다.

"시끄러워!"

"아흐흑... 미안, 미흐하학.. 아아, 진짜 간만에 실컷 웃었네... 누구길래 그래?"

"있어, 그런 얘. 됐고 빨리 보내줘. 당신이 키우는 그 올빼미한테 시키면 되잖아."

"얘는 무슨 그런 말을 하니? 삐삐는 그런 용도가 아니야."

"그럼 직접 와."

"싫어, 앞으로 한 몇 천 년 동안 여기 있을 건데?"

약 올리는 그 말투에 나는 다시 발끈할 뻔했지만 이어지는 목소리에 가라앉혔다.

"내 수하가 전달해 줄 거야. 뭐에 쓰려고 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조심하렴. 너는 내 아가잖니."

"아가 아니라고..!"

"후훗, 그래, 애기야. 우쭈쭈~ 애기."

"끊어!"

나는 잠시 진정하며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빛을 잃은 수정구를 바라보았다.

내가 아무리 짜증 부리고 화를 내도 그녀는 날 평소처럼 대해 줄 것이다. 아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기 했어도, 그녀는 평생 날 그리 부를 것이다. 애정을 담아서.

왜냐하면 난 그녀의 딸이니까. 그녀는 내 어머니니까.

“어서 오십시오, 데네아 공녀님. 마탑 소속의 베타라고 합니다. 마탑에 중요한 볼일이 있다고 편지를 보내주셨더군요.”

붉은빛이 도는 갈색 머리의 남자는 미소를 짓고 친절하게도 차를 따라주며 내게 말했다. 그는 자신이 마탑 소속인 것을 증명하는, 특수한 마법이 걸렸을 것이 뻔한 펜던트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네, 미리 편지로 말씀드린 것 때문에 왔습니다. 우연찮게 손에 넣었는데, 마탑에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웨티스 경. 그걸 이분께 전해드려요.”

마탑에 나와 함께 호위로 온 웨티스 경은 가죽 주머니를 조심스레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내가 미리 얘기해 둔 탓도 있고, 전에 이것을 얻었을 때 옆에서 들은 것도 있고 하여 웨티스 경은 그답지 않게 예민한 상태였다.

베타는 그것을 잡고 주머니를 열어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의 마법석을 자신의 손바닥에 툭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 가는 실눈으로 유심히 관찰했다.

그 모습을 보자 실눈이라도 잘 보일까라는 호기심이 들었다. 직접 물어보고 싶긴 했지만 그에겐 무례가 될 터. 고작 나의 작은 호기심으로 인해 다른 이에게 무례를 주고 싶진 않았다.

“흠... 일단 형태로만 봤을 때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구별이 가지 않는군요. 아, 가끔가다 마법석을 모방한 위험한 것들이 발견 돼서 말이죠. 오해하지 말아 주세요. 하지만.”

“읏-”

갑작스레 그의 손에서 환한 빛이 뿜어져 나와 나는 손으로 눈을 가렸다. 잠깐의 빛이 있고 난 후 손을 치우자, 내 눈에 보인 것은 붉게 빛나는 작은 돌 하나였다. 그 붉은 빛은 본디 문양에서 나오던 빛을 삼켜버릴 정도로 강렬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다.

“아무리 모습이 똑같은 주술 걸린 가짜라고 해도, 이런 판별 마법엔 별수 없답니다. 다행히 진짜네요. 뭐, 이게 다행일지 불행일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베타는 싱긋 웃어 보이며 다시 잠잠해진 돌을 주머니에 넣고 입구를 봉했다.

“그건 그렇고, 어디서 나셨습니까? 아무리 그 마법력의 강도가 미약한 것이라 해도 이게 우연히 얻을 수 있는 물건일 리가 없을 텐데 말이죠.”

그는 가는 실눈을 뜨며 물었다. 나를 의심하는 건가? 나는 그저 모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저 운이 좋아 얻은 것뿐입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세요.”

찻잔을 기울이며 차를 마시는 나를 보며 베타는 무슨 생각인지 흔쾌하게 넘어갔다.

“... 뭐, 공녀님께서 그러하시다면야. 그럼 일단 제보해주신 이 마법석은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 이건 공녀님 덕분에 되찾은 것도 있으니, 다음에 한 번 마탑에 들러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넉넉하게 챙겨준다는 소리인 건가?’

“네,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들리겠습니다.”

나는 다 마신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베타는 나를 마중해줄 생각인지 같이 일어났다.

“아,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마탑 구경이라도 하고 가시겠습니까? 이곳이 은근 볼 게 많거든요,”

‘구경? 마탑을?’

“그게 가능한 건가요? 제가 알기론 마탑은 방문자들에게 잘 보여주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하하, 가끔 찾아오시는 고위층 방문자분들께는 마탑의 일부분만 조금 보여드리기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하지 마시길. 아무리 그 미지의 마탑이라고 해도 그렇게 꽁꽁 숨는 건 아닙니다.”

‘그런가... 마탑을 일부분이라곤 하지만 엿볼 수 있다니, 끌리긴 하지만.’

솔직히 지금 당장 베타를 이끌고 마탑을 둘러보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아쉽게도 오늘은 어머니와 약속한 티파티가 있었다. 일은 재빨리 해치우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며 내가 그토록 골라냈던 초대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는 어머니를, 아버지조차 말릴 수 없었다. 그래서 잡힌 것이 오늘의 모임.

젤란 백작영애가 주최하는 꽤 규모가 큰 티파티로, 웬만한 세력이 좀 있다 싶은 가문들은 거의 다 초대받은 티파티였다. 내 추측이지만 그곳에 이벨리아가 올 가능성은 적었다.

아르체아는... 요새 황태자와 자주 엮이며 가문이 수도로 오르려는 추세인데, 젤란 백작가와는 연이 많지 않으니 그녀 또한 이벨리아와 마찬가지로 초대받지 못한 것 같다.

“다음에 다시 왔을 때 봐도 될까요? 안타깝지만, 오늘은 영애들끼리의 작은 모임이 잡혀있어서 시간이 애매하네요.”

“아, 괜찮습니다. 영애들과의 모임이 더 중요하니까요. 두 번째 만남에는 마탑을 좀 꾸며 놓으라고 전해놓겠습니다.”

“마탑을 꾸민다고요?”

“네, 사실 몇 달에 한 번씩은 저희가 탑을 소소한 마법으로 꾸며놓곤 합니다만, 물론 마탑주님 몰래요. 탑주님께서 워낙 엄격하셔서 함부로 탑을 훼손시키거나 하면 그날로 저희 모두 다 같이 뒈, 아니, 말실수했네요. 다 같이 혼이 납니다.”

“그럼 더더욱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마탑의 보스인 마탑주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그래도 되냐고 묻는 듯한 내 표정을 보며 베타는 씩 웃었다.

“원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것이 저희 식구 특성이랍니다.”

“아, 네...”

‘처음 봤을 때 이 사람, 뭔가 딱딱한 비서 같은 느낌이었는데 의외로 장난기가 있었을 줄이야.’

나가는 길을 안내하는 베타를 따라가며 생각에 잠겨 있다가, 나는 내가 물어보려고 했던 질문을 그제서야 기억해냈다.

“베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답해드릴 수 있는 한에서는 뭐든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부터 궁금해 왔던 남자의 정체에 대한 단서를 물었다.

“혹시, 마탑과 계약을 하는 상인이 있나요? 아니면 상단이라던가...”

그는 자신을 상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상인이 마도구를 가지고 있다? 마도구는 엄연히 마탑의 것이다. 신전에서 사용하는 성물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물건이 바로 마도구.

“마탑과 계약을 하는 상인이요? 음... 제가 알기론 단 세 곳의 상단뿐 입니다만, 그 상단들도 기껏해야 한두 개 정도로,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사용하는 것들밖엔 없을 겁니다. 이들을 제외하고서는 왕실이나 황실밖에 없군요.”

“그렇다면 일반 ‘상인’ 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탑이 세워진 이후부터 마탑과 계약한 상단은 있어도 상인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별말씀을요.”

베타의 확신에 선 대답을 듣고 나니 안 그래도 복잡한 머리가 더욱 꼬여버렸다.

‘그럼, 로빈은 대체 정체가 뭐지? 평범한 상인은 결코 아니야. 애초에 마도구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평범에서 벗어난 범위니까. 도대체 그자는...’

누구지?

“데네아 영애, 어서 오세요. 저는 젤란 백작가의 필리아 젤란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호호호.”

“안녕하세요, 젤란 영애. 당연히 와야지요. 이리도 많은 영애들이 모이시는 데 제가 어떻게 오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어머, 저는 데네아 영애께서 거절하실 줄 알았는데 정말 다행이네요! 황태자 전하의 성년 기념 무도회에서 뵌 이후로 오랜만에 나오시는 거잖아요. 아아, 데네아 영애께서 오시니 오늘 티파티가 더욱 기대되네요!”

젤란 영애는 활발하고, 활기차며 긍정적인 소녀였다. 내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그녀는 흰 장갑을 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이상적인 영애들처럼 웃어 보이려 했지만 고개를 쳐들고 깔깔대는 모습은 보는 사람을 부담스럽게 만들었다.

‘올해로 열여섯이라고 했나... 나이에 비해 치장이 너무 과한걸.’

그도 그럴 것이, 젤란 영애의 머리는 무슨 장식들을 막 가져다가 꽂아놓은 듯한 모습이었고, 드레스는 젤란 백작 부인의 옷을 빌리기라도 한 것인지 헐렁한 상체가 눈에 들어왔다. 드레스 밑자락이야 말할 것도 없이 땅에 끌리려는 것을 젤란 영애가 손으로 붙잡고 있었고.

“자자! 그럼 들어가시죠, 모두가 영애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속으로 작게 한숨을 쉬고 있는 내 심정을 알기나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젤란 영애는 나를 저택 뒤편의 정원으로 이끌었다.

“데네아 영애는 여기 앉아주세요.”

젤란 영애의 취향이 돋보이는 테이블과 의자는 분홍색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이는 나를 차라리 내가 결정할 걸, 하고 후회하게 만들어줬다. 어머니의 취향을 간파하지 못한 내 잘못이다.

젤란 영애가 알려준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니 이곳에 앉아있는 인원은 대략 스무 명쯤 될락 말락 해 보였다. 보통 티파티는 평균적으로 열다섯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초대장에는 규모를 크게 할 예정이라고 쓰여 있었으니 괜찮겠지.

대충 보아하니 대부분이 백작가, 후작가 쪽 영애들이고, 공작가는 역시 나 하나였다.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지. 현재 제국에 공녀는 나 하나뿐이니. 다들 젤란 영애들의 또래나 한두 살 차이 정도로 보였다.

일단 내 예상대로 이벨리아와 아르체아는 보이지 않았다. 한편으로 다행이다 싶었다. 괜히 또 마음이 심란한 상태에서 고구마를 먹으면 참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자, 여러분~ 오늘 제 티파티에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특히나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들이 와주셨기 때문에 기분이 좋네요. 호호호호.”

자리가 어느 정도 채워질 무렵 젤란 영애가 일어서서 시작을 알렸다. 자신의 또래들과 이렇게 즐기는 것이 좋은 건지 아까부터 젤란 영애는 많이 웃고 있었다.

“여러분이 제 초대를 거절할까 봐 잠도 못 자고 조마조마했는데 이렇게나 많이 모여 주시다니..!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젤란 영애는 자리에서 벗어나 말을 하며 어디론가 걸음을 옮겼다.

“사실, 모두 도착하신 것 같지만 아직 한 분이 남으셨어요. 이 분은 말이죠~ 최근 황태자 전하와 자주 만나시는 분이신 데요, 제가 정말 어렵게 초대했답니다!”

‘아니, 잠시만. 이건 아니지.’

젤란 영애가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알았다.

결코 지금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 내가 아는 그녀인지 헷갈리는 사람. 황태자와 쌍으로 답답한 사람.

“바로.. 아르체아 멜튀스 영애입니다~”

내가 들어왔던 입구와 반대편에 위치해 있는 곳에서, 젤란 영애가 그녀의 손을 잡고 에스코트하 듯 데려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런 자리는 처음이네요. 만나서 반가워요. 멜튀스 백작가의 아르체아 멜튀스입니다.”

“하...?”

내 갈라진 입술 사이로 허탈한 웃음 한 조각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그 리벤 가의 자작 영애가...”

“참, 곧 테니타 백작 부인께서 영애들을 위한 파티를 여시겠다고 하시던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테이블마다 나이가 비슷한 영애들끼리 네다섯 명씩 모여 앉아 자기들끼리의 이야깃거리, 암암리에 도는 소문들 등을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일단 티파티는 순조로웠다. 큰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차와 다과는 나쁘지 않았고 다들 아름다운 꽃들의 향연 속에서 즐기고 있었다. 약간의 문제라면 모를까.

“어머, 데네아 영애.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그동안 뵙고 싶었는데 영애께서 충고하신 말씀 때문에 찾아가 볼 엄두가 나지 않았지 뭐에요.”

“충고라뇨?”

가증인지 진심인지 모를 모호한 미소를 짓는 아르체아에게 젤란 영애가 물었다. 머리가 복잡해서 그녀와 같은 곳에 앉고 싶지 않았는데, 주최자인 젤란 영애가 친히 내가 있던 중앙 테이블에 아르체아를 데려오니 어쩔 수 없다.

“제가 생각이 짧아서 미처 데네아 영애께 방문 편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데네아 영애를 찾아뵌 적이 있어요.”

“정말요?”

“네, 그런데 여기 계신 데네아 영애께서...”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왠지 모르게 불안해진 감이 왔다. 아르체아는 갑자기 이걸 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하는 듯 내 눈치를 보며 말을 끌더니 이내 서글프게 말했다.

“용건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더니 바로 내쫓으시더라고요...”

“네에?”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나는 황당함에 차를 마시려고 뻗던 손을 멈추고 아르체아를 바라보았다. 다른 이들도 놀라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시선이 몰리자 그제야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말을 덧붙이기 시작했다.

“아아, 오해하지 마세요. 그저 제가 잘못한 거죠. 미리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래도 바로 내쫓으신 건 아니고, 다음에는 미리 연락을 취하고 방문하라는 충고를 들었어요. 데네아 영애,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미처 몰랐던 것을 깨달았네요.”

그러면서 아르체아는 방금 전까지의 태도를 잊고 태연하게 홀짝 차를 마셨다. 주위의 반응을 기대한 채. 뭐, 그녀야 동정적인 반응을 원했겠지만 그녀에겐 안타깝게도,

“저기, 멜튀스 영애. 말씀이 뭔가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그녀가 놓친 사실이 있다. 이곳은 귀족의 사상을 가진 이들이 모인 곳이고, 어느 정도의 예같은 건 모두 알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렇게나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저 스스로 표출하다니.

‘참 바보 같은 짓이지.’

나는 슬며시 올라가려는 입꼬리를 내렸다.

"네?“

어리석은 아르체아는 순진한 표정으로 자신에게 반박한 영애에게 되물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카세아 후작 영애였다.

도도하고 평소에도 침착하기로 소문나 있는 카세아 영애는 웬만한 일에는 꿈쩍도 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이 친히 나서는 것을 보니 아르체아가 내뱉은 말은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소리였다.

“애초부터 정말 친한 관계가 아닌 이상, 누군가의 집에 방문할 때에는 연락을 미리 취해두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예’ 랍니다. 귀족이라면 당연지사 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죠. 흠.. 멜튀스 영애께선는 방금 본인 입으로 몰랐다고 하셨는데, 정말 모르고 한 행동이었나요?”

“저는...”

그녀의 목적은 뻔했다. 내가 공작저를 방문한 영애를 문전박대했다고 몰아가려 했던 것 같은데, 왜 자꾸 가만히 있는 나를 건드리려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다.

카세아 영애의 말에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아르체아가 머리를 굴리며 이 상황을 모면할 기회를 찾으려는 즈음에 또 다른 영애가 우습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어머나아, 카세아 영애. 모를 수도 있죠. 멜튀스 영애는 수도에 올라오신 지 아직 얼마 안 됐잖아요?”

얼핏 듣는다면 아르체아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니다. 저 영애는 지금 '지방에서 올라와서 뭘 좀 모르는 구나' 라고 말하고 있었으니까.

“역시 아랫물은 좀 다른가 봐요.”

내 옆자리의 영애가 방금 아르체아에게 말한 영애에게 소근 거리며 자기들끼리 키득 하고 웃었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 아르체아에게도 들렸을 것이다. 표정을 보아하니 그녀는 수치심 때문인지 아니면 역관광으로 인한 창피 때문인지,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젤란 영애는 그런 그녀를 힐끗 쳐다보기만 할 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결국 아르체아는 다른 화제로 넘어가고 꽤 시간이 흐를 때까지 입을 꾹 다물기만 할 뿐이었다.

“데네아 영애, 괜찮으세요? 안색이 영 좋지 않아 보이세요.”

간간히 맞장구나 쳐주며 티파티에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누군가 내게 걱정스러운 말투로 말을 걸어왔다.

“아... 그런가요?”

손으로 뺨을 한 번 쓸어내리자 젤란 영애가 호들갑을 떨며 내게 말했다.

“어머, 어머, 데네아 영애. 불편하시다면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불편하지는 않지만, 잠시 산책이라도 하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자리는 너무 오랜만이라서 말이에요.”

“저희 젤란 백작가의 정원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 제게는 영광이죠! 저희 가문의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운걸요. 영애께서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그럼 실례하겠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며 걸어가려는 내게 젤란 영애가 다시 말했다.

“참, 안내는 시종들에게 물어보시면 알려드릴 거예요!”

나는 고맙다는 표시로 고개를 까닥하고 티파티 자리에서 벗어났다. 근처에서 대기 중이던 많은 영애의 호위들 중에서 웨티스 경이 나를 발견하고 뒤따랐다.

“후우... 예쁘긴 예쁘구나.”

진할 것이라는 내 예상과는 다르게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장미꽃 냄새를 맡으며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역시 시끄러운 곳은 나와 안 맞아.’

아까부터 지끈거리던 머리가 한결 편안해진 느낌이었다. 젤란 영애가 자랑스레 말했던 것이 허풍이 아니었나 보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아까보단 훨씬 괜찮은 것 같네요. 많이 기다리느라 지루했죠?”

“딱히 지루하진 않았습니다. 기다림도 호위의 본분 중 하나이니까요.”

나는 작게 웃으며 무뚝뚝하게 대답하는 웨티스 경에게서 시선을 돌려 정원을 감상했다.

간간히 보이는 작지만 섬세한 분수들과 길가 양옆으로 나란히 피어있는 형형색색의 꽃.

두 번의 생 동안 보지 못했던 처음 보는 꽃들은 내 눈을 즐겁게 만들었다.

얼마나 정원에 힘을 썼는지, 정원의 중앙은 호수 한가운데의 섬으로 되어 있었다.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치형의 나무다리를 건너야 했다.

“와아... 정말 멋지지 않아요?”

나는 중앙의 거대한 나무에 이끌리듯 걸어가며 감탄사를 뱉었다. 마치 세계수를 연상시키는 이 나무는 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태양 빛을 받은 나뭇잎 사이사이에서 아름다운 빛줄기가 쏟아져 내리듯 나무 그늘에 펼쳐져 있었다.

아무래도 그 크기가 크다 보니 속이 빽빽할 텐데 이렇게 신비로운 광경이 나올 수 있다니...

“공작저의 정원이 이곳보다 몇 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속으로 연신 감탄을 하던 중 웨티스 경이 무표정으로 그런 대사를 치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나보다 몇 살이나 차이가 나는 성인 남성이지만, 가끔은 왠지 모르게 귀엽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집 정원에도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봐?’

어쩐지 오기가 생겼지만 관뒀다. 현재 공작저의 정원도 아름답기 매한가지고, 굳이 그 풍경을 바꿔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도 내심 언젠가는 한 번 마법을 곁들인 정원을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 더 가까이서 본 나무는 거대했다.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위해 나무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슬슬 돌아가는 것이 좋겠어요.”

“예.”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우면 젤란 영애에게 더 실례가 될 것이기에 나는 이쯤에서 돌아가기로 했다. 그렇게 다시 나무다리를 건너기 위해 몸을 돌리는 순간.

“안녕하세요, 데네아 영애. 여기서 뭐 하시나요?”

다리 위에 그녀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저야 젤란 영애께서 안내해주신 정원을 둘러보고 있었죠. 멜튀스 영애도 정원을 감상해보기 위해 오신 건가요?”

“... 전 정원 감상 따위나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에요. 데네아 영애께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온 것뿐이에요.”

‘따위라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런 표현은 정원 주인에게 실례일 텐데.’

“그렇군요. 그런데 전 멜튀스 영애와 나누고 싶은 말이 없는데, 어쩌죠?”

또 무슨 이상한 말을 하기 전에 나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웨티스 경과 함께 다리 위에 아직도 서 있는 아르체아를 지나쳤다. 아니, 지나치려고 했다.

“영애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 텐데요. 예를 들면 환생... 이라던가.”

아르체아가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나는 멈칫했다.

“...뭐라고요?”

“제게서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일단 단둘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호위기사는 잠시 빠져 주시면 좋겠어요.

아르체아는 미끼를 물은 쥐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 경, 잠시만 건너가 있어요.”

“아가씨.”

“금방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요.”

웨티스 경은 무언가 내게 할 말이 더 있어 보였지만 단호한 내 대답에 명을 따랐다.

“드디어 제대로 얘기해보네요.”

“됐고, 할 말이 뭐죠.”

아르체아가 여유로운 반면에 내 얼굴을 조금 굳어있었다. 그녀가 ‘환생’ 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뱉은 순간부터 굳었는지도 모르겠다.

“솔직히 조금 당황했어요. 내가 알던 당신이 아니라.”

“...”

“과거 내가 알던 당신은 오만의 표본이었으니까.”

“그게 지금 무슨 말인지-”

“세리스틴 데네아. 나는 당신의 최후를 지켜봤지. 그리고 그대로 끝이 날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더라고.”

‘내 최후라니..’

점점 심각한 말을 하는 아르체아를 보며 나는 설마 하는 마음에 떨리는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만일 다른 사람이 그녀의 말을 들었으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르다.

“우리의 마지막을 기억해? 넌 아래서 우릴 올려다보고 있었고, 난 그와 함께 다정히 서 있으며 초라한 너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어. 그렇게 우리 헤어졌지. 영원히 말이야. 내 말이 맞지?”

“너...”

어느샌가 우리는 서로 반말을 하고 있었다, 그만큼 나는 당혹스러웠다. 전과는 다른 아르체아의 태도에 놀란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가 나와 비슷한 처지인 것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으니까.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맞아.”

“그래서였구나? 네 태도가 달랐던 것이.”

“이제야 눈치챘어?”

그녀는 킥킥대며 괴상한 웃음을 내었다. 그것은 마치, 광기를 지닌 사람이 웃는 모습과 흡사했다.

“너도 과거로 돌아온 것처럼, 나도 과거로 돌아왔어, 데네아. 아니, 세리스틴. 우린 같은 처지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르지.”

그래서였다.

아르체아 또한 나처럼 과거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나를 대하는 태도가 적대적이었던 것이고, 과거와 다른 행동을 취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었다.

“넌 성녀 아니었어? 성녀로 불릴 만큼 인성이 괜찮은 여자로 알고 있었는데 말이야.”

“성녀? 하! 그런 성녀 연기 같은 건 과거로 돌아오면서 일찌감치 버렸어.”

“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생각이라니. 너 설마, 과거로 돌아온 것이 내 의지였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그녀의 의지? 그럼 다른 누군가가 개입된 건가? 하긴 권력, 재물, 사랑을 모두 얻은 그녀가 과거로 돌아올 이유가 없었다. 그렇다면 누가?

“나와 그가 해피엔딩을 맞이한 후로 난 결단코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 다시 처음으로, 모든 행복이 사라진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고!”

“그래서, 네가 나와 같이 돌아온 것이 다른 누군가 때문이라고?”

“그래! 그 망할 년 때문에, 난 모든 걸 잃었어...! 다 잃었단 말이야!”

그녀는 분노를 표출하며 평소와 다르게 얼굴을 붉게 물들이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망할 년?”

그녀가 이렇게 칭하는 것을 보니 어지간히도 분했나 보다.

그녀에게 동정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다. 굳이 동정하고 싶지도 않았다.

“넌 알 바 없어.”

씩씩거리던 아르체아는 잠깐의 시간이 흐르니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하... 그럼 이제 나보고 어쩌란 건데?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으니 진실을 알려주는 거 아니었어?”

“...나와 그의 사이를 방해하지 마.”

그라면, 황태자를 칭하는 거겠지. 그러나 그 부분에서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 나와 황태자의 사이에서 아르체아가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었다. 털끝만큼도 없었다.

“방해?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나보고 또 그렇게 죽으라고?”

죽고 싶지 않다. 어떻게 얻은 생인데,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날려 보내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뭐야, 너. 그를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아르체아는 인상을 찡그리며 내 말에 되물었다. 아마도 그녀는 내가 황태자를 담아두고 있었다고 오해한 것 같았다.

“그럴 리가. 전이라면 모를까, 지금은 아니지. 난 그를 좋아하지도 않고, 굳이 둘 사이에 끼어들어서 훼방 놓고 싶지도 않아.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걸 귀찮게 왜 바꿔야 해?”

이왕 터진 거, 그냥 확실히 말해두기로 했다. 나중에 또 질질 끌면 피곤하니까.

“잘 들어. 지금도, 앞으로도 내가 네 그 사랑을 방해할 일은 없을 테니 둘이 연애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해. 대신, 날 거기에 끼워 넣진 마. 내가 전에는 멍청한 악녀였을 진 몰라도 지금은 아니야. 나도 평범하게 사랑 해보고 싶어.”

아르체아는 속사포로 몰아붙이는 내 말에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렇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경계심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너, 나 건드리지 마. 난 내 길만 걸을 테니까 너나 귀찮게 하지 마. 애초에 지금 네가 나한테 반말 쓰는 것도 공작가에 대한 반발이란 거 알고 있지? 우리 피차 서로서로 건드리지 말고 잘 지내자고. 응?”

답답한 무언가가 쑥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아르체아에 대한 의문을 풀고 나니 머릿속이 복잡했던 것이 모두 가루가 되어 사라졌다.

아르체아는 뭔가를 생각하며 고민하더니 이내 쏘아붙이듯 내게 물었다.

“진짜지?”

“아니면 내가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누가 자길 죽인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겠니? 그것도 계속 나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을.”

이상하게도 황태자는 전보다 더 심하게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약이라도 먹은 것처럼.

“좋아. 그 말 지켜.”

“하, 당연하지.”

그 말을 끝으로 우리 둘 사이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자리를 떴다. 저 앞에서 웨티스 경이 불안해하며 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아르체아와의 대화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바람에 돌아가기에 적당한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데네아 영애! 마침 찾아뵈려 했던 참인데 다행이에요! 금방 돌아오실 줄 알았는데 오래 걸리셔서 걱정했답니다.”

“저도 잠깐 산책만 하고 오려던 것이 정원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만 돌아갈 시간을 놓쳤지 뭐에요. 특히나 중앙의 그 모호한 분위기를 풍기던 나무가 인상적이었어요.”

“아, 보셨군요! 그 나무는 제 아버님께서 어렵사리 구해오신 나무랍니다. 얼핏 듣기론 엘프의 축복을 받은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엘프요? 어머나, 이름만 들어도 신비롭네요!”

근처에서 다른 영애가 엘프라는 말에 눈을 휘둥그레 뜨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흥미가 당긴 건 나도 마찬가지였고.

“엘프라니요, 그건 몇백 년 전에 멸종되었다고 전해진 종족 아닌가요?"

“맞아요, 외형은 누구나 홀릴 만큼의 미색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를 이용해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먹었다고 들었어요.”

“으으, 듣기만 해도 소름이 절로 돋네요.”

엘프에 대해서는 나도 오늘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기에 생소했지만 그렇다고 낯설지는 않았다. 내가 가끔 동기들과 봤던 판타지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오던 엘프와는 비슷하면서도 달랐기 때문이다.

몇몇 영애들이 엘프에 대해 두려운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젤란 영애는 그런 영애들의 반응을 예상치 못했는지 당황하다가 다시 말했다.

“에, 엘프의 축복을 받았다고만 전해만 들었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몰라요! 그래요, 몇백 년 전에 멸종됐다고 알려진 엘프의 축복을 어떻게 받겠어요? 전 진작에 엘프의 축복은 믿지 않았답니다.”

모순적인 부분이 엿보이는 젤란 영애의 말에 다른 영애들은 그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아직 어린 한 영애는 아직 불안한지 젤란 영애의 말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그나저나 엘프라니. 엘프에 대한 책이 있으려나.. 한번 보고 싶은데.’

몇백 년 전에 멸종했다 했으니 공작저에는 없을 것 같고, 황궁 도서관에 있겠지?

가는 김에 겸사겸사해서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내 앞에 놓인 홍차를 홀짝이던 도중 아르체아가 돌아왔다.

“무슨 얘기들 나누고 계셨나요?”

“멜튀스 영애, 어서 와서 앉아요. 영애께서 산책하고 오신 젤란 백작가의 정원에 관한 얘기를 나누던 참이었답니다.”

“아, 맞아요, 젤란 영애. 정원이 정말 환상적이던걸요?”

“호호, 과찬이세요.”

아르체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천덕스럽게 표정을 바꾸고 돌아왔다. 고작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화를 내던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티파티는 계속 진행되었다. 황금빛을 띄우는 해가 슬슬 기울기 시작하기 전까지.

“엘프요? 그건 멸종한 종족 아닌가요?”

“네. 제가 참석했던 젤란 영애의 티파티에서 신비한 나무 한 그루를 우연찮게 볼 기회가 생겼었는데, 그 나무가 엘프의 축복을 받은 나무라는 소문이 돌아서 말이에요. 갑자기 엘프에 대해 궁금해지더라고요.”

황녀와 대면했던 날로부터 벌써 일주하고도 며칠이 지나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 나는 한결 편안하게 황녀를 대할 수 있었다. 수시로 말 편히 하라고 했던 황녀의 덕도 있었고 말이다.

“엘프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은 없지만 그냥 잘생긴 또라이 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요.”

또, 또라이요?

“황녀 전하, 부디 단어 선택에 신중해 주시길. 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황녀가 자신과 함께 소소하게 얘기나 나누면서 다과를 즐기자고 날 부른 것이기에 저번과는 달리 시녀들이 네다섯 명 정도 방에 머물렀다. 제니라 불린 여인은 페르세지아 황녀의 시녀장으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황녀를 보필하고 있었다.

“제니, 괜찮아. 여기가 공식적인 석상도 아니고, 난 그냥 공녀와 편하게 대화나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어차피 우리밖에 없잖아. 공녀도 괜찮죠?”

“저는 그리 상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심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페르세지아 황녀는 자신의 흘러내리는 금발을 휙 하고 어깨 뒤로 넘겼다. 그녀는 자신의 말에 큰 책임은 느끼지 않은 것 같았다.

“공녀가 괜찮다면 된 거죠. 봤지, 제니?”

“하아... 황녀님께서 제국의 하나뿐인 공녀님께 그런 단어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황후 마마께서 아시는 날이면...”

“제니가 본래 걱정이 많은 아이예요. 공녀가 이해해줘요.”

누가 보기에도 중년의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을 아이라고 칭해버리는 황녀를 보며 난 어쩌지 못하고 미소만 지었다.

“여하튼, 엘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황궁 도서관에도 관련 서적이 몇 개는 있을 거예요. 나중에 시종이라도 불러서 찾아 줄 테니 일단 지금은 요것부터 먹어봐요.”

“에? 아, 아...”

황녀는 내가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자신의 손으로 잡아서 내 입가에 가져다주었다. 나는 그걸 거절할 수도 없어서 어쩌지도 못하고 입을 벌려 받아먹었다. 그럴 때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뭔가 애매모호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어미 새가 아기 새에게 모이를 주는 것을 연상시키는 느낌이랄까?

황녀는 거듭 내게 디저트를 권했다. 그녀는 내게 생각보다 호의적이었다. 물론 내게 호감을 가진 사람이야 내겐 좋은 일이다. 다만 그 호의가 내가 감당하기엔 조금 벅차서 문제지만. 그 예로 나는 지금 배와 허리를 조이는 코르셋 때문에 점점 먹기 버거워져 가는 상태이다.

끝내 나는 바닐라 에클레어를 들고 다가오는 황녀에게 적당히 사양하고 나서야 한숨 돌릴 수 있었다.

“참, 공녀. 마탑에 대해 알고 있나요?”

느닷없이 황녀가 내게 물어왔다. 그 물음에 나는 마시던 찻잔을 내려놓고 의아했다.

“마탑 말씀이신가요? 며칠 전에 볼일이 있어서 한 번 다녀와 보긴 했었는데...”

“어머, 정말요? 공녀가 본 마탑은 어땠어요?”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은 건네는지 모르겠지만 난 황녀의 물음에 기억을 더듬으며 대답했다.

“음... 외형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그 속은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신기하기도 했죠."

“그리고요? 마탑 소속 마법사들도 보셨어요?”

“아, 네. 한 분 뵀었어요.”

“마탑주는요? 혹시 봤나요?”

“그때 당시에 뵌 분은 방금 말씀드린 그분 뿐이기에 보지 못했어요.”

질문의 의도를 찾지 못해 아리송한 내게 황녀는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째서 그런 한숨을 쉬는 건지, 갈수록 의문만이 더해졌다.

“사실, 오늘 그 마탑주가 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 멋대로 훅 나타나고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성격이라 혹시라도 그 사람이 오면 많이 놀라지는 마요.”

“네, 전하. 그런데 마탑주께서는 황녀님께 어쩐 일로...?”

황녀가 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입을 열던 찰나, 살짝 열려있던 창문에서 갑작스런 바람이 휘몰아쳤다. 강도가 세진 않지만 약하지도 않은 그 바람에 금발과 은발이 섞이며 휘날렸다.

한순간의 바람이 몰아치고 난 뒤 나타난 것은 포니테일로 새빨갛게 붉은 머리를 묶고 긴 흑색 외투 자락을 날리는 여성이었다.

“안녕~ 레이디들? 좋은 오후!”

“샤트라! 내가 정문으로 오라고 말한 것이 몇 번인데..!”

붉은 머리의 여자는 여유로운 말투로 우리에게 인사를 건넸고, 황녀는 벌떡 일어서며 화가 난 듯 그녀에게 외쳤다.

나는 영문도 모른 채 황녀와 붉은 머리 여자를 번갈아 가며 쳐다보았다.

“어머? 못 보던 얼굴이 있었네. 뭐야, 르세. 지금 나 빼고 다른 여자 생긴 거야? 그런 거야?”

팔짱을 낀 여자는 자신의 머리색처럼 새빨간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친한 사이같이 자연스럽게 황녀를 애칭으로 불렀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정말 미안해요, 공녀. 이렇게까지 갑작스럽게 찾아올 줄을 몰랐었는데.”

“빨리 해명해, 르세! 이 여자 누구냐고!”

“부탁인데 제발 입 좀 다물어 줘요. 하... 샤트라, 제국의 데네아 공작가의 영애에요. 예를 좀 지켜달라고요. 그리고 공녀, 이쪽은-”

“샤크트릴라 레베나, 마탑주야. 만나서 반가워, 데네아 공녀.”

샤크트릴라는 매력적인 웃음을 지으며 내게 손을 내밀었다. 얼떨떨한 난 반사적으로 그 손을 잡으며 인사했다.

“세리스틴 데네아입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마탑주를 뵙게 되어서 영광이에요.”

“어머머, 얘 좀 봐. 날 봐서 영광이래! 봤어, 르세? 따지고 보면 너도 영광 아니야?”

“전혀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요. 공녀, 기대를 무너뜨려서 유감스럽지만 보다시피 제국의 마탑주는 정상이 아니랍니다.”

“내가 뭐! 나 정도면 정상 아니야?”

“샤크트릴라님?”

소리를 꽥꽥 질러대던 샤크트릴라는 음침하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삐걱대며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어두운 오오라를 풍기는 제니가 서 있었다.

“하하, 제니도 안녕...?”

제니의 한마디는 활발하던 샤크트릴라의 꼬리를 바로 내려버리게에 충분했나보다.

“제가 지난번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뭐가아?”

샤크트릴라는 말을 길게 끌며 실실 웃어 보였다.

“황녀님의 방으로 들어오실 때는요,”

제니가 한 발짝 움직이자 샤크트릴라는 진땀을 흘렸다. 자기도 뭔가 찔리는 게 있는지 그녀는 재빨리 선수를 치고 해명을 하기 시작했다.

“아니, 제니 그게 아니라...”

그러나 철통 같은 제니는 꿈쩍도 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나가며 대담하게도 무려 마탑주의 귓불을 잡아당기고 그녀의 귓가에 울려 퍼지도록 외쳤다.

“제발 방문으로 찾아오십시오-!!”

“마수도 제 말 하면 온다더니. 오늘은 또 어쩐 일로 온다고 한 거에요?”

황녀는 머리를 부여잡고 물었다. 그녀는 이런 일을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라는 듯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응? 어... 그러게, 내가 여길 왜 오려고 했지?”

붉은 머리의 마탑주는 평범하지 않은 인상을 풍기며 비스듬히 누워 둥둥 떠 있었다. 그녀에게만 중력이 우리와 다르게 작용하는 것 같이 허공에 기댄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웠고 편안해 보였다.

“아아, 몰라. 기억하기도 귀찮아. 그냥 내 르세가 보고 싶어서 온 거겠지?”

샤크트릴라는 이단 트레이 위에 올려진 쿠키 하나를 집어 먹었다.

황녀는 그런 사크트릴라를 노려보며 활짝 열린 창문 밖을 가리켰다.

“누가 당신의 르세에요. 별일 없으면 빨리 돌아가요, 샤트라. 샤트라 때문에 나와 공녀의 시간을 망쳐버렸잖아요.”

“싫어. 마탑은 심심하단 말이야. 황녀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재밌는 걸 어떡해?”

“그래도 오늘은 안돼요.”

탑으로 돌아가라, 말하는 황녀와 연신 귀찮다고 대답하는 마탑주 사이에서 나는 괜히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소파에 기대어 있었다. 그때 샤크트릴라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칫, 쌀쌀맞긴... 뭐, 세리스틴 이라고 했나? 르네랑 무슨 관계야?”

의외의 질문에 나는 약간의 고민을 한 뒤에야 대답할 수 있었다. 그마저도 애매한 대답이었지만.

“예? 저는... 황녀님의 말동무, 일까요?”

“일까요, 가 아니라 말동무예요. 공녀한테는 또 무슨 볼일이에요.”

모호하게 대답한 내 말에 반박한 황녀는 샤크트릴라를 경계하며 내 옆에 바짝 다가와 앉았다. 훅 가까워진 거리에 내가 얼떨떨하고 있을 때 샤크트릴라가 픽 하고 웃으며 말했다.

“귀여워서 그렇지. 솔직히 황녀도 그렇고 저 영애도 그렇고 다 귀여운 걸.”

“... 렴치한...”

“응? 뭐라고?”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요.”

싸하게 중얼거리는 황녀에게 샤크트릴라가 다시 되물었지만 황녀는 손을 흔들며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어디서 들어봤단 말이야. 데네아, 라..”

샤크트릴라는 어느새 공중에서 정좌세로 돌아와, 앉은 채로 턱을 괴며 내 성에 대해 고민했다.

‘데네아 라는 성은 마탑주 라면 한 번쯤이라도 들어봤을 텐데.’

공작가는 데네아를 포함하여 단 두 가문 밖에 존재하지 않으니. 그러고 보면 두 공작가 모두 가문을 대표하는 것엔 자신 있지만 정치에서는 조용하단 말이지. 여기서 우스운 것은, 공작 아래에 있는 후작, 백작가 등등의 가문들이 더 시끄러운 것이었다.

샤크트릴라는 이내 무릎을 탁 치고 외쳤다. 그러나 내가 예상한 것과는 다른 답이었다.

“아! 그 제보자!”

제보자라니, 그게 샤크트릴라의 귀까지도 들어갔나 보다. 베타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소문이 퍼지다니.

“그 뭣이냐, 너 맞지? 어디서 굴러다니던 돌 마탑에 가져와서 신고한 사람.”

그녀는 마법석을 길가에 돌아다니는 돌 따위로 취급하고 있었다. 어쩐지 희한하기도 하고 그녀답기도 한 재밌는 비유였다.

"제가 맞긴 하지만, 알고 계셨어요?“

“어잉. 내가 좀 애끼는 얘가 하나 있는데, 걔한테 전해 들은 거야.”

“혹시 베타... 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걔 맞아. 참, 말 그냥 편하게 해, 르네랑 친한 사람이면 그래도 괜찮아.”

“엇... 감사해요.”

나와 샤크트릴라가 대화를 나누는 사이 영문을 모르는 황녀는 우리 둘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죠, 사트라? 마법석이요?”

“응? 아아, 그냥 이 귀여운 영애에게 마탑이 신세 좀 진 게 있어서. 르세도 알겠지만, 마법석 관리는 엄격해서 대충 못 넘어가. 그래서 이 영애가 좀 의심스럽긴 했었는데, 내가 감이 좋잖아? 얜 안 그럴 것 같았지. 게다가 설사 그걸 사용했다고 쳐도 내가 기록 볼 수 있는데 배짱 좋게 그걸 돌려줄 것 같지는 않아서 말이야. 흐아아... ”

크게 하품을 하는 샤크트릴라를 무시하고 황녀는 내게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 그랬어요, 공녀?”

“네. 어쩌다 보니 얻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마탑에 돌려드렸어요.”

“그래 가지고 베타가 영애한테 보상하기로 했다며? 걔 성격상 보나 마나 마탑 꾸민답시고 구경이나 시켜주겠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콕콕 찔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의 말로 보건데, 마탑 소속 사람들이 마탑을 그녀 몰래 꾸민다고 생각했지만 샤크트릴라는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일부러 모른 척을 한 것일까, 아니면 귀찮아서 내버려 둔 걸까?

“음... 그것도 알고 계셨네요.”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몰라. 걔들 지들 멋대로 내 마탑 꾸며놓고서 뒤처리도 제대로 안 했더만. 하여튼 간에 치우는 건 잘도 못해요.”

그녀는 팔짱을 끼고 비아냥거렸지만, 말투는 그래보여도 나는 왠지 마탑주가 예상보다 그들을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 까칠한 그녀의 말투 속에는 약간의 따스함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그것이 미약하다 하여도 말이다.

“영애, 빠른 시일 안에 마탑 오면 내가 아주 격하게 환영해줄게, 어때?”

피보다 더 짙고 새빨간 눈을 빛내며 샤크트릴라는 내게 고개를 들이밀고 물어왔다. 그 강렬한 시선이 부담스러워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뺐다.

“공녀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요!”

그 모습에 황녀가 외치며 샤크트릴라의 얼굴을 손으로 밀어냈다. 쉽게 밀려난 샤크트릴라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황녀에게 말했다.

“왜에- 그냥 환영만 해주겠다는 건데. 우리 애들이 꾸민 마탑 말고 내가 친히 꾸며서 보여줄 건데, 왜에에-”

답지 않은 앙탈을 부리는 샤크트릴라의 모습은 점점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한 마탑주의 모습과는 멀리 떨어져 나가고 있었다.

“가능하다면 내일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진짜? 아니다. 그냥 확 지금 데려가, 말아?”

반색을 보이던 샤크트릴라는 고개를 숙이더니 무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얼핏 들어보니 그녀는 날 당장이라도 데려가고 싶은 심정인 것 같았다.

“뭘 그리 성급해요, 공녀도 자기만의 시간이 있다고요. 공녀, 샤트라에게는 그냥 일주일, 아니 한 달 뒤에나 가고 나랑 놀아요.”

샤크트릴라에게 쏘아붙이던 황녀가 내 두 손을 잡고 들어 올리며 말하자 샤크트릴라가 손가락을 까딱였다.

“오오, 안 되지 안 돼. 난 그렇게 참을성이 많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일이든 오늘이든 영애만 빨리 오면 난 만사 괜찮이라는 거야.”

“만사 괜찮은 또 어디서 들은 말이에요.”

“내가 방금 창조했어. 크, 나 좀 대단한 듯.”

샤크트릴라는 허리까지 늘어뜨린 긴 붉은 포니테일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손가락으로 배배 꼬며 엄지를 척 들어 올렸다. 거기에 윙크는 덤이었다.

“그나저나 내 뛰어난 감으로는 곧 뭔가가 닥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무언가 닥치다뇨?”

이렇게나 안전하고 조용하지는 않지만 평화로운 이 방에 무슨 일이 생긴단 말인가.

“음.. 뭐랄까, 그냥 불안한 게 오고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

똑똑똑

그때, 조금 떨어져 있던 커다란 문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에 가장 가까이 있던 시녀 한 명이 나가 문을 열었다. 그러자 또 다른 시녀가 들어와 황녀에게 소식을 전했다.

“무슨 일이야?”

“황녀 전하, 즐거우신 다과 중에 송구합니다만, 황후 마마께서 지금 이곳으로 오고 계시는 중이시라고 합니다.”

“... 그래, 예를 들면 황후라던가..”

뒷 호칭을 깡그리 없애버린 샤크트릴라에게 철통의 여인 제니가 노려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샤크트릴라는 안색이 좋지 않아보였다. 정말 두려운 무언가가 찾아오기라도 한 것 처럼.

“르네, 진짜 미안한데 난 여기서 가봐야 할 것 같다. 황후... 님은 내 쪽에서 피하고 싶은 분이라.”

잇따른 제니의 시선 탓인지 샤크트릴라는 눈치를 보더니 호칭을 수정했다. 황녀는 골칫거리가 사라져서 후련하다는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인사를 고했다.

“잘 가요, 제발. 한 일주일만 보지 말죠.”

“너무하기도 해라. 그럼 르네, 황후님께 안부 전해주고 차 잘 마셨어.”

샤크트릴라는 방긋 웃으며 갑자기 내 손을 잡고 소파에서 끌어 내렸다. 어정쩡하게 서 있게 된 내가 고개를 돌려 황녀를 바라봤을 때, 샤크트릴라가 내 눈을 손으로 가렸다.

“공녀는 내가 데려간다. 나중에 봐, 르네!”

“샤트라!!”

약간의 빛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고 있는 샤크트릴라의 손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덕에 난 내 두 발이 허공에 들려가는 기분이 들기 직전에 화가 가득한 황녀의 외침만을 들었다.

“훠우우, 착지 완료!”

“여긴...?”

아주 잠깐 시야가 가려진 탓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마탑에 온 걸 환영해, 이쁜이.”

난 황궁에서 마탑까지 고속도로도 아닌 하이패스로 이동했다. 그것도 정문이 아닌 옥상으로. 고층의 특성상 서늘한 바람이 몸을 감싸며 드레스 자락을 휘날렸다. 하필이면 입고 있던 드레스는 팔 길이가 그다지 길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추위에 두 손을 교차하며 팔을 감쌌다.

“추워?”

“아, 네. 조금...”

“그래?”

샤크트릴라가 나를 향해 손짓 한 번 하자마자 내 주변에는 따스한 공기가 모여들었다. 마치 내 옆에 난로라도 하나 있는 듯한 따스함이었다. 마탑주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도 그녀는 시큰둥하게 별거 아니라는 표정이었다.

“그나저나 갑작스럽게 마탑이라니, 좀 놀랐네요.”

“이왕 마탑에 돌아가는 길에 영애도 같이 데려갈까 싶어서. 어차피 마탑에 들렀을 거면서. 겸사 겸사라고 생각해.”

텔레포트는 단 두 번 겪어보는 것이지만 텔레포트 할 때마다 느껴지는 이 어지러움은 익숙해질 수가 없었다.

‘그러고 보면 그 두 번의 텔레포트 모두 내 의사는 들어가지 않았구나.’

한 번은 납치, 지금 두 번째...도 납치인가?

“참, 황녀님께서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던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괜찮아~ 르네는 삐진 게 더 귀여워. 원래 귀여운 애들이 삐지면 더 귀여워지는 법이라.”

‘황녀님의 성격상 오래 갈 것 같긴 한데 말이지. 뭐... 괜찮겠지?’

나는 샤크트릴라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태연하게 하품을 하고 있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갈 때도 안전보장에 쾌속으로 돌려 보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맘껏 구경해봐.”

“정말 그래도 될까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곳도 있지 않나요? 구경 때문에 마법사분들이 방해라도 받으시면...”

혹시라도 잘못 들어갔다가 마법사들의 일을 망치게 될까 봐,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그러나 샤크트릴라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건물주인 내가 허락한 건데 지들이 뭐 어쩌겠어? 억울하면 짐 싸고 나가라고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영애 마음대로 구경해도 돼. 내 방 빼고 아무 데나 다 가도 괜찮아.”

샤크트릴라는 호탕하게 외쳤다. 하기야 그도 그럴 것이 마탑의 주인은 마탑주인 샤크트릴라였다. 주인이 허락한다고 하니 마음은 놓였지만 아직 한구석에서 불안과 의심은 가시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샤크트릴라가 이끄는 대로 춥고 으슬으슬한 마탑 꼭대기에서 내려가며 나는 무언가 허전함을 느꼈다. 그러고 보니 웨티스 경을 황궁에 대기시켜 놓고 왔다. 마차도 함께.

“참, 그런데 제 호위는 어떡하죠?”

“호위? 내가 옆에 있는데 뭘 걱정해.”

그녀의 대답에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뇨. 그게 아니라 제 호위기사 말이에요. 제가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걱정하고 있을 텐데...”

“괜한 걱정은 넣어둬. 그건 우리 르네가 알아서 전해 줄 거야. 아니, 이건 또 왜 안 열려.”

낡고 육중해 보이는 나무문이 한 번에 열리지 않자 샤크트릴라는 인상을 찌푸리더니 망토 자락을 휘날리며 발을 들어 올렸다.

쾅-!

그리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짝이 저 안쪽으로 떨어져 나갔다.

‘한눈에 보기에도 내 키보다 더 높아 보이는 저 문이...’

“후우~ 한동안 저 문 쓰지를 않았더니 고장나 버렸지 뭐야? 자, 자, 어서 들어가자고.”

그녀는 발로 찼지만 두 손을 탁탁 털며 싱긋 웃었다. 난 그녀가 조금 두려워지기 시작했지만, 그것보다는 그 두꺼운 문짝이 단 한 번의 발길질로 떨어져 나간 것에 대해 신기해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다. 그렇기에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낡은 나무문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문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으아아! 늘어지고 싶다...”

샤크트릴라를 따라 타원형의 돌계단을 내려가던 도중, 갑자기 그녀가 소리를 치는 바람에 나는 깜짝 놀라 움찔했다. 그녀는 늘어지고 싶다는 자신의 말에 충실히 이행하며 공중에 떠서 마치 침대에 엎드려 누워 있는 것과 같은 자세를 취했다.

‘저렇게 허공에서도 편하게 누울 수 있다는 점에서만 봐도 정말 좋은 능력이야.’

마법의 편리함을 다시금 깨달으며 나는 옆에서 들려오는 나른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영애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세리스틴이었나? 이름으로 불러도 되지?”

“네, 당연하죠.”

“아, 세리는 날 샤트라님이라고 불러도 좋아.”

“네, 샤트라님.”

바로 세리라는 애칭에 불리는 느낌이 무언가 조금 어색했지만 샤크트릴라가 워낙 자연스레 불러주었기 때문에 금방 넘어갈 수 있었다.

“세리, 걸어가기 귀찮으면 그냥 텔포 쓸까? 아니다, 그냥 쓰자!”

샤크트릴라가 내게 물어본 것이 무색하게도 그녀는 몇 분 전 나를 마탑에 초대로 위장한 납치수법과 같은 방법으로 내 손을 잡고 눈을 가렸다. 그리도 난 또 다시 찰나의 순간,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을 받았다.

이 모든 것은 1초도 되지 않는 아주 잠깐의 시간 동안에 이루어졌다.

“응? 탑주님, 벌써 오셨... 에에엑?! 탑주님 이건 뭐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라니...’

텔레포트가 시전 된 후 들려온 목소리는 잔망이 느껴지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 뒤로 눈을 가리던 샤크트릴라의 손이 치워지고 내 시야에는 원형의 나무 목재 탁자 주위로 둘러앉아 있는 5명의 남자들이 보였다.

제각각 머리색도, 눈동자의 색도 다르고 개성 있게 보였지만 그들이 걸친 검은 로브와 목에 건 펜던트는 모두 같았다.

“야 이, 미친놈아! 숙녀에게 이거가 뭐더냐, 이거가!”

나를 이거라고 칭한, 그리고 날 가리키며 부들부들 떠는 남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강렬하고 둔탁한 소리를 내며 후려친 남자가 외쳤다. 머리를 부여잡고 탁자에 엎드린 보랏빛 머리의 남자와는 달리 그는 짙은 금발의 소유자였다.

“너희 돌았습니까? 딱 봐도 귀족 아가씨로 보이는데, 이거라고 칭하는 놈이나 귀한 분 앞에서 저급한 말이나 지껄이는 놈이나 다 그거나 그거 아닙니까? 하여간 어리석ㄱ... 으브븝!”

작은 뿔테 안경을 쓴 푸른 머리의 키가 작아 보이는 남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을 쉬려던 찰나에 입을 봉인 당했다. 그가 노려보는 대상은 샤크트릴라처럼 긴 머리를 가지고 있지만 묶지 않고 푼 주홍빛 머리의 남자였다.

주황 머리 남자는 푸른 머리의 남자가 노려보는 것이 퍽이나 귀엽다는 듯 한 번 픽 웃어주었다.

“죄송합니다, 레이디. 초면에 뵙는 데 크나큰 실수를 범했군요. 애초에 저 자ㅅ.. 아니, 저들의 입을 일찌감치 다물게 해야 했는데 말이죠.”

“그래, 그나마 네가 제일 머리가 잘 돌아가는구나, 텐. 너까지 그랬다면 내가 그냥 다 엎어버릴 뻔했지 뭐야?”

섬뜩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샤크트릴라를 보자 그녀가 오기 전, 황녀가 내게 해준 경고가 떠올랐다.

‘역시 마탑주는 마탑주다, 이건가?’

저 네 명의 남자들을 제외하고 남은 한 명은 밝은 붉은 빛이 도는 갈색 머리의 베타였다.

“호오? 설마하니, 공녀님께서 탑주님과 함께 오실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네요. 마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데네아 공녀님.”

베타는 허리를 꾸벅 숙이며 내게 인사했고, 나 또한 고개를 까닥이는 것으로 답인사를 했다.

“뭐? 공녀? 헉! 서, 설마 내가 아는 그 공녀님이 맞는 건가..?”

“그래, 이 멍청이아. 그걸 이제 아니?”

보라 머리의 남자가 얼굴을 새하얗게 질리며 중얼거리자 금발보다는 짙은 노란색 머리에 더 가까운 남자가 그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치며 속삭였다. 그들에게는 속삭임이겠지만 안타깝게도 그 속삭임은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내게도 들려오는 속삭임이었다.

“나, 나 그럼 공녀님께 이거라고 한 거야? 무려 데네아 가 공녀님께?”

“흐응~ 공녀를 이거라고 칭해버리는 우리 귀여운 레븐이, 오랜만에 나랑 개인 면담하고 싶다고?”

샤크트릴라는 손목을 구부려 손가락을 입가에 가져다 대며 레븐이란 남자에게 웃어주었다. 황녀와 더불어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는 샤크트릴라의 매혹적인 웃음에도 불구하고 레븐의 하얗게 질린 얼굴은 더더욱 창백해져갔다.

“쯧...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공녀님. 마탑 제 4소속의 서티라고 합니다. 고귀한 귀족 나리들을 보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혀를 찬 푸른 머리의 서티는 냉철해 보이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뭐랄까... 냉미소년을 연상시키는 인상이라고 해야 하나? 그의 말투로 보아하니 서티는 귀족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세리스틴 데네아입니다.”

일단 마법사인 만큼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 인사했다. 그가 내게 적대감을 가지면 조금 곤란해져버리는 것도 있긴 하지만 괜히 마법사들과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건 나한테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마탑 제 1 소속의 텐입니다, 레이디.”

“마탑 제 2 소속 최고의 얼짱을 자랑하는 엘브라고 합니다! 공녀님 완전 이뻐요!”

격식을 차리는 실눈의 텐과 노란 머리의 활발한 엘브가 차례로 말했다.

“마탑 제 3 소속 테르브 입니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마탑 무소속 베타입니다, 공녀님. 저희는 구면이죠?”

덩치 큰 보라 머리의 남자의 이름은 테르브였다. 베타를 제외한 모두 각각 소속이 있었다.

“그렇네요. 다들 안녕하세요.”

“그런데 샤님, 공녀님은 어쩐 일로 데려오신 겁니까?”

서티가 샤크트릴라에게 물었다.

“얘?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마탑 구경 시켜주려고 데려왔는데 뭐, 왜.”

“... 아닙니다.”

“그래, 듣자 하니 너희들이 그렇게 마탑 잘 꾸민다며?”

“네?”

“예?”

“하하..”

“흠...”

다들 찔리는 것이 있는지 시선을 피했다. 텐만 홀로 양손으로 턱을 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부터 딱 3분 준다, 한 번 마음대로 꾸며봐. 아, 세리는 여기 내 옆에 앉아.”

샤크트릴라가 손뼉을 한 번 치자 탁자에는 하얀 천이 깔리고 붉은 장미꽃을 꽂은 화병과 함께 티포트와 찻잔이 달그락거리며 나타났다. 어느새 진한 빨간색 방석이 깔린 새하얀 의자도 준비되어 있었다.

“헐, 그래도 됩니까?”

“와, 진짜요? 평소엔 허락도 안 해주더니 웬일이래요? 아, 그런데 3분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테르브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엘브는 놀라 손을 입가로 가져다 대며 말했다.

그러고 보니 베타가 샤크트릴라는 마탑을 훼손시키는 일은 싫어한다고 전해줬었다. 그래서 몇 달에 한 번씩 샤크트릴라 몰래 꾸민다고 하기도 했고.

‘그건 진작에 샤크트릴라에게 들켰지만...’

“3분으로도 감사히 여겨라, 그냥 때려쳐?”

“아, 아니요!”

“참고로 심사는 세리가 한다. 어디 한 번 잘 꾸며봐. 3분 뒤에는 니들 다 강제 소환할거다.”

“네!”

“오랜만에 한 번 제 뛰어난 미적 감각을 풀어볼까요...”

“뭐, 영애들의 취향 정도야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신이 난 엘브와 테르브는 바로 방에서 뛰쳐나갔고, 서티와 텐, 베타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푸흐흡- 쟤들은 의외로 단순하단 말이야. 귀엽지 않아?”

샤크트릴라는 눈에 고인 작은 눈물을 손가락을 쓱 닦으며 웃었다. 그녀의 물음에 나는 아주 잠깐의 고민을 한 뒤에 대답할 수 있었다.

“음.. 그런 면도 보이시긴 하네요. 다들 개성 있어 보여요.”

“그치? 테르브나 엘브 같은 애들은 참 활기찬데 그와 반대로 서티는 그냥 틱틱대는 꼬맹이고, 텐과 베타는... 걔들은 자기만의 뭔가가 있는 애들이지. 하여간 특이해. 뭔 생각을 하는지 나도 모를 때가 있다니까?”

“참, 아까 다른 분들은 각자의 소속이 있었는데 베타는 어째서 무소속인 건가요?”

“그거 별거 아냐. 그냥 내 아래로 얘들이 하도 많길래 ‘소속’ 을 만들어서 등급 따라 나눈 거지. 제 1 소속부터 4 소속까지 있는데, 1 소속이 제일 마력이 강한 얘들이야. 한마디로 엘리트 집단이란 거지.”

“아하.. 아, 감사합니다.”

샤크트릴라가 직접 따라주는 차를 마시며 나는 뒤이어진 그녀의 말을 잠자코 들었다.

“베타는 그 소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아이야. 걔 형이랑 관련된 것도 있고 해서... 그냥 집단이나 무리 자체를 꺼려해. 그래서 내가 조금씩 챙겨주는 것도 있는데 정작 본인은 몰라.”

“베타에게 형도 있었나요?”

“응. 알파라고, 있었지.”

있었다, 는 과거형이었다. 그 말인즉슨...

“지금은 계시지 않나 보네요.”

“그래. 너도 짐작했겠지만 알파는 이미 죽었어. 몇 년 전에, 사고사로.”

“알파는 내가 아끼는 제자 중 한 명이었어. 마력이나 실력은 다른 녀석들보다 월등했는데 그 소심한 성격 탓에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았지.”

샤크트릴라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 또한 마음이 조금 심란한 것 같았다. 괜히 물어보았나 싶었지만 샤크트릴라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형제라 그런지, 알파와 같이 베타 또한 실력이 출중했어. 그래도 알파가 괜히 형 아니랄까 봐, 베타보다 조금 더 뛰어났지.”

“그런데 어째서 그런 사고사를..”

"왜 죽었냐고? 아까 말했듯이, 알파는 기가 약했어.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걔한테 뭔가를 시키면 걔는 대부분 군말 없이 따랐어."

“그런데 어느 날은 알파를 시기하던 무리가 혼자 있던 걔를 끌고 어디론가 데려갔는데...”

잠시 말을 멈춘 그녀는 시계를 힐끗 보더니 나를 향해 돌아보며 씩 웃었다.

“어쩌면 나머지는 베타에게 직접 듣는 게 좋을지도 몰라. 여튼 간에 3분 끝! 땡!”

샤크트릴라의 가늘고 흰 두 손가락이 딱 소리를 내며 맞부딪히는 순간, 몇 분 전에 보았던 5명의 남자들이 우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나타났다.

“아으.. 딱 주문만 외치면 됐는데! 탑주님, 솔직히 3분은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예른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헤집으며 아까운 듯 외쳤다. 그 옆에서 레븐이 예른의 말에 동조했다.

“옳소! 간만의 손님이라 힘 좀 써보려고 했더니만!”

“응, 닥쳐.”

“...너무해요..”

샤크트릴라의 단호한 말에 그 둘은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이 마치 풀이 죽은 강아지 같아 보여, 나도 모르게 큭큭 소리 내어 웃어버렸다.

손날로 살짝 입가를 가리고 웃었지만, 소리가 커서 들렸는지 레븐이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와... 공녀님은 공녀님이라 그런지 웃는 것도 예쁘시... 악! 왜 때려!”

레븐은 자신의 머리를 후려친 엘브를 향해 외쳤다. 눈에서 조그마한 눈물이 맺힌 레븐에게 엘브는 눈가를 찡그리며 대답했다.

“아니, 그냥 네가 공녀님을 좀... 많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길래.”

“익...! 그럼 그 혐오스러운 걸 보는 것 같은 눈빛은 뭐야!”

씩씩대는 레븐과 그에게서 시선을 피하는 엘브를 보며 서티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다들 준비는 끝냈겠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대충은요.”

베타가 대표로 나서서 대답했다. 그는 한눈에 보기에도 기분이 좋아 보였다.

“마탑 모두가 다 같이 도와줘서 망정이지, 저희끼리 했으면 최소한 10분은 더 걸린다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군요.”

서티는 팔짱을 끼고 투덜거렸고, 텐은 손가락으로 턱을 짚었다.

“그러면, 세리. 어디부터 가볼래?”

샤크트릴라가 허리에 두 손을 얹고 내게 물었다.

“네? 저는...”

어디부터 가야 할지 고민하던 차에 베타가 내게 해답을 주며 말했다.

“고민하지 마시고 입구부터 차근차근 보시겠어요?”

“아, 그게 좋겠네요.”

“좋아, 그럼 입구에서 보지.”

샤크트릴라는 다시 손으로 내 시야를 봉쇄하고 텔레포트를 시전 했다. 세 번씩이나 겪어 봐도 텔레포트 특유의 울렁거림의 좋지 않은 느낌은 여전했다.

“와아...”

처음 마탑에 방문했을 때 보았던 칙칙한 돌탑은 온데간데없고, 온갖 화려한 꽃들로 꾸며놓은 것 같은 탑이 보였다.

전체적으로 너무 화려한 분위기를 풍기는 탑 앞에서 나는 예의도 잊고 입을 벌리고 서 있었다. 게다가 탑의 외벽을 꽃과 넝쿨, 잎으로 도배를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커다란 리본을 곳곳에 매달아 놓았다.

“쯧... 이것들은 잘 꾸미라니까 뭘 덕지덕지 갖다 붙여,”

샤크트릴라는 마음에 차지 않는 듯 중얼거렸다.

입구였던 나무문은 보랏빛의 꽃들로 인해 뒤덮여 있었고, 문 양 옆으로 반짝이고 얇은 실루엣 커튼 비스무리 한 것을 길게 늘어뜨렸다. 심지어는 문 위에 분홍색의 커다란 리본을 매달아 놨다.

“하하하! 마음에 드십니까? 제 역작입니다, 역작!”

“...친.”

옆에서 샤크트릴라가 또 뭐라 중얼거리는 소리가 얼핏 들려왔지만 나는 애써 들으려 하지 않으며 자랑스럽게 말하는 레븐에게 웃어 보였다.

“그... 참 아름답네요.”

어색한 내 웃음에도 레븐은 그저 좋다며 하하하 웃어대었다.

“탑주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은 이 상식이란 건 찾아 볼 수 없는 녀석을 말려는 보았습니다만...”

텐이 신이 나서 문을 여는 레븐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샤크트릴라에게 말했다.

“그래, 그나마 네가 노력했다는 건 알겠다.”

샤크트릴라 그녀도 내심 포기한 것인지 머리를 짚으며 텐에게 대답했다.

“자, 자! 어서 들어가시죠!”

레븐의 안내에 따라 안으로 들어서자 밖과는 조금 다른 형식의 풍경이 펼쳐졌다. 그래보았자 안에 나무를 심은 것이 외부와 내부, 그 둘의 큰 차이점이라고 꼽을 수 있었다.

“...이것들이, 아주 그냥 마탑을 숲으로 만들어 놨구만?”

바로 옆에서 샤크트릴라가 이를 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큼... 저희가 오늘 약 10초가량의 시간을 소모하여 정한 마탑의 주제는 ‘꽃과 나무’ 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탑 안은 많이 푸릇푸릇하며 갖가지의 꽃들을 감상하실 수 있죠! 마치 요정의 정원에 온 듯한 느낌이실 겁니다!”

엘브가 자신있게 주먹을 쥐며 말했다.

“주제가 그게 뭐냐? ‘꽃과 나무’ ? 장난해? 어디 소풍 왔니?”

“샤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건 다 같이 정한 게 아니라 엘브 씨 혼자 정했다는 사실을 알아주세요.”

샤크트릴라는 오글거린다는 듯 인상을 찡그렸다. 서티는 그런 샤크트릴라에게 넌시시 전했다.

엘브가 말한 대로 안은 아주 푸릇푸릇한 나무들이 자라있었다. 돌 기둥이 사라지고, 젤란 백작가의 정원에서 봤던 그 아름다운 나무처럼 여러 가지의 은은한 색을 내뿜는 나무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정말 몽환적이네요. 이렇게 빛을 내는 건 마법으로 한 것인가요?”

“네, 약간의 이펙트를 조금 줘봤죠.”

엘브가 친절하게 설명해주며 나무를 쓰다듬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바람 한 점 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뭇잎이 가지에서 떨어져 나와, 천천히 내 주위를 방황하며 돌았다.

“신기하네요, 이런 것이 가능하다니.”

“마법이니까요. 물론, 만능은 아니지만요.”

엘브는 어느새 바닥에 떨어져 가는 나뭇잎을 바라보는 내게 말하며 윙크했다.

“저, 저, 저게..!”

저 뒤에서 레븐이 발끈하는 소리가 들렸다. 엘브가 뒤를 돌아 레븐을 보며 약 올리는 순간 그는 순식간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게 끌려가듯이 샤크트릴라 쪽으로 날아갔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날려갔다.

“내 이쁜이에게 수작 부리지 마라. 어디서 그런 불순한 눈을 가져다 대?”

“부, 불순하다뇨..”

엘브를 끌어당긴 장본인인 샤크트릴라에 의해 공중에서 버둥거리는 엘브가 식은 땀을 흘렸다.

“공녀님, 저건 무시하시고 따라오시죠. 여긴 시작에 불과합니다.”

서티가 안경을 치켜 쓰고 나를 불렀다. 일말의 기대감을 가진 나는 샤크트릴라에게 잡혀 버둥대며 끌려오는 엘브를 뒷전으로 하고 그를 따라갔다.

시작이란 말이 허황된 것이 아니란 것을 증명하듯, 나와 마탑 식구들은 탑을 몇 층이나 돌아다녔다. 마탑의 식당이나 연구실, 마도구 전시실 등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이 온통 화려한 꽃과 나무, 종래에는 꽃의 향기에 몰려든 벌떼와 나비들로 가득 찬 모습도 보았다.

내가 점점 지쳐 체력에 한계가 올락 말락 할 즈음, 샤크트릴라가 말했다.

“오늘 구경은 여기까지. 얘 힘들어. 더 이상은 안 돼, 안 돼. 무리야.”

“에엑? 아직 볼 게 남아있는데...”

레븐이 아쉬운 목소리로 말하자 샤크트릴라가 대답했다.

“볼 거 다 봤으면서 뭘 또 봐. 나중에 내가 또 데려오면 되지.”

“그럼 뭐.. 다행이죠.”

“그럼 난 시간도 늦어졌으니 데려다주고 온다. 참, 내가 올 때까지 이거 다 치워놔.”

“네..?”

“아니, 탑주님. 텔레포트 하는 데 몇 초 걸린다고.. 그 5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치우라고요..?”

레븐과 엘브가 순식간에 창백해진 얼굴로 샤크트릴라에게 물었지만 그녀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나와 함께 텔레포트로 그 장소를 벗어났다.

“여긴..?”

“여긴 못 봤지?”

공작저로 데려다 줄 것이라는 내 예상과는 다르게, 샤크트릴라는 내가 보지 못했던 장소로 이동했다. 뭔가가 들어있을 법한 닫혀있는 나무 상자들 사이로 샤크트릴라가 들어가더니 내게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봐. 내가 좀 줄 게 있어서 그래.”

뭔가를 찾으려는 건지 몇 번의 소리가 들린 뒤 상자 속에서 나온 샤크트릴라의 손에는 목걸이 하나가 들려 있었다. 목걸이는 단순하게 가운데에 작은 녹색 보석이 박혀 있는 디자인이었다.

“자, 이거 항상 걸고 있어.”

“이게 뭔가요, 샤트라님?”

직접 목걸이를 내 목에 걸어주는 샤크트릴라에게 물어보자 그녀는 별 거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다.

“아, 뭐 그렇게 대단한건 아니고, 그냥 독이 근처에 있으면 돌 색이 바뀌는 아티팩트랄까?”

“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마치 그리 중요하지 않는 물건을 건네주듯 내게 말했다.

“이런 걸 제가 받아도 될까요?”

“뭐, 어때. 있으면 안전하잖아.”

“그건 그렇지만요.”

“외상 정도는 호위기사가 잘 막아줄 테니 걱정할 필욘 없고, 난 내상 정도 예방할 수 있는 것밖에 못 주겠네. 제일 쓸 만한 게 이놈밖에 없어, 무슨.”

대단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독을 판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건 충분히 그 활용 가치가 높았다. 아마도 이걸 판다고 하면 몇천 골드는 훌쩍 넘겠지.

이걸 받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이 가지만, 물론 있으면 나야 좋지. 그래도 이걸 사용하는 날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 독이 내 가까이 있다는 건, 꺼림칙하니까.

샤크트릴라의 무한정 텔레포트 덕에 나는 눈 한 번 깜박이는 것으로 내 방에 도착했다.

“오오, 여기가 네 방이야? 진짜 넓네.”

“네, 데려다주셔서 감사해요.”

“별 거 아냐. 난 이제 르네 좀 달래러 황궁에 들렀다 갈 거야. 다음에 또 보자, 세리.”

“안녕히 가세요, 샤트라님.”

고개를 숙이고 나니 샤크트릴라는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익숙한 내 방을 둘러 보고 난 뒤, 나는 침대에 털썩 쓰러지듯 누웠다. 황녀를 만나느라 치장한 드레스 자락이 구겨지고, 틀어 올린 머리는 내가 핀을 하나씩 빼는 바람에 하얀 천 위에 달빛이 내려앉듯 펼쳐졌다.

‘정말 정신없는 하루였어.’

쌓인 피로가 탁 풀림과 동시에 눈이 스르르 감겼다.

머리로는 웨티스 경의 행방도 물어봐야 하고, 내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미르티에게 알려야 한다는 걸 외치고 있었지만 역시나 내 이성은 본능을 이기지 못했다.

‘일어나야.. 하는데...’

딱히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리도 졸음이 몰려오는지 모르겠다.

“삐르르-”

“아, 틴...”

틴 특유의 하이톤의 울음소리를 내는 틴은 어느샌가 날아와, 눈가에 얹어둔 내 손등 위에 올랐다. 그 울음소리에 잠이 깬 난 뒤척이며 반쯤 일어나 앉았다.

“그새 또 컸네.”

“티르르-”

“이상한 울음소리는 여전하고...”

“쀼우우-!”

고개를 치켜드는 틴은 이제 참새수준을 벗어나, 날씬한 비둘기만한 크기가 되어가려 하고 있었다.

“그러고 보면, 네 주인은 언제 올까?”

“삐이?”

갸웃거리는 틴을 쓰다듬으면서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듯 물었다. 어차피 틴은 알아들을 수 없을 테지만.

“그 남자는 대체 뭐기에 사람 하나 복잡하게 만들기나 하고..”

로빈에 관하여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오로지 틴뿐이라 나는 계속 고작 새일 뿐인 틴에게 중얼거렸다.

“... 모르겠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울퉁불퉁한 장식이 새겨져 있는 침대 벽에 머리를 기대어 생각에 잠겼다.

수상쩍은 점이 한 둘이 아닌 남자, 위험한 남자, 비밀을 감추려하기만 하는 남자.

‘제대로 얼굴 보여준 적도 없으면서.’

어쩐지 그가 괘씸해졌다. 허구한 날 능글맞기만 하고, 자기는 멋대로 남의 집에 찾아오기나 하질 않나, 멋대로 이마에 입맞춤을 해대질 않나.

‘대체 그 남자가 뭐라고.. 진짜..’

나는 조금씩 불쾌감이 상승하려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놀란 틴은 푸드덕거리며 날아갔다.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푸르지만 꼬리 끝부터 점점 녹색과 금빛이 섞여 들어가는 틴의 꼬리가 휘날렸다.

지금 당장이라도 침대에 엎어져서 자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틴 덕분인지 잠이 깨버리기도 했고, 아직 해가 저물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는 침대 옆에 있는 길고 두꺼운 금빛 줄을 잡아당겼다.

이제 곧 미르티가 올 것이다. 언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내내 물어볼 것이 보지 않아도 뻔했다. 안 그래도 피곤한 머리는 더욱 피곤해졌다.

나는 내 목에 걸린 초록빛 목걸이를 벗어들었다. 목걸이의 정 중앙 금빛 테두리 안에 박힌 보석에 내 얼굴이 비쳤다. 방문 지척에 발소리가 들려오자 나는 목걸이를 액세서리를 넣어두는 보석함에 잘 모셨다.

언제 쓸지는 모르겠지만 외출할 때에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겠다. 부디 이게 붉은색으로 변하는 날이 오질 않기를.

반강제로 마탑 구경을 한 지 며칠이 지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거의 일주일이 넘도록 지나버렸다. 여느 때처럼 방 안에 앉아 한가로이 독서에 열중하던 중,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나는 읽던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미르티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저.. 아가씨, 황궁에서 사람이 왔는데요...”

“황궁에서?”

“네. 마님께서 지금 1층에서 맞이하고 계시면서 아가씨를 부르셨어요.”

“그래, 알았어.”

책을 덮고 일어나서 간단한 치장을 했다. 미르티의 솜씨가 좋아서인지, 보통은 간단한 치장도 몇십 분은 족히 걸리지만 고작 10분 안에 머리를 다시 다듬고 실내용 드레스 위에 몇 가지의 작은 장식을 덧붙이는 것이 가능했다.

마지막은 옅은 오렌지색의 숄을 하나 걸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역시 아가씨는 뭘 걸치셔도 아름다우세요!”

“그러니?”

붉은 카펫이 깔린 긴 복도를 걸어가며 나는 고개를 돌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확실히 외모는 어느 정도 자신 있다. 한쪽으로 살짝 헐겁게 땋아 내린 은발과 같은 색의 속눈썹, 그 아래로 깜박이는 푸른 눈동자. 앵두 같다는 칭송을 자자하게 들은 도톰한 붉은 입술과 깔끔한 선을 자랑하는 콧날.

몇십 년간을 어깨를 조금 넘기는 검은 머리와 검은 눈으로 지내다 보니, 이제 와 보면 내 은발이 남들보단 특이한 머리색이란 걸 잘 알 수 있던 계기가 되었다.

1층으로 향하는 중앙 계단을 내려가, 두런두런 들리는 두어 명의 말소리를 따라 가보니 어머니와 처음 보는 중년의 여인이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

“세리 왔구나. 어서 와서 앉으렴.”

“네, 어머니.”

내 인기척을 느끼신 어머니가 몸을 돌려 나를 부르셨다. 어머니의 맞은편에 앉은 여인의 복장을 보면 그녀가 황궁에서 나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데네아 영애. 장미궁의 시녀장, 케이샤입니다.”

“어서 오세요, 케이샤.”

“그럼 세리, 케이샤와 얘기 좀 나누고 있으렴. 황후궁에서 네게 용건이 있나 보구나.”

“제게요?”

어머니는 웃으시며 내 어깨를 토닥이곤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어머, 잘 알고 계시네요, 공작부인.”

“케이샤가 나올 정도면 중요한 거겠지. 오랜만에 보니 반가웠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이 아는 사인가?’

어머니가 자리를 피해주시고, 케이샤는 시선을 내게로 향하더니 말을 꺼냈다.

“방금 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황후 마마께서 영애께 드리는 말씀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폐하께서요?”

‘메리 황후가 내게는 어쩐 일이지...‘

“예. 영애께서도 괜찮으시다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뵙고 싶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영애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말씀과 함께요.”

“당연히 가야죠. 언제쯤 황궁으로 가면 되나요?”

“마마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른 시일 안’ 일 겁니다. 다시 연락드리죠. 참, 황태자 전하께서도 자리에 동참하신다 하시니 참고하시길.”

황태자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얼굴을 굳힐 뻔했지만 애써 포커페이스를 유지한 채 미소로 케이샤에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시녀들이 힘을 많이 써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이만 황후 마마의 전갈을 전하였으니 돌아가 보겠습니다.”

“벌써 가시나요?”

예의상 물어본 말에 케이샤는 후훗 하고 웃으며 말했다.

“시녀장이 오래 자리를 비우면 곤란하니까요.”

소파에서 일어나는 케이샤를 배웅하러 일어날 무렵, 케이샤가 나를 보며 말했다.

“그나저나, 정말 많이 자라셨네요. 어여쁜 아기씨로 뵐 때가 엊그제 같은 데 말이죠.”

“...네?”

케이샤가 한껏 그리움이 담긴 목소리로 말한 그 말에 나는 무어라 대답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내가 어린 아기였던 시절에 케이샤가 나를 보았다고?

“모르셨겠지만, 영애의 모친이신 공작부인과 저는 오랜 친구 사이였어요. 영애께서 처음으로 세상의 빛을 보실 때도 제가 옆에 있었죠.”

“아...”

잔잔한 미소를 짓는 케이샤의 입가에는 세월의 흐름을 피할 수 없는 것을 증명하듯 잔주름 몇 개가 보였다.

“몇 년 만에 친우를 봐서 그런지 기분이 좋네요. 그럼 영애, 후에 또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시길.”

나와 함께 밖으로 나간 케이샤는 시녀들 몇 명의 도움을 받아 마차에 올랐다. 케이샤가 탄 마차가 떠나고 나는 생소한 기분에 휩싸이며 저택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케이샤는 벌써 갔니?”

“네, 어머니. 방금 배웅해드리고 오는 길이에요.”

“오랜만에 만나서 차나 좀 마시라고 하려 했더니만...”

어머니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시며 작은 한숨을 쉬셨다.

“어머니, 그분과는 언제 만나신 거예요?

“케이샤? 아마도.. 내가 딱 네 나이였을 때였었지, 아마?”

“케이샤.. 님과 사이가 오래되셨네요.”

“케이샤님 이라니, 낯간지럽게. 그냥 케이샤라고 해. 케이샤도 그게 더 편할 거야.”

“네, 먼저 방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그러렴, 아가.”

아가라는 호칭에 얼굴을 붉히며 나는 어머니께 인사하고 계단을 올랐다. 방으로 돌아가는 복도를 걸으면서 나는 케이샤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그건 그렇고, 황태자라니..’

메리 황후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조금 긴장되었지만, 황태자와 함께하는 만남은 달갑지 않았다.

“만나면 나만 피곤해지지...”

“아가씨, 피곤하세요?”

입 밖으로 튀어 나온 속마음에 나를 뒤따라오던 미르티가 걱정하며 물었다.

“응? 아니야, 아니야. 그냥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무엇이 우리 아가씨를 골치 아프게 만든 거예요!”

“별거 아냐.”

나는 주먹을 꽉 쥐는 미르티에게 손을 저으며 안심시켰다. 그래, 별일만 없었으면 다 좋겠다.

황후가 머물고 있는 장미궁은 황녀의 백합궁 보다 더 떨어져 있었다. 그렇기에 마차를 타고 가도 정말 오래 걸렸다. 잠깐 눈을 붙였다 일어나 봤어도 아직 도착하지 않을 만큼.

백합궁과 마찬가지로 장미궁의 입구에 도착하니 시녀들이 줄을 맞춰 대기하고 있었다.

“장미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데네아 영애.”

다른 시녀들과는 다르게 복장이 화려한 시녀 한 명이 내게로 다가왔다. 단정하게 머리를 옆으로 땋아 내린 분홍색 머리의 시녀였다.

“황후 마마의 직속 시녀를 맡고 있는 넬리 라 합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

넬리가 앞장서서 안내하는 방향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내 뒤로는 다른 시녀들이 고개를 숙이고 나와 약간의 차이를 두어 따라 왔다. 웨티스 경은 마차에 대기 시켜놓았고, 미르티는 처음 보는 장미궁의 풍경에 이리저리 둘러보며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마마, 데네아 영애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넬리를 따라 간 곳에는 나무 그늘 아래에 화려한 문양의 천이 깔린 테이블와, 의자 여럿이 놓여져 있었다. 그리고 그 의자에는, 황녀와 꼭 닮은 여인이 앉아 있었다. 여인의 아들도 함께.

“제국의 고결하신 메리 샤 지크레핀 메르첸 황후 폐하와 고귀하신 레르칸트 샤 지크레핀 황태자 전하를 뵙습니다. 데네아 공작가의 세리스틴 데네아입니다.”

“어서 오게, 공녀.”

세월의 흐름 때문인지 조금 푸석한 금발을 높게 틀어 올리고 장신구를 꽂은 황후는 인자하게 웃으며 은 찻잔을 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에서는 어디 가지 않는 위엄이 엿보였다.

황후의 옆에는... 부딪히지 않는 것이 상책인 검은 머리 커플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황태자라면 그렇다 쳐도 아르체아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가.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어쩐지 오늘 이 자리가 피곤해질 것만 같았다.

나는 저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드레스 자락을 꼭 움켜쥐며 옅게 그늘진 나무 아래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데네아 영애.”

자리에 앉으려던 순간 아르체아가 인사해왔다. 애매한 타이밍에 인사해온 탓에 나는 앉으면서 고개를 까닥였다.

“반가워요, 멜튀스 영애.”

기다란 직사각형 모양의 테이블의 상석에는 황후가 앉아 있고, 그녀를 기준으로 왼편에는 아르체아와 황태자가 나란히 앉고 오른편엔 나 홀로 앉아 있었다.

시녀들이 찻잔에 붉은 홍차를 따라주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황후가 먼저 말을 꺼냈다.

“이렇게도 날씨가 좋은 날에 모여 앉아 즐기는 다과라니,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나?”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폐하. 바람이 선선하고, 하늘도 맑으니 다과를 즐기기에 최상의 날씨입니다.”

메리 황후가 툭 던지듯 뱉은 질문에 아르체아가 덥썩 물며 황후에게 말했다. 아르체아의 표정은 누가 보아도 십 대 소녀의 발그레한 표정이었고, 내가 본 그녀의 본성답지 않게 순진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메리 황후는 아르체아의 대답에 무언가 부족함을 느낀 듯 잠시 고민하더니 내게 물었다.

“공녀는 어찌 생각하나?”

“황후 폐하께서 택하신 날이니, 좋지 않는 날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담담한 내 대답에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황후는 만족한 기색을 보였다. 그런 메리 황후를 아르체아가 복잡한 심경이 담겨있는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황태자는 아르체아를 연신 힐끗 대었다. 아무래도 황태자는 제대로 아르체아에게 빠진 것 같았다.

그렇지 않고서는 냉혈한인 저 황태자가 누군가를 신경 쓸 리가 없었으니까.

“태자는 그 영애가 마음에 드나 보구나.”

“...어마마마.”

나직이 황후를 부르는 황태자의 목소리는 미세하게나마 떨려 있었다. 살다 살다 그가 떨려하는 모습을 보게 되다니, 처음 보는 그 모습에 생소한 기분을 느꼈지만 그런 그가 떨리는 것은 내게도 불안감을 조성해왔다.

이윽고 탁 소리를 내며 찻잔을 내려놓은 황후는 미소를 머금고 내게 말했다.

“오늘 공녀를 이 자리에 부른 것은, 공녀와 태자의 약혼에 대해 논할 게 있어서 그리하였네.”

“...예?”

황후에 대한 예가 아님을 알면서도 나는 멍하게 되물었다. 그만큼 매우 당황스러웠다. 갑작스럽게 약혼이라니. 그것도, 나와 황태자가?

“어마마마, 아직은 너무 이른 것이 아닙니까?”

“...”

황태자는 미간을 살짝 찡그렸다. 그의 옆에서 아르체아는 조금 전의 생기가 돋은 표정과 달리 창백해 보였다. 세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것을 본 메리 황후는 황태자의 질문에 명쾌히 대답했다.

“너무 이르다니, 슬슬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되지 않니, 태자? 공녀도 앞으로 1년 아니, 몇 개월만 더 지나간다면 성년식을 치를 테고, 더 늦기 전에 약혼하는 것이 낫다. 어물쩍 거리다가 놓치기 전에.”

“하지만, 어마마마. 그 전에 당사자의 의견이 더욱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황태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약혼의 성사를 막을 것처럼 보였다. 이때만큼은 나 또한 황태자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당사자들이 서로 약혼을 거부하는데 아무리 황후라 해도 몰아붙이기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그럼 공녀, 공녀는 태자와의 약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황후는 다시 내게 물어왔다. 그녀는 나와 황태자의 약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에, 그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게 답하면서도 내가 약혼을 꺼린다는 사실을 넌시시 알려야 했다.

그래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기도 했다. 나는 최대한 조심하면서 대답했다.

“황후 폐하, 송구하지만 저는 황태자 전하와의 약혼이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호오?”

황후의 눈썹이 조금 치켜 뜨여진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내가 미리 생각해둔 다음 말을 꺼내었다.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소한 제 성년식 전까지 만이라도 미뤄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꽉 쥐며 말을 맺었다. 아예 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어서 그런지, 황후의 표정은 인자한 모습 그대로였다.

“흐음...”

황후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일정한 박자에 맞춰 두들겼다. 아무도 함부로 말을 꺼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긴장을 풀기 위해 시녀가 새로 따라준 홍차를 조금 입에 머금었다.

“후우... 정말이지, 페르세지아가 말한 그대로구나.”

황후가 갑자기 깊은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풍성한 털이 끝자락을 장식하고 있는 부채를 꺼내 펼쳐들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약혼식을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당사자들이 미뤄달라는 데 내 어찌할 방도가 있을까. 공녀의 의견대로 공녀의 성년식 전까지 기다려주겠네”

생각한 것보다 순순한 반응이었다. 나와 저 두 사람에겐 천만 다행이었지만 황후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녀는 한껏 아쉽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페르세지아 황녀도 나와 자신의 오라버니를 이어주고 싶어 하더니, 황후마저 황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를 비롯해 황태자나 아르체아, 모두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다.

오늘은 어찌어찌해서 넘어갈 수 있었지만 후에 내 성년식이 지나고 나서는 집요하게 파고 들 것이다. 나와 그가 약혼을 치루지 않기 위해서는, 성년식이 지나기 전까지 아르체아와 황태자의 사이가 더욱 가까워져야 한다.

그러면 그 둘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완전히 황태자에게서 벗어나게 되는 거고.

피차일반으로 서로 해를 끼치지 않으며 자신들만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 얼마나 훌륭한 해피 엔딩이란 말인가.

“단, 기다려주는 것은 공녀의 성년식전까지라는 점을 잊지 말도록. 그 전까지는... 저 멜튀스 영애와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을 게야.”

황후는 들고 있던 부채끝으로 아르체아를 가리켰다.

아니나 다를까, 아르체아의 표정에 또 다시 변화가 생겼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새하얘지다가 황후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황후에게 적대감이 담긴 시선을 보냈다.

물론 가까이에 맞은편에 있던 나만이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황태자는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고, 주위의 시녀들은 모두 살짝 허리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황태자가 아르체아의 저 표정을 보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와 아르체아의 사이가 나빠진다면 내가 그와 약혼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보지 못한 것이 좋겠지만 그저 작은 호기심이 들었다.

내 시선을 느낀 아르체아가 고개를 돌리자 나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렸다. 괜히 마음 한 구석이 찔려오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황후의 장미궁과 황녀의 백합궁의 디저트를 비교해보며 아기자기한 쿠키를 집었다.

“요새 공녀가 페르세지아의 말동무를 해주고 있다지?”

메리 황후는 황녀를 주제로 꺼내들며 말했다. 나는 마시던 찻잔을 내려놓았다.

“예, 그러합니다, 폐하.”

“황녀가 꽤 공녀를 마음에 들어 하던데, 참 잘 된 일이야.”

메리 황후의 찻잔에 차가 다 떨어진 것을 눈치 챈 케이샤가 황후의 잔에 홍차를 따라주었다. 붉은 홍차에 각설탕이 퐁당 소리를 내며 떨어진 후에 황후는 다시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아르체아 쪽에는 시선을 주지 않았다. 마치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아르체아 본인은 입술을 깨물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녀 딴에는 분하겠지만 황후가 나와 대화를 하는 데 그 도중에 끼어들 용기가 나질 않아보였다.

“공녀가 걸고 있는 그 목걸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인상적인 디자인이군. 단순해보이면서도 세심한 게 마음에 들어.”

“감사합니다, 폐하.”

나는 목걸이 중앙에 박힌 금빛이 도는 초록색의 보석에 손을 가져다 댔다.

“공녀와 묘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렇지 않나, 태자?”

“... 아름답습니다.”

어쩐지 그 뒷말이 생략된 것 같은 그의 애매한 말은 황후에게 오해의 여지를 가져다주기에 충분했다.

“태자가 생각하기에도 공녀가 참으로 아름다운 것 같지?”

“.....예.”

황태자는 조금 떨떠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황후는 다시 목걸이에 대해 내게 물었다.

“그 목걸이는 선물 받은 것인가?”

“예. 한 때 마탑에 방문할 적, 마탑주께서 선물삼아 주신 목걸이입니다.”

“오오, 마탑주가?”

“그렇습니다, 폐하. 정확히는 독을 판별해주는 아티팩트이지만요.”

난 엄지손가락으로 보석을 한 번 쓸어보고 목걸이에서 손을 놓았다.

“독을 판별하는 아티팩트라니, 정말 신기하군. 어떻게 판별한다는 것인가?”

내 말에 황후는 관심을 더욱 가졌고, 황태자 또한 흥미가 당긴 모양새였다. 다만 아르체아만이 계속 입술을 깨물며 초조해하고 있었다. 어째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대화에 집중했다.

“이 목걸이의 보석은 독이 가까이 있을 때에 붉은 빛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녹색이지요.”

“웬일로 그 마탑주가 대단한 물건을 공녀에게 주었구나. 내, 한 번 시험해 봐도 괜찮겠나?”

“물론입니다, 폐하.”

나는 목걸이를 벗어서 황후에게 건네었다.

“만일 이 차 안에 독이 들어있다면 보석이 붉게 변하는 것인가?”

“마마, 그런 말씀-”

목걸이의 보석을 이리저리 돌려보던 황후는 장난스레 웃으며 자신의 찻잔에 목걸이를 가까이 가져다대었다. 황후에겐 내심 장난이었겠지만 이어진 보석의 변화에 자리에 모여 있던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다. 말이 없던 아르체아는 심지어 미약하게 떨었다.

“이, 이게 무슨...!”

“마마!”

“어마마마!”

찻잔이 날아가며 흰 천이 붉은 홍차로 물들었다. 황후의 찻잔은 그 안의 내용물을 뱉은 채 싱그러운 잔디밭 위에 굴러 떨어졌다. 찻잔 옆으로, 테이블의 천 같이 붉게 물들은 내 목걸이가 떨어졌다.

황태자는 벌떡 일어섰고, 시녀들은 갑자기 찾아온 혼란에 공황상태였지만 황후를 부축했다. 조용하던 작은 다과회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된 틈에 나는 잔디밭에 떨어진 목걸이를 집어 들었다. 샤트라가 말한 대로 초록빛의 보석은 새빨갛게 물들어, 복잡하게 얽힌 심경이 가득한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이게 오늘 그 쓰임새를 보여줄지는 상상도 못 했지만 독이라니..’

어쩌면 황후는 이미 차를 마신 순간부터 중독된 것인지도 모른다. 아직까진 별다른 이상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즉사시키는 위험한 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독은 독이다.

무려 제국의 첫째인 여인의 목숨이 달려있던 일이다. 만약 이 독이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독이었더라면...

‘그냥 한바탕 엎어졌겠지.’

“마마! 이쪽으로-!”

“이를 어찌하면... 흐흑...”

소란스러운 정원을 무장한 기사들이 우르르 몰려와 둘러쌓다. 메리 황후는 창백한 얼굴로 입을 틀어막으며 비틀거렸다. 그녀는 기사단의 호위와 시녀들의 부축을 받아 자신의 궁으로 돌아갔다.

“세상에...”

나는 황후가 떠난 곳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맞은편에 있던 황태자는 이미 황급히 황후를 따라간 후였다. 고개를 돌려보니 아르체아가 바들바들 떨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모여 있던 사람들 중 대거가 빠져나가자 정원은 조금 전과는 달리 휑했다.

황후와 함께 자리를 떠난 케이샤가 저만치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남아있던 기사들에게 무언가를 전해주더니, 다시 빠른 걸음으로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영애 분들의 시간을 빼앗아 죄송하지만, 잠시 저희를 따라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사들 중 한 명이 나와 아르체아에게 말했다. 몇 남은 시녀들은 우리를 안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나는 어지럽혀진 테이블을 눈에 담은 뒤, 젊은 기사와 시녀를 따라갔다. 뒤에서는 아르체아가 주먹을 꽉 쥐고 따라오고 있었다. 미르티는 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기색이 보였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그러니 미르티와 나는 중간에 헤어져 다른 길로 가는 바람에 미르티는 내게 말도 걸지 못하고 시녀들을 따라 어디론가 향했다. 그녀는 많이 걱정되는지 가는 내내 뒤를 돌아 나를 보았다.

나와 아르체아의 주위를 둘러싸고 걷던 여섯 명 정도 되어 보이는 기사들이 장미궁 안의 복도를 이리저리 돌고 돌았다. 그들은 우리를 연분홍의 장미꽃이 새겨져 있는 방문 앞까지 데려갔다.

“황후 폐하의 진찰이 끝날 때까지만 이곳에 계셔주십시오.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불러주십시오. 문 앞에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내가 먼저 방 안으로 들어가고, 아르체아가 뒤따라 들어오는 순간 쿵 소리와 함께 응접실 용도로 쓰일 법한 방의 문이 닫혔다.

방 안을 둘러보자 금박이를 입힌 벽난로 하나, 화병이라도 모아두어 보이는 서랍장, 작은 테이블 한두 개와 기다란 연분홍색의 소파가 보였다.

벽 한 면을 통째로 차지하고 있는 금빛 테두리의 창문들은 모두 닫혀있었다.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이 커다란 창문을 굳이 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그대로 두었다.

잠깐이라지만 어딘가에 갇혀있다는 느낌은 꺼림칙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이라 하지만, 아무리 귀족 영애라 해도 황후가 독을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지금은 나와 아르체아만이 이 넓은 방에서 황후의 안전이 확실시될 때까지 대기해야 했다.

“뭘 그리 떨어?”

심각할 정도로 미세하지만 아까 눈여겨 보았을 때부터 떨고 있는 아르체아에게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양팔로 감싸며 무어라 중얼거렸다

“...니야..”

“뭐?”

“네가 신경 쓸 바 아니라고...”

고개를 치켜드는 아르체아의 눈은 초조함과 약간의 공포심이 담겨있었다. 바로 옆에 독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런 것일까? 하지만 그렇다고 보기엔 그녀는 진심으로 두려운 듯 방안을 왔다 갔다 하며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그녀는 연신 누군가가 들어올 것처럼 방문을 힐끗대었고, 입술에 옅은 핏방울이 맺힌 후에야 깨물기를 멈췄다.

“그만 앉아. 뭘 그리 왔다 갔다 거려?”

자꾸만 초조해하며 의미 불명의 행동을 반복하는 아르체아는 내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았다.

“후우...”

나는 정신 사나운 아르체아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푹신해 보이는 소파에 앉았다. 드레스가 구겨질까 봐 옷자락을 단정하게 정리했다. 안 그래도 비싼 옷인데, 괜히 모양새를 망가뜨려 놓으면 미르티가 싫어할 것이다. 지금 미르티가 보이지 않아도 기겁하는 모습이 눈에 훤히 보였다.

최대한 구겨지지 않게 조심하며 소파에 기대었다. 눈을 감았다가 떠보니 가슴팍에 놓여 있는 목걸이의 보석이 눈에 들어왔다.

‘만약 내가 오늘 이걸 걸고 오지 않았더라면? 아니, 애초에 샤트라가 내게 이것을 주지 않았더라면?’

황후는 영문도 모른 채 어떤 독인지도 모를 독을 먹고 피해를 보았겠지, 아마. 황후에게 그렇게 악감정도 좋은 감정도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옆에서 사람이 다치는 건 싫었다.

나는 어느새인가 다시 초록빛으로 변한 보석을 툭툭 손가락으로 건들었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황궁 안에서, 그것도 황후에게 많은 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독을 먹이다니. 대담하기도 하다.

‘독은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지?’

찻잔인가? 아니면 차 속에? 하지만 그 둘 다 불가능했다. 찻잔은 황족 전용의 찻잔이기에 은으로 되어 있었고, 차 속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은찻잔이기에 바로 반응이 올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그때 내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다. 나는 깨달음에 소파에서 상체를 벌떡 일으켰다. 아르체아가 고개를 돌려 갑자기 일어난 내게 시선을 주는 것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목걸이가 독에 반응하여 붉은빛으로 변하기 전, 메리 황후의 찻잔에 퐁당하며 떨어진 하얀색의 물체.

‘설마, 각설탕에?’

각설탕에 넣었을 가능성이 그 어떤 가설보다 매우 높다. 황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설탕을 넣지 않았고, 게다가 각설탕이라면 설탕 가루 때문에 바로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그러나 각설탕에 넣었다는 것도 그저 추측에 불과하고, 전혀 다른 의외의 것에 독을 첨가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황궁에 있는 감식반이 독을 찾아낼 수도 있으니 지금은 역시 기다리는 것이 답이다. 아직 남아있는 찝찝한 기분을 떨쳐내고 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평범한 갈색 머리의 여성이 들어오자 아르체아는 흠칫하며 몸을 움찔거렸다. 어딘가 퍽이나 긴장한 모습이었다.

“영애들께 인사드립니다. 황궁의 렌타라고 합니다. 황후 마마께서 두 영애 분들을 염려하시어 저를 보내셨습니다.”

렌타는 황후 또래로 보이는 지긋한 나이의 여인이었다. 그녀는 한 손엔 몇 장의 서류를, 다른 한 손엔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다.

“반가워요, 렌타. 폐하께선 어떠신가요?”

“여신께서 도우신 것인지, 다행히 황후 마마께서는 무사하십니다. 두 분 모두 잠시 앉아 주시겠어요?”

렌타는 그 이후로 황족의 안전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는 연분홍의 소파에 앉은 우리의 맞은편에 자리 잡고, 질문 몇 가지를 건넸다.

“혹시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몸에 이상이 있는 증세가 나타나신 분이 계신가요?”

“전 딱히 이상이 있지는 않아요.”

“저, 저도요..”

아르체아는 앉은 채로도 불안한 모양인지 손을 꼼지락거렸다. 그 모습을 본 렌타가 아르체아에게 물었다.

“영애, 어디 불편하신 점이라도 있으신가요? 만일 그러시다면 제게 말씀해주세요.”

“없어요.. 그저 그... 독! 황후 폐하께서 독을 드셨다고 하셔서 염려되는 것뿐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영애 분들께서 황후 마마의 찻잔에서 검출된 독을 이미 섭취하셨다면 위험한 일이거든요.”

렌타는 우리의 이마나 손목 맥을 짚어보았다. 가방 안에서 진찰 도구를 꺼내어 몇 가지를 더 진찰하던 그녀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 후로 렌타는 가지고 온 서류에 뭔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희한하네요. 물론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황후 마마와 영애 모두 독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예? 그럼 황후 폐하의 찻잔에 독이 들어가 있던 것은 제 목걸이가 반응하기 전이란 건가요?”

“음... 거기까진 저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항이라서요. 답변을 해드릴 수 없군요.”

진찰을 끝낸 렌타는 금세 가방과 서류를 정리하고 방에서 나갈 채비를 했다.

“참, 영애. 내내 불안한 듯이 보이는데, 이 약이라도 드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진정제에요. 안심하고 드세요.”

렌타는 나가기 전 가방에서 약병 하나를 꺼내더니 그곳에 담겨 있던 작은 환 하나를 아르체아에게 넘겨주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문이 다시 닫히고, 나는 자그마한 한숨을 쉬었다. 황후가 독을 먹지 않았다니, 그건 보석의 색이 변하기 직전에 독이 찻잔 속에 들어있었다는 소리다. 천만 다행히도 목걸이가 제 본분을 해줬기에 황후가 독을 마시기 전에 위험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더 확실해진다. 독이 각설탕에 포함되어 있었든, 뿌려져있었든 간에 각설탕을 차에 넣을 때 독이 함께 들어갔다. 추측할 수 있는 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정보로서는 여기까지다.

‘더 자세한 건 나중에 황녀에게 물어보면 되겠고...’

범인은 누구일까?

그러나 뭐든 간에 제일 의심 가는 사람은 내 옆의 아르체아다. 아까부터 초조해하고 있는 모습은 황후의 건강을 염려한다기보다는 무얼 숨기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럼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아르체아가 범인일 가능성도 있지만 시녀들을 배제하면 안 된다. 그들 중에 누군가는 암살자일 수도, 원한이 있는 자일수도 있으니까. 워낙 황궁에는 수많은 시녀들과 시종들이 있는 탓에 만약 범인이 시녀로 위장하고 들어왔다면 범인을 색출해내기가 까다로워질 것이다.

한창 범인을 추리해보고 있던 와중에 재빠른 걸음걸이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노크 소리도 없이 벌컥 열렸다.

“아르체아!”

“레, 레칸, 전하...”

황태자를 보니 아르체아 그녀도 안심은 되는 모양이다. 벌떡 일어나 황태자의 품 안에 안기는 순간 아르체아의 다리에 힘이 풀려버려, 황태자가 아르체아를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했다.

“제국의 고귀하신 레르칸트 샤 지크레핀 황태자 전하를 뵙습니다.”

“아르체아, 괜찮은 건가?”

그는 누가 봐도 고의적으로 내 인사를 무시한 채 자신의 연인에게 걱정의 말을 건넸다. 열은 올랐지만 그는 황족이란 것을 몇 번이나 나 자신에게 되뇌며 참았다.

“저, 저는 괜찮... 흐윽..”

결국 아르체아는 안도와 두려움이 겹쳤는지 작은 눈물을 떨어뜨렸다.

“괜찮아, 내가 있어.”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듯이 아르체아를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눈꼴이 시었다. 난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이런, 다들 여기 계셨군요.”

어느샌가 눈보다 더 희어 보이는 백발의 사제가 열려 있던 방문 앞에 다가와 말을 걸고 있었다. 그는 시선을 돌리지도 않고 손가락으로 방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사제가 걸을 때마다 그의 긴 옷자락이 바닥을 쓸었다.

“안녕하십니까, 황태자 전하와 아름다우신 영애들.”

사제가 고개를 숙이자 그의 새하얀 머리카락이 커튼처럼 내렸다. 마치 매직이라도 한 것같이 단정하고 아무런 잔머리도 없었다. 사제는 두 손을 모으며 인사했다.

“여신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비아나 여신의 대리자, 니크론포 비아네트 사제입니다.”

니크론포는 사제답게 인상이 온화해 보였다. 긴 머리카락 때문인지, 얼굴선이 매끄러운 것 때문인지 그는 중성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다.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오해했을지도 모른다.

“황태자 전하께서는 어디론가 급히 뛰쳐나가시더니, 저를 미리 마중하러 와 주신 건가요?”

“쓸데없는 소리는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군, 니크론포 사제.”

황태자는 니크론포를 싸늘하게 쳐다보았다. 농담이었는지 니크론포는 옷자락으로 입을 가리며 작게 웃었다. 나는 드레스 자락을 살짝 잡고선 허리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제님. 세리스틴 데네아입니다.”

“아르체아 멜튀스입니다...”

뒤이어 황태자의 품 안에 안긴 채로 인사하는 아르체아를 묘한 시선으로 바라본 니크론포는 자신이 찾아온 용건을 꺼냈다.

“여기 계신 영애 분들이 감히 황궁에 침투한 독을 드실 뻔했다는 소식을 듣고 신전에서 급하게 출발했지 뭡니까. 천만 다행스럽게도 중독되신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는군요.”

“됐고, 어서 정화나 시켜주지.”

“이런, 이런. 어릴 적 저를 오매불망 따라오시던 전하는 어디 가고 웬 성질 급한 분이 계십니까.”

니크론포는 한 손으로 뺨을 감싸며 안타깝다는 듯 말했다. 그의 입가에는 서운한 미소가 걸려있었지만 황태자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다.

“아까도 말했듯이, 쓸데없는 소리는-”

“하하, 농담입니다. 뭐, 달라지셔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요.”

해맑은 웃음과 함께 니크론포는 몸을 돌려 나와 아르체아에게 말했다.

“그럼 영애 분들. 축복을 내려드리겠습니다. 황궁의는 독이 검출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는 것이니까요. 몸속의 해로운 물질은 모두 제거될 것입니다.”

평생에 한두 번 받아 볼까 말까 하는 사제의 축복이라니. 이런 행운에 감사하며 나는 사제의 손짓에 따라 그대로 고개를 숙였다. 내 옆에선 아르체아가 떨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어쩐지 아까의 창백함이 더해진 것만 같았다.

“비아나 여신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니...”

이 말을 시작으로 니크론포는 뭐라 뭐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그의 두 손 사이에서 새하얀 빛이 새어 나왔다. 말로만 듣던 신력이 이 방 안을 가득 채울 만큼 환하게 빛날 무렵, 니크론포가 신력을 거뒀다,

“자, 이제 됐습니다. 아무리 중독이 되었다 해도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신력 덕분인지 머리가 아까보단 맑아진 기분이 들었다. 확실히 신력이 몸에 좋긴 좋구나.

“얼떨결에 황태자 전하께서도 함께 정화되셨네요.”

“.....”

아무 대답 없는 황태자를 슬쩍 바라보았다. 그는 무언가 잊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때, 아르체아가 황태자에게 마치 뛰어들 듯 그에게 가까이 갔다.

“레칸, 괜찮아요?”

어딘가 아픈 건지 황태자는 머리를 짚었다. 무슨 일인 보기 위해 몸을 돌렸지만, 아르체아가 황태자를 거의 가리고 있던 탓에 그가 잘 보이지 않았다. 아르체아가 힐끔거리며 내 쪽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아하니 고의적으로 황태자를 가리는 것 같았다.

‘자기들 알아서 하라지...’

그렇게 생각한 나는 정화를 시켜준 니크론파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사제님,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 보는 건 처음인데 새삼 신력의 대단함이 느껴지네요.”

“비아나 여신께서는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니까요. 여신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돌아가시나요?”

“그래야겠죠? 사제란 본디 자신의 신을 위해 기도하고 많은 이들에게 신의 은총을 퍼뜨리는 대리자 역할이니까요.” “

“그럼 힘들다고 생각된 적은 없으신가요?”

“제 한평생을 걸고 없었습니다. 여신을 모시는 일이 제 운명이자 태어난 숙명이니까요. 그럼 데네아 영애께서도 조심히 돌아가시길. 황태자 전화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저 모습을 보니 무리, 겠군요. ”

니크론파는 저 놓치면 죽을 것 같다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커플 사이를 방해하고 싶지는 않다는 듯 말했다.

“오늘도 여신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네, 조심히 가세요.”

올 때와 마찬가지로 두 손을 모아 허리를 숙인 니크론파는 고고한 걸음걸이를 유지한 채 방을 떠났다. 나도 지금 당장이라도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황태자가 먼저 떠나지 않은 이상 그건 예법에 어긋난 행동이다. 괜히 꼬투리 잡을 기미를 주고 싶진 않다.

애써 시선을 돌리고 의식하지 않으려 했지만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는 이 방에 아르체아와 황태자와의 대화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레칸, 어딘가 불편하신 건가요?”

“나, 난...”

목소리를 듣자 하니 황태자의 지금 심경은 많이 복잡해 보였다. 대체 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나름의 사정이 있나보다 하고 넘겼다.

“쓰읍... 후... 난 괜찮아, 아르체아. 고마워.”

“아니에요...”

‘대체 내가 왜 여기서 이것들의 대화를 듣고 있어야 하는 걸까...’

“데네아 공녀. 여기서 뭐하는 거지?”

“예? 그야... 전하께서 여기 계시기도 하고, 돌아가도 된다는 소식이 아직 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가. 그럼 먼저 공작저에 돌아가 보도록. 어마마마의 일에 관련된 것은 추후에 알려줄 터이니.”

웬일인지 그가 의외로 순순히 나왔다. 그동안 황태자가 내게 보여준 모습과는 다른 면이라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기분 상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 다행스러운 기분을 느꼈다. 예의상 황태자에게 인사를 한 후에, 나는 방문을 닫고 나갔다.

“아, 아가씨!”

문 앞에서는 기사 한 명과 미르티가 기다리고 있었다. 거의 울먹이는 미르티에게 나는 안심하라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돌아가자꾸나, 미르티.”

“영애, 마차 앞까지 모셔다드리겠습니다.”

젊은 기사가 내게 말했다. 나는 기꺼이 그의 호위를 수락하고 안내를 받아 마차로 돌아갔다. 저택에 돌아가면, 어머니와 아버지께 드릴 말이 많아질 것 같았다.

레칸은 다급히 창백해진 황후를 쫓아갔다. 체면이든 예의범절이든 그는 그 순간만큼은 머릿속이 새하얘진 것만 같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오직 그의 칠흑 같은 검은 눈이 황후를 좇고 있었을 뿐이었다.

‘어마마마... 제발...!’

푹 빠져버린 자신의 연인 아르체아마저 내버려 두고 갈 만큼 그는 어머니가 더 우선이었다. 사실 그는 세리스틴의 목걸이엔 한 치의 관심도 없었다. 그저 아티팩트라 하니 흥미가 잠시 생겼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가치의 물건이었다.

그러나 목걸이가 붉은색으로 변하는 순간 그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듯한 기분을 처음으로 느꼈다. 거의 본능이었다, 황후를 따라간 것은.

“황궁의! 황궁의는 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황궁의는 금방 올 것입니다, 전하. 일단 진정하시지요.”

케이샤가 애써 침착하게 황태자를 진정시켜보려 말했지만 오히려 레칸이 더욱 흥분하는 역효과를 내버렸다.

“무려 제국의 황후의 목숨이 걸려 있는 일이다. 내가 어떻게 진정할 수가-!”

“화, 황후 마마!”

저 멀리 복도에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에 레칸은 고개를 휙 돌렸다. 실력 높다고 소문이 자자한 황궁의이자 황후의 주치의인 렌타가 급히 달려오고 있었다.

내심 안도의 작은 한숨을 쉰 레칸은 직접 황후의 방문을 열고 렌타와 함께 들어갔다.

“마마, 안색이..!”

“렌타! 어서 진찰을!”

황후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시녀들에게 둘러싸여 소파에 앉아있었다. 황궁의 렌타는 이 중대한 사태에 황후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어버렸다. 간신히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그녀는 도구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황후 마마, 잠시 실례 하겠습니다.”

메리 황후의 드레스 소맷자락을 걷어 손목을 잡고, 렌타는 맥을 짚어보기 시작했다. 맥은 정상적이었다. 독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재료, ‘벱’ 의 성질상 소량의 독이라도 먹었다면 맥의 흐름이 불안정해야 했다. 벱이 없다면 그 누구도 독을 만들 수가 없었다.

맥이 불안정 한 것은 몸속에서 본능적으로 벱을 거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성질 때문에 간발의 차로 큰 봉변을 피한 사람도 꽤나 있었다. 렌타는 혹시 모르는 마음에 황후의 혀에 은 막대를 대어 보았다. 막대는 아무런 반응도 일으키지 않았다. 렌타는 막대가 변질되지 않았음에 감사하며 안도의 숨을 쉬었다.

“하아... 황후 마마께서 안전하십니다. 아무래도 독이 검출되었다는 그 차를 마시기 직전에 누군가 독을 넣은 것 같습니다.”

“오, 여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마마...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시옵니까.. 흐흑..”

곳곳에서 시녀들의 울먹거림이 들려왔다. 레칸마저 속으로 안도했다.

“마마, 일단 진정하시면 모든 것이 괜찮아지실 것입니다.”

“그래. 고맙네.”

“진정제라도 드리겠습니다. 한결 편안해지실 겁니다.”

“설마 이것에 독이 있진 않겠지요..?”

한 어린 시녀가 두려움에 떨며 물었다. 자신이 모시던 주인이 하마터면 독살당할 뻔했다는 사실 때문인지 그녀는 황궁의가 처방해준 약마저도 의심했다.

“아무리 농담이라 하셔도 그런 농담 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자신의 충성심을 의심받았다는 것에 기분이 나빠진 렌타가 미간을 찌푸리자 어린 시녀는 움츠러들며 우물쭈물 말했다.

“죄, 죄송합니다...”

“렌타. 너무 그러지는 말게. 아까 그 사태도 있었으니 저 아이가 저러는 걸 이해해주길 바라네. 참, 영애들이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렌타 자네라도 가서 영애들을 살펴봐 주지 않겠나?”

“예. 여기 있습니다, 마마. 한 번에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진정제를 먹고 조금 전보다 편안한 안색을 띠는 황후를 보며 레칸은 뒤늦게 아르체아를 생각했다. 방금 나간 렌타처럼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돌아가고 싶었지만 황후 때문이라도 그러면 안 됐다.

“마마, 신전에서 소식을 받고 사제가 도착했다 합니다. 모실까요?”

“어서 안으로 들여라.”

레칸은 신전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들이 가진 신력은 어쩔 수 없었다. 만일의 경우라도 있으니 황후를 정화 시켜야 했다.

자신을 어릴 적부터 보아왔다는 니크론파 사제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레칸은 사제가 강력한 신력을 펼치는 모습을 지켜봤다. 정화를 끝낸 황후는 훨씬 나아진 모습이었다.

“황후 폐하의 몸속에 남아있는 해로운 물질 또한 모두 제거하였으니 한결 나아지실 것입니다.”

“고맙군, 니크론파 사제. 돌아가는 김에 황태자를 따라 영애들을 살펴봐 줄 수 있는가?”

“그러도록 하죠, 폐하. 그럼, 황태자 전하. 안내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따라 오도록.”

“이것 참 영광이네요.”

레칸은 이 뺀질거리는 사제가 너무나도 싫었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아르체아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

기사들이 앞을 지키고 있는 황후의 손님방이 눈에 띄자 그는 니크론파 사제를 그 자리에 버리고 빠르게 걸어갔다.

그는 방문을 벌컥 열고 외쳤다.

“아르체아!”

“세리! 정말 괜찮은 거니?”

“당신 아까부터 계속 그 질문만 하는 것 같은... 윽!”

아버지께서 갑자기 인상을 찡그리는 모습에 어디 편찮으신 건지 걱정이 됐지만 어머니의 눈빛을 보아하니 분명 식탁보 밑에서 두 분만이 아시는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 것이 분명했다. 나는 얼굴에 웃음을 띠며 말했다.

“네, 전 괜찮아요. 어머니, 아버지.”

‘심지어 오늘 무려 신전의 사제에게 축복도 받았는걸요.’

저택에 돌아온 나를 반긴 것은 여유로우신 어머니였지만, 아버지께서 황궁에서 돌아오신 후 저녁 식사 시간에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어머니는 몇 분 전부터 사색이 된 표정이었다.

두 분의 걱정 어린 우려를 들으며 사제에 대한 얘기를 꺼내니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는 모양이었지만 그마저도 완전하게 마음이 놓이시지는 않아 보였다.

“그나저나, 니크론포라니. 웬만한 일로는 그가 움직이진 않을 터인데... 역시 황후 폐하와 관련되어서 그런가?”

아버지께서 턱을 괴시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다.

“그러고 보니 그분은 황태자 전하를 잘 아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겠지. 전하께서 아직 갓난아기였을 시적부터 보아왔으니. 은근 신전과 황실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 보이겠지만, 대사제와 황실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지.”

“대사제요?”

“어머, 니크론포 비아네트라고 하지 않았니? 비아네트는 신전에서 단 네 명만이 사용할 수 있는 성이란다.”

“그 네 명이 바로 대사제들이지. 나머지 일반 사제들은 성조차도 쓸 수 없어.”

그저 황태자와 묘한 인연이 있다고만 생각한 사제가 사실은 대사제였다니. 축복 한 번 받기도 어려운데, 무려 대사제의 축복이면 얼마나 운이 좋았던 것인가. 놀란 표정의 내게 어머니는 웃으시며 말했다.

“세리스틴, 네가 처음으로 축복이란 것을 받아보아서 잘 모르겠지만, 사제의 축복과 대사제의 축복은 그 신성력에서부터 차이가 어마어마하단다. 운이 좋았구나.”

“그자가 워낙 성질이 까다로워서 말이지. 아무에게나 축복을 내려줄 사람이 아니거든.”

“그랬던 거군요... 사제의 축복도 그렇지만, 대사제의 축복이면 저도 참 운이 좋았던 거네요.”

“그렇지.”

“그래도 네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내가 이이에게 전해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항상 걱정 끼쳐 드려 죄송해요, 어머니.”

지난번 초대를 가장한 납치 사건도 그렇고 오늘 독 사건에 휘말린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나 두 분께 잘해드리겠다고, 걱정 끼쳐 드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그 다짐에 무색하게도 나는 반대로 행하고 있었다.

‘그러니 더욱 잘해드려야지.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다시금 처음의 다짐을 되살리며 나는 크림 수플레를 먹던 스푼을 내려놓았다. 마지막 입가심으로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신 후,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다.

“참, 세리. 네 오라버니에게서 연락이 왔었단다.”

“정말요?”

오라버니께 편지에 대한 답신을 보낸 뒤, 편지가 다시 오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오라버니의 연락은 내게 반가운 소식이었다. 오라버니의 편지가 한 달 전에 왔었으니, 너무 오랜만인 것이다.

‘아, 그러고 보니... 로빈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구나.’

머나먼 타국에 나가 있는 오라버니는 차라리 편지라도 왔지. 로빈 그 남자는 아예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내 쪽에서 편지라도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었다. 로빈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오라버니께서는 잘 지내시는 것 같았나요?”

“그래. 지내는 데에는 문제없지만, 라네아 황실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문제라뇨?”

라네아 제국은 지크레핀 제국보다 더 강대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강력한 제국이다. 그런 제국의 황실에 무슨 문제가 생겼단 말인가. 어머니와 시선을 교환한 아버지는 작게 한숨을 내쉰 후 말씀하셨다.

“라네아의 황제가 서거했다. 그나마 그쪽 황태자가 미리 황제 대리를 맡고 있었으니 다행이지.”

“그쪽 황권은 안정됐나요?”

“글쎄다. 라네아의 황제 슬하에는 황태자는 단 한 명이고, 황자와 황녀가 한 명씩 있다고는 하더구나. 하지만 황녀는 황위엔 관심이 없었고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던 한 명의 황자는...”

“다들 입을 다물고 쉬쉬하고 있긴 하지만,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소문이 돌더구나.”

“황자가요?”

“그래. 덕분에 라네아의 황태자는 손쉽게 황위에 오를 수 있었지. 이번에 즉위식을 거행한다는구나. 그래서, 우리 헤르베디가 근 한 달 만에 집으로 돌아온다고 전해왔다.”

“오라버니께서 돌아오신다니 다행이면서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오라버니께선 한동안 저택에 머무시겠죠?”

“그것도 글쎄다. 아무래도 황제의 즉위식에 참석해야 한다고 하니 곧 돌아갈 게다.”

내심 아쉬웠다. 안 그래도 로테인과 헤르베디 오라버니를 못 본 지도 오래됐는데. 오라버니가 돌아오신다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오라버니는 다시 돌아가셔야 했다.

“많이 아쉬운가 보구나.”

“얼굴도 많이 못 보잖아요. 잠깐 오시는 것만으로 만족해야죠.”

“어머? 아, 내가 얘기해준다는 걸 그만 깜박했구나. 세리, 헤르베디가 다시 라네아 제국으로 떠날 때 너도 같이 갈 거란다.”

“네?”

라네아 제국으로? 갑작스러운 여행이 잡혀져 나는 당황했다. 라네아 제국이라면 우리 지크레핀 제국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다. 그곳까지 가기 위해선 어림잡아 보름은 걸린다.

“이상하게도 라네아 제국 측에서 너를 초청했다더구나. 헤르베디와 황태자가 연이 있다 보니 이야기가 나온 모양이야.”

“세리스틴,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가지 않아도 좋다. 어찌할 거니?”

어머니와 아버지의 시선에 나는 잠시 고민했다. 저택에서 편히 있거나, 오라버니를 따라 다른 제국으로 넘어가거나. 장기간의 여행은 그다지 선호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나는 라네아에 호기심을 느꼈다. 한동안은 아르체아와 황태자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한몫했고 말이다.

물론 어머니, 아버지와 헤어지는 것은 조금 아쉽지만, 그쪽에서 나를 초청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가보고 싶었다.

“한 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 네 선택이 그러하다면야. 2주 뒤에 헤르베디가 도착한다고 전해왔으니 그리 알고 있거라.”

“네, 아버지.”

“세리, 먼저 들어가렴. 위험한 일을 당할 뻔해서 피곤할 텐데, 우리가 너무 많이 잡아두고 있던 건 아니니?”

어머니의 웃음 섞인 농담에 나는 미소로 맞받아쳤다.

“그럴 리가요. 내일 뵐게요, 어머니, 아버지.”

“그래.”

“미르티, 수고했어. 이제 나가봐도 좋아.”

“네, 아가씨.”

기름칠을 잘해놨는지 문이 소리 없이 부드럽게 닫혔다. 열린 창문 사이로 들어온 바람에 천장에 매달린 얇고 반짝이는 유리 막대들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냈다.

“삐이이?”

파랗던 꼬리의 색이 달라지면서 울음소리도 달라지는지 언제부턴가 틴의 이상하고 특이한 울음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다만, 틴은 다른 새들과 같이 일정하게 울음소리를 냈다.

“잘 자, 틴.”

틴을 그의 보금자리에 넣어주고, 나는 얇은 잠옷 위에 실내용 숄을 하나 걸쳤다. 그대로 침대를 지나쳐, 그 옆의 작은 테라스로 다가갔다.

창문을 열자, 선선한 바람이 나를 맞이하는 것이 느껴졌다. 난간에 기댄 후 하늘을 바라보니 희미하게 별이 자신을 빛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쓰읍... 후...”

한 번 크게 숨을 쉬고 나니 속이 뻥 뚫린 것 같았다. 이 좋은 기분을 유지하며 조금만 더 바람을 느끼다가 침대로 돌아가려 했다. 슬리퍼를 신고 있었지만, 나는 잠시 그것을 내려보다가, 슬리퍼를 벗었다. 어차피 이곳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

미르티가 이 사실을 알아챈다면 아마 한 소리 좀 들을 것이다.

조용히 자연이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무렵, 본능적으로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구-!’

불안함에 눈을 뜨고 일어나려는데, 누군가 부드럽게 내 두 눈을 손바닥으로 감쌌다.

“쉬이... 그대로 눈 감고 있어요.”

“당신 진짜...”

목소리를 듣자마자 알아챌 수 있었다. 그 남자였다. 그도 위험했지만 어쩐 일인지 경직되었던 몸이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풀려버렸다.

“너무 오랜만이죠, 아가씨? 나 안 보고 싶었어요?”

“네, 안 보고 싶었어요.”

“와, 진짜요? 그건 좀 슬픈데.”

시무룩한 로빈의 목소리가 근처에서 들려왔다. 나는 내 시야를 막은 그의 손을 잡으며 작게 말했다.

“...조금”

“네?”

“아주 조금 보고 싶었다고요. 오해하지 마요, 그냥 거의 매일 뺀질나게 오던 사람이 발길을 끊어버려서 그런 거니까.”

“흐응... 그건 조금 보고 싶은 게 아닐 텐데요?”

내가 기대어 있던 난간에 무게감이 느껴졌다. 아무래도 로빈이 난간에 걸터앉은 모양이다. 나는 그의 손을 치우고 불만스레 말했다.

“마음대로 생각해요. 볼 일은 다 끝났나 봐요? 이렇게 찾아온 걸 보니까”

오랜만에 보는 로빈은 이번엔 붕대도, 가면도 아닌 언제나처럼 모자를 쓰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눈을 전혀 볼 수 없게 가려버리고 말이다.

“완벽하게 끝나진 않았죠. 여기서 더 머물다가 다시 돌아가긴 해야 해요.”

“그렇군요.”

그 뒤로 잠시 동안 말이 없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다가 로빈이 먼저 말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웬일로 밖에 나와 있어요. 춥게시리.”

“그저 바람 좀 쐬다 들어가려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생각하는 거지만 대체 이 높이를 어떻게 오는 거예요? 공작저라 경비가 삼엄할 텐데.”

“아무리 경비를 강화해도, 텔레포트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죠.”

그는 목걸이를 들어 보이며 장난스레 웃었다. 로빈을 두 번째로 만난 날, 나를 산 속 오두막집으로 이동시켰던 그 텔레포트 아티팩트였다.

“하여튼 간에, 이렇게 늦은 밤에 숙녀의 방에 찾아오는 건 실례란 거 몰라요?”

“아가씨가 너무 보고 싶은 걸 어떡해요.”

“내일 왔으면 됐잖아요,”

“오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네요. 내일도 와도 된다는 뜻으로 알아들을게요.”

생글생글 웃는 로빈은 내가 보기에도 정말 얄미웠다. 실은 보고 싶었다고 말할 마음이 싹 가실만큼.

“그래서, 어딜 다녀온 거예요? 이왕 온 김에 여행 이야기 좀 들려주다 가요.”

나는 흘러내린 숄을 제대로 걸치며 말했다. 맨발이기엔 지금은 쌀쌀해져서 다시 슬리퍼를 신은 상태였다.

“음... 라네아 라고 알아요?”

“라네아 제국이요? 네, 알죠.”

바로 오늘 저녁에 라네아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온 참이라 낯설진 않았다.

“거기 다녀온 거예요. 다른 곳은 많이 가보지도 못했어요.”

“어째서 그 먼 곳까지 갔다 온 건지 물어봐도 되나요?”

“형님의 부탁이랄까요?”

“형님이요?”

그에게 형이 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다. 홀로 살 줄 알았던 그에게 다른 형제가 있다는 건 그에겐 실례지만, 조금 의외였다.

“몇 살 차이 안 나는 형이 한 명 있어요. 사실, 라네아에 좀 더 있었어야 했는데, 아가씨가 너무 보고 싶어서 후딱 나와 버렸죠!”

로빈은 발랄하게 말하며 손가락으로 브이 자를 만들어 보였다. 천진난만한 개구쟁이 같은 모습이었다. 뭐, 평소에도 그런 면이 많이 보였지만.

“그럼 다시 돌아간다는 곳이 라네아 제국인가요?”

“그렇게 되겠죠. 가고 싶지는 않지만, 가야 해요.”

나는 로빈을 바라보며 그에게 나름대로 위로가 될지 모를 말을 꺼냈다.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라네아로 떠나요.”

“... 에?”

그답지 않게 당황한 목소리였다. 생소한 반응에 작은 웃음이 나온 나는 다시 그에게 전해주었다.

“저도, 라네아로 간다고요. 어쩌면 거기서 만날 수도 있겠네요.”

“아가씨가 어떻게... 아니, 그것보단 왜 가는데요?”

예상치 못한 로빈의 말에 조금 섭섭해졌다. 왠지 내가 그곳에 가면 곤란하다는 듯한 어투였다. 순간 기분이 가라앉은 나는 나도 모르게 어린아이처럼 토라진 말투로 받아쳤다.

“그건 왜요? 왜 물어보는데요?”

“아, 설마.. 아가씨가 거기에 가는 건... 아으, 하필이면...”

모자를 양손으로 잡고 푹 내려쓴 로빈의 이해할 수 없는 모습 때문에 내 기분은 더더욱 하락했다. 어린아이 같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시무룩하게 물었다.

“로빈은 제가 가는 게 그렇게도 싫은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 기분 상했어요?”

“아뇨, 그런 거 아닌데요.”

“아가씨, 그게, 내가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사실 어쩔 줄 몰라 하는 로빈의 목소리에 이미 다 풀려버렸지만 그의 반응이 신선하여 조금 더 끌기로 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쌀쌀맞게 대답했다. 로빈의 이런 모습을 언제 또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올지 몰랐다.

“알겠어요, 당신은 지금 저랑 같이 있는 것 자체를 꺼린다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후...”

주먹을 꽉 쥔 로빈은 이내 한숨을 내뱉었다. 나는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참기 힘들어, 이쯤에서 그만두려고 했다. 로빈이 갑자기 내 머리와 허리를 양 손으로 끌어당기지 않았더라면 웃어버렸을 지도 몰랐다.

“저, 저기...”

“아가씨를 내가 어떻게 꺼려해요, 이렇게나 예쁘고... 운데”

어느새 굳어버린 채로 로빈의 품속에 안겨있는 나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구불거리며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이 가려줬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홍시처럼 달아오른 얼굴을 로빈에게 들켰을 것이다.

“어.. 방금 뭐라고 한 거예요? 못 들었어요.”

부끄러움을 피하고자 나는 로빈이 한 말을 곱씹으며 물었다. 예쁘다, 까지는 들었지만 그 뒷말은 가까이 있었음에도 잘 들리지 않았다.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네, 안 알려 줄 거예요.”

난간에 걸터앉던 로빈은 점점 내게 거의 기대듯이 안아왔다. 그의 모자 뒤에 숨어있던 은발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며 저의 존재를 알렸다. 나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은발을 짧게 빗어 내렸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데요?”

“아가씨 기분 풀릴 때까지요.”

“풀린 지 오랜데요?”

나는 장난스레 말하며 로빈의 품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러나 로빈이 힘을 주고 더욱 풀어주지 않는 바람에 중심을 잃을 뻔했다.

“기분 풀렸으니까 이제 놓아줘요.”

“내가 볼 때는 아가씨 아직 안 풀렸어요.”

“추워요, 이제 들어가 봐야 해요.”

“이러고 있으면 안 추울 거예요.”

고집스럽게 내가 말하는 말마다 우겨대는 로빈은 결국 한숨을 쉬고 나를 감싸던 팔을 풀었다. 구겨진 숄을 피며 다시 걸치던 도중, 다리를 꼬고 손바닥으로 턱을 괸 로빈이 말했다.

“아가씨가 라네아에 가는 게 곤란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생길 일이 조금 골치 아파서 그런 거지.”

“라네아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 다는 말이에요?”

“아뇨, 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아가씨께서는 아직 모르셔도 된답니다.”

방금 전까지 우울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다시 여유롭게 웃는 모습으로 돌아온 로빈은 으챠- 하며 난간에서 내려왔다.

“위험하니까 거기 다시는 올라가지 마요.”

“괜찮아요, 뭣하면 이것도 있고.”

그는 목걸이를 들고 흔들어 보이며 말했다. 하지만 아무리 텔레포트라 해도 변수는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너무 그것만 믿는 거 아니에요?”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요. 당연히 다른 대책은 마련해 놨죠.”

“당신은 언제쯤...”

‘내게 진실을 보여줄 거예요?’

이성이 차마 이 말을 내뱉지는 못하겠는지, 내 입은 꾹 다물렸다. 로빈 자신이 보여주고 싶어 하질 않아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로빈이 의아하게 묻는 말에 나는 하려던 질문을 어물쩍 넘겨버렸다.

“음? 뭐라고요?”

“...언제쯤 돌아와요? 다시 라네아로 돌아갈 거라면서요.”

“아아, 아마도 일주일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꽤나 중요한 일이라, 그 이상 걸릴 지도 몰라요. 왜요, 벌써 섭섭한 거예요?”

“아뇨, 그건 아니고요. 그냥 언제 돌아오는 지 궁금한 것뿐이에요.”

“흐음... 그럼 아가씨는 언제 와요?”

“몰라요. 중대사라, 얼마나 걸릴 지도 감이 안 잡혀요. 기껏해야 한 보름은 넘겠죠.”

쌀쌀한 바람에 몸을 움츠리며 나는 팔을 교차하여 팔뚝을 비볐다. 슬슬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다. 더 지체한다면 필시 감기라도 걸릴 게 뻔했다.

“이제 그만 들어가 볼게요. 로빈도 빨리 돌아가요, 들키기 전에.”

“아가씨께서 그리 말씀하신다면야.”

평소에 이렇게 순순히 응하는 로빈이 아니었기에 나는 그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렇다 해도 웬일로 그가 잠잠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한 순간 바뀌는 것은 오래 걸릴 일이 아니었다.

“당신이란 사람은 정말-!”

“쉬이- 다음에 또 뵙길, 마이 레이디.”

로빈은 입가에 손가락을 댄 채 사라졌다. 거칠어진 바람에 얼른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닫고 기대어 선 나는 스르르 주저앉았다.

‘당신이란 남자는 대체 무슨 생각인 것인지...’

그리 생각하며 나는 세운 다리를 두 손으로 감싸고 고개를 푹 숙였다. 로빈이 남기고 간 흔적은 아직까지도 이마 위에서 화끈거리고 있었다.

메리 황후의 독 사건이 있고 난 후 며칠 뒤, 한동안 저택에만 있던 내게 누군가가 찾아 왔다. 미리 편지를 통해 연락을 받았었지만 이리도 일찍 찾아올 줄은 몰랐다.

“이벨리아?”

“세리스틴! 소식 들었어요, 괜찮은 거예요?”

“네, 전 괜찮아요. 어쩐 일이에요?”

이벨리아가 내미는 작은 사이즈의 꽃다발을 받아 들며 나는 그녀를 응접실로 안내했다.

“다, 당연히 세리스틴이 걱정돼서 왔죠. 세상에나, 황후 폐하의 찻잔에 독이 들어가 있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벨리아는 소름이 끼친다는 듯 몸을 옅게 떨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뭐 마시고 싶으신 거라도 있어요?”

“네? 아... 전 시원하고 달콤한 게 끌리네요. 무난하게 아이스티로 할게요.”

“집사, 여기 아이스티 두 잔 가져다줘.”

“예, 아가씨.”

대기하던 집사가 허리를 숙이고 나간 뒤, 이벨리아가 먼저 말을 꺼냈다.

“세리스틴, 황궁에서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르체아도 같이 있었다던데, 둘 다 괜찮은 거 맞죠?”

이벨리아 딴에서는 걱정이 되어서 물어본 것이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아르체아는 모르겠지만 나는 괜찮다 못해 건강했다. 대사제의 축복 덕분인지 최근 들어 몸이 가볍고 피부가 좋아지기도 하는 효과가 눈에 띄었다.

“저도, 아르체아도 다 멀쩡해요. 독이 저희 잔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나 봐요. 아무래도 범인이 노린 것은 황후 폐하인 것 같았어요.”

“그래도 폐하께서 무사하니 정말 다행이에요. 사실, 이렇게 온 것도 선물을 하나 드리기 위해서였는데 좀 더 빨리 드릴 걸 그랬어요.”

‘웬 선물?’

갸웃거리는 내게 아르체아는 꽃다발과 함께 들고 왔던 납작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보랏빛 구슬이 박힌 어두운색의 팔찌가 들어 있었다. 한눈에 보기에 꺼림칙한 분위기를 풍기는 듯한 팔찌를 이벨리아는 아무렇지 않게 꺼내 들었다.

“독을 알려주는 팔찌에요. 해로운 물질에 대해서 예민한 아이라, 그 어떤 독이라도 구별해 낼 수 있어요.”

“그, 렇군요. 고마워요, 이벨리아.”

“독이 가까이 있으면 지금은 어두운 이 구슬이 빛을 낼 거예요. 고향에서 도착하는 데 시간이 걸려 제때에 드리지 못했네요...”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물건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마운걸요. 항상 차고 다닐게요.”

“저, 정말요?”

“그럼요.”

기분 좋은 표정으로 방실방실 웃는 이벨리아에게 이런 아티팩트가 하나 더 있다고, 그것 덕분에 찻잔에 독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엔 내 마음이 조금 여렸다. 괜스레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시녀가 가져와 준 시원한 아이스티를 마시며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다, 비미르 작가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다.

“참, 세리스틴. 그 소식 들었어요?”

“네? 무슨 소식이요?”

“현재까지는 모임에서만 소소하게 돌고 있는 소문이지만 비미르 작가님이요, 사실은 신분 높고 고귀한 귀족가 영애일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곳에서는 몇몇 시녀들을 제외하고 우리 둘밖에 없었다. 그마저도 시녀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입도 무거웠지만, 이벨리아는 마치 누군가가 있다는 듯 허리를 조금 숙여 내게 가까이 오더니 비밀을 말해주듯 속삭였다.

“그분이 귀족이란 건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 아니던가요?”

‘이미 지난번 모임에서 암암리에 알려졌던 사실을 가지고 뭘 그리...’

“에? 저, 저만 최근에 안 건가요...”

이벨리아는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런 이벨리아에게 말했다.

“괜찮아요, 이벨리아만 몰랐던 건 아니니까요. 아직 눈치 채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걸요? 그래도 이쯤 되면 대부분이 알고 있을 테지만요.”

나름대로 위로라고 생각되어 한 말이었는데 내 말을 듣고 이벨리아는 더욱 우울해져 가는 표정이었다.

‘내가 말을 잘못 했나..?’

속으로 작게 한숨을 쉬고 나는 차라리 주제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로 했다.

“요즘 비사모 모임은 어때요? 제가 없어도 잘 돌아가고 있나요?”

“예? 네, 네. 부회장님께서 잘해주신 덕에 세리스틴이 불참해도 다들 이해하고 넘어가는 중이에요. 그래도 명색이 회장이신데, 한 번 정도는 참석해 주셔야죠.”

비사모 이야기가 나오기 무섭게 이벨리아는 우울한 표정은 어디 가고 다시 발랄한 소녀로 돌아왔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소심함과 비교하자면 장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야겠죠. 그런데 요즘은 슬슬 부회장에게 자리를 넘겨드려야 하나,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많은 활동도 하지 못했고요. 게다가, 곧 여행까지 떠나니 말이에요. 아무래도 회장 자리는 제게 좀 벅찼나 봐요.”

“아니에요! 세리스틴은 비사모의 창시자시잖아요. 회원들 모두와 작가님은 물론, 세리스틴에게도 감사하고 있어요. 세리스틴이 회장을 해주신 덕분에 모임도 잘 진행될 수 있었고요.”

“말만으로도 고마워요. 하지만 역시 저는 물러나는 게 맞다 고 봐요. 여태까지라면 몰라도 앞으로도 잘 이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난 팬미팅에서 부터 생각해왔던 것이다. 아무리 회장이라고 해봤자 꾸준히 참석하질 않는데 어떻게 회장이라 할 수 있을까. 어정쩡하게 할 것이라면 차라리 빨리 그만두는 것이 훨씬 낫다.

“세리스틴, 이건 다음 모임에 다 같이 모였을 때 정리하도록 해요. 그런데 여행이라니, 어디 멀리 가시는 거예요?”

“멀죠. 라네아 제국으로 가는 길이니까요.”

“어머나... 라네아라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가는 데만 해도 몇 주는 걸릴 텐데... 괜찮겠어요?”

“오랜, 처음으로 하는 여행이라 오히려 두근거리는걸요. 요새 저택에만 있다 보니 심심하기도 했고요.”

이벨리아의 염려에 나는 본능적으로 처음이 아니라고 말할 뻔했지만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넘겼다. 다행히 그녀는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었다.

“아.. 하긴 황후 폐하의 사건 이후로 도서관에서 세리스틴을 보지 못했네요.”

“한동안 가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혹시 작가님의 신작이 나왔는지..?”

황궁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보지 않은 지가 꽤 되었기에 나는 기대감에 차 이벨리아에게 물었다. 그녀는 내 기대를 짓밟지 않고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대답을 가져다주었다.

“당연히 나왔죠! [하이덴 백작의 애완견] 이라고, 출간되자마자 암암리에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아, 이것 말고도 [동생의 비밀] 이 있어요!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일반 서점 같은 곳은 벌써 절판이고, 도서관도 있을지는 미지수에요. 그런데 아마 없을 거예요, 워낙 비미르 작가님 인기 자체가 너무 대단하셔서...”

“그렇군요. 나중에 제가 한 번 직접 가서 봐야겠어요. 그래도 황궁 도서관에는 있지 않을까요?”

“그곳도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흐음...”

제목부터 그렇지만 안 그래도 비미르 작가님의 신작이라 더욱 기대돼는 작품이다. 어떻게든 사수해야했다. 그러나 이벨리아 말대로 대부분 서점에는 이미 절판된 상태였다.

‘출간 소식을 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던 것인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나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황궁 도서관으로 향했다. 나온 지 꽤 되었다고 했으니 누가 대여만 하지 않았다면 분명 있을 것이다. 물론 아버지의 손을 빌린다면 손쉽게 구할 수 있긴 하지만, 아버지께 내가 그렇고 그런 장르의 책을 본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엔... 조금, 많이 민망했다.

‘절대 알려드릴 수 없어.’

만일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아신다면 그 날은 밤새 이불을 차느라 잠을 못 이룰 것이다.

“데네아 영애, 정말 오랜만에 오셨네요.”

“좋은 오후에요, 제리 부인.”

약간의 잔주름을 제외하고는 도서관의 사서 제리 부인은 여전했다. 그녀는 평소같이 온화한 미소로 내게 눈치껏 신작의 행방을 알려주었다.

“이를 어쩌죠, 그 장르는 대부분이 대여된 상태에요. 요새 하도 영애들이 많이들 찾아오셔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게 인기가 엄청났던 것이군요.”

제리 부인은 안타깝다는 얼굴로 안경을 고쳐 썼다. 그녀의 말을 입증이라도 해주는 듯 도서관의 잘 보이지 않는 한쪽의 선반은 거의 텅텅 비어 있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다른 걸 빌려 가는 수밖에요. 다음에 다시 방문한다면 그때는 있겠죠?”

“후훗, 제가 영애를 위해 보관이라도 해 드릴까요?”

“그래 주신다면 감사드리죠.”

“농담이고, 예약하세요.”

도서관의 일에서는 칼 같은 여인이었다. 포근한 미소로 저리 단호하게 말하는 걸 보니, 제리 부인이 새삼 달라 보였다. 오늘따라 왠지 로맨스가 끌렸다. 오랜만에 온 김에 연애에 관한 책을 빌리려는데, 하필 너무 높은 곳에 있었다. 그동안 상반부에 있던 책들은 꺼내기가 힘들기도 하여 책장의 하반이나 중반에 있는 책들을 주로 빌렸었지만, 이들은 이미 몇 번이나 읽어 봤던 책들이다.

이번엔 좀 새로운 책을 읽고 싶었는데 이런 난관에 막히다니. 번거로웠지만, 사다리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제자리에 있어야 할 사다리가 보이질 않았다.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사다리를 찾지 못해 곤란함에 빠져 내 키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책을 바라보았다.

‘이 정도 높이라면 까치발을 들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최대한 까치발을 들고 손을 높게 뻗었다. 간신히 닿을락 말락 한 책은 결국 닿지 않았다. 괜히 욕심을 부리다 팔만 아픈 결과를 낳은 내가 한숨을 푹 쉬고 돌아서려던 도중, 나는 누군가의 가슴팍에 머리를 부딪쳤다.

“아..!”

“괜찮나?”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황태자였다. 그가 어째서 여기에 와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제국의 고귀하신 레르칸트 샤 지크레핀 황태자 전하를 뵙습니다.”

“나는 괜찮냐고 물었다. 인사가 아니라.”

가시 같던 평소와 다른 부드러운 어투와 목소리에 의아해하며 대답했다.

“네, 괜찮습니다, 전하. 헌데 여긴 어쩐 일로...?”

“그저 지나가는 길에 눈에 띄어 들렀을 뿐이다.”

‘우연도 이런 거지 같은 우연이 다 있을 줄이야.’

이걸 입 밖으로 내뱉을 만한 용기는 없었기에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음... 그래서 이걸 꺼내기 위해 그리 용을 쓴 것인가?”

“네, 전하.”

황태자는 그답지 않게 내게 물어왔다. 그는 내가 그렇게도 노력했던 것이 무색하게도 쉽게 팔을 쭉 뻗는 것으로 책을 꺼냈다. 그 높이의 책을 꺼내준 것은 고맙긴 했지만 내겐 그다지 달갑지 않은 친절이었다. 그래도 감사 인사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 감사합니다, 전하.”

“... 레칸.”

“예?”

왼손에 책을 든 그는 책을 내게 주기는커녕 이상한 말을 했다.

“전하라는 딱딱한 호칭 말고, 레칸이라고 부른다면 주도록 하지.”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건지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았다.

아니, 친절을 베풀 거면 확실하게 베풀지 이게 뭐하자는 건지.

“송구합니다만, 제가 어찌 감히 황태자 전하를 그리 부르겠습니까.”

“... 흠, 그래. 이름으로 부르는 건 아직이겠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말만 늘어놓는 그는 순순히 책을 주었다. 이름으로 부르는 게 어째서 아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꺼림칙하다는 건 알겠다.

“그럼 이만 돌아가 봐도 되겠습니까?”

“아, 나도 같이 가지.”

짜증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나는 그대로 말없이 걸음을 옮겼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게 쌀쌀하게 굴며 나를 거의 혐오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던 그였건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리도 살갑게 군단 말인가.

심지어 힐끗 돌아본 그의 눈빛은, 마치 호기심과 흥미가 뒤섞인 눈빛으로 보였다.

“그대는 이곳에 자주 오는 편인가?”

제리 부인에게 향하는 길에 황태자가 물어왔다. 뜬금없이 그런 건 또 왜 물어보는 건지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가끔씩 들릴 뿐입니다.”

“그렇군. 영애의 취미가 독서였다는 사실은 처음 아는 것 같은데.”

‘이걸 뒷북이라고 부르나?’

한국에 있을 적, 학교 친구들이 뒷북이란 단어를 쓰는 모습을 종종 지켜봤던 기억이 남아있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거리의 제리 부인에게로 향하는 길이 이렇게 길다고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다.

“데네아 영애, 벌써- 어머, 제국의 고귀하신 레르칸트 샤 지크레핀 황태자 전하를 뵙습니다. 전하께선 웬일로...”

“내가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건가?”

황태자는 미간을 약간 찌푸리며 대꾸했고, 나는 그에 당황한 제리 부인 앞에 책을 내려놓았다.

“아, 아닙니다. 전하.”

“부인, 대출 기간은 2주 맞죠?

“네? 네, 데네아 영애. 여긴 서명해주시고... 조심히 들어가요, 영애. 전하께서도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제리 부인.”

“... 다음에 또 보지.”

다음을 기약하는 황태자의 말에 제리 부인의 얼굴이 조금 새하얘진 것 같았다.

‘불쌍한 제리 부인.’

나는 힘내라는 뜻으로 황태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책으로 가린 후 그녀에게 엄지를 편 채 내밀었다. 그런 나를 발견한 제리 부인은 고개를 살짝 까닥이는 것으로 감사를 표했다.

한순간의 변덕일 것이라 생각했던 황태자의 필요치 않은 관심은, 내 예상과는 다르게 오래 지속되었다.

그 예시로 도서관에 갈 때마다 항상 근처에서 서성이는 황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무리 불규칙하게 가며 시간을 정하지도 않았지만 그는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잘도 찾아오기 마련이었다.

명색이 황태자임에도 그는 꽤 한가해 보였다. 이리도 자주 마주치는 걸 보면.

“데네아 영애, 오늘도 책을 빌리러 온 건가?”

검은 눈동자 속에 담긴 감정은 더 이상 싸늘함도, 편견도 들어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엔 작은 호기심이 비추어질 뿐이었다.

“전하, 도서관을 찾아오는 이유가 책을 빌리기 위함이 아니던가요?”

“하긴 그렇군.”

어느 날은 황태자가 당연한 걸 묻는 소리에 난 황당했다.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얼마나 내게 궁금한 게 없었다면 저런 걸 다 물어보는지...

차라리 지금 당장이라도 로빈이 그리워질 정도로 황태자는 달갑지 않았다. 뭐랄까, 껄끄럽다고 해야 하나.

아르체아와 전에 나눈 얘기도 있고 하여 난 되도록 황궁에 올 때 그를 마주치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내 노력에도 불구하고 황태자는 끈질기게 찾아왔다. 대체 그가 나를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감이 오지 않았다. 몇 주 전 일도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나 빨리 갑작스럽게 성격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인가?

종래에는 황태자가 내게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소문이 도서관을 시작으로 황궁에 퍼졌고, 그것이 황녀와 황후의 귀에 들어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 증거로, 난 지금 황녀에게 오붓한 시간을 보내며 추궁당하고 있다.

“공녀, 내가 요새 황궁에 소소하게 도는 소문을 좀 들었는데요, 오라버니께서 공녀를 졸졸 따라다니신다는 소문이 퍼졌다지 뭐에요.”

“읍..! 콜록, 콜록.”

황녀가 나를 부른다는 전갈을 받았을 때 예상했었어야 했는데, 그녀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어볼 줄은 몰랐다. 덕분에 당황하여 방금 입 안에 머금은 따뜻한 차를 무례하게도 뱉을 뻔했지만 간신히 입을 꾹 다물고 삼키자 절로 기침이 뒤따라 왔다.

“저런, 괜찮아요? 내가 너무 노골적으로 물어봤나?”

황녀는 걱정 어린 목소리로 내게 친히 손수건을 건네며 물어왔다. 손수건으로 입가를 가볍게 닦고 대답했다.

“외람되지만, 황녀 전하. 소문이 많이 과장된 것 같네요. 그 황태자 전하께서 절 졸졸 따라다니시다니요.”

아무리 그가 내게 관심을 보이며 찾아온다곤 하지만, 따라다니는 건 아니었...나?

‘에이, 그래도 설마 그가 그럴 리가. 서쪽에서 해가 뜬다면 모를까.

적대감을 은연중도 아니고 대놓고 드러내고 다니며 은근히 날 무시하던 그가 그리 쉽게 바뀔 사람은 아니었다.

“그럼 내가 들은 소문의 어느 정도는 사실이란 건가요? 웬만하면 당사자에게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은데, 공녀는 어때요?”

황녀는 다 마시고 난 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찻잔의 손잡이에 손가락을 끼워 빙빙 돌렸다. 마치 악동의 미소를 지은 그녀는 내게 물었다.

“아무래도 황태자 전하께서 자주 도서관에 찾아오시는데 저와 우연히 마주치는 바람에 그런 소문이 돌게 된 것 같아요.”

“우연히요? 한두 번이 아니고, 매번 그런다는 소문도 있던데요?”

페르세지아 황녀는 진정으로 사실을 파헤치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나를 놀리려는 것인지 이미 답이 나온 질문을 계속했다.

“하아... 전하, 정말 이러시기예요?”

결국 난 울상을 지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만족스러운 대답은 아니었지만 내가 부정하지는 않아, 원하는 걸 얻었다는 표정의 황녀는 장난스레 웃었다.

“어머나아~ 드디어 우리 오라버니께서 그 멜치스인지 뭔지 하는 여자에게서 벗어나시다니, 분명 공녀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신 거예요!”

황녀는 열정적으로 주먹을 쥐며 내게 외쳤다. 그녀는 진심으로 감격스럽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양손을 뺨을 감싸고선 볼을 붉혔다.

“이제 남은 건 오라버니와 공녀의 약혼인가요!”

“황녀 전하, 송구하지만 제 성년식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만...”

황태자와 나 사이에 그다지 특별한 일도 없었지만 황녀는 벌써 나와 그의 약혼식을 꿈꿨다. 솔직히 그 약혼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내겐 좋지 않았다. 물론 신분 상승이나 황태자와의 달콤한 로맨스 따위를 운운하며 꿈꾸는 이들에겐 환상적인 기회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내겐 결코 아니다. 일단 나 본인이 원치 않았고, 오히려 황실과 엮이는 것이 우리 가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그건 후에 두고 봐야겠지.’

약혼에 관해선 어머니와 아버지께도 말씀을 드려야 한다. 물론 그분들도 알고는 계시겠지만 황후에게서 얘기가 나온 이상 언제 한번 그에 관해 의논을 해봐야했다.

“미안해요, 공녀. 난 아직도 오라버니와 공녀를 맺어주고 싶어서...”

뒤늦게 깨달은 듯 아차 한 황녀는 곧 내게 사과했다. 황족이기에 굳이 그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런 애매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기 싫었는지 화제를 전환했다.

“참, 공녀 어마마마께서 위험에 처할 뻔하셨다는 걸 구해주셨다면서요? 주치의 말로는 위험한 독은 아니라곤 했지만, 어떻게 독을 찾아낸 거예요?”

“이 목걸이 덕분이에요. 음... 전에 샤크트릴라님께서 절 마탑으로 데려가셨을 때 제게 선물해주신 것이에요.”

“어머, 샤트라가요?”

“네, 덕분에 마탑 구경도 잘 했고, 좋은 선물도 받았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나 빨리 유용하게 쓰일 줄을 몰랐지만요.”

난 오늘도 목에 건 녹색 목걸이를 건드리며 말했다. 황후와 마찬가지로 황녀는 흘러내린 금발을 어깨 뒤로 넘기고 내게 가까이 왔다.

“정말 아름답네요..! 샤트라가 웬일로 좋은 선물을 줬네요. 나한텐 하나도 주지 않았으면서.”

황녀의 귀여운 질투에 난 손으로 입가를 가리고 웃었다. 그녀는 목걸이의 보석을 빤히 바라보다 내게 물었다.

“이걸로 어떻게 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독이 근처에 있다면 이 녹빛의 보석이 즉시 붉은빛으로 변해요. 황후 폐하께서도 우연히 제 목걸이를 찻잔에 가져다 대셨다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나중에 샤트라를 만나면 나도 하나 달라고 매달려 볼까요?”

황녀가 장난꾸러기처럼 씩 웃으며 물어보는 질문에 나는 애매히 웃었다.

“샤크트릴라님은 황녀 전하를 많이 아껴주시는 흔쾌히 주실 거예요.”

“하하, 농담이에요. 사실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하지만 난 이 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새장에 갇혔으니 괜찮을 거예요.”

“전하...”

황궁도 완벽히 안전하다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나마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 그런 황궁을 서슴없이 새장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을 새장 속에 갇힌 새로 묘사한 황녀는 쓸쓸한 눈빛이었다. 차라리 그녀의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었지만 허락 없이 황족의 몸에 손을 대는 행위는 엄연히 금지였다.

그렇기에 지금 내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대화를 건네는 것뿐이었다.

“언젠가 자유로이 날 수 있을 날이 올 거예요.”

“꿈속에서라도 날아보고 싶네요.”

황녀는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어딘가 슬픈 기색이 보였다.

“대화가 왜 여기로 샜죠? 여튼,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라버니가 공녀를 쫓아다닌다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럼 왜 그런 소문이 났을까요?”

페르세지아 황녀, 그녀는 오늘 소문에 대해 자세히 파헤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 같았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라 어떻게든 넘겨보려 했지만 황녀는 결국 본인이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어내며 날 보내줬다. 황녀와 보내는 시간은 즐거웠지만 때때론 부담스럽기도 했다.

그래도 내게 많은 호감을 보여준 그녀에게 고마웠다.

기분 좋은 마음을 안고 저택에 돌아가려던 참에 나는 그들을 발견했다. 멀리서만 봐도 누군지 확연히 알 수 있었다. 내 전생이었다면 모를까, 지금 이 나라에서는 검은 머리가 흔치 않았으니까.

“레, 레칸 전하...”

“우린 초면이 아니던가? 감히 내 이름을 부르다니.”

항상 무표정한 황태자와 안절부절 못하는 아르체아였다. 어쩐지 그 둘은 왠지 모르게 다툰 것 같았지만 황태자의 말을 들어보니 이 둘은 뭔가 틀어진 것 같았다.

내가 신경 쓸 이유도 없고 상관도 없는 일이었기에 그냥 보지 못한 척 지나가려 했지만 이미 황태자가 나를 눈에 담은 상태였다. 그의 시선을 따라 아르체아 또한 나를 바라보았다. 난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제국의 고귀하신 레르칸트 샤 지크레핀 전하를 뵙습니다. 멜튀스 영애, 안녕하세요.”

“데네아 영애.”

“... 안녕하세요, 데네아 영애.”

“여기서 무얼 하고 계셨는지..?”

“데네아 영애, 마침 잘 왔군. 생판 처음 보는 영애가 내게 들이대며 감히 황태자의 이름을 불러대는데, 정말이지 무례하기 짝이 없는 여자가 아닌가?”

황태자는 아르체아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여기며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난 의아했다. 분명 며칠 전까지는 그렇게나 아끼고 애정을 주던 여인인데 왜 갑자기 모르는 척을 하는 거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죠, 멜튀스 영애?”

그가 이러는 영문을 듣기 위해 아르체아에게 물었다. 그녀는 상처 받은 듯한 표정으로 황태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멜튀스 영애?”

난 재차 그녀를 불렀지만 그녀는 무어라 중얼거리며 전혀 내 말을 듣고 있지 않아 보였다.

“내가 말했지 않나, 무례하기 짝이 없다고. 무려 황태자의 이름을 멋대로 부른 데다, 이젠 백작가의 영애 주제에 공녀의 말을 듣지도 않겠다는 건가.”

나는 머리가 지끈거려 오는 것을 느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들의 싸움에 중재를 서야 하는 건지,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황태자와 아르체아가 날 바라보아도 그냥 보지 못한 척 지나갈걸 하고 후회했다.

“멜튀스 영애, 정신 좀 차려 봐요.”

난 아르체아의 어개를 잡고 약하게 흔들었다. 하지만 아르체아는 그런 내 행동에도 멍하니 계속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은 어딘가 풀려 보였다.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 있을 가치가 없는 것 같군. 데네아 영애, 그럼 다시 보지.”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본인이 좀 치우지...’

나와 아르체아만을 두고 뒤돌아 가버리는 황태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인상을 찌푸렸다. 하여튼 간에 이기적인 남자다.

“아르체아, 내 말 들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복도에서 이야기를 하기엔 장소가 좋지 않았기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녀를 아무도 없는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백합궁에 남는 방은 널리고 널렸으니 하나쯤은 잠시 빌려도 되겠지?

문을 닫고, 나는 그녀가 뭐라 중얼거리는지 듣기 위해 고개를 숙여 귀를 기울였다.

“... 이야... 때문이야... 너, 네가... 그를 가져가버렸어...”

당최 알 수 없는 말만 하는 그녀 때문에 나는 머리가 다시금 아파왔다. 이대로 그녀를 두고 저택에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면 괜한 구설수에 내가 휘말려 들게 된다. 내가 아르체아를 데리고 가는 걸 이미 몇몇 시녀들이 봤기 때문이다.

“하아.. 대체 뭐가 문제인 건데.”

“너 때문이잖아...”

아르체아의 풀린 동공은 다시 돌아와 있었다.

“뭐?”

“네가.. 네가 그를 내게서 뺏어 갔잖아!”

아르체아는 마지막에 거의 악을 써댔다. 그녀의 중얼거림 때문에 귀를 가까이 가져다 댄 나로서는 직통으로 그녀의 악을 들은 셈이다. 머리로도 모자라서 이젠 귀마저 통증이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뭐든 간에, 지금 당장 집에 가고 싶었다. 이딴 황궁에 있을 것이 아니라.

내 귀에 잊지 못할 고통을 준 아르체아는 이어 내 어깨를 거칠게 잡았다. 아픔에 얼굴을 찡그리고 나는 그녀의 손을 떨쳐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괜히 큰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기에 나는 조용하지만 싸늘하게 말했다. 아르체아 그녀는 황태자와 있을 땐 정신이 나간 표정이더니, 지금은 분노에 가득 차 보였다.

“너, 너 때문이야..!”

“뭐가? 뭐가 나 때문인데? 제대로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말을 해줘야지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녀 덕분에 짜증이 오를 대로 오른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솔직히 참을 필요도 없었다. 사람을 복잡하게만 만들어놓고 휙 가버린 황태자와 날 답답하게 하는 데에 재주가 있어 보이는 아르체아. 끼어들지 말라 하여 자진해서 그냥 신경도 쓰지 않았더니만, 이제 와서 보이는 관심은 필요 없었다.

지금 아르체아가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화가 났다.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원하는 대로 해줬더니 나 때문이라고 말하며 내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그럼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지?

“네가 레칸을... 내게서 레칸을 뺏어갔어!”

아까부터 계속 나 때문이라는 둥, 내가 황태자를 뺏어갔다는 등의 말만 지껄이는 아르체아를 한심하다는 시선으로 보았다. 이내 난 혀를 차며 표정을 숨기지 않고 말했다.

“너, 진짜 어이없다.”

“...뭐?”

“내가 그를 뺏어가? 내가? 하, 난 분명히 말했어, 기억 안 나? 왜, 솔직히 말해 줘? 난 그가 정말 싫어. 전이라면 몰라도 이렇게 보내오는 관심이나 호기심 따위 그냥 집어치워 줬으면 좋겠어. 레칸이 내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짜증 나고,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짜증 나.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 알아서 빠져줬더니 하는 소리가 뭐? 내가 뺏어갔다고? 이걸 진짜 말이라고 하는 소리야?”

난 속사포처럼 삭혀왔던 속마음을 모두 다 내보냈다. 숨도 쉬지 않고 말을 뱉은 바람에 나는 조금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 그럼 왜... 왜 레칸이 전처럼 날 봐주지 않는 건데...”

아르체아는 거의 울먹이듯 물었다. 그녀의 눈가는 어느새 촉촉해져 있었다. 검은 눈망울이 나를 향하자 난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길래 레칸 그가 내게 다가오냐고. 둘이 사이좋은 거 아니었어?”

“역시 그 사제 때문이야... 사제가 모든 걸 망쳤어... 아니, 아니야. 네가 망친 게 맞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고개를 푹 숙인 아르체아는 혼자 중얼거리다, 고개를 치켜들며 내게 외쳤다. 이젠 같은 말만 반복하는 아르체아에게 대꾸할 힘도 없었다. 내가 아무리 해명해봤자 그녀는 또다시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릴 것이 뻔했다.

“하아... 말이 전혀 안 통하는구나.”

난 피곤함에 아르체아를 내버려두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다음에 우연이라도 마주친다면 그땐 재빨리 피하겠다고 다짐한 채 몸을 돌린 순간, 아르체아의 한 마디에 난 옮기려던 걸음을 멈췄다.

“그 목걸이만 없었어도!”

‘목걸이?’

“내 목걸이가 너랑 무슨 상관... 너, 설마...?”

목걸이 타령하는 아르체아에게 따지듯 말하려는데 그녀가 말한 목걸이가 어떤 목걸이인지 그제야 생각났다. 나는 혹시나 했지만 아르체아는 자신이 어떤 파문을 일으킬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계속 외쳤다.

“목걸이만..! 목걸이만 없었어도! 그냥 너 자체만 없었어도! 완벽할 수 있었는-”

짜악-!

뺨을 때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 가득 울려 퍼졌다. 생각보다 컸던 소리를 듣고 달려올 시녀들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곳이 워낙 구석에 있기도 하고, 눈에 잘 띄지도 않아 그럴 가능성을 적다고 여겼다.

“내가 없었으면 완벽할 수 있었다고? 너 미쳤어?”

아르체아는 내가 자신을 때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은 지 붉게 달아오른 뺨 한쪽을 부여잡고 멍하니 날 쳐다봤다. 찰나의 침묵이 이어지고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아르체아를 당황시키기에 충분했다.

“너구나, 황후 폐하의 잔에 독을 넣은 사람이.”

“....”

차가운 내 말에 아르체아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떨리는 검은 동공과 불안한 눈빛은 숨길 수 없었다. 이로써 그녀가 황후의 찻잔에 독을 넣은 범인이라는 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었지만 난 한 번 그녀를 찔러 보기로 했다.

“왜 그랬어? 황후 폐하를 독살해서 뭐 어쩌려고.”

“나, 난 그저 황후의 마음을 얻으려고...”

아르체아는 결국 실토해냈다. 그저 의심이 가서 떠본 것뿐이었는데 미끼를 잘 낚아챘다. 그러나 난 그녀의 동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황후 폐하의 환심을 사기 위해 독을 넣는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난 그녀를 황당하게 쳐다봤다. 무슨 독이길래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사용한단 말인가.

“그, 그건 목숨은 위험하지 않은 거였어. 그냥 당사자가 내게 호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독을 넣었냐고. 폐하의 환심을 사서 뭐하게?”

“그 여자는 나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으니까. 모든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 줘야 해... 전.. 던 것처럼...”

그녀의 목소리가 갈수록 점점 작아졌기에 뒷말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다.

“미치겠네, 진짜. 너 진짜 제대로 돌았구나.”

난 심각해 보이는 아르체아 때문에 나와 그녀만 두고 떠난 황태자를 다시 속으로 욕했다. 자기 연인은 자기가 챙길 것이지, 왜 나한테 떠 넘겨?

“레칸만은, 레칸만큼은 나를 계속 봐줄 거라 생각했는데... 흐흑..”

아르체아의 울먹거림은 이내 흐느낌이 되었다. 그러고 보니 그녀가 방금 내게 이렇게 말했다. 황후에게 쓰려던 독은 아르체아 본인에게 호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독이라고.

아르체아의 독과 황태자의 갑작스러운 변화. 그리고, 조금 전 아르체아가 말한 사제와 목걸이. 생각이 거기까지 뻗치자 난 소름 끼치는 생각이 들었다.

‘설마, 얘. 황태자에게 먼저 손을 쓴 건 아니겠지..?’

절로 몸이 부르르 떨렸다. 그저 추측에 불과했지만 만일 사실이라면 내가 의아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모두 풀린다.

만약에 아르체아가 황태자에게 그 독을 써서 그의 마음을 돌리고, 그의 사랑을 얻어냈지만 지난 황후의 사건으로 인해 사제의 축복으로 독이 모두 정화되었다면?

‘끔찍해.’

차라리 그녀가 황태자에게까지 독을 쓴 게 아니길 바랐다. 그럼 과거에도 똑같은 상황이 나왔었을 수도 있었다는 게 아닌가.

“날 신고하려 한다면 관두는 게 좋을 거야. 그 범인이 나라는 증거가 없잖아.”

아까부터 아무 말 없이 고민하는 나를 보며 내심 불안했나 보다. 아르체아는 손가락으로 날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에 난 픽 하고 웃었다.

“왜, 두려워?”

“아니! 저, 전혀!”

“뭐, 좋아. 증거가 없는 건 맞으니까.”

내 말에 아르체아는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서서히 풀었다. 안도감에 몸에서 힘이 풀린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날 어떻게 할 거야...?”

“너 알아서 해. 대신, 전에 말한 건 지켜. 황태자를 구워삶든, 유혹하든, 다시 그 독을 먹이든 난 신경 안 쓸 테니까, 제발 날 내버려 둬. 난 진심으로 너희 둘한테서 최대한 떨어지고 싶거든?”

“... 좋아.”

그렇게 우리 둘 사이의 이야기는 끝났다. 내게 손해는 없다. 황태자가 중독되어도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고, 아르체아가 다시 황태자를 중독시켜도 목숨은 위험하지 않은 다니까.

게다가 황태자가 다시 아르체아에게로 돌아간다면 그야말로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아르체아에게 기회를 주는 건 내 자비 따위가 아니었다. 둘 다 서로에게 좋은 일이고, 전에는 어떻게 중독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중독 시키는 것부터가 거의 불가한 일이었다. 이번에는 힘들 것이다. 황후의 사건도 있고 하여 경비 태세가 강화될 것이니까.

이로써 아르체아가 내 말에 부정하지 않는 걸 보아, 그녀가 황태자에게 그 독을 먹였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해졌다.

그제야 난 복잡한 머리를 안고 저택에 돌아왔다. 남은 시간은 모두 저택 안에서 책을 읽으며 노는 데에 투자했다. 저녁을 먹고, 창밖의 달빛을 감상하며 하루를 정리하려는데, 오늘도 불청객이 찾아왔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반가운 불청객이었다.

“아가씨, 좋은 밤.”

싱글싱글 웃는 그를 보며 난 작게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나 반가울 줄은 몰랐네요.”

“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마치 본인의 집이라도 되는 듯 내 테라스에 편안히 안착하여 나와 대화를 나누는 그가 정말이지 반가웠다.

“그냥 그런 게 있었어요. 머리가 많이 좀 아플 일이랄까.”

“아니, 우리 아가씨를 누가 머리 아프게 했어요.”

로빈은 한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정체도 알 수 없는 자가 제국의 공녀에게 이렇게 나오는 건 무례일 수도 있었지만 난 오히려 누군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걸 즐겼다. 마치 포근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아졌다. 눈을 감고 머리카락 사이로 파고드는 로빈의 손길을 느끼며 난 나른하게 말했다.

“누가 들으면 당신이 내 시녀라도 되는 줄 알겠네요.”

“그거 영광인데요? 아가씨의 시녀라니.”

그 말에 난 눈을 뜨고 로빈을 쳐다보았다.

“뭐, 뭐예요, 그 변태를 쳐다보는 눈빛은.”

“... 기분 탓이에요.”

“와, 너무하네.”

로빈은 투덜거리면서도 머리를 쓰다듬은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

“그나저나, 안 추워요?”

“뭐가요?”

“그 숄이랑 잠옷 되게 얇아 보이는데. 나 이래 봬도 남잔데 그렇게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어머, 그런 생각을 다 하다니.. 역시...”

난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다시 쳐다보았고, 로빈은 억울하다는 듯 항변했다.

“아니, 난 변태가 아니라니까요!”

“누가 뭐랬어요? 왜요, 찔려요 설마?”

난 길게 늘어진 숄의 한쪽으로 입가를 가리며 웃었다.

“아가씨의 눈빛이 이상하잖아요. 그 시선은 뭔데요...”

로빈은 답지 않게 시무룩했다. 그의 모습에 난 결국 입 밖으로 웃음소리를 냈다.

그는 신기하고 생소한 반응으로 지친 내 마음을 달래주었다. 아르체아와 황태자의 문제로 하루 종일 복잡했던 내 머리는 달빛을 받아 더욱 반짝이는 은발을 보는 순간 모두 비워졌다.

갑자기 떠오른 의문이지만, 로빈이 아닌 다른 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편안했을까?

쪼르륵

높이 들어 올려진 찻주전자에서 맑은 색의 홍차가 경쾌한 소리를 내며 찻잔에 떨어져 내렸다. 탁 소리와 함께 주전자가 탁자 위에 놓이고 상대방이 찻잔을 들 때까지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녀가 그리하도록 시켰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샤트라님.”

“별 거 아냐. 이건 내 취미 중 하나니까.”

나는 맞은편에 앉아 있는 새빨간 머리의 마탑주에게 고개를 숙임으로 감사를 표했다.

살다 살다 마탑주가 친히 내려준 차를 마실 줄은 상상도 못 했지만. 뭐, 감탄할 포인트를 잡자면 그 유명한 마탑주와 단둘이 있는 것부터 신기해해야 하나?

“그래서 어디 간다고?”

샤크트릴라는 마저 하던 이야기를 꺼냈다. 샤트라가 내려준 홍차를 마시던 나는 얼른 그것을 삼키고 대답했다. 갓 끓여낸 차라 목으로 뜨거운 물이 흘러내려 가는 것이 생생히 느껴졌다.

“라네아요. 샤트라님은 가보셨나요?”

“어... 그랬던 것 같아. 그쪽 황실에서 뭐가 그리 급하다고 마탑에 전언을 보내왔더라고.”

샤크트릴라는 기억을 더듬으며 뭔가 생각이 날락 말락 하는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라네아에 무슨 일 있었나요?”

“그러니까 날 부른 거겠지. 얼마 만이더라... 한 몇 십 년 전은 됐던 것 같아.”

그녀는 대충 틀어 올려 묶은 머리에서 나온 잔머리가 거슬렸는지 손가락 한 번 튕기는 것으로 머리끈을 없애버렸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태워버렸다.

타다닥 하며 뭔가 타는 소리가 작게 들리더니 샤크트릴라의 머리끈의 흔적이 공중으로 흩어져버렸고, 그와 동시에 그녀의 긴 생머리가 커튼이 내려오듯 물결쳤다.

“몇 \십 년이면 정말 오래... 되었네요.”

나는 샤트라의 말을 곱씹어보다가 의아한 점을 발견했다. 지금 외견상으로만 봤을 땐 샤트라는 많아도 스무 살 중후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거기서 몇십 년이면 샤트라의 나이는 최소한 십 대였을 것이다.

‘혹시 샤트라가 천재라 십 대에 마탑주가 된 건지도?’

마탑주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더니 그 말이 꼭 맞는 셈이었다.

“그런데 왜 라네아에 가려는 거야?”

“아, 저도 라네아 황실에서 초청이 왔거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며칠 전부터 날 궁금하게 만든 의문이었다. 라네아라면 나와 아무런 연관도 없을 텐데, 오라버니라면 모를까.

“흐음... 널 그쪽으로 초대한 명분은 새 황제 즉위라는 건 알겠는데, 왜 널 초대한 건진 나도 모르겠다. 뭐, 불안하기라도 한 거야?”

샤크트릴라가 농담 삼아 던진 말에 나도 배시시 웃으며 대답했다.

“첫 여행이라서 그런지 불안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래도 오라버니께서 함께 가주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한편으론 설레기도 하고. 저, 한 번도 제국 밖으로는 나가보지 못했거든요.”

내게 여행이란 건 조금 낯선 존재였다, 첫 번째 생에선 앞뒤 분간도 못 하고, 다시 떠올려도 본능적으로 주먹이 꽉 쥐어지는 흑역사를 창조하느라 바빴다. 두 번째는 학업 때문도 있지만 내가 피한 것도 있었다. 기껏해야 동네 근처나 친구들 따라 국내 여행이라도 한 두 번 해본 정도?

“하기야 검의 괴물이라 불리는 네 오라버니가 같이 간다면 라네아도 허튼짓은 안 하겠지. 무엇보다, 라네아의 파릇파릇한 새 황제랑 네 오라버니랑 친구 사이라며? 그럼 더더욱 아니지. 그렇지.”

암암 거리며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인 샤크트릴라는 붉은 눈을 반짝이며 내게 거의 외치듯 말했다.

"세리, 만약 가는 길이 힘들면 그냥 나한테 말해! 라네아, 그까짓 거 눈 한 번 깜박이면 간다?”

듬직하게 말하는 샤크트릴라를 보며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말씀만으로도 감사드려요.”

“응? 말로만 하는 거 아닌데?”

마탑주라는 직책이 바쁠 것이라는 편견 탓인지 나는 샤크트릴라가 라네아까지 데려다 준다는 말이 그저 빈말인 줄 알았다.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까진 조금의 시간이 걸렸다.

“어... 바쁘시지 않으셔요?”

“누가? 내가? 전혀 아닌데?”

샤크트릴라는 긴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키며 되물었다. 이내 그녀는 맑고 유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세리. 아무리 내가 마탑주라고 해도 지인 하나 못 데려다줄 만큼 바쁜 건 아니야.”

그녀는 진정하고 내게 말했다.

“와, 그런데 어딜 보고 내가 바쁘다고 생각한 거야? 나 요즘 되게 한가해 보이는 이미지 아니었나?”

“들은 것도 있고, 해서요...”

“어머나아, 누구한테 들었는지 궁금하네? 어떤 우리 아기가 입을 탈탈 털었을까?”

그녀의 표정을 보니 차마 그 5총사라고는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입을 여는 순간 그들은 오늘 하루동안 날 원망하게 될지도 모르니.

‘어쩌면 삐질지도 모르지.’

그동안 몇 번 더 만나봤던 그들의 성격상 아마도 삐질 사람이 한 둘이 아닐 것이다. 그나마 차가워 보이는 서티는 신경 쓰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진땀을 흘리며 샤크트릴라의 추궁에 입을 꾹 다물고 있을 무렵,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다.

“왜.”

“공녀님만을 위한, 공녀님에게 바치는, 공녀님의 마음에 쏙 드실 것이 분명한 인테리어가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이 마탑 최고의 금발의 미남 엘브가 엘브와 머저리 4형제를 대표하여 이렇게 찾아 왔습니다-악!”

“너, 너 그 말버릇 좀 고쳐라. 세리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활기차게 문을 열고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할만큼 빠르게 말한 엘브의 이마에 샤크트릴라에 의해 조종된 문짝이 날아들었다. 엘브는 그 즉시 바닥에 주저앉으며 이마를 싸매고 신음을 흘렸고, 마법을 펼친 당사자는 태연히 눈살을 찌푸리며 그에게 한심하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억울하다는 듯 노란색 머리를 손으로 쓸어 올려, 붉어진 이마를 우리에게 보여준 엘브는 샤크트릴라에게 항변했다.

“이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기 위해 전 누구보다 빠르게 머저.. 남들과는 다르게 무려 텔레포트! 까지 써가면서 이곳에 온 거라구요!”

“너 정도 급 마법사라면 텔레포트 정도야 껌 아냐?”

“그거야 탑주님은 마탑주시니까 그런-”

“세리, 저 이상한 소리나 해대는 놈은 내비 두고 가자.”

“탑주님 제 말 좀-!”

샤크트릴라는 정말로 애절하게 그녀를 부르는 엘브를 두고 순식간에 내 손을 잡더니 이동했다. 이번엔 공중에서 천천히 낙하하듯 내려왔기 때문에 난 드레스 자락을 밟지 않도록 보라색의 천을 살짝 들어 올렸다.

“오오, 공녀님 오셨어요?”

엘브와 엮여 탑 내에서 덤덤즈로 불리는 보라 머리의 테르브,

“... 안녕하세요, 공녀님.”

“환영합니다, 레이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무표정의 푸른 머리 서티와 그와 상반되는 주홍 머리에 실눈의 텐.

“오셨습니까?”

그리고 텐보단 짧지만 어느새 길어진 머리를 살짝 묶은 베타.

그들 사이에서 아직도 붉은 이마를 감싼 엘브가 나타나니 이제야 다들 한자리에서 볼 수 있었다. 아마도 이 자리가 라네아에 가는 날까진 마지막이 될 것 같았다. 곧 오라버니께서 돌아오시고 며칠간 저택에서 여러 챙길 것이나 라네아의 예절 등 배워둬야 할 것들이 생길 예정이니까.

한동안은 시끌벅적한 마법사들을 못 본다는 생각에 조금은 섭섭했다.

이젠 거의 정규적으로 마탑에 놀러 오는 나를 보며 그들이 인사했다.

“다들 좋은 오후네요.”

물론 나도 저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황녀가 나를 부른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후였다. 그 말은 오라버니께서 도착하시는 날이 곧 다가왔다는 소리였다.

“제국의 고결하신 페르세지아 샤 지크레핀 메르첸 제 2 황녀 전하를 뵙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요, 공녀?”

“네, 염려해주신 덕에요.”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한 뒤 다짜고짜 손을 붙잡고 소파로 이끄는 바람에 조금은 당황했다.

“샤트라에게 다 들었어요. 곧 라네아로 떠난다면서요?”

“벌써 그렇게 전해졌나요...”

‘그거 참 빠르네.’

샤트라에게 말해두었으니 황녀가 알아챌 것은 이른 시일 안 일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나 빠르게 물어보다니. 황녀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다시 물었다.

“어머머, 샤트라가 괜히 한 소린 줄 알았더니만 사실이었어요? 왜요?”

내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샤크트릴라가 황녀에게 넌시시라도 흘린 것 같았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라네아 황실에서 저를 초청했다고 들었어요.”

“부럽네요, 할 수만 있다면 같이 가고 싶은데.”

새장 속의 화려한 새 한 마리는 진심으로 부러운 듯한 기색을 보였다. 어쩐지 틴을 소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틴은 세간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그동안 잊긴 했지만 폴라테스트란 종족이 대부분이 멸종되어 이제 틴 하나 밖에 없을 지도 모를 신비로운 종족인데, 그 후손이 공개 된다 치면 학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날 것이 뻔하다.

혹시나 하지만 호기심 많은 어느 마법사들이 틴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싶어 할 지도 모른다. 사실상 틴은 나보단 로빈 소유 아래 있는 것이 그나마 안전했다.

잠깐 넋을 놓고 있던 것인지 황녀의 목소리가 흐릿하다, 점차 선명하게 들려왔다.

“공녀, 괜찮아요?”

“아, 아, 네. 죄송해요. 어디까지 말씀하셨죠?

“라네아에 다녀오면 꼭 이야기해주기로 약속하는 거요.”

“그럼요. 황녀님을 위해서라도 라네아에서 보고 겪은 건 모두 기억하고 있을게요.”

그리 무리하지 않은 부탁이라 나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차해서 잊어버리기라도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노트에 적어두기라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은은하고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밀크티를 한 모금 마셨다. 온몸에 따스한 기운이 퍼져 나가는 느낌이다. 곁에 있는 초콜릿 조각을 들어 입안에 쏙 넣고 녹여 먹으니 오랜만에 맛보는 당분에 몸이 부르르 떨렸다.

내 옆에서는 황녀가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그 붉은 눈을 예쁘게 반달로 접고 있었다.

“오라버니와는 어때요, 요즘?”

황태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 그다지 답하고 싶진 않았다. 일단 내겐 아르체아나 황태자의 이름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해져 왔다. 괜히 안 좋은 걸 떠올려서 정신에 영향을 끼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우연이라도 만나서 내 정신력을 갉아먹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고.

“음... 최근에는 뵌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황태자 때문에 만나기라도 할까 봐 요즘 도서관도 가지 않은 지 꽤 돼서...’

“그래요? 오라버니께서 요즘 부쩍 황궁 도서관에 들르시는 날이 많으셔서, 혹시라도 공녀와 관련이 있나 싶었죠.”

“그렇군요... 거기까지는 저도 몰랐네요.”

그러게, 왜 황태자의 취미가 독서가 되어 버렸을까. 나보고 그냥 아예 도서관에 오지 말라고 항의라도 하는 것이려나?

라네아 제국의 현 황제, 엘라스반 카논 뷔젠테 라네아 는 냉철하기론 옆 나라 지크레핀의 레르칸트 황태자와 견줄 만큼 소문이 자자한 남자였다.

레르칸트 황태자가 자신보다 낮은 이에겐 무시를 바탕으로 차갑게 대한다면, 엘라스반 황제는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춘다는 것이 그 둘의 차이였다.

그런 엘라스반이 친근하게 여기는 사람은 현재로서 고작 3명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첫 번째는 그의 어머니, 아리아 황태후. 두 번째는 그의 누이, 엘라티아 황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방금 황제의 집무실에 찾아온 헤르베디 데네아.

그의 친우였다.

“네가 여긴 웬일이지, 헤르베디?”

엘라스반은 글이 빼곡하게 쓰여 있는 종이에 서명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자신의 친우가 이렇게 찾아오는 일은 흔치 않았지만, 지금 그에겐 그저 불청객일 뿐이었다.

“제가 여기에 왜 온 것인지는 현명하신 황제 폐하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헤르베디는 손톱이 살을 파고들기 전에 주먹을 꾹 쥐는 것을 멈췄다. 최근 그가 들은 허무맹랑한 소문이 그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그리고 헤르베디가 생각하기엔-헛소문의 출처가 황제라는 것을 알게 되자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제 여동생은 대체 왜 초청하신 겁니까?”

“동생? 아아, 데네아 공녀 말하는 건가?”

“다 알고 계시면서 모르는 척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를 어째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초대하신 겁니까?”

엘라스반은 그 말에 잠시 고민하다가 나름 명쾌한 답을 내놓았다.

“네가 알면 반대할 것 같았으니까.”

물론 그 대답은 헤르베디의 화에 불씨를 끼얹는 꼴이 되었다.

“그런 이유로... 멀쩡히 제 나라에서 잘 지내는 제 누이를 초대하신 겁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다른 이유도 있지. 그런데 이런 시기가 아니면 또 언제 보겠어,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여동생을.”

헤르베디는 엘라스반의 말에 어이가 가루가 되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또한 그의 말에는 오해의 소지가 하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을 자랑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 전 폐하께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했어.”

“하지 않았습니다.”

“했어.”

“황제 폐하. 후...”

무어라 더 말을 하려던 헤르베디는 같은 말만 반복하는 엘라스반 때문에 깊은 한숨을 쉬었다.

헤르베디는 이런 식으로 세리스틴에게 엘라스반을 소개해주는 것이 달갑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엘라스반의 즉위식과 무도회가 열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필시 엘라스반 그는 이를 모두 예측하고 자신의 여동생을 초대한 것이 분명했다.

‘가뜩이나 몸도 약한 아이를 집도 아니고, 머나먼 타국에서 만나야 한다니...’

제국이란 이름에 걸맞게 라네아와 지크레핀은 모든 나라를 통틀어 대륙이 가장 넓기로 손꼽히는 나라였다. 헤르베디는 세리스틴을 라네아에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불편한 것을 느꼈다.

“왜, 좋지 않아? 오랜만에 가족을 보는 거 아니었나?”

엘라스반은 현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는 헤르베디가 이해가지 않았다. 세리스틴에게 호기심을 느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이나 타국에서 홀로 타 황실을 위해 일하는 헤르베디에게 보상이라도 주고 싶은 이유가 더 컸다.

지금이야 헤르베디에겐 데네아 공작저 못지않은 저택과 자금이 풍족하게 있다곤 하지만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분명 있을 것으로 생각한 탓이었다.

“네가 직접 데려와.”

“...예?”

자신의 말에 눈살을 미세하게 찌푸리며 되묻는 헤르베디에게 엘라스반은 다시금 말했다.

“네가 직접 지크레핀에 가서 여동생 데리고 오라고. 휴가는 넉넉하게 줄 테니까 돌아오기 전에 가족들과 상봉이라도 좀 하고.”

엘라스반은 자신의 용건은 끝났다는 듯 다시 서류더미에 고개를 박고 산더미처럼 쌓인 종이들을 줄여나갔다.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는 표시였다.

6년 차 친우 사이에 이를 모를 리 없는 헤르베디는 그저 한숨만 쉬었다.

“알겠습니다. 휴가는 언제 주실 겁니까?”

“글쎄, 일단 이왕 온 김에 밀린 일 처리 좀 하고 가지그래?”

“제게 밀린 일거리는 없습니다. 대단하신, 폐하께서 친히 처리하셔야죠.”

헤르베디는 현실과 타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세리스틴을 데려오라는 것은 썩 좋지 않았지만 그는 오랜만에 가는 김에 집에서 지낼 수 있을 만큼 지내다 갈 생각이었다.

그동안의 라네아에서의 일들은 대부분 엘라스반이 처리하거나, 행정반에서 죽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럼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제 폐하.”

반듯하게 허리를 숙이고 뒤돌아 나가려던 헤르베디는 엘라스반의 물음에 걸음을 멈췄다.

“내가 좀 잊고 있었는데, 집 나간 비둘기의 행방은 찾은 건가?”

“그 집 나가셨다고 하신 비둘기님은 소문 하나 없이 자취를 감추셨더라고요. 저희 쪽에서도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 말은 찾았다는 건가?”

서류에서 눈을 뗀 엘라스반에게 헤르베디는 모호하게 말했다.

“딱히 찾아도 찾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이 워낙 숨바꼭질을 좋아하셔서 말이죠.”

고풍스러운 탁자 위에 팔을 올리고 턱을 괸 엘라스반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뭐야, 그게.”

“지크레핀에서 그분 발자취를 찾은 것 같습니다.”

“... 그것참, 우연이라고 해야 하나?”

라네아에 있는 동안 엘라스반 덕분에 눈치 하나 제대로 키운 헤르베디가 선수 쳤다.

“설마하니 제가 지크레핀으로 돌아갈 때 폐하의 비둘기도 같이 데려와 달라는 소리는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눈치도 빨라, 내 친우는. 누굴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어.”

어깨를 한 번 으쓱한 엘라스반의 입에서 명령이란 이름을 앞세운 귀찮은 일거리가 튀어나오기 전에, 헤르베디는 한발 앞서 말을 꺼냈다.

“저희가 찾은 것은 그분께서 지크레핀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송구하지만 찾지 못하였습니다.”

“흠... 그거 아쉽네. 뭐, 좀 더 풀어두는 게 비둘기의 특성상 좋을 텐데 말이지. 그런데 난 내 사랑스러운 비둘기가 자기 형님의 즉위식에는 왔으면 좋겠네.”

“그 분이라면 알아서 찾아오실 확률이 높습니다.”

엘라스반은 어떻게든 휴가 동안 숨바꼭질의 달인을 찾고 싶지 않아 회피하는 헤르베디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내 픽 하고 웃음 짓더니 헤르베디에게 말했다.

“그래, 그놈이라면 충분히 그럴 만도 하지. 됐어. 휴가나 빨리 다녀와.”

“휴가를 주셔야 제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가.”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헤르베디는 꿋꿋이 엘라스반에게 인사를 건네고 집무실의 문을 닫았다. 헤르베디가 집무실에 들어올 때 몸을 사리고 있던 시종장은 조심스레 엘라스반에게 물었다.

“데, 데네아 공자께서 계시지 않을 동안의 그 많은 서류들은 어찌하죠..?”

“뭘 어쩌긴 어째. 그 놈 속해있는 행정부 측으로 모두 보내. 참, 그동안 재상도 좀 쉬었겠다, 그쪽으로도 보내면 되지.”

아무렇지 않게 행정부에서 피눈물 흘릴 소리를 하는 엘라스반에게 시종장이 소심하게 반박했다.

“그리하면 행정부에서 항의가 빗발칠 텐데요. 안 그래도 데네아 공자께서 계시는 동안 재상께서 이제야 살맛이 난다 하시던데...”

“원래 재상으로서 해야 할 일을 데네아 공자가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니었나? 데네아 공자가 차기 재상으로 꼽히고 있다지만 그건 실습이지, 실습,”

“아, 듣고 보니 폐하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엘라스반의 주장을 나름대로 납득한 시종장은 이후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시종장의 변호가 함께한 황제의 주장은 행정부와 은퇴만을 기다리고 있던 재상에게 비명을 뱉어내기엔 충분했다.

“삐르삐이-”

“그래, 그래, 틴. 자.”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틴의 소소한 아침 식사를 챙겨줬다. 조그맣고 통통하던 새끼 때와는 달리 이제는 꽤나 날씬해진 틴은 요새 열매란 열매는 폭풍 흡입하고 있는 중이다.

성장한 만큼 먹어 치운다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것이구나. 전에는 라즈베리나 체리 등을 주로 먹었다면 지금은 웬만한 딸기 정도는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구하기야 어렵지는 않다. 다만 틴이 수도 없이 배고프다고 울어대기에 걱정이 되는 것뿐이지.

“삐이-”

“이젠 안 돼. 아침으로만 벌써 블루베리 한 그릇 먹었잖아.”

“삐...”

방금 먹은 블루베리 다섯 알은 어디로 간 것인지, 기운 없이 내 주위를 맴도는 틴을 보면 황당함과 동시에 틴에 대한 귀여움이 함께 떠올랐다. 가슴 한 구석이 무겁게 내려앉는 듯 했지만 정말 안 된다. 저번에도 하루 평균치 이상을 줬다가 큰일 날 뻔했다.

버릇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적절하게 줘야겠다고 다짐한 것이 어제였다.

“틴, 네가 이 블루베리를 더 먹어서 배탈이라도 나면 내가 로빈에게 면목이 없어.”

“삐이...?”

아니, 진짜 안 되는데...

틴의 그 올망졸망한 금빛 눈동자가 애처롭게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심각하게 망설였다. 틴을 더 바라보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블루베리를 내밀 것 같아서 애써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틴, 나중에 줄게. 블루베리 말고도 맛있는 건 언제든지 있잖니?”

“삐비...”

탁자에 안착하여 내 손등에 머리를 대고 비비는 틴은 내게 크리티컬을 날렸다.

“...딱 하나만이야.”

“삐- 삐르비!”

결국 난 자신의 애교를 최대한 활용하는, 주인과 똑 닮아져가는 영악한 틴에게 당했다. 틴은 기쁘게 울며 내 손에서 잽싸게 블루베리 한 알을 낚아채더니 날아가, 새장으로 돌아갔다. 그 주인에 그 펫이다, 이건가.

“정작 주인이란 사람은 자주 오지도 않고...”

내 의지와는 다르게 튀어 나와버린 속마음을 뒤늦게 깨닫고 나는 당황했다.

잠깐만, 방금 내가 대체 무슨 말을...?

‘...설마 그를 기다린 건가?’

이 복잡하고 애매한,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도리질을 쳤다. 로빈을 생각하니 기분이 찜찜한 것도 이유였다. 내가 그를 기다렸다고? 내가? 그런 수상한 남자를?

정신 차리자, 애당초 그런 남자는 방에 들여오는 게 아니라 비명을 질렀어야 하는 게 맞은 거야. 양손으로 뺨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데, 거울 속의 내가 눈에 띄었다. 볼이 붉어진 채 손을 얼굴 위에 얹은 내가.

최근 나를 심란하게 만드는 건 로빈 뿐만이 아니었다. 나는 며칠 전 황녀가 내게 해준 말을 다시금 떠올렸다.

‘그래도 우리 오라버니 너무 나쁘게 보지 말아줘요.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멜튀스 영애를 자주 찾지 않으시더라고요.’

‘뭐, 결정은 공녀에게 있다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되도록 빨리 공녀의 마음을 정리하지 않으면 휘둘리게 될지도 몰라요.’

달라진 황태자와 새로운 인연의 로빈. 물론 둘 중 하나를 고르라 하면 차라리 로빈을 택하겠다.

‘생각해보니 내가 남자 복이 없는 건가?’

어째 좋아했던 남자와 끌리는 남자 둘 다 꺼려지고, 수상한 점투성이다. 황태자는 일단 진성이라. 로빈은... 정체를 알 수 없어서?

한동안 복잡한 문제들과 직면하며 소파에 다시 앉아 한숨만 푹푹 쉬어대던 중, 문득 오라버니가 떠올랐다.

‘오라버니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니...’

게다가 오라버니께서 머나먼 타국에 홀로 계시는 동안 여동생은 낯선 남자를 방에 들여 놓고 있었다.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지만, 나는 내가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으며 몸을 벌떡 일으켰다.

이런 멍청이 같으니라고!

오라버니께서 그렇게나 신신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 심지어 나를 믿어주시는 부모님께도 알리지 않고.

“아, 이제 오라버니 얼굴을 어떻게 보지...”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또다시 죄를 저질렀다. 틴의 애교로 녹은 마음은 무거운 죄책감에 굳어버렸다.

난 아직도 어린아이인 것만 같았다. 스스로 파악도 못 하다니... 후회하고 있는 시간도 아까웠다.

내가 저지른 짓은 최대한 내 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 다만 로빈이 가지고 있는 텔레포트가 불안했다. 이런 마법 같은 문제는...

‘샤트라와 상의해보는 수밖에.’

마탑주인 그녀는, 밤중에 찾아오는 낯선 남자에 대한 해답을 줄지도 모른다.

“그래서, 한밤중에 남자가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이 무서워서 날 찾아온 거라고?”

“네... 이런 문제로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

“아냐, 아냐. 잘 찾아 왔어, 세리. 세리라면 마탑 문은 언제든지 열린다는 소문 못 들었어?”

샤크트릴라는 손사래를 치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샤크트릴라의 말에 나는 호기심을 느끼며 물었다.

“마탑 안에 그런 소문도 도나요?”

“응. 방금 내가 만든 거야.”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는 것도 잠시, 샤트라는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내게 조용히 물어왔다.

“그런데, 무려 공작가나 되는 곳에 쥐새, 남정네가 숨어들까?”

그 어려운 걸 로빈이 해냅니다. 텔레포트라는 편법으로.

“음... 예를 들면 텔레포트라던가, 그런 순간 이동으로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법이라면 마탑 소속 마법사들만이 사용 할 수 있어. 텔레포트라면 최소한 6서클 이상은 되어야 가능한 거야. 일반인이라면 실현 가능성조차 없는 그런 마법이다, 이거지.”

“아티팩트 같은 걸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든 아티팩트는 전적으로 마탑이 관리해. 뭐, 한 두 개 정도는 제국의 황실이 소유하고 있긴 하지만.”

뭐지, 그럼 로빈은 마법사, 아니면 황실 쪽의 사람인 것인데... 황족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그럼 불법 마법사인가?

“여튼 간에, 불안하면 내가 결계 쳐 줄 테니 걱정하지 마.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저야 감사한 일이죠.”

로빈에 대한 마음이 저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지만 나는 그걸 끊어내야 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다시는 볼 일 없었으면 했다.

“아, 아니다. 혹시 밤에 시간 괜찮아?”

“네? 네, 너무 늦은 시간만 아니라면...”

갑자기 시간을 물어보는 샤크트릴라의 의도가 궁금했다. 곧 이어 그녀는 무언가 계획을 꾸미는 듯한 웃음을 입에 달고 말했다.

“밤이야말로 은신자에겐 최적의 시간이지. 그냥 놀라지나 마.”

나는 한순간 샤크트릴라의 사악한 미소를 목격하였지만 입을 다물었다. 왠지 모르게 즐거워 보이는 샤크트릴라는 만면에서 흑막을 걷어내고 내게 물었다.

“또 다른 걱정거리나 문제는 없어?”

“네, 네?”

“뭔가 답답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녀는 옆으로 흘러내린 붉은 머리카락을 한 움큼 잡아 배배 꼬았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루비 같은 눈동자를 보자 절로 입에서는 말이 튀어나왔다.

“제 주변에 괜찮은 남자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당혹스러운 샤크트릴라의 표정이 보였다. 나는 작은 한숨을 쉬며 계속 말을 이어갔다.

“오래 전부터 연애가 하고 싶었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세, 세리. 연애가 하고 싶다고?”

“네...”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 고민이었는데, 샤크트릴라에게 털어놓으면 그녀에겐 미안했지만 뭐라도 해결책을 주지 않을 까 하는 그런 믿음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내게, 뭐랄까... 부모님을 대신할 제 2의 보호자?

“그럼 소개팅이나 모임 같은 곳에 자주 가보면 되지 않을까? 아니, 애초에 네가 원하는 이상형은 누군데?”

“일단 매너가 좋아야 해요. 외모는 둘째 치더라도, 확실한 신분이 있으면 더 좋고요. 괜히 수상한 사람에게 끌렸다가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안경?”

“안경? 웬 안경?”

전부터 생각 했던 것인데, 로빈이나 황태자가 안경을 썼다면 정말 심장에 무리가 갈 것 같다고 생각했다. 아, 당연하지만 매너는 언제나 기본이다.

지금도 상상만으로 안경을 씌워본다면 아무리 황태자라도 설렌다.

“음... 너 취향이 상당히 확고하구나? 그렇게 환상적인 것 같지는 않고.”

“문제라면 제 주변에 없다는 것일까요?”

“세상을 넓으니 그런 남자야 한 두 명은 있겠지. 네가 말한대로 매너도, 신분도 중요해. 일단 인성이 괜찮으면 기본은 하는 거잖아? 그런데 있잖아.”

샤크트릴라는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 잠시 뜸을 들이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연애는 한눈에 딱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다른 거 없이 이 남자다, 하고 마음이 끌리는 거지. 연애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게 어디 있어? 그 다음에 그 남자에 대해 알아보는 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해.”

샤크트릴라는 강한 인상이나 마탑주라는 직책 때문에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을 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그리도 잘 충고해주는지 모르겠다. 그런 내 의문을 눈치 채기라도 했는지 샤크트릴라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이 내가 연애 한 번도 못 해 본 사람처럼 보여?”

“의외랄까요... 샤트라님은 스스로 사랑은 거부하실 것 같았어요.”

“하하, 내 밑에 얘들도 그렇게 말하던데. 나, 이래 봬도 연애 두세 번 정도는 해봤어.”

“정말요?”

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다. 이상한 점은, 샤크트릴라는 마냥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이 슬퍼 보였다. 뭐지?

“뭐... 안타깝게도 그 자식들은 나와 인연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말로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샤크트릴라가 이내 밝은 표정으로 내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다면 침묵은 계속되었을 것이다.

“뭐든 간에,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정하는 거야.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게 아니라.”

샤크트릴라가 황녀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황녀가 샤크트릴라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이 둘은 어딘지 모르게 닮은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니다.

샤크트릴라에게 고민 상담 아닌 상담을 받은 후 나는 조금 후련해진 채로 저택에 돌아갔다. 샤크트릴라는 곧 바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는 했지만 밖에 나온 김에 쇼핑이라도 할 겸, 해서 사양했다.

배웅 나와 준 샤크트릴라의 께름칙한 미소가 마음에 걸렸지만 이내 털어내고 이제 며칠 뒤 면 돌아오실 오라버니와 라네아를 떠올렸다. 요즘 라네아로 떠난다는 일로 나보다는 어머니께서 더 많이 분주하신다.

‘그러지 않으셔도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난 자연스레 미소를 짓고 있다.

도서관에 갈 때 신작도 챙길 겸 라네아에 관한 책도 빌려 왔는데, 여기 지크레핀 제국과 형제국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해 보였다. 생활 방식도, 예법도 큰 차이가 없었다. 물론 문화나 풍습이야 지크레핀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별 차이가 없어 나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왜, 그런 속담도 있지 않은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르라고. 여기서도 비슷한 속담이 있는 만큼 타국에 가서도 데네아 라는 이름에 먹칠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네아에 대한 생각에 잠겨있을 무렵, 어느덧 달리던 마차가 멈추고 마차 문에서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가씨, 도착했습니다. 내리시죠.”

“아, 고마워요, 웨티스 경.”

묵묵히 내미는 갈색 머리의 기사의 손을 잡고 마차에서 내리자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하게 꾸민 디저트 가게였다. 이쪽 근방에는 주로 약재나 찻잎 등을 파는 곳이 많은데, 신기하게도 이 가게는 이런 곳에서 성공했다.

가끔 우울할 때나 감정 기복이 심할 때면 나는 항상 달달한 무언가를 즐겨 먹곤 했다.

현대에선 기껏해야 칠백, 팔백 원짜리 에너지바나 초코 빵을 사먹었지만 월급날이면 종종 고급스러운 조각 케이크를 먹었던 기억이 났다.

지금은 언제든지 달콤하고 화려한 케이크를 먹을 수 있어서 좋다. 새삼 내가 이 나라에서 얼마나 좋은 혜택을 많이 받았는지 알게 된다.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는 후폭풍을 감수할 수 있어야 했다.

하지만 오늘은 괜찮다. 디저트 하나 먹겠다고 평소 먹는 양보다 더 줄여 먹는 희생을 불사하긴 했지만 덕분에 어느 정도 여유가 남는다.

사실 이런 곳에 올 땐 시녀 한두 명 정도는 데리고 오는 것이 좋은데, 마탑에 간다는 이유로 미르티는 저택에 남겨두고 온 상태였기에 포장이라도 해서 가져갈 생각이다.

“여기서 잠시만 대기 하고 있어요, 금방 돌아올 테니.”

“예, 아가씨.”

영애들의 취향만을 저격하여 꾸며놓은 가게라 웨티스 경은 밖에서 대기 시켰다.

본인이 들어오고 싶지 않아 보이기도 했고.

가게 안에 발을 들여 놓는 순간부터 설렜다. 깔끔하게 다듬어져 섬세한 조각이 된 나무문을 열자 조용하게 울린 방울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려 왔다.

“어서 오세요, 영애. ‘티저드씨의 하루’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려한 겉과는 다르게 안은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분홍과 하늘색이 적절하게 섞인 리본이 카운터주위를 장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 시선이 진열장에 닿는 순간, 난 올라가려는 눈꼬리와 입꼬리를 겨우 붙들었다.

가지각색의 조각 케이크, 아기자기한 모양새로 둥글게 모여 있는 마카롱, 달달한 꿀이 겉면에 발라져 있는 파이와 한입에 쏙 들어갈 타르트 등, 하나 같이 아름답고 제각각의 매력을 풍기고 있었다.

‘하필 이럴 때 선택 장애라니...’

모든 것이 맛있어 보이고, 먹고 싶은 비쥬얼이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럼 한동안은 달달구리 금지다.

“먹고 싶은 것이 많아서 그런데, 추천 좀 해 주시겠어요?”

하도 고르기가 쉽지 않아 조심스레 근처에 있는 직원으로 보이는 여인에게 물었다.

“네, 영애님. 저희 가게 추천 메뉴는 이 ‘장미꽃의 부름’ 과 ‘달빛의 연인’ 이 있는데요, 특히나 ‘장미꽃의 부름’ 은 대부분의 영애들께서 달콤함 속에 곁들인 딸기의 새콤함 때문에 즐겨 드세요. 초콜릿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흑진주와 함께’ 를 추천 드리고요.”

난 듣기만 해도 지금 손가락이 접혀지고 있는 중인데, 그걸 멀쩡히 생글생글한 얼굴로 말하는 여인이 대단했다. 오랜 시간 동안 일하다 보면 사람이 저리도 변할 수 있구나...

좀 더 그녀에게 추천을 받고, 디저트 이름에 조금이나마 견딜만하게 될 즈음 나는 녹차크림 위에 새하얀 가루가 뿌려진 녹차 타르트와 레몬 커스터드 쿠키 한 봉지, 티라미수 케이트 한 조각을 주문했다. 유명한 가게에 아름다운 디저트를 만드는 만큼 포장도 그에 걸맞게 고급스러웠다. 케이크가 담긴 상자 한 구석에 금색으로 새겨진 가게 이름도 마음에 들었다.

“감사합니다, 영애. 다음에도 또 방문해주세요.”

옆에서 직원 한 명이 포장된 디저트들을 들고 나를 따라왔다.

나는 마차 옆에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던 웨티스 경의 모습을 보고 말을 걸었다.

“오래 기다렸어요?”

“아닙니다.”

그는 짧고 간결하게 대답했다. 누가 기사 아니랄까봐...

“조심히 가세요, 영애.”

“네, 고마워요.”

내 디저트들을 무사히 마차에 안착시켜 준 직원은 허리를 꾸벅 숙이더니 돌아갔다.

나도 저택에 돌아가기 위해 마차 안으로 발을 들이려던 순간이었다. 반대편 마차 창문을 통해 누군가가 눈에 띄었다.

‘아르체아..?’

그녀가 대체 왜 여기에 나타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방금 막 나온 곳이 약재를 파는 곳이라는 건 알겠다. 웬일로 수수한 드레스를 입은 아르체아는 수상한 티는 다 내며 주위를 둘러보다 재빨리 멜튀스 가문의 문장이 있는 마차 안에 탑승했다.

곧이어 아르체아가 탄 마차는 출발했고, 나는 아직 발판에 발을 올린 상태였다.

그런 나를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웨티스 경이 물었다.

“아가씨,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 아뇨. 그냥 잠시만 저 약재상에 들러보죠.”

“네, 아가씨.”

웨티스 경은 이런 내 대답에도 아무런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고 나를 따라 길을 건넜다. 마부에겐 미안했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끼익-

방금 전까지 있었던 디저트 가게와는 딴판으로 조금 투박한 문을 열어 보니 그저 평범한 약재상의 내부가 보였다.

“뭘 사러 오시었소?”

이곳의 주인장은 잔기침을 연신 해대는 노인이었다. 그는 우리 쪽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신의 상점 안의 약재들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

나는 그 노인에게 아르체아에 대해 물었다.

“죄송하지만, 혹시 방금 나간 여인을 아시나요?”

“여인이라니, 검은 머리의 여자 말이오?”

“네, 그 여자요.”

“내 아무리 늙었다 해도 기억력 하나는 아직 늙지 않았소. 그래서, 그 여자는 왜 찾는 것이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내 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뭉툭한 코에는 작은 안경이 걸려있었다.

“그 검은 머리의 여인이 산 약재와 같은 약재로 주세요.”

“그럼 잠시 기다리시오. 그 여자가 희한하게도 구하기 힘든 약재만 주문해가지고...”

느린 걸음으로 가게 안쪽에 있는 방으로 들어간 노인은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나왔다.

“이쪽부터 체렌, 샤르노, 카마트, 마르젠이라오.”

내 눈에는 그냥 곱게 빻은 가루들이었고, 모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들이었다. 하긴 내가 약재상에 온 건 이번이 처음이니, 그럴 만도 하지.

“이 중에 특이한 효능을 가진 것이 있나요?”

“흠... 체렌, 샤르노, 카마트, 마르젠은 서로 어떻게 조합하느냐, 에 따라 효능에 호불호가 갈린지. 각각의 효능을 따지자면 그저 감기에 걸렸을 때 좋은 약재들일 뿐... 쿨럭... 다른 효과 좋은 약재들이 수두룩한데 어찌하여 이런 것들만 주문했는지는 나도 모르겠소.”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약재 값을 치르고 마차로 돌아온 내게 웨티스 경이 물었다.

“아가씨, 어디 편찮으십니까?”

“음? 아, 아니에요. 그냥 알아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어디 아프거나 감기 걸린다거나 하지 않았으니까 걱정 하지 말아요.”

왜 샀냐고는 물어보지 않고, 오히려 내 건강을 염려해준 웨티스 경의 배려에 고마웠다. 또 다시 그의 에스코트를 받아 마차 안에 들어간 나는 품에 안고 있던 봉지 속의 작은 주머니 네 개를 빤히 들여다봤다.

그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일은 없었지만 말이다.

요새 샤크트릴라에게 자주 찾아가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빠른 시일 안에 한 번 더 방문해야겠다. 가루가 담겨진 주머니들이 마치 아르체아라도 되는 듯, 나는 그것들을 한참이나 더 바라보았다. 정확히는, 노려봤다.

이것들을 가지고 그녀가 무슨 일을 꾸밀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추측되는 것은 사제의 축복으로 인해 아르체아에게서 벗어난 황태자를 다시 그녀가 얽매게 하려고 한다, 라는 가설이었다. 실현 가능성도 꽤 있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만일 이번에 아르체아가 뒷덜미를 잡힌다면 난 방관할 것이다. 애초에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고, 아무리 그녀가 나를 언급한다하여도 증거가 없다.

황후에게 독을 먹이려한 중죄자의 말을 그 누가 들어줄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르체아의 표정이 너무나도 기대되어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이렇게 맛있는 쿠키는 처음이에요, 아가씨! 와, 요새 달콤한 게 땡긴다 했더니 아가씨께서 제 마음은 또 어떻게 아시고... 크흡..”

이로써 나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달콤한 쿠키는 얌전한 미르티를 날뛰게 합니다.

뭐... 원체 얌전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다음에는 꼭 데려가 줄게.”

“정말요?!”

신난 표정으로 되물은 미르티는 이내 진지한 얼굴로 내게 말했다.

“아가씨, 무엇이든 말씀만 하세요. 이 미르티! 영원토록 아가씨만을 따르겠어요!”

“그래, 고마워. 그러니까 이제 좀 진정하면 안 되겠니?”

“핫, 넵!”

내가 디저트 가게에 들렀다는 사실을 듣고 서운해 했던 미르티는 내 손에 들린 쿠키를 보는 순간부터 들떴고, 나와 쿠키를 함께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자 연인에게 꽃다발을 받은 소녀처럼 볼을 복숭아처럼 물들이고 신이 나는 중이다.

기쁜 건 알겠지마는 이젠 진정 타임.

“으하, 저녁 후 후식으로 딱 이었네요. 아가씨, 잘 먹었습니다!”

마지막 입가심으로 남은 차를 모두 입 안에 넣고 대답했다.

“난 조금만 있다가 잘 테니 먼저 가 봐.”

“네에.”

다 먹어 치워서 사라진 쿠키에 미련이 남았던 모양인지 미르티는 아쉽다는 듯 입맛을 다시며 탁자를 정리하고 나갔다.

“틴, 이리 와.”

“삐?”

틴은 유연한 날갯짓을 하며 내게 날아 왔다. 푹신한 소파에 앉아 얌전히 품속에 안겨, 누워있는 틴을 쓰다듬어 줬다. 틴은 내 손길이, 나는 틴의 감촉이 좋아서 우리 둘 다 쓰다듬거나 받는 걸 좋아했다.

‘그러고 보니, 내가 혼자 방에 있을 때면 거의 항상 그가 왔었지.’

비밀을 참 좋아하는 그 남자는 언제나 창문을 통해서 왔다. 참 이상한 방문이기도 해라.

“그래도, 샤크트릴라가 있어서 다행이야.”

“샤크트릴라가 누군데요?”

“꺅!”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려 와, 너무 놀란 나머지 외마디의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재빨리 입을 막고 혹시라도 미르티가 소리를 듣고 다시 돌아올까 봐 시선을 방문에 돌렸다.

“뭐예요, 그렇게나 놀랐어요?”

“아니, 아니... 이렇게 남의 방에 침입하는 거 자체부터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때요?”

“음... 그럼 창문부터 시작할까요? 똑똑똑?”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뒤를 돌아보니, 언제부터 열려져 있었는지 모를 창문으로 그가 들어와 있었다.

언제나 그렇듯, 붕대로 눈을 가린 채 서 있는 은발의 남자가.

‘로빈...’

“오늘은 또 왜 온 거예요?”

“보고 싶으니까?”

항상 여유로운 미소를 달고 있는 로빈을 보며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 차라리 잘 됐다. 만일 로빈이 나를 빨리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갈등이 깊어졌을 테니까. 쉽사리 결정 내기 어려웠을 테니까.

“예전부터 궁금한 건데, 왜... 왜 자꾸 찾아와요?”

“방금 말했잖아요. 아가씨가 너무 보고 싶어서.”

장난스럽게 웃는 그의 얼굴을 보자 단호하게 끊어내려던 마음에 망설임이란 장애물이 생겼다. 나는 실내복의 천 자락을 움켜잡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장난치지 말고 대답해줘요, 로빈.”

별다른 이유 없이 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여인을 이렇게 자주 찾아올 수 있을까? 로빈이 내게 느끼는 감정이 그저 호감이라면 좋겠지만, 만일 그게 더한 감정이라면 난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하지?

그는 나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나는 로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지? 상인? 불법 마법사? 그에 관한 건 모든 게 거짓인 것만 같았다.

아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머리만 복잡해.

“음...”

내 질문에 로빈은 잠시 생각하는 듯하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가씨가 보고 싶어서, 라는 대답밖에 생각나지 않네요.”

나는 말 없이 로빈을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뭐라 말하기 위해 입을 열었다. 하지만 내가 더 빨랐다.

“돌아가요, 로빈.”

“...에?”

당황하며 되묻는 그에게 나는 재차 말했다.

“돌아가요, 당신의 집으로.”

“어... 아가씨, 무슨 일 있었어요?”

내 단호한 말에 로빈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보내야 한다는 마음과 보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뒤엉켰다. 그런데도 오라버니를 떠올린 나는 다시 그에게 말했다.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가씨.”

로빈은 평소 같지 않은 내 모습에 당황하며 나를 불렀지만 난 그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돌렸다.

“.... 내가 싫은 거예요..?”

이 남자가 다시 찾아온 것도,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면서 지키지 못한 나도. 그리고 그의 말에 내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뛰고 있는 이 심장도, 그냥 싫었다.

수상하기 짝이 없는 저런 남자 때문에 웃고, 설레며, 화나기도 하고, 가슴이 무거워지기도 한다. 고작 저 남자 하나 때문에.

“그냥, 오늘은 아무것도 묻지 말고 돌아가 줘요.”

힐끗 시계를 보니 11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었다. 샤크트릴라가 내게 도움을 준다고는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미안한데, 이제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아가씨, 나 보고 얘기해요.”

내 말을 자르고 빠르게 다가온 로빈이 양 손으로 뺨을 잡았다. 내 고개를 들어 올리는 조심스러운 그의 손길에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을 감은 붕대가 이때만큼은 고마웠다. 최소한 그의 눈을 보고 말하지는 않아서 다행이다.

“그 말, 진심이에요?”

로빈은 진지하게 내게 물었다. 맞다고 대답해야 했으나, 정작 입은 꾹 다물려진 채 벌려지지 않았다. 로빈은 다시 한번 물었다. 그것도 애절함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정말로 내가 오는 게 싫어요?”

이런 건 반칙이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진짜 반칙이야.

“나, 나는...”

“그 손 치워라, 죽고 싶지 않으면.”

무슨 말이라도 하기 위해 입을 연 순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내 앞에 나타나 로빈을 공중에 띄웠다. 그와 동시에 방을 밝혀주던 마법석의 힘이 약해지며, 이내 꺼져버렸다.

오직 달빛만이 이 방 안의 유일한 빛이었다. 그러나 어두워져도, 나는 나를 도와준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샤트라...?’

“어디서 우리 세리한테 손을 대고 자빠졌어?”

검은 로브를 입고 붉은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마법을 펼치고 있는 샤크트릴라의 눈빛은 어두운 탓도 있는지 검붉게 빛나고 있었다.

“워... 후? 아가씨, 이건 좀 더 당황스러운데요?”

“너, 그 입 다물어. 세리, 괜찮아?”

손을 앞으로 쭉 내민 채 로빈을 공중에서 구속하고 있는 샤트라가 걱정스레 물었다. 싸늘하게 로빈에게 말했던 목소리와는 달랐다. 이 시간에 그녀가 올 것이란 건 전혀 몰랐던 나는 그저 당황하여 고개만 끄덕였다.

“일 처리 후딱 끝내버리고 왔는데, 늦을 줄은 몰랐네. 미안해, 세리.”

“괜찮아요, 샤트라님... 감사합니다.”

“와... 뭔가 배신감이- 읍..!”

"조용히 해라, 변태 같은 놈.“

“읍브븝-!”

샤크트릴라가 무슨 마법이라도 걸었는지 로빈은 입이 봉인된 채로 억울하다는 듯 항변의 소리를 내었다.

“내가 네 말 듣고 설마, 설마 했는데, 그 설마가 사람을 잡네. 이거 뭐 하는 놈이야? 얼굴 한 번 보자.”

“으브읍븝-!!”

샤크트릴라가 성큼성큼 로빈에게 걸어가자 나는 소심하게 뒷걸음질을 쳤다. 안 그래도 어두운 방에 더 어두운 오오라를 풍기는 샤크트릴라가 무서운 것도 이유였다.

솔직히, 로빈의 얼굴이 궁금하긴 했지만 저런 샤크트릴라의 곁에 다가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다.

“쓸데없이 눈에다가 붕대를 덕지덕지... 너, 너...!”

샤크트릴라는 붕대를 풀다 말고 갑자기 로빈에게 삿대질을 하며 당황했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궁금해진 나는 로빈에게 다가가려다, 뒤돌아선 샤크트릴라에게 막혔다.

“세리, 세리. 너... 쟤 알아?”

대체 뭘 보았길래 분노하던 샤크트릴라를 이렇게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인가.

“뭐... 어쩌다가 알게 됐어요.”

“와... 사람 인연이 참...”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면 로빈 쪽으로 몸을 돌린 샤크트릴라 덕분에 나는 로빈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그는 이미 붕대를 다시 감은 상태였다. 내심 아쉬웠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또 볼 수 있을지 모르는데...

“샤트라님도 로빈을 아세요?”

“아니! 난, 저 사람 누군지 몰라.”

누가 봐도 미심쩍은 어조로 강하게 부정하는 샤크트릴라가 의심됐다. 나는 타깃을 바꾸어 질문했다.

“로빈, 샤트라님을 알아요?”

“.....”

로빈마저 조용히 시선을 회피했다. 이거 둘 사이에 뭐가 있네, 있어.

“진짜... 정말 서로 몰라요?”

“세리, 진정하고, 일단 너무 늦었으니까 자고 있어.”

“샤트라님...”

애써 웃어 보이는 샤크트릴라는 내 머리를 토닥여주며 손짓했다. 그 손짓 한 번에 바닥에 앉아있던 로빈이 다시 공중에 떴다.

“아니, 누... 저기요, 좀 정상적인 방법으로 데려가실 의향 없습니까?”

“넌 그냥 입 좀 다물어.”

“정말 모르는 사이 맞죠..?”

“아냐, 세리. 우리 오늘 처음 만났어.”

그녀는 손까지 흔들며 끝까지 부정했다. 뭐, 그냥 내가 오해한 것일 수도 있고... 한데, 진짜 이건 누가 봐도 너무 수상하잖아.

“난 이 놈 끌고 돌아갈 테니까 얼른 자. 참, 참. 나중에 라네아로 가면 나한테 연락해.”

“네, 샤트라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응, 다음에 보자. 넌 이리 와.”

“아가씨, 살려 주-!”

로빈의 외침을 뒤로 하고 둘은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모든 것이 조용했다.

“하아...”

창문을 모두 닫은 나는 한밤중의 작은 소란에 피로함을 느끼고 침대에 털썩 누웠다. 로빈과 샤크트릴라, 이 둘의 미묘한 관계에 대해선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다. 지금은 그저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로빈과 샤크트릴라와 헤어진 후 며칠 뒤, 드디어 오라버니께서 도착하신다는 날이 다가왔다. 곧 있으면 오라버니를 태운 마차가 저택에 도착할 것이다. 그 덕에 공작가의 사람들은 분주해졌다. 오랜만에 돌아오시는 오라버니였기에 작게나마 환영식을 치르자는 것 때문이었다.

나도 몇 개월 만에 뵙는 오라버니라 시녀들의 실력 발휘 맛을 봤다. 그다지 자주 겪고 싶은 맛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제대로 꾸며본 것도 간만이기도 해서 오전부터 기분 좋은 하루였다.

“공자님께서 오십니다!”

로테인이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래도 아카데미 방학까지 길게 남지 않아, 로테인도 곧 저택에 돌아올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현관에서부터 오라버니를 기다리셨다.

“아버지,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너라, 헤르베디.”

“이게 얼마 만이니. 어디 한 번 안아보자꾸나.”

무뚝뚝한 건 여전하신 오라버니는 어머니의 요구에 주춤했지만 거부하지는 않았다.

“오라버니, 잘 다녀오셨어요?”

“... 그래.”

‘에...?’

분명 오랜만에 뵙는 오라버니이건만, 오라버니는 어째서 슬픈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마치 떠나보내기 싫은, 그런 눈빛?

요즘 내게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겼다. 일명 ‘우리 오라버니가 달라졌어요!’ 라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민거리였다. 유학에서 돌아오신 후 나를 볼 때마다 어딘가 슬픈 기색을 보이시는 오라버니를 난 당최 이해할 수 없었다.

근래 오라버니는 나와 숨바꼭질이라도 하자는 듯 날 피해 다니고 계셨다. 예를 들자면 아침식사를 하기 위해 내려가는 도중 오라버니와 마주치기라도 하면...

“어머, 오라버니, 좋은 아치-”

휙-

“...임이에요...”

그 흔한 아침 인사 한마디 없이 쌩하니 가버리시는 오라버니를 보며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른다.

‘뭐, 뭐지, 이건?’

한두 번이라면 오라버니께서 미처 듣지 못하시고 지나가버리신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고작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라버니, 저 부탁이-”

“오라버니, 마침 잘 만났-”

“오라- ....하아...”

나는 오라버니를 부르며 쫓아가려다 관뒀다. 한숨과 함께 벽에 기댄 나는 이게 대체 며칠 째 지속되는 레퍼토리란 말인가.

또 다시 그 빠른 걸음을 이용하여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져버리시는 오라버니가 야속했다. 오라버니께서 돌아오시고, 우리 사이에 제대로 된 대화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냥 대화 자체가 너무 없었다.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자리해 있을 때는 오라버니도 꿋꿋이 닫고 있던 입을 열곤 하신다. 그런데 왜, 여동생과는 대화하고 싶지 않는단 말인가?

“대체 왜 그러실까요?”

“그건 나도 모르겠네요. 난 데네아 공자가 공녀에게 잘 대해준다고 들었는데 말이에요.”

“심지어 돌아오신 그날부터 저를 피하셨어요.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게 분명해요.”

“원한다면 황명으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나는 한숨을 푹 쉬고 한탄을 늘어놓았다. 페르세지아 황녀는 이런 내 얘기가 흥미로운지 아까부터 반짝이는 눈으로 경청하고 있었다.

“황명도 소용없을 거예요. 그렇게 쉽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실 오라버니가 아니시거든요... 아니,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기에 그렇게 슬프게 바라보실까요? 이것도 의문이에요.”

답답함에 주먹으로 무릎을 내려치자 황녀가 진정하라며 차를 건네주었다.

“후우... 진짜 오라버니는 바보에요. 제 감으로는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저를 피하기만 하셔서 복잡하다니까요?”

“저런, 데네아 공자가 나빴네요.”

황녀는 말과 다르게 이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생글생글 웃는 황녀를 보다, 나는 다시 한 번 한숨을 쉬었다. 요즘 들어 한숨 쉬는 날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큰일이다.

“데네아 공자에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네. 에... 당연하죠.”

자신 있게 말하려다 짐작 가는 것이 떠올라 말을 더듬었다. 혹시..?

‘설마 알고 계시는 걸까? 내가 그동안 로빈을 만나고 있었다는 걸?’

하지만 워낙 로빈이 아무도 몰래 들어오기도 했고, 그 누구도 보지 못했을 텐데?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설 중 최악의 가설이었지만 가능성은 없지 않았다.

“그냥 물어봐요, 직설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잠도 못 자는 것 보다는 낫잖아요?”

“저도 그러고는 싶죠. 그런데 자꾸 피하시니까...”

“흐음... 정말 황명이라도 내려 볼까요?”

그렇게 말하는 황녀의 표정은 진지해서 전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다.

‘하.. 오라버니와 대화 해 볼 방법이 진짜 없나...’

이런 식이면 오라버니께서 다시 돌아가실 때까지 말 한마디 섞어보지 못할 수도 있었다. 부정적인 생각이 차례대로 떠오르며 내 기분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었다. 이 이상 더 생각하면 눈물이라도 나올 것만 같아서 머리를 흔들었다.

“공녀가 공자에게 찾아가보는 건 어때요?”

“찾아가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노크라도 해보면 돌아오는 건 묵묵부답이고요. 진짜, 너무해요...”

순간 울컥하여 시야가 흐려졌다. 결국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나는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개를 위로 올려야 했다.

“공녀...”

황녀는 내 등을 토닥여주며 위로해줬다. 잠시의 침묵이 이어지고 난 뒤, 황녀가 해답을 찾았다는듯 말했다.

“공녀, 나한테 괜찮은 방법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방법이요?”

그녀의 말에 나는 눈을 뜨고 황녀를 바라보았다.

“공녀가 조금 아플 수 있어요, 괜찮겠어요?”

“중상만 아니라면 괜찮아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 오라버니와 말 한마디 나눠 보겠다는 심정으로 굳건히 말했고 곧 황녀는 내게 방법을 알려주었다.

“만약에 데네아 공자가 공녀 눈에 띄어서 또 도망치려고 하잖아요, 그럼 쫓아가다가 넘어지는 척을 해 봐요. 정말 넘어지면 공녀가 다치니까 그냥 비명정도 질러도 좋고요.”

“정말 오라버니께서 오실까요?”

자해로 오라버니의 관심을 끈다는 건 조금 불안했다. 평소의 오라버니시라면 다가와 주실 텐데, 지금의 오라버니는 나를 피해 다니고 계시는 추세다. 확신이 서지 않아 황녀에게 물어보자 황녀는 나와 달리 무조건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다.

“데네아 공자라면 그럴 수밖에 없을 걸요? 사랑하는 여동생이 넘어졌는데도 도망치기만 한다면 신사가 아니죠. 만일, 데네아 공자가 공녀에게 오지 않는다면 내게 꼭 말해줘요. 어떻게 해서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샅샅이 불게 만들어줄 테니까.”

타오르는 붉은 눈동자는 샤크트릴라와 비슷한 분위기를 풍겼다. 역시 페르세지아 황녀와 샤크트릴라는 서로 잘 아는 사이라 그런지 닮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렇게 해볼게요, 황녀님. 감사드려요.”

“성공하면 라네아로 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와줘요.”

“네, 네. 그럴게요. 당연히 와야죠.”

페르세지아 황녀는 소녀처럼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나는 황녀의 두 손 위에 내 손을 살포시 올려놓았다.

‘반드시 오라버니와 제대로 대화 해본다.’

나를 생각해준 황녀를 위해서라도, 나는 다짐했지만 역시 생각보다 현실을 그렇게 쉽지 않다.

그 증거로 나는 꼭꼭 숨어버린 오라버니의 발자취라도 찾기 위해 온 저택을 누비고 다니는 중이다.

“집사, 오라버니 못 봤어?”

“공자님이시라면... 글쎄요, 기사단 쪽으로 가시지 않으셨을까요?”

“공자님이요? 정원에 가시는 것 같던데...;”

“공자님이라면 서재에 가신다고 하셨어요.”

지나다니는 모든 시종인들에게 수소문하며 응접실을 비롯해, 기사단, 정원, 서재 등 오라버니께서 가실만한 곳은 죄다 가보았지만 슬프게도 오라버니의 그림자조차 찾지 못했다.

‘어디 계시는 걸까? 방 안에는 안 계시는 것 같았고...’

오라버니의 행적을 추리해보며 생각에 잠겨 복도를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넓디넓은 저택 안이라도 오라버니께서 가실만한 곳은 한정되어 있었다. 보통은 서재나 방에 계시지만 가끔 산책 겸 정원에도 가시고, 문무예를 모두 갖추셔서 가끔은 기사단에 찾아가 훈련하시기도 한다.

그런데 왜 난 찾을 수 없단 말인가!

“그냥 저녁 식사 후에 빨리 뒤쫓아 가는 수밖에 없나...”

반쯤 포기하고 내 방에 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렸다. 그러다가 우연히, 매우 우연찮게도 익숙한 뒷모습을 포착했다. 아주 잠시 잠깐이었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오라버니!”

드디어 찾았다, 내가 애타게 찾고 있던 사람을.

나름 기척을 숨기고 조용히,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서 외치며 오라버니에게 재빠르게 걸어갔다. 그러나 오라버니는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으시고, 그 긴 다리를 이용하며 빠르게 걸어가셨다. 내 수준으로는 거의 뜀박질이었지만 오라버니에겐 그저 빠른 걸음일 뿐이었다.

순식간에 격차가 벌어진 거리에 나는 오기가 생겼다.

진짜, 계속 이러기시죠, 오라버니?

“아...!”

오라버니께서 모퉁이를 돌아 사라져버리시기 전에, 나는 황녀가 나를 위해 알려준 방법을 써보기로 했다. 황녀의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를 떠올리며 나는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사실 발에 걸려 넘어진 ‘척’ 만 하려고 했는데, 정말로 넘어질 줄은 몰랐다. 균형을 잃은 몸은 이내 딱딱한 바닥으로 추락했다.

“아으...”

얼얼한 오른쪽 옆구리와 어깨를 문지르며 고통을 덜어내려고 했으나, 그 전에 먼저 나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주는 손길이 있었다.

“... 괜찮나?”

“아, 네...”

나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내게 와준 오라버니에게 놀랐다. 이렇게나 빨리 와주시다니.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실실 웃음이 새어나왔다.

오라버니께서 바닥에 주저앉은 나를 두고 그냥 가실 리 없다는 것을 알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난 느리게 움직이는 오라버니의 팔을 붙잡았다.

“이제 저 두고 도망가시기 없기에요.”

“... 그래.”

그 동안 머리를 싸매며 고민했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배시시 웃는 나를 보고, 오라버니도 피식 웃으셨다.

“바닥 차다. 빨리 일어나라.”

“네.”

아직 고통이 남아있었기에 일어나면서 미약한 신음소리가 흘러 나왔다.

“많이 아프냐?”

“음... 그렇게 많이는 아프지 않아요. 그냥 살짝 얼얼한 정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나는 오라버니의 팔짱을 꼈다. 몇 개월 만에 돌아오셨어도 오라버니는 익숙해지신 듯 내 팔을 내치지 않으셨다.

“그런데, 오라버니. 그동안 어째서 절 피하신거에요?”

방에 돌아가는 길에 그동안 묻고 싶었던 의문을 뱉었다. 오라버니는 대답하기를 망설이셨지만, 그래도 머뭇거리며 답해주셨다.

“.... 싫어서.”

‘에?’

“라네아로 보내기 싫어서.”

까, 깜짝이야... 난 또 날 싫어하신다는 줄 알았네. 그런데 내가 라네아로 가는 것과 오라버니께서 날 피하시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지?

“제가 라네아로 가면 안 되는 연유라도 있는 건가요?”

“어.”

“그게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내가 슬며시 묻자 오라버니는 표정을 찌푸리시더니 한 마디 툭 던지셨다.

“... 어떤 정신 나간 놈 때문에.”

하하... 네?

헤르베디 오라버니는 곧 내게 해명하며 어떻게 된 일인지 알려주셨다.

“너도 알다시피, 라네아에 있는 내 친우... 라고 할 것도 없는 황제가 곧 공식적으로 즉위한다.”

“네, 그건 아버지께 전해 들었어요. 그 때문에 제가 초대받은 거고요. 그런데 왜 저와 아무 관련이 없는 라네아측에서 절 초대한 것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건-”

오라버니는 뭐라 말을 꺼내시려다가 멈추시고는 갑자기 한숨을 쉬셨다. 나는 의아해하며 오라버니께 물었다.

“무슨 문제라도...?”

“하아... 라네아에는, 아카데미에서 연을 맺은 내 친우가 한 명 있다. 들어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친우분이 라네아의 황태자신가요?”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께 라네아의 황태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황태자의 즉위식 전에 휴가를 나오셨다고 하셨던가...

“그래. 그리고 그 놈이 네가 라네아에 오게 된 원인 제공자지.”

“그렇군요...”

그런데 라네아의 황태자가 나를? 왜? 오라버니는 마치 내 머릿속을 들여다보시기라도 한 것처럼 내 무언의 질문에 대답해주셨다.

“라네아의 황태자께서 너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많으신 것 같더군. 대체 누굴 넘보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며 오라버니는 조용히 이를 갈았다. 평소와는 다른 오라버니의 모습에 웃을을 흘렸다. 오라버니의 말씀을 듣고 나니 라네아에 가는 것이 더욱 기대되었다.

“전 만나 뵙고 싶은 걸요? 오라버니의 친우분이요. 그런데 두 분은 어쩌다 아시게 되었나요?”

듣자 하니 라네아의 황태자도 오라버니와 비슷한 성격의 소유자라던데, 그런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서로 알게 됐는지 궁금해졌다. 성격상 서로 먼저 다가가진 않았을 테고...

내 물음에 오라버니는 고민하시는 듯 미간을 찌푸리시더니 말씀하셨다.

“그냥... 수석과 차석의 대결이랄까...”

머뭇거리며 말씀하시는 걸 보니 첫 만남이 잘 기억나지 않으신 걸까?

“하여튼 간에 어찌해서 아카데미에서부터 시작된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다. 라네아로 넘어간 것도 친우의 도움 요청으로 아카데미를 졸업하였어도 그쪽에 넘어간 것이고.”

“차기 재상 후보로도 거론되신다면서요?”

“난 생각지도 못했지만, 그래.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소문을 중재하지 않는 거겠지, 그 자식은.”

아무래도 오라버니는 라네아의 황태자, 그러나 이젠 황제인 친구분께 단단히 원한이라도 맺히신 것 같다.

“이번에 떠나면 즉위식이 거행되는 것만 보고 돌아올 것이다.”

“그럼 이제 계속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오라버니께서 드디어 완전히 집에 돌아오신 기분이었다. 그동안 편지나 짧게나마 휴가를 받아 오셔서 아쉽고 섭섭했는데, 더는 그럴 일이 없다고 하시니 마음이 놓였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로테인도 모두 기뻐할 거예요.”

기쁜 눈빛으로 오라버니를 올려다보자 오라버니는 내 머리 위에 큼직한 손을 올리시며 대답하셨다.

“그렇게도 좋으냐?”

“당연하죠, 많이 못 뵙던 오라버니를 이젠 더 자주 뵐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 그래.”

나는 내 방에 도착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오라버니께 물었다.

“그럼 언제 라네아로 떠나나요?”

“열흘 뒤에. 장담컨대, 그 열흘이란 시간이 느리게 가지는 않을 거다. 시간이란 것은 워낙 순식간에 지나가버리기도 하는 법이니.”

이만 들어가서 쉬라며 머리를 어색한 손길로 쓰다듬어 주시고 돌아선 오라버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방문을 열었다.

‘라네아, 라네아라...’

그러고 보니 오라버니께 묻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정작 오라버니의 얼굴을 뵙고 나니 머릿속에서 지워진 듯 마냥 기억나지 않았다. 샤크트릴라에 대해서도 말씀 드려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

‘나중에 시간나면 말씀드려야지.’

다행히 그 시간은 늦지 않게 찾아왔다. 저녁식사 이후 잠깐의 시간이 나신 오라버니께 나는 재빨리 말씀드렸고, 오라버니는 샤크트릴라의 이야기에 조금 찜찜해하는 기색을 보이셨지만 이내 흔쾌히 허락하셨다.

덕분에 나는 가는데 보름이나 걸리는 라네아를 단 1초만의 시간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신나?”

“그럼요. 장시간 여행은 조금 버겁기도 하고, 무엇보다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샤크트릴라는 시크하게 말하며 다리를 꼬았다. 옆에서 집사가 그녀에게 차를 권했지만 그녀는 방금 마시고 오는 길이라며 거절했다.

“짐은 이게 끝?”

“네, 생각보다 적죠?”

“... 이게 적은 거야?”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현관 옆에 자리한, 차곡차곡 쌓이는 짐 가방을 보며 샤크트릴라는 이게 5일치 짐 가방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대충 2주일 머문다고 하지 않았나?”

“정확히는 2주하고도 5일지만요. 즉위식만 해도 5일은 족히 걸리고, 그 후에도 오라버니께서 마무리하고 가셔야 할 것도 남았고, 무도회도 있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적게 가져가도 괜찮은 거야?”

“네. 사실 거기엔 그저 필수품으로 가져가야 할 것들이나 소소한 옷가지들 밖에 없고, 나머지 필요한 물건들은 오라버니 지인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괜히 무겁게 가져가봤자 힘들기만 하잖아요.”

내 말에 샤크트릴라가 의문증을 가지며 물었다.

“텔레포트로 모두 옮기면 끝나지 않아?”

“그것도 그렇지만 나중에 챙기거나 정리할 때 귀찮기도 하고, 불편해요.”

“아하... 하긴 그러는 게 좀 더 편하긴 하지.”

샤크트릴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리를 반대로 꼬았다. 나는 시계를 한 번 쳐다보고, 계단 쪽을 둘러보았다.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오라버니는 몇 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셨다. 두리번거리는 나를 보며 샤크트릴라가 물었다.

“네 오라버니는 준비 다 됐대?”

“아무래도 챙길 서류가 많으셔서...”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보지, 뭐,”

나는 미안하다는 뜻으로 고개를 까닥였다. 문득 미처 그녀에게 묻지 못한 일이 있어, 오라버니가 안 계시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여 조용히 물었다.

“그... 로빈... 은 어떻게 됐나요?”

“음? 아, 그 사람... 요래저래 귀찮게 됐지. 하여튼 간에 여러모로...”

뒷말은 샤크트릴라가 거의 혼잣말로 중얼거리듯 말해서 듣지 못했다. 습관적으로 손톱을 깨물던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 녀석은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어. 아마 널 찾아오는 일은 없을 거야. 그것도 한동안이겠지만. 세리, 혹시 그 놈한테 라네아에 대해 얘기해 준 적 있어?”

‘까, 깜짝이야...’

갑자기 내 어깨를 붙잡고 물어보는 그녀의 물음에 놀랐지만 이내 진정하고 대답했다.

“조, 조금이요...?”

“그럼 라네아로 간다는 말도 했어?”

“에... 네.”

나는 기억을 더듬어보다, 말했다. 내 대답에 샤크트릴라는 뭔가 결연한듯한 표정이었다.

“잘 들어, 세리. 라네아에 가면 되도록 밖에 나가지 말고, 특히 황궁 근처에는 안 가는 걸 추천해. 잘 때 창문 꼭 닫고, 주변에 따라오는 사람 있으면 바로 네 오라버니한테 말하고. 알겠지?”

“네, 네...”

나는 반자동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하나 주의사항을 손가락으로 꼽던 샤크트릴라는 찝찝한 표정을 짓다가 곧 표정을 풀고 물었다.

“그나저나 이건 왜 아직도 안 와?”

“챙길 게 많이 남으셨나 봐요.”

“쯧, 여동생은 준비 다 하고 오매불망 기다리는데 오라비는 뭐하는 거야?”

“위대하신 마탑주의 심기를 거스르게 하여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는 중입니다.”

투덜거리며 팔짱을 낀 샤크트릴라의 뒤로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느새 나오신 것인지 머리색과 깔 맞춤으로 금실을 수놓은 남색 제복을 입은 헤르베디 오라버니가 계단에서 내려오고 계셨다. 그 곁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함께 내려오셨다.

“오라버니, 끝나셨어요?”

“그래. 나름 빨리 정리하고 왔는데, 미안하다.”

“미리 준비 좀 해놓지.”

옆에서 샤크트릴라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다행히 오라버니는 듣지 못하고 우리에게 다가왔다.

“괜찮아요, 오라버니. 라네아엔 이미 언질 주신 거죠?”

“그래. 아마 어제쯤 도착했을 거다. 지금 가도 늦지 않아.”

“드디어 가는 거니?”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손을 잡으시며 우리에게 물으셨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치지만 않게 다녀오렴.”

“편지라도 할 테니 섭섭해 하지 말고.”

“여기 크게 원 그릴 수 있는 곳이라도 있나? 기왕이면 단단한 바닥이었으면 좋겠네.”

의자에서 일어선 샤크트릴라가 머리를 묶으며 말했고, 근처에 있던 집사가 그녀의 물음에 대답했다.

“로비 카펫을 치우라고 일러두겠습니다.”

간편한 그의 대답에 만족하며 샤크트릴라는 품속에서 검은 장갑을 꺼내 손에 꼈다. 그녀는 집사를 따라 로비로 장소를 옮기며 내게 말했다.

“잠깐 시간 걸릴 거야. 그동안 좀 기다려.”

“네, 샤트라님.”

샤크트릴라의 배려 덕분에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께 포옹을 받았다.

“가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첫 여행이니 조심해야 한다.”

“네가 정말 보고 싶을게다, 세리스틴.”

“저도요, 아버지,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포옹한 뒤, 나는 오라버니와 함께 샤크트릴라에게 다가갔다. 로비에는 큰 원이 자리하고 있었다. 검은 장갑에 묻은 분필 가루를 탈탈 턴 그녀가 손짓을 하며 말했다.

“자, 자. 그럼 다들 한군데 모여 봐. 거기 짐 가방 모두 여기로 옮겨.”

그녀의 말에 시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가방을 옮기기 시작했다. 다들 채비를 끝마쳤을 때, 샤크트릴라가 한가운데에서 주문을 외우며 붉은빛의 마법을 펼쳤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에 바닥에 커다란 원이 생기더니, 자잘한 무늬가 원 안을 채웠다.

“텔레포트로 라네아의 어디에 도착할 까요?”

“너희 오라버니네 저택 앞에. 좋아, 됐다.”

그녀처럼 강렬한 붉은 원이 나와 오라버니 주위를 에워쌀 즈음 샤크트릴라가 시동어를 외쳤다.

“텔레포트!”

샤크트릴라의 외침과 동시에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다. 그리고선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장소가 바뀌었다. 실내에서, 야외로.

“쨔잔. 라네아 도착!”

그녀는 옆에서 만세하며 해맑게 웃었다. 헤르베디 오라버니는 생전 처음 텔레포트를 겪어본 것 치곤 너무 덤덤했다. 둘의 상태를 확인한 나는 그제야 내 눈앞의 거대한 저택을 바라보았다.

“와... 정말 여기가 오라버니의 저택인거에요?”

공작가의 저택보다는 작아도 웬만한 귀족들의 저택보다 더 비싸 보이는 저택을 보며 난 감탄을 금치 못했다. 휘황찬란하지 않아도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저택은 오라버니와 닮아 보였다.

“뭐, 친우의 도움도 있었지만 이 집은 전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지.”

“오라버니시라면 타국이라도 잘 지내실 것 같았는데, 제 상상 이상이라서 더 놀랍네요.”

오라버니의 손을 잡으며 우리는 저택의 정문으로 걸어갔다. 샤크트릴라도 주위를 살펴보며 뒤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현관에서는 갈색 머리의 남자가 마중 나와 있었다. 집사인건가?

“다녀오셨습니까, 주인님.”

갈색머리의 남자는 오라버니께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역시 이곳의 집사가 맞는 것 같다. 오라버니는 그를 보고 말씀하셨다.

“그래. 헨리, 모든 시종인들에게 빠짐없이 전해.”

“주인님께서 돌아오셨다고요?”

“아니, 나를 대하듯 이 아이에게도 부족함 없이 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오라버니는 내 머리 위에 손을 올리며 대답하셨다. 그 바람에 미르티가 잘 정리해준 머리가 헝클어졌지만 뭐 어떠하리. 오늘 당장에 나갈 것도 아니고. 미르티가 벌써부터 그리워졌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반대로 저택에 남아있게 된 상황이었다. 어째서 아버지께서 완곡히 반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아쉬워할 뿐이었다.

참, 틴은 이미 샤크트릴라에게 부탁하여 마탑에서 잘 지내고... 있길 바란다.

“네. 반갑습니다, 아가씨. 헤델 저택의 집사, 헨리라고 합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헨리가 하얀 장갑을 낀 손을 내밀자 나도 손을 내밀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더니 손등에 키스했다.

“주인님, 그럼 이분은...?”

헨리가 말을 끌며 오라버니를 바라보자 당사자인 샤크트릴라가 날 가리키며 대신 대답했다.

“아아, 난 그냥 얘 친구랄까. 신경 쓰지 마, 어차피 곧 떠날 테니.”

“아, 네. 알겠습니다.”

헨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오라버니는 나를 보며 말씀하셨다.

“세리스틴, 헨리가 안내해줄 터이니 방에 가서 쉬고 있어라. 심심하다면 저택 안을 둘러봐도 좋다. 오늘은 특별히 큰 일정이 없을 테니까.”

“네, 오라버니.”

“그럼 아가씨, 방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라버니와 헤어지고 나와 샤크트릴라는 헨리를 따라가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확실히 라네아라서 그런지 느낌이나 장식이 지크레핀과는 다른 점이 보였지만 대체적으로 둘 다 비슷했다.

우리와 함께 텔레포트 된 가방들은 벌써 시종들이 들고 저택 안으로 들어간 후였다. 아마 내게 지정된 방으로 들어가면 내 가방이 얌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방으로 걸어가며 헨리에게서 간략한 설명을 듣고 나는 이제 여기서 2주간 지내야한다는 사실에 두근거렸다. 그동안 지크레핀의 저택에서만 지내다보니 색다른 것이다.

“이곳이 아가씨께서 지내실 방입니다. 이 저택에서 가장 좋은 방으로 내어드리라고 주인님께서 신신당부하셨죠.”

“어머나...”

헨리가 문을 여는 순간, 나는 손으로 입을 막고 감탄사를 내뱉었다. 지금 시각은 낮이었건만 창문에선 얇고 반투명한 커튼을 통해 햇빛이 강렬하지도, 어둡지도 않게 잔잔히 방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넓은 침대 주위로 분홍색의 반투명 커튼과 비슷한 색의 침대커튼이 걸쳐졌고 바닥에는 푹신한 새하얀 털 카펫이 깔렸으며, 무엇보다 섬세한 조각이 새겨진 벽이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드십니까?”

나는 헨리가 묻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시선은 여전히 방 안을 살펴보고 있었다.

“네, 무척이나요.”

“이야, 내 방도 이랬으면 좋겠네.”

옆에서 샤크트릴라가 조용히 애들 불러다가 개조시킬까,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가면 필시 혹독하게 굴려질 그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나는 헨리를 통해 오라버니께 감사를 드리려다 관뒀다.

“오라버니께 감사드린... 아니에요, 직접 전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주인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무뚝뚝한 오라버니께서 과연 미소 한 번 지어주실까? 그래주셨으면 정말 기쁘겠지만, 아직 감정표현에 서툰 오라버니는 갈길이 머신 것 같다.

헨리는 나와 샤크트릴라에게 고개를 숙인 뒤, 방문을 닫고 나갔다. 곧 여기서 지내는 동안 도와줄 시녀가 온다는 말과 함께.

나는 침대에 가까이 다가가 풀썩 앉았다. 느낌 좋고, 적당히 푹신하고, 편안함까지 장착한 침대는 바로 내 애정을 받게 되었다.

“좋아, 아무래도 네 오라버니가 널 참 많이 아끼나 보다.”

“오라버니께서 조금 부끄러움이 많으시긴 하죠.”

“허허, 그 얼음왕자가 부끄러움이라니. 여자 여럿 울릴 것 같긴 해.”

샤크트릴라는 중얼거리며 내 옆에 앉았다.

“틴은 어때요?”

“우리의 아기 파랑새는 잘 지내고 있을걸? 내가 괜히 새장에 고급마법 쳐 뒀겠어. 아무도 못 건드리고, 아무도 못 봐. 물론 나랑 너만 빼고.”

장난스럽게 손가락으로 브이자를 만들어보이는 그녀에게 나는 웃어줬다. 틴을 떠올리니 그 뒤에 생각나는 또 다른 이가 있었다. 나는 혹여 라도 그녀가 화를 내면 어쩔까 싶어 머뭇거리다가, 그녀에게 용기 내어 물었다.

이건 절대 걱정되어서가 아니다, 그냥 궁금해서일 뿐이다.

“샤트라님. 그... 로빈, 은 어떻게 됐나요?”

“걔? 음... 그냥 안절부절 못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지?”

의미심장한 그녀의 대답에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로빈이 왜 안절부절 못한단 말인가. 기다린다는 건 또 무슨 소리고?

“누굴 기다리는데요?”

“있어, 그런 사람. 아주 끔찍이도 아끼나 봐. 네 오라버니처럼.”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말만 늘어놓는 샤크트릴라는 이내 일어나더니 작별을 고했다.

“난 여기 온 김에 누구 좀 만나고 올게. 나중에 시간되면 또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있어, 세리.”

“안녕히 가세요, 샤트라님.”

내가 허리를 숙이고 일어서는 순간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노크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와요.”

아까 헨리가 날 도와줄 시녀들이 온다고 했는데, 그녀들인가 보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녀는 모두 4명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가씨. 메리라고 합니다. 아가씨께서 지내시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헨리처럼 갈색머리의 여인... 보다는 소녀에 가까운 메리가 내게 인사하며 말했다. 나머지 시녀들도 차례대로 자신을 소개하며 허리를 숙였다. 셋은 마치 쌍둥이인 것 같이 분홍색의 머리카락이나 외모가 모두 비슷했다. 자칫 잘못 본다면 모두 똑같은 사람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심지어 이름마저도 비슷했다. 키가 큰 순서대로 세나, 레나, 지니라고 했던가.

“다들 만나서 반가워. 2주 동안 잘 부탁해.”

굳이 높임말을 쓸 필요가 없어서 편하게 부르기로 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시녀들의 도움으로 가방을 정리하고, 저택도 둘러봤다. 간간히 마주치는 시종인들은 날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오라버니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건 조금 부담스러운 걸...

“내가 없는 동안 불편한 건 없었나?”

마침 식사 시간에 외출하고 돌아오신 오라버니께서 물어보셨다.

“아뇨, 괜찮아요. 참, 예쁜 방 감사드려요. 마음에 쏙 들었어요, 오라버니.”

그러나 차마 날 생각해주신 오라버니께 그런 말을 꺼낼 자신이 없어 화제를 돌렸다. 오라버니는 그런 날 묵묵히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오늘 황궁에 잠시 들렀는데, 황제, 폐하께서 너를 보고 싶어 하시더군.”

“황제... 폐하께서요?”

하긴 내가 라네아에 온 것도 황실의 초청을 받아서였지. 그 의문을 풀 수 있을지도 몰라서 오히려 황제가 날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내가 직접 황제를 알현하겠다고 나설 수는 없지 않은가. 안 그래도 즉위식 때문에 바쁠 황제에게.

“만일 네가 싫다면 가지 않아도 좋-”

“가고 싶어요.”

난 오라버니께서 말을 채 끝마치기 전에 먼저 말을 꺼냈다.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말이었지만 뒤늦게 찾아온 무안함에 입을 닫았다. 다행히 오라버니는 개의치 않으신 것 같았다.

“그래, 그럼 내일쯤 자리 잡자고 하시던데 괜찮겠나?”

“네, 그럼요.”

저택 구경은 나중에 해도 괜찮다. 지금은 황제가 먼저다.

오랜만에 낯선 곳에서 잠을 청한다는 마음과 내일 만날 황제에 대한 생각으로 쉽사리 잠에 들지 못했다. 그래서 난 지금 피곤했다. 마차가 황궁 앞에 거의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암...”

오라버니께서 눈치 채지 못하게 나름 조용히 하품한다고 했지만 역시나 오라버니는 놓치지 않았다.

“피곤한가?”

“아, 그렇게 많이 피곤한 건 아니에요. 그저 어젯밤을 조금 설쳐서...”

괜한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웃으며 말했다.

“돌아가고 싶다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황제 폐하와의 약속은 나중으로 미뤄도 되니까.”

무려 황제와의 만남은 그리 쉽게 미룰 수 있는 약속이 아니었지만 별 거 아니란 듯 말하는 오라버니를 난 묘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겨울에 그들은.

뵙고 싶은 아버님께.

뵐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아버님 생각만 하면 자꾸만 뵙고 싶어지는 게 어쩔 수 없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여기는 겨울맞이 준비로 다들 바쁘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 넓은 곳을 다 같이 꾸민다는 건 항상 재밌어서 들뜬 상태에요. 그곳도 겨울맞이 준비를 하겠죠?

요새 시녀들은 초록파와 빨강파로 나뉘어져서 대치중이에요. 온화함의 초록과 정렬의 빨강 중 어느 색이 더 아름다운지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전 두 색 모두 좋은 것 같은데, 시녀들은 아닌가 봐요.

이 싸움이 얼마나 길었는지, 전에 첫 눈이 오고 난 다음날 초록파와 빨강파끼리 눈싸움을 하더래요. 심지어는 대부분의 시종인들이 모두 합세하면서 규모가 더 커졌지 뭐에요. 결국 승자는 놀러 오신 마탑주님과 아가씨였지만요.

시종인 중 누군가가 실수로 구경하러 나오신 아가씨에게 눈덩이를 던졌는데, 탑주님이 막 그 넓은 정원에 눈보라를 일으키시는 게 어찌나 무서웠던지요...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지만 다들 놀라서 그 즉시 눈싸움을 멈췄죠.

이 편지는 아무도 볼 수 없으니 슬쩍 말씀드리는 건데, 탑주님은 말 그대로 털털하세요. 많이요. 가끔 날카로운 면도 많이 보이시지만 탑주님과 함께 있다 보면 왠지 모르게 마탑주 보다는 제드리나 언니의 철 든 모습 같아요.

그러고 보니 둘이 닮은 것 같기도 해요. 붉은 머리색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요. 물론 탑주님이 훨씬 멋지시죠.

여기서는 더 이상 혼자일 일이 없어요. 제가 모시는 아가씨도 저를 많이 챙겨주시는 걸요.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맞다, 몇 개월 전에 아가씨가 그곳에 가셨었는데, 그때 제 아가씨 보셨나요? 아가씨께 묻고 싶었지만 그러면 제가 해왔던 것들이 헛수고가 될까 봐 참았어요.

그런데 공자님께선 그곳에서 돌아오신 이후로 내내 무서우신 표정이시던데...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아가씨께서는 잘 지내고 돌아오셨다고 하셨지만 공자님께선 아니신가 봐요.

아가씨께서 그곳에 한 번 더 가셔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던데 혹시 그것 때문일까요?

참, 제드리나 언니도 잘 지내고 있죠? 마지막에 본지 벌써 2년이 넘어가네요. 언니는 절 싫어하지만, 조금은 보고 싶긴 해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의 정 때문일까요. 다시 만나게 된다면 머리채부터 붙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이걸 쓰는 동안에도 너무 뵙고 싶어요, 아버님. 하지만 아버님을 뵈러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아도 아버님을 위해서 참을 수밖에요.

아쉽지만 편지는 여기서 마칠게요. 아가씨께서 부르시네요. 그럼 아버님, 겨울 잘 보내시고 모쪼록 건강하세요.

-당신의 I 올림-

“음? 집사, 이건 누구한테서 온 편지지?”

세리스틴은 누가 보냈는지 모를 편지 봉투를 들고 곁에 있는 집사에게 물었다. 그러자 집사는 그녀에게 급히 사과하며 편지를 건네받았다.

“아, 죄송합니다, 아가씨. 잘못 들어갔네요.”

“괜찮아, 괜찮아. 그나저나 그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데, 누구에게 보내진 거지?”

“공작님께서 지시하신 편지입니다. 자세한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아냐, 집사가 죄송할 필요 없지.”

세리스틴은 자신에게 온 편지를 대충 정리하고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 먼저 갈게. 샤트라님과 약속이 있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뒷일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아가씨.”

회색 머리칼의 집사는 세리스틴이 방을 나서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갈색 편지 봉투를 품속에 잘 갈무리한 뒤, 흩어져 있는 모든 편지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반듯하게 쌓인 편지 봉투들이 은 쟁반에 담겨 집사의 손에 들려나갔다.

“집사님, 오랜만이십니다. 각하를 뵈러 가시는 길이십니까?”

집사가 계단을 올라 2층에 도착했을 때,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한 손에 쟁반을 든 채 몸을 돌린 집사의 눈에 푸른 망토를 두른 중년의 사내가 보였다.

“예, 그렇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단장님. 요새 기사단은 어찌 지낸답니까?”

“저희야 평소같이 훈련 중이죠. 최근에 신입도 들어왔다 해서 단원 모두 기가 세져있더군요. 안 그래도 풋풋한 신입들의 기를 누르려나 봅니다. 본인들이 처음에 당했던 것처럼 말이죠.”

허허허 하며 웃음을 주고받던 두 남자는 가는 길의 방향이 달랐기에, 곧 헤어졌다. 집사는 일정한 걸음을 유지하며 공작의 집무실로 향했다. 낮은 노크 소리에 문 뒤에서 들어오라는 허락이 떨어졌다.

“오, 집사. 무슨 일이지?”

“각하께서 지시하신 대로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흠, 그렇군. 고맙네.”

집사는 품속에 있던 편지봉투를 꺼내 데네아 공작에게 건넸다. 갈색 편지봉투를 잠시 탁자에 올려 둔 공작은 나무에 금을 입혀 장식한 서랍에서 반지 하나를 꺼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의 인연이란 건 참으로 신기해. 그렇지 않나?”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인연은 예상하지 못한 방면으로 나아갈 수 있는 법이죠.”

공작은 반지의 뚜껑을 열어 그 안에 숨겨진 도장을 편지에 찍으며 집사에게 말했다.

“그렇지. 이것 참, 내 오랜 친우가 간만에 좋아하겠는 걸.”

“꽤 오랫동안이나 보지 못한 분 아닙니까. 그리워하는 마음은 그분도, 그리고 그 아이도 클 겁니다.”

공작은 다시 편지를 집사에게 건넸고, 집사는 편지를 도로 품속에 넣었다.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말아야 할 것이야, 그 편지는.”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그리움은 그분에게로 안전하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해야지. 그게 내가 내 친우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

집사는 데네아 공작에게 허리를 꾸벅 숙인 후, 몸을 돌려 방에서 나갔다. 한 소녀의 마음이 부디 무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역시 황궁이다 보니 경비가 삼엄하다. 지크레핀도 그렇지만, 라네아는 보안이 더 철저했다. 그 결과, 난 지금 황궁에 도착해서 몇 십분이 넘도록 황제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구에서부터 시작된 복잡한 절차는 황궁에 들어서도 더 남아있었다.

“이제 가도 좋습니다. 평안한 하루되시길.”

아무리 헤르베디 오라버니가 라네아의 황제와 친분이 있다고 해도 이런 민감한 문제는 봐주지 않는다.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를 시간동안 마차 안에 있던 건 불편했지만, 저 기사들은 자신들의 본분에 충실한 것일 뿐. 어쩔 수 없지.

“그분께서 기다리고 계실까요, 아니면 저희가 또 기다려야 할까요?”

한참을 기다리다 드디어 움직이는 마차 안에서 나는 서류를 들고 있는 오라버니에게 물었고, 오라버니는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내게 말했다.

“만남을 약속한 이가 지각하다니. 그런 예의에 어긋날 일을, 예를 중요시 여기는 황제께서 그러실 리가 있나.”

‘그건 그렇지.’

고개를 끄덕인 내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 라네아 황궁과 지크레핀의 황궁의 디자인을 비교하고 있을 때 오라버니가 뭐라 중얼거렸다.

“... 제발 그랬으면.”

순간 잘못 들었나 싶어 오라버니를 다시 바라봤지만 오라버니는 태연히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내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역시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황제 폐하께선 어떤 분이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엘라스반... 님이 레르칸트 태자 전하와 닮은 점이 많다고들 얘기하지.”

그 말에 나는 라네아의 황제에게 기대했던 마음이 사그라지는 것을 느꼈다. 오라버니의 뒷말이 없었다면 몰려드는 실망감이 나를 덮쳤을 것이다.

“하지만, 라네아의 황제 폐하와 레르칸트 전하는 생각보다 다른 점이 많다.”

“예를 들자면요?”

내 질문에 헤르베디 오라버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왠지 모를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던 오라버니의 입에서 드디어 대답이 나왔다. 성격, 외모, 습관 등을 예상했던 내 추리가 빗맞은 대답이었다.

“지능.”

“... 예?”

“아니다, 그냥 잊어라.”

오래 고민한 뒤 나온 그 답에 내가 되묻자 오라버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조금 황당한 감이 없진 않았지만 확실히 사람마다 지능은 다를 수 있지.

‘그럼 성격 같은 건 비슷하다는 말씀인가...’

결론이 그리 나오자 괜히 기운이 떨어졌다. 그렇지만 아무리 황태자와 닮은 이라도 그렇지, 다른 점이 하나라도 있겠지.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부디 그러길 바라며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얼마나 시간이 더 흘렀을까, 황제가 시간을 지킬 것이라는 헤르베디 오라버니의 예상대로 라네아의 황제는 황제궁의 넓은 응접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생각보다는 다른 분이시네.’

엘라스반 카논 뷔젠테 라네아. 그것이 현 라네아의 황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황태자의 이름이다.

내가 엘라스반 황제를 처음 본 순간 든 생각은 첫 번째로 오라버니와 동갑이라 해도 믿을 정도로 젊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의 외모였다. 막 첫눈에 반했다,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잘생겼다. 정말로. 황태자와 같은 흑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다르게 보였다.

나와 비슷한 청안을 가진 그는 한손엔 서류를, 다른 한손엔 찻잔을 들고 입가로 가져가고 있었다. 전생에 흔히 봤던 흑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 어쩐지 그의 모습이 익숙해보였다.

그런데 이렇게 따지자면 지크레핀의 황태자도 익숙해 보여야할 터인데, 어째서인지 생전 처음 보는 황제가 더 친근하게 느껴졌다.

‘그나저나 저리 젊은 나이에 황제라니... 황후를 간택할 때엔 라네아가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

그가 우리에게로 시선을 돌리자, 오라버니와 나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이며 그에게 말했다.

“라네아의 황제 폐하를 뵙습니다. 데네아 공작가의 헤르베디 데네아입니다.”

“라네아의 황제 폐하를 뵙습니다. 데네아 공작가의 세리스틴 데네아입니다.”

“어서들 오십시오. 오느라 수고했습니다.”

엘라스반 황제는 그렇게 말하며 우리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는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귀족에 불과한 우리에게 존댓말을 사용했다. 그렇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일 상대라 한다면 아니었다.

내가 드레스가 구겨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소파에 앉자, 곧 시녀들이 다가와 미리 세팅해 둔 찻잔에 찻물을 부었다.

“제 하나뿐인 친우의 하나뿐인 여동생이자, 제국의 유일 무일한 공녀이며, 무엇보다 지크레핀 황태자의 약혼녀로 유명하다는 그 영애가, 이 분이셨군요. 라네아에 온 걸 환영합니다, 데네아 공녀.”

“처음 뵙겠습니다, 황제 폐하. 송구하옵니다만, 저와 황태자 전하와의 약혼은 말만 오갔을 뿐, 약혼한 것은 아닙니다.”

“아, 그러했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사과의 뜻으로 미소 짓는 황제를 보며 나는 이상하게도 뭔가 찜찜한 기분을 느꼈다. 제국 내에서도 공식적으로 약혼식을 치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황제가 잘못 알 리가 없다. 먼 나라 얘기도 아니고 같은 제국의 얘긴데 엘라스반 황제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둘 중 하나라는 소리다.

‘황제의 귀에 정보가 잘못 전달되었거나, 황제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내가 볼 땐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률이 높았다. 무려 ‘제국’ 의 황제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적기 때문이다.

‘둘 중 뭐든 간에 내 기분을 망치고 싶었다면 성공했어.’

“흐음... 그래서 라네아에 와본 소감은 어떻습니까? 공녀를 끔찍이도 사랑하는 데네아 공자께서 첫 여행이라고 하던데.”

“폐하, 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엘라스반 황제가 내게 묻는 질문에 오라버니가 조용히, 그리고 묵직하게 반박했다.

“글쎄요, 공자가 안했었습니까?”

힐끗 오라버니를 돌아보니 오라버니의 입가가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이 보였다. 평소의 오라버니답지 않게 화를 참고 계시는 것 같아 보여, 내가 나섰다.

“라네아와 지크레핀은 서로 닮은 점이 많다고들 합니다만, 직접 라네아에 와 보니 생각보다 라네아만의 색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생소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라네아에서 지내는 동안 좋은 추억을 가지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절대 나쁜 의도는 없다는 의미를 담아 그에게 말했다. 내 대답이 끝나고 나를 계속 쳐다보던 황제는 이내 시선을 거두고 웃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그 정도면. 공녀에게 후한 평을 받아서 기분이 좋군요.”

“감사합니다.”

오라버니와 닮았다고 들었는데, 의외의 모습에 내가 다 신기했다. 그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적당한 타이밍이 오자, 나는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혹여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폐하께서 절 이곳으로 친히 초대해주신 까닭을 여쭈어 봐도 괜찮겠습니까?”

“아, 그건 여기 있는 제 오랜 친우 때문이랄까요.”

황제는 손짓으로 오라버니를 가리키며 말했다.

“오라버니께서요?”

“예, 데네아 공자가-”

“도중에 말씀을 끊어서 송구하옵니다만, 폐하.”

엘라스반 황제의 말에 귀 기울이려는 그때, 헤르베디 오라버니가 황제의 말을 자르고 말했다.

“제게 중요한 볼일이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폐하께서도 용무가 많으시니 더 지체하지 않으시는 것이 어떠십니까.”

“하긴 그렇긴 하다만, 약간의 시간은 남아있는데 말입니다, 공자.”

시계를 본 황제가 헤르베디 오라버니에게 말했지만, 오라버니는 개의치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다.

“우연히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엘라티아 황녀 전하께서 제 누이를 많이 뵙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제가 잊고 있었군요. 이거, 엘라티아가 섭섭해 할 것 같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공녀가 보고 싶었으면, 공녀가 오기 며칠 전부터 저를 들들 볶았는지... 공녀는 모르실겁니다.”

“엘라티아 황녀전하라면...”

“제 누이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라네아 황실에는 현재 세 명의 직계 황족이 남아있다고 하셨다. 내 눈앞의 황태자와 황자 한 명, 황녀 한 명.

‘그 황녀가 엘라티아 황녀구나.’

그녀가 나를 몹시 보고 싶어 하는 이유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그녀를 만나보기로 했다.

“시녀장이 직접 안내해 줄 겁니다. 데네아 공자와 얘기가 끝나면 공자가 공녀를 데리러 갈 테니 걱정 마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내게 손을 흔드는 황제와 그를 못마땅해 하는 오라버니를 뒤로 하고 나는 방을 나섰다.

‘엘라스반 황제도 그렇고, 황녀까지... 그녀는 왜 나를 만나보고 싶어 한 거지?’

설마 남아있는 황자까지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하고 추측해보긴 했지만 그럴 리는 없다며 잡생각을 떨쳐내고 시녀장을 따라갔다.

세리스틴이 나간 황제의 응접실 안은 남성 두 명이 만들어내는 무거운 분위기로 가득 찼다. 방에 남아있던 시녀들은 엘라스반이 물려 놓은 상태였다.

“연기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황제 폐하.”

“칭찬 고맙습니다.”

세리스틴에게 싱긋하며 웃어주던 그 표정을 지어보인 엘라스반에게 헤르베디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폐하의 진면모를 그 아이가 보지 못했다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이런 걸 이미지 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데네아 공자.”

“이제 사람도 없으니 말 편히 하시죠. 웬일로 존댓말이십니까.”

“그러지 뭐.”

순식간에 돌변한 그의 태도에 헤르베디는 다시 한 번 울컥하려는 속마음을 꾹꾹 눌러내야 했다.

“후... 평소에는 그러지 않으시더니, 왜 제 누이 앞에서 그러신 겁니까?”

“말했잖아. 이미지 관리.”

방금 전까지 친절하게 미소 짓던 표정은 어디가고, 소름 끼칠 만큼 무표정으로 돌아온 라네아의 황제는 조용히 찻잔을 들었다.

“제 말은, 어째서 폐하께서 세리스틴에게 이미지 관리를 하시냐는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의도십니까.”

“별 의도 없어. 그저 확인해보고 싶었을 뿐이지.”

“만일 제 누이에게 해라도 입히신다면-”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헤르베디의 말을 단칼에 끊어내버린 엘라스반은 뭔가 생각났다는 듯 아, 하더니 헤르베디에게 말했다.

“내 예상대로, 비둘기가 집으로 날아왔더라.”

“폐하의 얼마 남지 않은 즉위식을 보고 가시려는 것 아닙니까.”

“오긴 왔는데, 얘가 좀 이상해.”

엘라스반은 턱을 괴며 말했다.

“얘가 워낙 숨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긴 한데, 이번은 유독 더한 것 같아.”

“폐하의 기분 탓 아니겠습니까.”

“글쎄. 뭐,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황자이자, 내 동생이니까.’

엘라스반은 그렇게 생각하며 찻잔에 남아있던 찻물을 모두 들이켰다.

“엘라티아 황녀님. 데네아 영애를 모셔왔습니다.”

“들여보내.”

시녀장의 말에 방 안에서 높은 미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천천히 열리는 문 앞에서 나는 작게 심호흡하며 긴장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다.

휘황찬란한 방 안에 들어서자 서너 명의 시녀들에게 둘러싸인 소녀가 먼저 눈에 들었다. 그것이 방의 주인답게 드레스마저 화려한 탓이 있다는 점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냥감을 바라보는 듯한 짙은 금안. 철저히 아랫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에 시선이 끌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면으로 마주한 그 눈에는 숨길 수 없는 미숙함도 함께 들어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황녀 전하. 데네아 공작가의 세리스틴 데네아입니다.”

“얘기는 많이 들었어, 데네아 영애. 앉아.”

엘라티아 황녀는 턱을 치켜들고 내게 말했다. 마치 어렸을 적의 나를 보는 것만 같았지만, 나는 군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가까이서 본 엘라티아 황녀는 생각보다 어려 보였다. 곱슬인 머리 뒤에 검은 머리카락에 대조되는 흰 리본을 단 그녀는 나보다 한두 살 아래로 보였다. 조금 귀여워 보이기까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될 대상이지.’

“흐음...”

엘라티아 황녀는 팔짱을 끼고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의아한 듯 바라보는 내 시선을 느꼈음에도 그녀는 나를 그저 탐색하기만 했다.

‘뭐, 뭐지...’

황녀가 입을 연 것은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

“영애는 올해로 나이가 어떻게 되지?”

“올해로 열일곱 됩니다.”

“그래? 흠... 나보다 많네...”

뒷말은 거의 혼자 중얼거리듯이 말하였지만 가까이에 있던 내게는 모두 들렸다. 또 다시 뭔가를 고민하던 엘라티아 황녀는 내게 질문을 하나 던졌다.

“영애는 데네아 공자와 사이가 좋아?”

뜬금없는 질문에 나는 방금 황녀가 뭐라 했는지 기억을 되짚어봐야 했다. 갑자기 내게 이런 걸 묻는 이유가 뭐지?

‘좋은가...’

사실상 나쁘지 않지만 그렇다고 매우 좋다고 할 수 없는 사이라 답을 내놓기가 애매했다. 나야 당연히 사이가 좋았으면 해서 자주 오라버니께 말을 걸지만 오라버니는 주로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편이었다.

‘그래도 전생과 같은 사이는 아니잖아. 그것만으로 크게 발전한 거지.’

스스로에게 되새기며 나는 황녀에게 말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라버니께선 조금 어색해하셔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름 좋은 것 같네요.”

“그렇구나... 공자가 어떻게 어색해하는데?”

황녀는 오라버니에게 관심을 보이며 다시 물었다.

“음... 제가 오라버니께 말을 걸면 오라버니께서 조금 뒤늦게 답하신다거나...”

“또?"

“정말 가끔이지만, 얼굴을 붉히신다거나, 하시죠.”

“정말?”

“네.”

엘라티아 황녀와 얘기를 더 나누는 동안, 그녀의 경계심이 담긴 눈빛이 점차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 뒤로도 황녀의 오라버니에 대한 질문을 끊이질 않았다.

“데네아 공자는 뭐,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있나?”

“오라버니께서는 주로 채식을 하시는 편이세요.”

“좋아하는 색은?”

“남색 같은 중후한 분위기의 푸른 계열 색을 선호하시죠.”

“좋아하는 꽃은?”

“오라버니께선 진한 향기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대체로 향기가 미약한 꽃을 좋아하세요.”

황녀의 질문에 나는 갈수록 기분이 묘해졌다. 내게서 오라버니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얻을수록 엘라티아 황녀의 얼굴을 밝아졌다.

‘이거... 내가 생각하는 그게 맞는 걸까...’

오라버니에게 보내는 관심이 많다보니 내가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지금 황녀의 모습을 보고 그 누구도 모를 리가 없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당사자만 모를 것 같은데.’

오라버니 성격상 이런 데에는 워낙 눈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끊임없이 질문하던 엘라티아 황녀가 나를 놔준 것은 꽤나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다. 진이 거의 빠져가려던 참이었기에 내겐 다행이었다.

“내가 너무 영애에게 질문만 했네. 뭐, 우리 오라버니들에게 궁금한 점 있어? 이건 절대 영애에게 미안해서가 아니라 내가 특별히 선심 쓰는 거니 그렇게 알아둬.”

“예, 전하.”

새침한 듯 내뱉는 그 말에 나는 미소가 절로 나왔다. 쌀쌀하게 말하면서도 고개를 픽 돌린 황녀의 말이 반대로 들리는 건 내 기분 탓일까. 어찌 됐든 간에 황녀가 준 기회를 쓸데없이 버릴 생각은 없다.

‘황제는 이미 만나보았으니...’

“황자 전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궁금합니다.”

나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제 1 황자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다. 황녀는 곰곰이 생각하며 내게 답했다.

“둘째 오라버니? 둘째 오라버니는 뭐랄까... 새 같아.”

“새라뇨?”

“허구한 날 어디론가 슉 떠나버려서 나도 몇 번 보지 못했지. 비록 내가 어리다고 하지만 첫째 오라버니께서 손쉽게 황위에 오르신 게 둘째 오라버니의 덕이 없지 않다는 건 알아.”

그렇게 말하며 황녀는 가볍게 쿠키를 물었다.

하긴 그녀의 말이 맞다. 황자가 황위에 관심 한 조각이라도 보였더라면, 반황제파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에게 득달같이 매달릴 테니. 어찌 보면 황자는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다.

“아, 생각해보니까 오라버니의 큰 특징 하나 더 있다.”

엘라티아 황녀는 방금 생각났다는 듯 박수 한번 치더니 내게 말했다.

“큰 특징이요?”

“응. 둘째 오라버니가 여행을 자주 가시는 것도 있지만, 오라버니는 황궁에 오시면 사람을 피해 다녀. 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마치 자신을 꽁꽁 숨기고 다니신달까...”

황녀는 마땅히 표현할 만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 인상을 조금 찌푸렸다.

“본인은 신비주의라고 박박 우기시긴 하지만 뭐래, 그냥 겁쟁이지.”

어째 내가 만난 황녀들은 왜 이리들 털털하실까. 난 주위의 시녀들을 힐끗 바라봤지만 이미 다들 체념한 표정이었다.

이대로 조금 더 그녀와 얘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황녀에게 누군가가 찾아왔기에 끊길 수밖에 없었다.

“황녀 전하, 황제 폐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폐하께서는 또 왜...”

한숨을 쉬는 황녀에게 시녀는 뒤이어 말을 전했다.

“또한 데네아 공자께서도 찾아오셨습니다만, 들여-”

“자,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해!”

오라버니께서 오셨다는 소식에 엘라티아 황녀는 시녀의 말을 자르고 외쳤다. 보는 내가 무슨 큰일이라도 있나 싶을 정도로, 그녀는 당황하며 분주하게 손을 움직여 옷매무시를 가다듬었다. 곁에 있던 시녀들은 황녀의 머리를 정돈해주었다.

황제가 그녀를 찾아왔다는 소식보다 더 반기다니, 그녀가 오라버니께 품은 마음이 그리 가볍지는 않아 보였다. 뭐, 지금까지는.

“좋은 오후, 엘라티아.”

“엘라티아 황녀 전하를 뵙습니다.”

이내 곧 두 남자가 방안으로 들어왔다. 황녀쪽을 돌아보니 그녀는 많이 긴장한 것 같았다. 아니면 손을 저렇게 꽉 쥐고 맞잡고 있을 리가 없지.

“어서 오세요, 오라버니, 그리고 데네아 공자. 어쩐 일로 숙녀들 간의 티타임에 찾아오신 것인지요?”

“나야 내 사랑스러운 누이의 얼굴을 보러 온 것이고, 내 옆의 분도 비슷한 목적으로 오신 것 같은데 말이지.”

엘라스반 황제는 황녀에게 말했지만, 대답은 오라버니에게서 나왔다.

“전 그저 제 누이와 함께 돌아가려는 것입니다만.”

“그거나 그거 아니겠습니까, 공자.”

웃으며 어깨를 한번 으쓱해 보인 황제는 이어 내게도 말을 건넸다.

“공녀, 엘라티아와의 대화는 즐거우셨습니까.”

“예, 황녀님 덕분에 저도 덩달아 즐거웠네요.”

그저 평범하게 오가는 대화였을 뿐인데, 옆에서 엘라티아 황녀는 황제를 황당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오라버니께서 뭐라 속삭이시는 것으로 차차 바뀌어갔다. 볼이 붉게 변하다가도 어이없는 표정이 되어버린 황녀는 끝내 코웃음 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황제 폐하, 황녀 전하. 저희는 이만 돌아가 보아도 괜찮겠습니까? 아무래도 누이가 첫 여행이다 보니 피로한듯하여서 말이지요.”

“아, 그러는 게 좋겠군요. 그럼 마차를 준비하라 이르지요.”

오라버니의 말에 엘라스반 황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종을 불렀다. 그때, 황녀가 황제에게 물었다.

“오라버니, 저, 저도 따라가면 안 되나요?”

“엘라티아는 여기 남아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데네아 영애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걸요!”

이대로는 포기할 수 없었는지 주위를 빠르게 살피던 황녀는 나를 발견하고 내게 팔짱을 끼며 외쳤다. 그 바람에 놀란 나는 하마터면 다리가 꼬일 뻔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해.”

결국엔 귀갓길에 황녀가 함께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고 말았다. 황녀궁을 벗어나기 전까지라지만, 그 길이 결코 짧지는 않았기에 황녀는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마음에 들었다는 게 한순간의 핑계일지, 아니면 진심일지는 모르겠지만 뭐든 간에 오라버니와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에겐 충분한 것 같았다.

“그런데 로트비안은 공녀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나오지 않은 건가?”

“그런 것 같네요, 오라버니.... 폐하. 간만에 돌아오셨는데, 그 뒤로 궁 밖으로는 단 한발자국도 나오지 않으시니... 뭔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황제와 황녀가 나누는 얘기는 그 곁에 있던 내게도 들려왔다. 로트비안이면, 황자를 말하는 걸까?

“요즘따라 그 버릇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네요.”

“그러게 말이다. 공녀에게도 한 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군요.”

황제는 뒤돌아서 나를 보며 말했다. 황녀도 그를 따라 내게 시선을 옮기는 바람에 나는 동시에 검은 머리의 남녀에게 눈길을 받아야했다.